



제9집

안양시립도서관

독서 정보 자료집

2013~2014



석수 · 평촌 · 만안 · 호계 · 박달 · 비산 · 어린이 · 벌말도서관



제9집

안양시립도서관

독서 정보 자료집

2013~2014



석수 · 평촌 · 만안 · 호계 · 박달 · 비산 · 어린이 · 벌말도서관



목 차

● 발 간 사

- 안양시장 1

●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3

● 독서정보서비스

- 사서들이 만든 힐링도서요약서비스(2013 ~ 2014) 17
- 특별기획(2013 ~ 2014) 283
- 2014년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도서 335
- 2014년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디지털콘텐츠 361
- 2014년 대출베스트 369

발간사



어느덧 찬바람과 성큼 다가온 겨울을 맞이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며 『독서정보자료집(제9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열된 경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부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의 끝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의력’이 쏙트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책에서 얻었다’라고 한 것과 같이 독서는 현대사회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독서 습관을 기르고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많은 시민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에 벌말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8개의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관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권역별로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에서는 2006년부터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은 후 자료를 요약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통한 지식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3~2014년 동안 제공한 독서정보지를 모아 발간하는 『독서정보자료집(제9집)』이 도서 선택의 질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독서를 통해 길러진 인문학적 소양은 이웃 간 교류를 늘리고 사회의 각종 병폐를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도서관과 함께 인문

학적 장점을 키워 나가시길 바라며, 우리시가 ‘고품격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일
안양시장 이필운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여 백

독서정보서비스 운영현황

■ 추진과정

-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한해 약 4만여 종 1억만 부의 도서가 출판되는 등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 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 안양시립도서관(석수·평촌·만안·호계·박달·비산·어린이·벌말)에서는 신속하고 수월하게 도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독서정보서비스를 2005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4월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정보서비스로 발전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음.

■ 추진내용

- 사서들이 직접 만든 「힐링도서요약」 서비스
 - ▶ 사서들이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우수도서를 직접 읽고 A4 1매 분량으로 요약하여 바쁜 시민들에게 소중한 독서정보원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도서대출 베스트」 제공서비스
 - ▶ 안양시 8개 도서관의 도서대출 베스트 순위를 일반도서와 어린이도서로 나누어 1위부터 5위까지 분석, 제공하여 이용자의 대출경향을 알려줌과 동시에 흥미위주의 독서습관을 지양하고 양서에 대한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사서들의 「추천도서 목록」 서비스

- ▶ 사서들이 직접 신간도서 위주의 일반 및 어린이도서를 추천하여 새로운 도서 정보를 알려주어 다량의 출판도서 속에서 신속한 도서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서들의 「추천디지털콘텐츠 목록」 서비스

-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 오디오북, VOD, 웹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추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독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특별기획」 자료서비스

-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나 함께 생각해 볼만한 주제를 발굴하여 관련 배경 지식 및 도서정보를 특별기획 자료로 작성,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식 및 사고 확장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고 있음.

○ 「국회도서관 원문DB」 열람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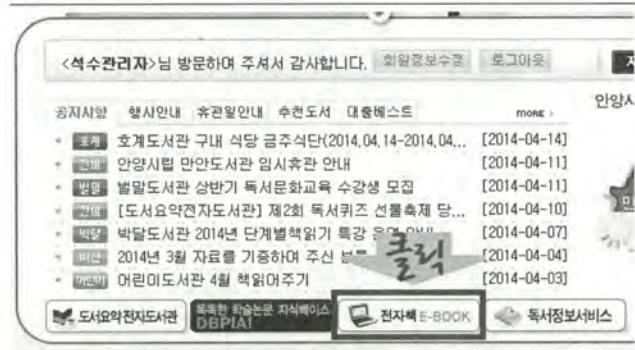
- ▶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의 목록정보 및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회도서관에 직접가지 않아도 원문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 운영장소 : 7개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어린이도서관 제외)
- ▶ 이용시간 : 평일 - 9:00~18:00, 주말 - 9:00~17:00(2시간 단위 이용가능)

○ 「인문학 강의 온라인서비스」

- ▶ 우리나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인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인문학습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 증대 및 인문정신 함양에 기여함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 전자책 「E-Book」 서비스

- ▶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PC 및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면 언제든 전자책(E-Book)을 대출받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임.
- ▶ 이용방법 : 1인 5권, 7일 대출가능(1회 연장 가능)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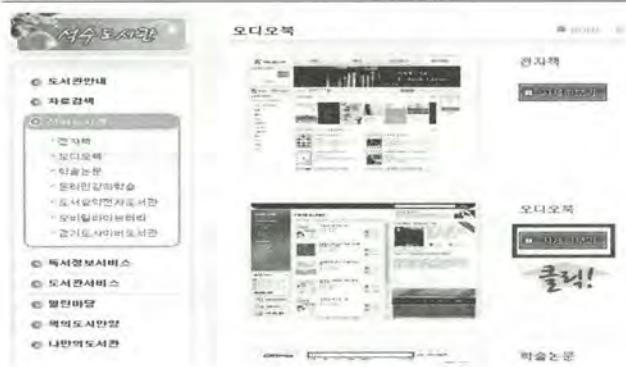
「전자책」 클릭



「전자책」 메인화면

○ 「오디오북」 서비스

- ▶ 여러 분야의 베스트셀러 서적, 강연 등을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읽어주거나 각 색하여 녹음한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로 PC, MP3,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임.
- ▶ 이용방법 : PC, MP3, 모바일기기 등에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오디오북」 클릭



「오디오북」 메인화면

○ 「온라인 강좌학습」 서비스

-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국어, 교양, IT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강좌임.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The left screenshot shows the main homepage with a large banner for 'Online Learning'. A circular arrow icon is overlaid on the banner area. The right screenshot shows a detailed view of the 'Online Learning' section, displaying course categories like 'Introduction to English', 'Introduction to English', 'Introduction to English', and 'Introduction to English'.

「온라인 강좌학습」 클릭

「온라인 강좌학습」 메인화면

○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

- ▶ 신간도서의 전체내용 중 핵심내용을 5% 내외로 간추린 도서요약본을 제공하여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전달하는 한편, 독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양질의 도서 선택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The left screenshot shows a sidebar menu with '기준로그인' and '통합로그인' buttons. Below them is a list of links: '공지사항', '행사안내', '축관일안내', '추천도서', '여관미', '호계', '간체', '한체', '클릭!', '도서요약전자도서관', and '도록한 학술논문 지식베이스 DBPIA!'.

「도서요약전자도서관」 클릭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main page of the e-book summary service. It features several book covers with titles like '100', '어떻게 HOW', '어떻게 HOW', '도록한 학술논문 지식베이스 DBPIA!', '모비아 강연', and '도서 미니'. There are also QR codes and small images of people.

「도서요약전자도서관」 메인화면

○ 「학술논문 DBpia」 서비스

- ▶ 국내 우수 간행물의 창간호에서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서 원문정보의 검색, 전송 및 열람이 가능한 전문 학술정보서비스임.

- ▶ 이용방법 : 안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이용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학술논문 DBpia」 클릭



「학술논문 DBpia」 메인화면

○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 ▶ 이용대상 : 안양시 8개 도서관 대출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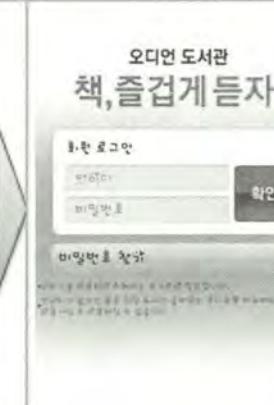
▶ 전자책(e-Book)

1. 어플설치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양시 전자도서관」 어플 다운
※ 최초 1회 PC버전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대출, 열람 후 이용 가능
2. 로그인 : 아이디/이름으로 로그인
3. 도서검색 / 대출 (반납, 예약 가능)

어플 설치	아이디/이름으로 로그인	도서 검색	대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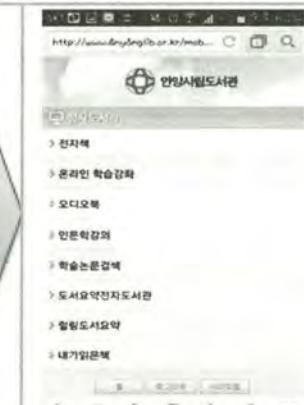
▶ 오디오북(audio-Book)

1. 사용자등록 : 도서관홈페이지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 사용자등록
2. 어플 설치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오디언도서관 어플 다운
3. 도서관 검색 : 안양시립도서관 / 로그인
4. 도서검색/대출 : 바로 감상(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

			
사용자등록	어플 설치	도서관 검색 / 로그인	바로 감상하거나 다운

▶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

1.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웹 [<http://www.anyanglib.or.kr/mobile>] 접속
2.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인문학강의
3. 인문학강의 열람 : 매주 1회 업데이트되는 인문학강의 열람 가능

			
모바일웹 접속	로그인	전자도서관 접속	인문학강의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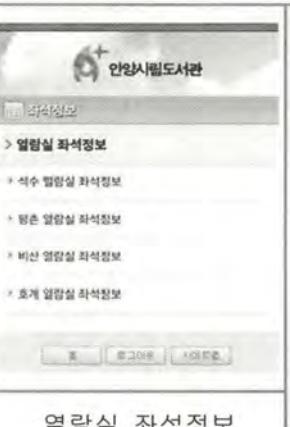
▶ 학술논문서비스

1.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웹 [<http://www.anyanglib.or.kr/mobile>] 접속
2. 로그인 > 전자도서관 > 학술논문
3. 논문검색 / 원문이용 : 원문 PDF 파일 다운, 저장한 원문 열람 가능

			
모바일웹 접속	로그인	전자도서관 접속	학술논문 검색

▶ 석수도서관 모바일서비스

1.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ww.anyanglib.or.kr/mobile>] 입력
2. 도서검색, 도서관안내, 좌석현황, 전자도서관, 문화행사안내, 모바일회원증
(※ 일부 서비스는 안양시 8개 도서관 도서대출회원 이용가능)

			<p>제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회원증 ▶ 자료검색 ▶ 열람실 · 디지털실 좌석현황 ▶ 대출 · 예약정보 ▶ 문화행사안내 ▶ 전자도서관
메인 화면	열람실 좌석정보	My Library	

▶ 도서요약서비스

1. 안양시립도서관 모바일웹 [<http://www.anyanglib.or.kr/mobile>] 접속
2. 로그인 > 전자도서관 > 도서요약전자도서관
3. 도서요약본 검색/열람 : 도서요약본 300편 열람 (매달 30종씩 업데이트)

모바일웹 접속	로그인	전자도서관 접속	도서요약본 검색/열람

■ 독서정보 모임 운영

○ 독서정보평가단 모임

▶ 모임일시

- 월 1회 개최하며 8개 도서관 순회 개최

▶ 회의내용

- 8개 도서관별 독서정보 소모임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달 주제별 목록 서비스 및 특별기획 주제 선정
- 독서정보 서비스 운영 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토의

○ 독서정보소식지 발간 편집위원 모임

- ▶ 월 1회 편집위원들이 참석하여 각 도서관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편집 및 수정
- ▶ 계간으로 발행되는 독서정보소식지의 구성 및 디자인, 내용 편집 회의
- ▶ 독서정보소식지를 도서관 안내 등 시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수록 내용 회의

○ 도서관별 독서정보 소모임

▶ 모임일시

- 매달 1회 개최

▶ 모임내용

- 전월 작성한 도서요약과 주제별 서지목록 발표
- 도서관 각종 외부 행사 참가자의 참가 내용 발표
 - 자료실 업무로 인하여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사 참가자가 행사 내용을 발표하여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 ▶ 평가 및 개선사항 토의
- ▶ 다음 달 독서정보 주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토의
- ▶ 도서관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 도출

■ 추진성과

○ 전국 최초로 사서직이 만든 지식정보 제공

- ▶ 2005년 '책 읽는 행복한 도시 안양' 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사서직이 만든 지식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여 2006~2014년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정보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독서정보원 발굴로 시민이 찾아보고 만족해 하는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2013~2014년 독서정보 자료 발굴 현황

구분	계	도서요약	주 제 별 서지정보	도서대출 베 스 트	이 달 의 추천도서	특별기획
제공건수	1,291권	96권	48주제 240권	480권	460권	11주제 15권

○ 독서정보소식지 및 독서정보자료집 발행 및 배부

▶ 독서정보소식지(계간) 발간

- 매월 독서정보소식 및 각종 도서관 세부사업의 추진사항을 독서정보소식지에 담아 계간으로 발간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은 물론, 인근 학교, 문고,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독서정보자료집(연1회) 발간

- 매년 한 해 동안의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종합자료집을 발간하여 도서관 이용자, 독서동아리 회원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배부하여 독서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정보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함.

■ 향후 계획

○ 독서정보소식지 및 자료집 제작·발행

- ▶ 계간 독서정보소식지(연 4회 발행), 연간 독서정보자료집(연 1회 발행) 등 독서정보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독서정보 데이터 뱅크의 기능을 제공할 계획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독서정보서비스

- ▶ 도서요약 및 추천도서 선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던 바, 향후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서직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독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 독서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요구에 부합하는 독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여 백

사서들이 직접 만든 도서요약 서비스

도서요약 서비스란?

사서들이 직접 만든 「도서요약 서비스」는 안양시립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A4 1매 분량의 도서요약을 작성하여 바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독서정보 제공 및 도서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

독서정보 발굴권수 : 매달 8권, 총96권

여 백

도서요약 서비스 목록

월	도 서 명
2013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말라야 도서관 ■ 시계태엽 오렌지 ■ 회사어로 말하라 ■ 레 미제라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놀이 학교 ■ 모델의 발견 ■ 일본어 천재가 된 충대리
2013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 古典 ■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 (놀명 쉬멍 걸으멍)제주 걷기 여행 ■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광고천재 이제석 ■ 남자는 떠나도 일본어는 남는다 ■ (어린이를 위한) 성취 ■ 탐스 스토리
2013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습관 ■ 맹자 : 백성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마라 ■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다리미를 든 대통령 ■ (청소년을 위한)다산 정약용 산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 잠언 콘서트) 내가 살아온 날들 ■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청렴과 탐욕의 중국사 ■ 부패의 역사 ■ (어린이를 위한) 청백리 이야기
2013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읽다 ■ 신이 준 손가락 ■ 닉 부이치치의 허그 ■ 수화가 꽂피는 마을 ■ 춤추는 훨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 스티비 원더 이야기 ■ 나는 가능성이다 ■ 나의 마음을 들어줘 ■ 나는 아버지입니다
2013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 하워드의 선물 ■ 창가의 토토 ■ 이우학교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아! 들꽃 피는 학교에서 놀자 ■ 북유럽에서 날아온 행복한 교육이야기 ■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학교혁신, 정답입니다
2013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팅! 직관에 귀기울여 활력을 찾는 놀라운 방법! ■ 퇴직 후 인생경영 ■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 은퇴 후 삶을 위한 희망 메시지 ■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의 즐거움 ■ 귀농귀촌 정착에서 성공까지 ■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 ■ 은퇴 후 8만 시간 ■ 은퇴쇼크
2013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한 생각들 ■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 이방인 ■ 닥터 지바고 ■ 낯선 세계로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대왕 ■ 수레바퀴 아래서 ■ 지킬 박사와 하이드 ■ 전원 교향악 ■ 어린왕자
2013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 뛰는 삶 ■ 흔동이 1 ■ 노블레스 ■ 미생 ■ 바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근두근 기분 좋아져라 ■ 26년 ■ 그대를 사랑합니다 ■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 신과 함께
2013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넘어서는 변화의 즐거움 ■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 유쾌한 기억의 심리학 ■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훈련 30 ■ 스마트한 선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정리의 기술 ■ 기억력도 스펙이다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기억력의 비밀 ■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2013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끌어당김 ■ (신화가 된 여자)오프라 윈프리 ■ 끌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 김연아의 7분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 한국 최고의 가게 ■ 밥 하는 여자 ■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 내 기타는 만들지 않는다
2013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한 줄에서 통찰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깊고 푸른 밤 ■ 인연 ■ 몽유도원도 ■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도 ■ 최인호의 인생 ■ 이상한 사람들 ■ 할 ■ 천국에서 온 편지

월**도서명**

2013년 12월	■ 긍정심리학	■ 잘가요 엄마
	■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	■ 악걸리, 넌 누구냐?
	■ 조선을 사로잡은꾼들	■ 퇴계처럼
	■ 왜관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
2014년 1월	■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 책은 도끼다
	■ 에코 크리에이터	■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 두근두근 내 인생	■ 앨저넌에게 꽃을
	■ 아이의 두 얼굴	■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2014년 2월	■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 웃장 심리학
	■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 스마트 에이징	■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 감사	■ 이건 완전 종이 낭비야!
2014년 3월	■ 방황해도 괜찮아	■ 마음놀이
	■ 연금술사	■ 강신주의 감정수업
	■ 심야치유식당	■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 행복한 달인	■ 개를 춤치는 완벽한 방법
2014년 4월	■ 상큼하진 않지만	■ 우리 반 일용이
	■ 뽀이들이 온다	■ 책을 쳐방해드립니다
	■ 시간을 파는 상점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 직녀의 일기장	■ 위저드 베이커리
2014년 5월	■ 천 번을 훈들려야 어른이 된다	■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 365일 매일 읽는 향기로운 시 한편	■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혜원의 시	■ 성진강
	■ 내 입은 불량 입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014년 6월	■ 순간의 꽃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
	■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 강아지똥	■ 제비꽃
	■ 뜨개질 할머니	■ 처음 받은 상장
2014년 7월	■ 꽃들에게 희망을	■ Love you forever
	■ 낙타굼	■ 바보 같은 내 심장
	■ 아우라	■ 아크라 문서
	■ 판텔레온과 특별봉사대	■ 악마와 미스 프랭
2014년 8월	■ 달콤 쌈싸름한 초콜릿	■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 모델의 발명	■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 연애 소설 읽는 노인	■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 끌어당김	■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 (신화가 된 여자)오프라 윈프리	■ 한국 최고의 가게
	■ 끌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 밥 하는 여자
	■ 착한 그림, 선한 화가 박수근	■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 김연아의 7분 드라마	■ 내 기타는 장들지 않는다
	■ 시 한 줄에서 통찰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상도
	■ 깊고 푸른 밤	■ 최인호의 인생
	■ 인연	■ 이상한 사람들
	■ 몽유도원도	■ 할
	■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 천국에서 온 편지

월

도서명

	■ 긍정심리학	■ 잘가요 엄마
2014년 9월	■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	■ 막걸리, 넌 누구나?
	■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 퇴계처럼
	■ 왜관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
	■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 책은 도끼다
	■ 에코 크리에이터	■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2014년 10월	■ 두근두근 내 인생	■ 앨저넌에게 꽃을
	■ 아이의 두 얼굴	■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 옷장 심리학
	■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 스마트 에이징	■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2014년 11월	■ 감사	■ 이건 완전 종이 낭비야!
	■ 방황해도 괜찮아	■ 마음놀이
	■ 연금술사	■ 강신주의 감정수업
	■ 심야치유식당	■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 행복한 달인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 상큼하진 않지만	■ 우리 반 일용이
2014년 12월	■ 뽀이들이 온다	■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 시간을 파는 상점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 직녀의 일기장	■ 위저드 베이커리

히말라야 도서관



존 우드 지음 / 세종서적 / 2008 ▶ 370.13 우27히



석수도서관 장영진

マイクロソフト사에서 촉망받는 직원 존 우드는 회사에서 준 휴가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게 되고, 그 곳에서 우연히 네팔의 교육재정담당관을 만나 히말라야의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게 된다.

학교의 도서관에는 텅텅 비어 있는 책장과 등산객들이 버려두고 간 소설이나 여행가이드만이 보관되어 있다. 그나마 있는 몇 권의 책도 학생들이 훔쳐 갈까봐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상황을 보며 자신이 다시 돌아와 책을 갖다 주겠다고 말한다. 1년 후 자신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까지 힘을 보태 히말라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때, 아이들의 환호와 감동의 눈물이 존 우드의 가슴에도 물밀듯이 밀려온다.

자신의 성공이 바로 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고 어릴 적 카네기가 미국에 설립한 공공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았으며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혜택으로 인해 우드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네팔은 경우가 달랐다. 네팔의 문맹률은 70%로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안일을 돋기 위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기회를 네팔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리고 네팔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마침내 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 본격적으로 네팔의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과 학교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의 구심점이 바로 그가 설립한 NGO 'Room to Read'이다.

'히말라야 도서관'에는 온갖 시행착오 끝에 NGO를 설립하고, 기금 모금을 위해 히말라야 오지, 뉴욕, 런던 등 전국을 누비며 고군분투하는 그의 열정적인 행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Contents

- Chapter 1. 네팔의 선물
- Chapter 2. 세상 끝의 아이들
- Chapter 3. 끝나지 않는 희망

시계태엽 오렌지

앤서니 버지스 지음 / 민음사 / 2005 ▶ 808.9 세14민 112



석수도서관 장영순



『시계태엽 오렌지』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적 윤리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권력의 전제적인 통제를 비판한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일 수 없으며 다만 태엽 달린 오렌지처럼 수동적인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알렉스는 폭력과 쾌락에 젖어있는 소년이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세 친구들 피트, 조지, 딤과 코로바에서 마약음료를 즐기고 절도, 강간, 폭행 등 온갖 비행을 일삼는다. 그러던 중 알렉스는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으로 범죄 현장에서 잡히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알렉스는 교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교도 방식인 루도비코 요법의 실험 대상에 자원한다. 새로운 범죄 교화수술에 자원한 뒤 욕망과 감정을 통제받는 프로그램 안에서 태엽이 감겨야만 움직이는 인형처럼 무기력한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 그들이 행한 치료법은 알렉스가 저질러왔던 범죄들과 비슷한, 혹은 더 잔혹한 영상들을 끊임없이 그에게 보여주는 거였다.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게 해 놓아, 제3의 시선으로 폭력을 접해본 적 없던 그에게 그것은 굉장한 충격과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뇌리에 박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테스트에서 알렉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성을 보이지 않자, 그가 치유되었다고 믿고 루도비코 요법은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알렉스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변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그를 대하고, 그에게 피해 입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고통 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고통과 메스꺼움으로 폭력성을 가둬버린 알렉스는 그들에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고 다시 예전처럼 싸울 수가 없어 결국 알렉스는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아직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와중에 정부는 그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알렉스는 난폭했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후에 철이 들어 나쁜 짓을 그만두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끝을 맺는다.

작가소개

1917년 2월 25일 맨체스터의 가톨릭 가정에서 출생. 맨체스터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함.
1956년 「말레이의 삼부작」 완성, 1962년 대표작 「시계태엽 오렌지」 발표, 1973년 「조이스 소개서」,
1989년 「악마의 방식」 등 발표. 1993년 암으로 생을 마감.

회사어로 말하라

김범준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1 ▶ 325.211 김44*



평촌도서관

김현진

16년차 회사원, 김차장. 영업 실적도 좋고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에 낙관적이었던 그가 자신의 잘못된 언어 습관이 승진의 장애물이 됐다는 임원의 충고를 듣고 '회사에서 사용해야 하는 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수많은 임원진, 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에서 쓰는 말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회사어 개념으로 정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배려이며, 회사에서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당신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클리닉이다.

이 책의 제목은 '회사어로 말하라'지 '회사어로 많이 말하라'가 아니다. 회사에서 쓰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목표에 맞달아 있어야 하며, 필요한 때와 장소에 맞춰 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회사어다.

긍정어 편에서는 "꼭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테니 맡겨주세요" 등 회사의 질문에 일단 긍정으로 답하라고 조언한다. 회사일 중,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 해결책을 말하면서 회사에 희망을 주는 말을 습관화하라고 한다. 유희어 편에서는 "부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피곤해 보이세요. 잠깐 머리 식히고 하시죠?" 등 팀원간의 정서적 교류를 높이고 조직 소통을 원활하게 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유희어로, 점심 시간, 회식 등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흥을 돋우는 말을 해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세심어, 겸손어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한다. 사소해보이지만 인생을 좌우하는 말. 능력, 태도, 마인드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 직장에서 하는 말부터 되돌아보자.

Contents

- | | |
|----------------------------|--------------------------|
| ■ 세심어 : 회사에 사소한 일이란 없다. | ■ 정치어 : 아부는 상대에 대한 배려다 |
| ■ 겸손어 : 상사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라 | ■ 음성어 : 문자나 카톡으로 보고하지 마라 |
| ■ 조심어 : 사상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금물 | ■ 순차어 : 직속 상사를 건너뛰지 마라 |
| ■ 공감어 : 회사의 아픔에 동조하라 | ■ 비전어 : 회사와 미래를 함께하라 |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지음 / 동쪽나라 / 2004 ▶ 808 주198=



평촌도서관 박민리

'장발장'은 빅토르 위고가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다. '장발장'의 원 제목은 '레 미제라블'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같이 장발장은 비참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주인공인 장발장이 가난과 배고픔을 못 이겨 뺑 한 조각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19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장발장은 석방되지만, 19년간의 감옥 생활과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도 이미 차갑게 굳어 버렸다. 그런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님의 친절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그릇을 훔치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만다. 하지만 미리엘 신부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장발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 훗날 장발장이 코제트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엘 신부님에게 받은 사랑을 더 증폭시켜 전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책에는 조연이지만 전혀 조연 같지 않은 두 인물이 있다. 미리엘 신부님은 장발장을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다. 미리엘 신부님의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은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쳐 달아난다.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잡혀온 장발장. 그러나 미리엘 신부님은 도둑질을 한 장발장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은촛대는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는 말을 건넨다. 그분의 큰 사랑 앞에서 장발장은 감화되었고 장발장은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주위 사람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인 코제트는 장발장에게 사랑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안겨 주었다. 오로지 단 한 명의 가족이기 때문에 장발장에게는 코제트가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 코제트가 결혼해야 할 만큼의 나이를 먹어 마리우스라는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좋게 보지만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코제트를 위해서 사회 운동을 벌이다가 죽을 뻔했던 마리우스를 구해 준다. 그런 장발장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작가 소개

빅토르 위고 (Victor Hugo, 1802년 2월 26일 – 1885년 5월 22일)

프랑스의 19세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도 불린다. 소설 레 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는 그의 최고 작품으로 꼽힌다. 시인으로도 유명했던 위고는, 숙고(Les Contemplations)와 세기의 전설(La Légende des siècles)이라는 시도 남겼다.

아빠 놀이 학교



권오진, 권기범 지음 / FOR BOOK / 2008 ▶ 598.4 권650아



박달도서관

조 향 순

이 책은 ‘아빠놀이학교’ 교장인 권오진씨가 두 아이를 키우며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놀이들을 한데 모은 놀이 대사전으로,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들에게 필요한 놀이 지침서다. 아빠와 아들이 공동으로 놀이를 개발하였으며, 딸이 삽화를 그리고, 북 아티스트인 엄마는 표지 제작에 참여하였다.

놀이 방법만 소개하는 다른 책들과 달리 긴 서론에는 ‘좋은 아빠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왜 아빠가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지,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알려준다.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이의 창의성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발표력이 좋아지며,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 인기가 높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즐겁게 적응하며, TV나 PC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 인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의해야 할 놀이의 법칙 5가지, 놀이의 7가지 이론, 보다 즐겁게 놀기 위한 놀이의 정석(규칙)을 실고 있다. 규칙을 살짝 엿보면,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안돼! 라고 하지 않는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 안전을 확보하라’, ‘아이에게는 연기 액션을 연출하라’, ‘놀이 중에는 1초 칭찬을 하라’ 등이다.

본문에는 1700개의 놀이를 주제별로 뽑아내고, 그 주제를 순위별로 소개한다. 각 놀이마다 놀이 방법과 효과, 주의사항, 단점, 놀이시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연관된 놀이를 적계는 4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소개하고 있어 응용하기 쉽도록 하였다는 것과, 나이도 및 연령 표시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놀이를 선택하기 쉽게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는 별다른 재료 없이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아빠의 상황별, 컨디션별 놀이 선택방법과 아이 인성 영향에 따른 놀이선택 방법을 실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해 아이와 놀 시간이 없는 아빠, 너무 피곤한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아내 없이 혼자 하루 종일 놀아줘야 할 때 등 여러 상황에 참고할 수 있다.

Content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비법 ■ 효과적인 놀이를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6개 순위별 놀이방법 ■ 똑똑한 놀이 선택법 |
|--|---|

모렐의 발명

아돌프 비오이 카사레스 지음 / 민음사 / 2007 ▶ 808.9 세14민



박달도서관

김현기



순간과 영원 그리고 환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기묘한 이야기다.

바다 한복판 불가사의한 섬에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로맨스를 그린 이 책은 보르헤스와 함께 중남미 환상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의 대표작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 바다 한복판 '빌링스'라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섬으로 도망친다. 살인적인 기세로 덮치는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명할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되게 보내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섬에 나타난다.

그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다가, 매일 오후면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다. 그녀를 보게 된 그는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녀는,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는 매번 똑같은 대화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가 사랑하는 여인 포스틴은 사람이 아니라 모렐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영상 기계에 찍힌 영상이었다. 영상 기계에 찍힌 사람의 영혼까지도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렐의 말에 남자는 영상 속의 포스틴을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이 그 영상 속에 삽입 되기를 원한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영상을 볼 수 있음에도 그는 자기의 죽음을 앞당기면서 까지 영상에 자신의 모습을 삽입하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을 때 영상 속에서 포스틴과 연인으로 보이도록 만들려 하는 일련의 노력들로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확신 할 수 없는 모호함과 이중성을 통해 독자의 읽는 재미를 더하는 소설이다.

작가 연보

- | | |
|---------------------------|--------------------------|
| ■ 191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 | ■ 1990년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상 수상 |
| ■ 1940년 첫 번째 소설 모렐의 발명 출간 | ■ 1991년 멕시코의 알폰소 레예스상 수상 |
| ■ 1954년 영웅들의 꿈 발표 | ■ 1999년 사망 |

일본어천재가 된 흥대리

이예숙 지음 / 다산라이프 / 2010 ▶ 730.7 0164◦



비산도서관 김지혜

새해가 되면 모두들 자신의 목표를 세운다. 새해 목표는 운동, 여행, 독서, 자격증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아이템 중 하나가 외국어공부라고 생각한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지만 자음 모음의 단원을 넘어가면 그 해의 외국어공부는 끝나버리고 다음해에 또 자음 모음을 보는 악순환의 반복이면서도 매해 계획리스트에 오르는 Must Have 아이템인 것 같다.

자기 계발서이자 어학개론서로도 유명한 '흥대리' 시리즈 중 '일본어천재'편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흥대리가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시작해 일본작가의 통역까지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일본어 공부법 5단계 미션을 통해 일본어천재가 되는 흥대리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는 센스 있게 습득하는 과정은 있어도 빠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부분에 얹매이지 말고 전체의 흐름과 상황을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모르는 단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청취력), 말할 수 있고(회화력), 독해도 가능하다(독해력)는 '암기하지 않고 추리하는 신개념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자하는 배려심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언어를 배우다보면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말하게 되는데 단 한 줄이라도 정확하게 익힌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록 부분에는 일본어 천재가 된 흥대리가 15개월 동안 실천한 공부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새해에 일본어 공부 계획을 세운 사람 모두가 일본어천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상은 높게 현실은 착실하게'라는 작가의 말과 같이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스스로 멋진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며 반드시 그 목표와 꿈을 꼭 이루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

- 1장. 자신감을 찾을 통로가 필요해
- 2장. 히라가나도 모르는 흥대리, 독학을 시작하다.
- 3장. 외우지 않고 추리하는 일본어
- 4장. 목표가 있어야 계속하는 힘이 생긴다.
- 5장. 한국에서 일본문화를 배우는 법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2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 뜻을 이룬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결심을 유지하며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서 목록

-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 김해영 지음
-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 걷기 여행 / 서명숙 지음
-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 이태석 지음
-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 신웅진 지음
-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은지성 지음
- 광고천재 이제석 / 이제석 지음
- 남자는 떠나도 일본어는 남는다 / 조정순 지음
- 탐스 스토리 /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지음
- (어린이를 위한) 성취 / 진서윤 지음

한 때 내가 살았음
으로 인해 단 한명
의 삶이라도 더편
안해지는 것, 그것
이 바로 성공!!

우리도 편안하게
만 지내면서 아
무런 준비를 하
지 않으면 결국
날지못하는 키워
새가 될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부딪혀라, 성공
은 바로 저 다음 골목에서 기다리
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3분 古典



박재희 지음 / 작은씨앗 / 2011 ▶ 199.1 박73▶



만안도서관

유 옥 환

고전에서 길을 찾다.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특히,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도가 철학을 연구한 석천 박재희 교수의 고전이야기다. EBS-TV 손자병법, 고전특강 등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는 이 책을 통해 감동과 소통의 지침을 준다.

‘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한 117개의 고사성어를 각각 ‘역발상의 미학, 마음경영, 변화와 혁신, 역경이 경쟁력이다. 전략으로 승부한다.’ 등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통한 참사람의 모습을 일깨우는 동시에 자아 성찰을 위한 나침반 기능을 제시한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보자. 물은 고정된 모습이 없이 늘 유연하다. 상황에 따라서 한없이 변하지만,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또한,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경손의 철학이 있다. 남과 경쟁하지 않는 부쟁(不爭)의 철학도 있다. 낮은 곳으로 임하며 연못처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은 늘 앞으로 나아가지만 물러남도 분명하다. 흐르다가 길이 막히면 멈추고 잠시 머물다가 물이 차게 되면 다시 흘러간다. 그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해준다. 물은 맑고 탁함을 가리지 않는다. 쓰레기 오물이 가득 찬 물도 받아들이되 냇물을 통해서 강물로, 강물을 통해서 바닷물로 쓸려나가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물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선이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오(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즉,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한 것처럼 결국, 남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고전에서 발췌한 각각의 글들은 스마트하면서도 창조적인 의식 함양과 소통에 도움을 줄 만하다.

Contents

- 제1장 역발상의 미학
- 제3장 변화와 혁신
- 제5장 전략으로 승부한다.

※키워드 : 고전, 마음경영, 고사성어, 소통, 처세

- 제2장 마음경영
- 제4장 역경이 경쟁력이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김해영 지음 / 서울문화사 / 2012 ▶ 199.5 김93청



석수도서관 서성남

134센티미터의 작은 키, 척추 장애를 딛고 세계를 누비며 낙후한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해영, 그녀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이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14살의 어린소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월 3만원에 식모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평생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두려워 직업훈련원에 입학하여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편물 기술을 익힌 그녀는 전국장애인기능대회 금메달은 물론, 1982~85년 4년 동안 열린 세계장애인기능대회에서 모두 입상하여 장애인과 직업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10대의 나이에 직업 기능인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 쪽에 남아있던 배움의 열망을 포기할 수 없어 검정고시로 대입자격을 갖추었으나, 대학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거듭되는 대학입학 실패와 과로가 겹쳐 쓰러져 있던 어느 날, 돈 벌고 성공하고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 하는 현실적인 삶 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편물교사로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떠나게 된다.

1990년 2월 개교한 아프리카 보츠와나 '굿 호프' 직업학교의 편물기술 교사를 시작한 그녀는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으로 '장애인 아닌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또한 굿 호프 직업학교의 폐교 위기를 지역사람들과 협력, 기금모금 등으로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에 이른다.

약 14년간 수백 명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던 그녀는 전문적으로 사회봉사를 해보겠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 불현듯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결국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유학생활을 보내며 컬럼비아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사회복지개발 전문가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일터는 지구촌" 현재에도 저개발 국가의 지역발전을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학취개진(學就開進)의 삶'이라고 말한다. '배움으로써 어려움을 이기고, 배움으로써 꿈을 찾고, 배움으로써 비전을 세우고, 배움으로써 삶을 나눈다.'는 이 말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책을 좋아했던 한 장애소녀의 삶에 녹아 있다. 배움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녀의 삶 속에...

Contents

※키워드 : 국제사회복지사, 사회사업, 청년훈

- 프롤로그 :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희망입니다
- 첫 번째 이야기, 學 독학의 달인, 마침내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성하다
- 두 번째 이야기, 就 부시맨의 고향,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다
- 세 번째 이야기, 開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품고 미국으로 날아가다
- 네 번째 이야기, 進 국제사회복지개발 전문가의 일터, 지구촌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 걷기 여행



서명숙 지음 / 북하우스 / 2008 ▶ 981.102 서346제



석수도서관 김윤하

이 책은 제주올레를 만들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연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도 해풍을 맞으며 자란 저자는 어린시절의 꿈을 이루어 시사주간지 편집장 직책을 맡았지만 15년 기자생활은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후 걷기의 매력에 푹 빠진 저자에게 '산티아고 길'은 꿈의 길이 되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는 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길로 도보 여행자들의 성지로 떠오른 길인 '산티아고 길'을 걷기를 꿈꾸었다.

「오마이뉴스」의 편집장으로 3년을 보내고, 만 50살의 생일을 한 달여 앞둔 저자는 홀로 산티아고 길을 향한 꿈을 이룬다. 길치인 저자는 홀로 산티아고의 800km의 길을 걸으며 많은 일들을 만난다. 알베르게(집단숙소)의 방이 없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방을 잡기도 하고, 비상식량을 챙기지 않아 허기로 허리가 꼬부라질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산티아고 길은 다양한 인연을 만나게도 해준다. 랜턴이 없어 어두운 길이 무서웠을 때는 랜턴이 있어도 야맹증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 힘을 합쳐 길을 찾고, 순례길에 만난 우리나라 사람들과 부침개를 코리안 팬케이크로 널리 알리기도 한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는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여정 막바지에서 만난 영국 여자의 "이 길에서 누린 위안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의 까미노(길)를 만들어라. 나는 나의 까미노를 만들 테니"라는 말에 저자는 꿈을 갖게 된다. 목덜미를 간질이는 해풍을 맞고, 바다와 오름에 번갈아 눈을 맞추며 걸을 수 있는 길을 내 고향 제주도에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저자는 예비 답사를 마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동생, 해병대 장병들 등 여러 귀인들의 도움으로 끊어진 길을 잇고, 사라진 길은 되살리고, 없는 길을 내어 우리나라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게 해준 '제주올레' 7개 코스를 만든다. 현재 '제주올레'는 26개의 코스로 제주도를 걸어서 완주 할 수 있게 완성되었으며 치유의 길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다.

Contents

- Part 1. 길 없는 길을 찾아서
- Part 2. 길치, 걷기에 빠져들다
- Part 3. 산티아고에서 만난 사람들

※키워드 : 제주도, 올레길, 산티아고, 걷기여행

- Part 4. 느릿느릿 걸으면 행복하다
 - Part 5. 낙원....그곳에 사는 사람들
- ※ '제주올레여행'으로 2011년 개정되어 출판됨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이태석 지음 / 생활성서 / 2010 / 235.65 01883친



석수도서관 최윤숙

이 책은 가장 가난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다간 故이태석 신부가 암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8년여 동안 남수단의 ‘تون즈’ 라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면 살았던 이야기이다.

남수단의 ‘تون즈’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쟁의 상처와 총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전기, 전화, 식료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교육이 부재한, 마치 거꾸로 가는 세상인 듯한 그 곳에서 이태석 신부는 ‘그들과 똑같은 편에 선 이웃’으로,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노래와 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신부님이자 친구’였다.

사제서품을 받고 수단에 도착한 이태석 신부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받고 부서진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악기와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 합주곡을 다같이 연주한 날은 이곳 톤즈에서 수십 년간 울려 퍼지던 총성 대신 클라리넷과 플루트 그리고 트럼펫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의미 깊은 날이었다고 한다.

지저분한 환경으로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이 난무한 곳에 병원을 짓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다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교실을 만들었다. 또한 신발을 한번도 신어보지 못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직접 연필로 본을 떠서 신발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없는 것이 없는 한국과 달리 있는 것이 없는 그 곳의 사람들은 콜라와 사탕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자신의 나이도 잘 모른다. 하물며, 임산부들은 자신이 임신 몇 개월인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수수죽 한 그릇에도 행복을 느끼고 콜라 한 병에 즐거워하는 이들을 보며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관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초등학교 시절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한 후 편한 의사의 삶을 버리고 수단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간 故이태석 신부님은,

“내 삶이 독립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삶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고 말한다.

Contents

- 1. 성탄절에 태어난 임마누엘
- 2. 행복 정석
- 3.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키워드 : 사랑, 희생, 봉사

- 4. 무관심은 직무유기
- 5. 함께 아파하고 먼저 안아 주는 것
- 6. 하늘 나라 꾸쥬르!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신웅진 지음 / 명진출판 / 2007 ▶ 199.5 신666바



박달도서관 김지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세계의 청소년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50여 년 전, '외교관'이라는 꿈을 품고 있던 한 소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이 된 과정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외교통상부 담당 기자인 저자는 가까이서 반기문을 만나면서 기자가 아닌 10대들의 형이나 삼촌의 입장에서 그의 일화를 소개한다. 그의 가족,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 그의 가능성을 발견한 전 국무총리의 인터뷰 이외에도 그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 그의 학창시절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소년 반기문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었고,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던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영어를 공부한다.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친구들은 “영어 공부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외교부 근무시절 그의 동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신사’,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소년 반기문이 50년 후에 세계 지도자들의 선출에 의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화와 인간적인 그 만의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최후의 승리는 결국 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을 주기도 하며, 프랑스 대사관 근무 시절 프랑스어 공부와 오스트리아 대사시절 잊은 파티를 위한 왈츠교습 과정은 누군가는 포기하거나 시도하지 않았을 작은 일에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의 열정을 엿 볼 수 있다. 그러한 열정과 계산하지 않은 진심이 곧 그의 인생을 바꾸어주었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꿈과 희망을 되새기게 해준다.

보너스 페이지에서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외교관이 되는 법’과 ‘유엔이란 무엇인가(국제기구에 들어가는 방법)’를 담았고 부록에는 청소년들의 화두인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연설을 영한 대역으로 담아 세심하게 구성하였다.

Contents

- 인생은 꿈을 따라 흐른다
- 공부라는 농을 믿고 마음을 쥐라
- 꿈도 물을 쥐야 자란다
- 겁없이 없이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울 수 없다

- 실력과 인품을 다 갖춘 큰 인물이 되기까지
- 최후의 승리는 결국 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 열정만 있다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 계산하지 않은 진심이 큰 행운을 몰고 온다

※키워드 : 유엔, 희망, 외교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지성 지음 / 황소북스 / 2012 ▶ 199.1 은78-



평촌도서관

양현미



이 책은 사는 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다. 길을 가다 내 길이 아님을 알고 인생 항로를 바꾼 사람도 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도 있다.

영화배우에서 유니세프 대사가 된 오드리 헵번, 세계 오지에 3,000개의 도서관을 지은 존 우드,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나 희망 전도사가 된 닉 부이치치, 전 세계를 울린 마라톤 부자 팀 호이트, 조막손으로 노히트 노련을 기록한 짐 애보트, 평생을 바쳐 천리포수목원을 가꾼 민병갈, 범죄자 신분으로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남긴 오 헨리, 자폐아의 시각을 바꿔 놓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 등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이 생각한대로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희망의 편이 아닌 절망의 편에 서서 자기 확신과 신념을 잃지 않는 한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일생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했다. 살다보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다.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강할 때가 주로 그러하다. 그 반대로 무슨 일을 하던 나락에 빠질 때도 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거나 조급증을 앞세운 정교하지 못한 계획을 세울 때가 그러하다. 그럴 때 일수록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내면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자신을 믿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꿈이 높아질수록 인생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신만의 롤 모델이나 멘토로 삶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며 나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Contents

※키워드 : 자기계발, 인생론, 성공담, 고난, 역경, 꿈

- 1부 모든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시작된다
- 2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3부 미래를 예측하기보단 미래를 만들어라
- 4부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해라
- 5부 실행이 곧 전부다

광고천재 이제석



이제석 지음 / 학고재 / 2010 ▶ 325.7099 0174-7



평촌도서관

최미송

뉴욕에서 2년 동안 전 세계 광고 공모전을 싹쓸이한 광고의 천재, 미국의 세계적인 초대형 광고회사에 들어가고도 ‘내가 원하는 가치 있는 광고를 하고 싶다’며 박차고 나온 사람. 그러나 고국인 한국에서는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도 ‘스펙’이 밀려 어디서도 불러주지 않던 젊은이. 바로 이제석이다.

이제석은 어렸을 때부터 엉뚱함으로 충만한 소년이었다. 머리 좋은 형에 밀려 공부 못하고 태도 나쁜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그는 학창 시절 동안 만화 그리기에 빠져 살았다. 만화는 그의 꿈과 상상, 그에게 금지된 세상을 맘껏 그릴 수 있는 천국과도 같았다. 학교에서 만화를 그리다가 훈풀이 나기 일쑤였지만, 그의 실력을 알아 본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미대에 진학하게 된다. 좋아하는 미술만 일주일 내내 공부하니 신바람이 났다. 그는 대학을 수석 졸업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명예, 낮은 토익 점수 때문에 변변한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고 간판장이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한다.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이모의 도움으로 부대 안에서 공짜 미술 강습을 했다. 미군 장교 부인과 자녀 등과 그림을 그리며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웠다. 그리고 1년 뒤, 이제석은 가방 하나와 500달러만을 달랑 들고 뉴욕에 도착한다. 그는 유명대를 선택하는 대신 광고계의 실력파들이 교수로 포진한 실용미술학교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강도 높은 수업과 작업을 반복하며 광고 근육을 길러간다. 낮에는 교수의 폭언을 동반한 평가를 듣고 밤에는 밤새 작업을 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미친 듯이 광고만 생각했다. 이 결과 2년 만에 유수의 세계 광고제에서 줄줄이 상을 수상한다.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건물 굴뚝을 권총의 총구로 둔갑시킨 환경오염 예방 광고, 전봇대에 길쭉한 사진을 빙 둘러 붙여 총 쏘는 사람의 총구가 결국 그 사람의 뒤통수를 향하게 만든 반전 광고 등이 그런 광고들이다. 이제석은 광고전 수상을 계기로 세계적인 광고회사들을 옮겨 다니며 일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디어보다는 돈과 세일즈로 승부하려 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환상을 불어넣는 상업광고계에 회의를 느끼고는 회사를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광고 연구소를 차린다.

그는 물량공세에만 집중하거나 상품과 관계없이 자극적이기만 한 거품덩어리 광고, 대기업에 예속돼 있는 대형 광고회사들을 경멸한다. 이제석의 꿈은 ‘광고로 흥의인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4대 악질 사회문제 – 집 값, 차 값, 대학등록금, 결혼 비용 – 를 광고로써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심지어 변기 위에서도.

Contents

- 프롤로그
- 01 판을 엎어라 둘을 바꿔라
- 02 다르게 보라 거꾸로 보라

※키워드 : 광고, 창의력, 아이디어

- 03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 04 흥의인간 하리라
- 에필로그

남자는 떠나도 일본어는 남는다



조정순 지음 / 에디션더블유 / 2010 ▶ 818조7419▶



호계도서관 조 윤 숙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꽤 잘 가르치는 일본어 선생이다. 그러나 전공은 일본어가 아니었다. 일본 유학이라곤 고작 3개월짜리 단기코스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일본어로 밥을 먹고, 일본으로 돈을 벌며 살고 있다. 또한 스타강사라는 명예도 생겼다.

일본어는 쉽다. 우리말과 매우 흡사하여 배운 것을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일본어를 할 수 있다. 나의 일본어의 시작은 남자였다. 일본인 남자친구와 4년간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와 일본어에 친숙해진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나의 일본어의 원동력은 사람이었다. 일본인 남편과 눈물나는 이혼의 상처를 통해서 이후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무엇이라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봤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일본어를 가르칠 때 언어는 물론이고 일본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도 함께 끌어 올려줘야 한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는 쉽지 않고 현지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일본인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은 것은 일본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실수들 때문인 것이다. 남에게 폐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 사람이라서 오히려 무조건 좋게 보는 우리만의 장점도 수없이 많다. 먼저 일본 사람을 알아야 일본어가 된다.

어느 것에 정통하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일본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일본에만 정통하면 내가 노는 무대는 스스로 얼마든지 더 넓힐 수 있다. 가까워서 만만하고, 키가 작아서 만만하고, 못생겨서 만만하고, 말도 배우기 쉬워서 만만하다. 내가 더 멋있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본은 만만해진다.

Contents

※키워드 : 일본어, 자기계발, 일본문화

- 나는 왜 일본어 선생이 되었나
- 나는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사람
- 일본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 지금, 일본에서는 - 불황을 극복하는 일본 트렌드 읽기

【어린이를 위한 성취】



진서윤 지음 / 워즈덤하우스 / 2008 ▶ 아 813.6 어298o 14



어린이도서관

배성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즉,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책은 유주라는 한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어내기 위하여 실행해야하는 성취를 위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주는 우주비행사가 꿈인 초등학교 5학년 소녀이다. 그리고 유주는 숙제나 준비물을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는 약간은 게으른 소녀이다. 그런 유주에게 우연히 별자리천문대 카페에서 만나게 된 '스피카'라는 닉네임을 가진 미지의 인물은 자신이 걱정거리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다. 유주가 꼭 가고 싶었던 별자리 캠프에 엄마의 반대로 가지 못하게 된 일을 스피카에게 이야기 한 것을 계기로 유주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스피카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하고 스피카는 그때마다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

유주가 숙제를 미루다가 엄마에게 혼났을 때 스피카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유주가 우주비행사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는 유주에게 있어서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조언 등을 해준다. 스피카의 조언대로 유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실행하기 위해 애쓴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힘차게 해나가기 시작한 유주에게 로빈이라는 친구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주고 자극도 되어준다. 학교에서 각설탕으로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유주는 스스로 만들기에 소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 없어 하지만 로빈은 그런 유주를 독려하며 같이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유주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자신감도 고취되고 로빈과 많이 가까워진 유주는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 로빈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기로 하지만 무리한 체력 소모로 인해 힘들어한다. 로빈은 그런 유주에게 무리한 계획을 수정하라고 조언하지만 유주는 자존심이 상해 로빈과 다투게 된다. 이 때에도 역시 유주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스피카이다. 스피카는 유주에게 자신의 힘에 부치는 무리한 계획보다 자신이 즐겁게 노력할 수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일러준다. 유주는 그 조언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노력에 대한 보상과 즐거움을 추가하면서 성취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 간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유주는 결국 그토록 가고 싶었던 별자리 캠프에도 가족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실제로 만나고 싶었던 '스피카'도 직접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Contents

- 파트 1 우주소녀, 대마왕 잡초와 싸우다
- 파트 2 우주소녀, 우선순위 아이스크림을 맛보다
- 파트 3 우주소녀, 별을 쏘아 올리다

※키워드 : 우선순위, 노력, 자신감

탐스 스토리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지음 / 세종서적 / 2012 ▶ 325.04 Ma68=



비산도서관 이수진

'착한 아이디어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공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저자가 TOMS라는 신발 제조업체를 창업하고,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때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명의 삶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저자가 말하는 '성공'이란 위의 시에서 말하는 의미의 성공이다.

아르헨티나로 휴가 여행을 갔다가 신발이 없어 다치고 병에 걸린 아이들을 본 저자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신발인 '알파르가타'에서 영감을 받아, 신발을 만들어 1개가 팔리면 1개를 기부하는 방식의 사업을 생각해 낸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신발(Shoes for Better Tomorrow)'이라는 문구는 '내일의 신발(Tomorrow's Shoes)'에서 '탐스(TOMS)'로 이 회사의 이름이 되었다.

'사업'과 '기부'라는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병합시켜 훌륭한 성공을 이룬 저자는 신발을 만들어 본 적도,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했다. 주변의 좋은 친구들이 TOMS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조하여,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이루었고, 불과 5년 만에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100만 켤레 이상의 신발을 신겨주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저자와 같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돈도 벌고 개인적인 성취감도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가슴 뛰는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한 책!

Contents

1. 탐스 스토리
2. 당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라
3. 두려움을 직면하라
4. 돈이 없을지라도 수완을 발휘하라

※키워드 : 창업, 기부, 성공, 신발

5. 매사를 단순하게 하라
6. 신뢰 쌓기
7. 기부는 좋은 사업이다
8. 마지막 단계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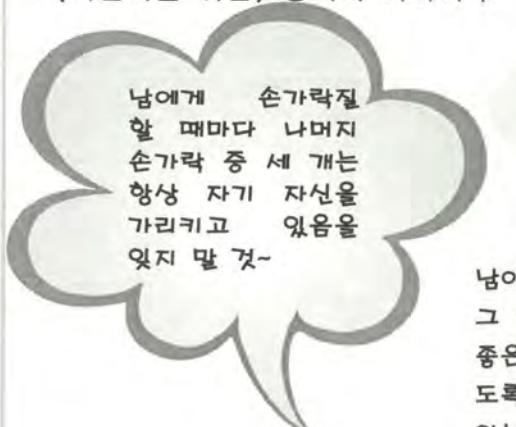
3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청렴, 아름다운 나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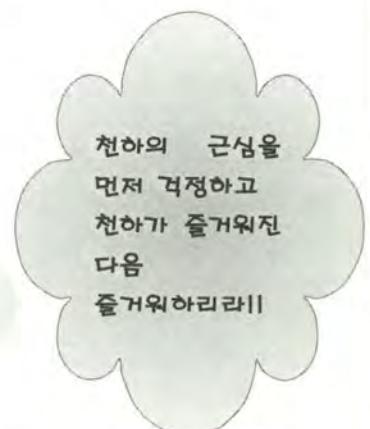
청렴(清廉)이란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정의됩니다. 우리 안양시가 “청렴한 안양”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에 “청렴”이 중요한 덕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인물과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서 목록

- 맹자 : 백성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마라 / 윤재근 지음
- (청소년을 위한) 다산 정약용 산문집 / 혜경진 엮어 옮김
- (다산잠언콘서트) 내가 살아온 날들 / 정약용 지음
-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이성무 지음
- 다리미를 든 대통령 / 김정수 지음
-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서정민 지음
- 청렴과 탐욕의 중국사 / 사식 지음
- 부패의 역사 / 박성수 지음
- (어린이를 위한) 청백리 이야기 / 임영진 지음



책속 힐링 한구절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남이 듣지 못하
도록 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한창욱 지음 / 새론북스 / 2009 ▶ 325.04 한82▶



비산도서관

김미영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 책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시간 관리, 이상 관리, 인맥 관리, 열정 관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네 가지를 주 테마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을 일러준다.

글 하나 하나 그리 길지 않고 읽노라면 마음이 어떤 희망과 용기로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

구절구절이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

꿈을 이루는 일을 두고 결코 쉽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다가서야 하며, 인내와 끈기, 절제와 집중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꼬아 쓰거나 장황하지 않아 읽기 쉽고 단순명료하게 살라는 저자의 말처럼 책 내용 또한 단순명료하다.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매일 밤 그날 일어났던 좋은 일 세 가지를 생각해보기.

자신의 장점 다섯 가지를 찾아낸 뒤, 매일 새롭게 현실 속에서 실천해보기,

일상의 즐거움을 적극 즐기기.....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기!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에서 강조하듯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꾸고
“지금 당장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품어라”고 조언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습관, 변화, 성공

- 1. 시간관리
- 2. 이상관리
- 3. 인맥관리
- 4. 열정관리

맹자 : 백성의 것을 의지로 빼앗지 마라



윤재근 지음 / 나들목 / 2006 ▶ 152.216 윤73맹



석수도서관 허지회

맹자의 사상을 어려운 철학으로 풀어내지 않고 누구나 옆에 두고 언제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담론으로 풀어낸 생활서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선(善)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의 바탕 아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믿고 누구보다 인간의 행복을 그리워한 인간적인 성현 맹자. 고전을 어려운 학문이 아닌 담론으로 풀어낸 이 책을 통해 맹자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다.

양혜왕장구상, 양혜왕장구하, 공손추장구, 등문공장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에는 맹자가 왕의 빈사로서 나누었던 왕과의 대화, 제나라를 떠나면서 제자들과 대화했던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어찌 하필이면 이익(利益)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욕의 밥과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법. 결국 이는 사람을 헛배부르게 하여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세상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맹자는 직언하고 있다.

“윗사람이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윗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빼앗아 얻은 것은 착취하거나 훔친 것이고, 베풀어 얻는 것은 나눔이요, 즐거움이다. 현자의 낙은 그것을 나누어 누리는 것이지 독점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못난 인간들이 주고 받는 뇌물은 낚싯줄에 매인 미끼와 같다.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받고 그렇지 못하면 뿌리쳐야 한다. 이것이 곧 삶을 간명하게 누리면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지혜다. 어찌 군자이면서 재물에 매수당한단 말인가.”

맹자는 지렁이처럼 마른 흙을 먹어 촉촉하게 해주고 흐린 물을 먹어 맑게 해 주어야 청렴한 것이라 말한다. 고고한 학이 되지 말고 더럽고 추한 것을 청소하는 지렁이가 되라. 더러우면 비를 들고 걸레질을 하라 악하다고 힐난할 것이 아니라 선(善)을 가르쳐 선한 인간이 되게 하라. 인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렴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물이 더러우면 맑게 하고 흙이 썩었으면 흙을 살려야 함을 역설한 그의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청렴관은 현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ntents

- 양혜왕장구 상
- 양혜왕장구 하
- 공손추장구
- 등문공장구

※키워드 : 맹자, 청렴, 고전, 철학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지음 / 청아 / 2009 ▶ 911.05 01546조



석수도서관 오세은

이 책은 조선이 50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원만한 통치체제를 구축해 온 이유를 대간, 감찰, 암행어사의 3중장치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감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선조들은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였다.

가장 먼저 왕권과 신권의 균형점에 위치해있던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한다. 조선의 대간은 여론을 무기로 왕에게 잘못이 있다 싶으면 목숨을 걸고 직언했다. 또 고위정치 관료의 비리와 잘못을 거리낌 없이 탄핵했다. 다시 말하면, 왕권과 신권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위권력과 국왕을 견제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막고 부패를 막았던 것이다.

둘째로,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으로써 다른 관청에서 집행하는 수많은 대소 행사(관원의 불법행위, 각종 집회, 각종 제사, 부당 상거래, 과거 시험장)의 감찰을 진행했다. 대부분 오늘 할 일을 오늘 지시 받는 경우였는데 업무의 분담이 결정되면 곧바로 자신이 배정받은 관청으로 떠나 감찰하였다.

셋째로, 국왕이 민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암행어사제도는 변장을 하고, 여비도 지금 받지 않은 채 지정된 군현을 지나다니면서 부정이 발견되면 출도를 외치고 창고를 봉하며 왕에게 보고하였다.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 외에 더 근본적인 취지는 민심 살피기였다. 즉, 암행어사의 활동을 통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왕도를 밝히려는 것으로써 민본정치의 표상이라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을 설명하면서, 사회구조와 조직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는 감사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요청은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여러 제도 외에도 인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이다. 즉, 인본주의 사상,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의예지 사상 등 전통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재발견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Contents

- 1. 대간 이야기
- 2. 감찰 이야기
- 3. 암행어사 이야기
- 4.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키워드 : 대간, 감찰, 암행어사, 감사기관

다리미를 든 대통령



김정수 지음 / 민들레 / 2006 ▶ 340.4 김746다



만안도서관 차소진

‘성수대교붕괴사건’, ‘삼풍백화점붕괴사건’, ‘씨랜드 화재참사’를 기억하는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이 사건들은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정책실장을 거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부패로 인한 피해가 없는, 부패 없는 사회를 희망하며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부패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중세 유럽과 중국을 두루 거쳐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 한국의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전두환 등 한국의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부패의 역사를 다양한 일화와 사건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 속에서 부패를 막고자 노력했던 개혁과 정책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40위 (*2012년 현재 174개국 중 45위)로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며, 청렴도에서 상위권에 있는 핀란드나,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등과 비교하며 선진국들이 부패에 얼마나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청렴도 1위인 핀란드의 사례를 들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가능한 요인을 청렴과 근면성을 강조한 청교도 정신, 완벽한 투명성, 철저한 감시와 시민들의 높은 반부패 의식, 엄격한 법제도와 감시체제의 구축과 적용,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과 솔선수범, 정치주체들의 책임정치, 오랜 자치와 자립경제·강력한 지방정부의 전통, 사회적 평등 등 8가지를 소개하며 우리가 이를 통해 배울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腐敗)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청렴(清廉)의식만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Contents

- 1. 돌아올 수 없는 다리
- 2. 부패는 썩지 않는다
- 3. 부패로 얼룩진 한국의 근현대사

※키워드 : 부패, 청렴, 뇌물, 핀란드

- 4. 역사에서 배운다
- 5.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을 위한] 다산 정약용 산문집



허경진 엮어 옮김 / 서해문집 / 2010 ▶ 814.5 정631다



박달도서관

이 해 등

다산 茶山 정약용 丁若鏞(1762~1836)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학자’ ‘18년 유배’ ‘목민심서’ 등의 말들을 떠올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진 유배 18년 동안 5천 권의 책을 쓴 실학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흘흘신서(欽欽新書)」 등의 책이 떠오르고, 「애절양(哀絕陽)」의 시가 생각날 것이다. 수많은 다산의 작품 중에 이 책은 그의 방대한 지식 세계와 백성과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담긴 60여 편의 산문을 담고 있다.

60여 편의 산문은 글의 성격에 따라 다섯 장으로 나누었다. 1장 ‘대나무 난간 집에 모여 시를 짓다’는 다산이 벗과 교류하며 지내던 시절에 적었던 글을 담았다. 열다섯 명의 벗과 시모임을 만들어 모임날짜 약속을 ‘살구꽃이 처음 피면 한 번 모인다,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인다’ 등으로 정하는 모습에서 다산이 벗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느낄 수 있다. 2장 ‘구슬을 꿰듯 학문하라’는 유배 생활 중 두 아들에게 부친 편지로 자식들에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엄히 꾸짖기도 한다. 벼슬에 나갈 수 없는 폐족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학문에 힘써야함을 당부한다. 3장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회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과 과학기술 관련 글을 담고 있다. ‘힘센 자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려서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임금과 목민관이 된 자를 훌륭한 임금이나 목민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며 현실을 탄식하는 그의 한숨이 느껴진다. 4장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에서는 조룡대 이야기, 죽대 선생, 이몽수 등의 인물과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5장 ‘선비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서는 세상의 바르지 못한 일들을 곧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주장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논한 글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다산이 글을 쓰던 상황이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함께 담고 있어 다산의 학문과 사상 나아가 다산의 마음까지 엿 볼 수 있다.

Contents

- 1장 대나무 난간 집에 모여 시를 짓다
- 2장 구슬을 꿰듯 학문하라
- 3장 더불어 사는 사회
- 4장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 5장 선비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키워드 : 정약용, 다산, 고전, 선비

[다산잠언콘서트] 내가 살아온 날들



정약용 지음 / 신윤학 위음 / 스타북스 / 2012 ▶ 199.8 정63-



평촌도서관

김태영

다산 정약용은 조선 중기의 위대한 실학자로 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약용은 정조가 봉어하고 노론 세력이 득세하면서 역모의 죄명을 쓰고 강진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는 자신의 사상을 집약하는데 힘써 50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많은 양의 저서만큼 그의 사상은 방대하고 쉽게 다가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다산 잠언 콘서트'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정약용이 완성한 방대한 저서와 편지 중 일부를 발췌한 잠언 형식으로, 정약용이 생각한 근본·수신·사회 체계·경제·학문·꿈·사랑은 어떠했는지 7개의 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2부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수신에 관한 내용을, 3, 4부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다산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6, 7부는 가족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시를 통해 다산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각 부 사이에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 저술에 담긴 그의 사상과 목적 등을 배치하여 각 부 어록들에 대한 이해를 돋도록 하였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修身)이 그 반이요, 목민(牧民)이 그 반이다.

- 목민심서 중(中) -

250년 전 유배지에서 바라본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타락한 제도와 부패한 벼슬아치로 백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반상의 구별로 인해 인재를 구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향한 그의 고뇌는 빈부 격차와 학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Contents

- 1부 인간의 도리, 세상의 근본
- 3부 백성이 주인인 사회를 꿈꾸다
- 5부 학문하는 보람, 시 짓는 즐거움
- 7부 가족을 그리며 눈물 짓다

※ 키워드 : 고전, 잠언, 처세, 수신

- 2부 나를 다스려 바로 세우다
- 4부 경제의 합리적인 운용
- 6부 고난을 승화시키다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서정민 지음 / 살림 / 2008 ▶ 911.052 서74t



평촌도서관 이지예

조말생은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으로 조선시대 이조·호조·병조·사헌부·승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을 뿐 아니라 명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는 등 국제적인 면모도 갖추어 태종 이방원과 세종의 총애를 받던 인재였다.

이러한 조말생의 비리사건은 관리의 비위를 감찰하던 사헌부에 의해 포착되었다. 당시 노비소송에 있어 탄탄한 승소율을 자랑하던 김도련을 수사하던 중 조말생이 노비소송을 담당하는 형조와 노비변정도감 담당 관리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도련에게 노비 24명을 증여받은 것이 밝혀졌다. 당시에는 대명률에 따라 고위 관료에게 혐의가 있으면 밀봉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교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조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조말생의 범죄사실을 세종에게 고하자 조말생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세종은 조말생의 직첩을 빼앗고 충청도 회인에 귀양보낸다.

하지만 죄에 비해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가 빗발쳤고 세종은 잘못도 중하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그간의 업적 또한 참작할 만 하다며 반발을 수습하였다. 대간들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비해 상당히 경한 처벌을 받은 조말생은 2년의 귀양 생활 끝에 세종 10년(1428년) 전격적으로 사면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에 대사헌 최부는 사면은 하되 서울 경기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주장하여 세종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회수한 조말생의 직첩을 되돌려 줄 것을 명하여 다시 논쟁이 시작되었다. 직첩이 회복된 지 약 2년 8개월 후인 세종 14년 조말생은 동지중추원사에 제수된다. 당시 중추원은 당상관 중 직무가 없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관청 성격이 강하였으나 이는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조말생은 스스로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세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한 달 뒤 세종은 조말생을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하였다.

관직을 되찾은 조말생은 과거의 잘못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으나 세종은 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조말생을 등용하여 활용한 것은 단지 시대적으로 요긴한 서북면 정벌의 군사 활동과 대명 외교차원 때문이었지 절대로 조말생이 행한 부정부패를 부정하여 개인을 신원하여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세종은 법에 따라 개인에게 죄를 묻되 국익을 위하여 실리주의적인 인사 정책을 관철시킨 것이다.

Contents

- 제1장. 조선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사건
- 제2장. 조선, 부패를 논하다
- 제3장. 조말생의 귀환

※키워드 : 조말생, 조선시대, 뇌물

- 제4장. 법치주의와 실리주의
- 제5장. 무죄 주장, 부패를 부정하다
- 제6장. 비판과 통합, 그리고 역사의 과제

청렴과 탐욕의 중국사



사식 지음 / 돌베개 / 2007 / 912사581정



호계도서관 이혜준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한가에 따라 나라가 변하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공직자들에게 청렴은 시대를 막론하고 갖춰야 할 필수덕목이다. 이 책은 중국의 대표적인 청백리와 탐관오리를 중심으로 중국사를 새롭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역대 중국의 관료 가운데 11인을 선별하여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당대 사회와 백성들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 관료 중 대표적인 청백리로 송경, 풍도, 범중엄, 포청천, 해서, 우성룡, 정판교, 임칙서 총 8명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 풍도는 중국사에서 물염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당시 시대에 신하는 한 군주만을 섬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했고 풍도는 5대 10군을 섬겼기 때문이다. 풍도는 오히려 왕조가 거듭 바뀌는 대혼란 중에서도 지역과 백성을 보전하는데 힘썼고 재상으로서 황제에게 충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포청천은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꼽는다. 그 어떤 일도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했고, 관청의 대문을 활짝 열어두어 백성들이 어느 때나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 있게 한 인정미 넘치는 사람이었다. 임칙서는 청왕조 시대의 관료였다. 청 왕조 관료사회의 부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청백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도 임칙서는 한시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흠차대신의 신분으로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할 때도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적 기개로 아편을 금지시키고 기고만장해하던 영국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와 반대로 탐관오리로 유명했던 이들도 있다. 양기부부, 엄승 부자, 화신이 그들이다. 양기는 아버지 양상의 대장군 자리를 이어 받아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 때 자신과 친한 자들만 기용하고, 재물을 긁어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전국 각지에 부호들의 가정과 재산, 정황 등을 조사해 차례차례 쥐어짰을 정도다. 역대 최고의 탐관오리라고 불리는 화신은 건륭제의 호위무관에서 조그만 일을 계기로 어전시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때부터 권력을 이용해 재물을 긁어모으기 시작한다. 이익과 명예를 동시에 탐냈던 건륭제와 너무나도 잘 맞아 건륭제가 건재할 때까지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건륭제가 죽으면서 화신 또한 더 이상 자리를 보전할 수 없게 된다.

부패와 비리를 그저 내부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실 외부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오히려 안이 썩어 왕조가 무너진 사례는 많다는 것이다. 청백리와 탐관오리의 삶은 너무나도 상반된다. 이들의 삶의 비교를 통해 오늘날의 정치관에 적용해도 될 법하다.

Contents

- 1. 양기부부
- 2. 송경
- 3. 풍도
- 4. 범중엄
- 5. 포청천
- 6. 엄승 부자

※키워드 : 청백리, 탐관오리, 청렴

- 7. 해서
- 8. 우성룡
- 9. 정판교
- 10. 화신
- 11. 임칙서

부패의 역사

박성수 지음 / 모시는사람들 / 2009 > 911.05 박54d



비산도서관 김지혜



이 책은 본래 청백리의 나라였던 한국이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몰락하게 된 과정을 조선사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성균관과 과거제도, 사화와 당쟁, 왜란과 청백리 위인들의 일화 등의 관련 이야기를 통해 몰락해가는 부정부패한 한국사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

'백의민족'이라 불리는 한국은 본디 성품이 깨끗한 나라로 공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칭찬하였다고 이 책에 쓰여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직자와 백성들이 스스로 예의와 염치를 지켰기 때문에 고려 5백 년에 이어 조선 5백 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안정된 정치적 역사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글쓴이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기간 동안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고리대 및 권력남용, 성균관과 과거제도 내에서의 부정행위, 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변질된 사화, 왜란 및 일제침략 속에서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부정부패의 사건들이 깨끗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선조들의 사록편찬과 민중들의 혁명, 청백리 위인들과 독립투사들의 노력이 지금까지의 한국역사를 이어오게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덧붙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부패의 역사를 단순한 과거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라는 나무는 과거라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화, 민주화와 같은 근사한 어휘들에 가려져 있는 부정부패의 역사를 덮어두어서는 안 되며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쳐나가야 후손들에게 깨끗한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글쓴이는 '사지' (四知), 즉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뜻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먼저 본인과 상대방이 알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이 안다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도둑질을 해서 잡혀가는 피의자의 얼굴은 가려주는데 공금을 횡령한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보여주는 염치없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보다 인간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더 이상 제도나 체제의 탓을 하기보다는 속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양심을 불잡아야 하며 결국, 부정부패 사회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은 인간이라고 말하며 책을 맺는다.

Contents

- 1. 깨끗했던 나라, 한국
- 2. 성균관과 과거시험
- 3. 사화와 당쟁, 부패의 고리

※키워드 : 부정부패, 조선, 청백리

- 4. 외침과 무지와 부패
- 5. 망국과 부정부패

[어린이를 위한] 청백리 이야기



임영진 지음 / 어린이들이 / 2007 ▶ 991.1 일 646 청



박달도서관 조향순

평생 한결같았습니다. 탐욕에는 눈을 감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리에는 귀를 막았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 결코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가난. 벗어날 수 없는 징이었지요. 그러나 단 하루도 가난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평생 재물 욕심 없이 맑고(清), 깨끗하게(白) 살다 간 벼슬아치(吏). 청백리(淸白吏)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청렴하게 살다 간 사람들을 존중했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청백리를 뽑아 관리들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래서 ‘청백리’ 하면, 조선 시대에 뽑힌 청백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조선 시대에 청백리에 뽑힌 인물은 200명 안팎에 이른다. 이 책에서는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조선 시대의 청백리들을 중심으로 신라와 고려 때 청렴하게 살다 간 관리들, 22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였으며, 틈틈이 역사적인 배경과 고사성어 등의 비유를 곁들여 재미, 교양, 교훈을 두루 담아냈다.

신라와 고려 때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몇몇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동료들의 부정을 눈감아 주는 대신 죽음을 택했던 신라의 궁정 관리 검군, 두 아들에게 ‘청백 말고 다른 재물은 가문에 전하는 바가 아니다.’ 라며 책 만 권을 전한 고려 승평 부사 최석, 본인은 평생 구멍 난 신발에 해진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려운 나라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던 폐의기사 함유일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을 지냈지만 집은 비가 새고, 방바닥에는 장판 대신 명석을 깔고 지난 황희, 제주에 부임하여 얻은 말채찍까지 두고 온 제주 목사 이약동, 평생 나물과 오이로 반찬을 삼은 조원기, 청렴함을 글로 표현 할 수 없어 백비를 하사받은 박수량, 임금도 그 청빈함에 감탄한 양관 등이 있다.

부록에는 더욱 다양한 청백리들의 삶과 정신을 보여 주기 위해 12인의 인물을 더 소개하였고, ‘청백리는 어떻게 뽑나요?’ , ‘조선 시대 제1호 청백리는 누구?’ , ‘청렴한 동물로 매미를 꼽는 까닭은?’ 등 청백리 Q&A를 통해 청백리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풀어준다.

Contents

※키워드 : 청렴, 청백리, 결백, 황희, 이황

- 검군, 함유일, 유응규, 현덕수, 황희
- 유관, 맹사성, 정갑손, 박팽년, 이약동
- 양관, 조원기, 송총, 박수량, 백인걸, 이황
- 충섬, 김취문, 장필무, 이원익, 유성룡, 유의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4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장애를 넘어 희망으로...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우리주변의 소회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체험적 사례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사회 일원으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도서 목록

- 신이 준 손가락 / 우갑선 지음
- 낙 부이치치의 허그 / 낙 부이치치 지음
- 수화가 꽃피는 마을 / 자닌 테송 지음
- 춤추는 훨체어 / 야엘 아쌍 지음
-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 김수림 지음
- 스티비 원더 이야기 / 마크 리보스키 지음
- 나는 가능성이다 / 패트릭 헨리 휴스 지음
- 나의 마음을 들어줘 / 샤론 M. 드레이퍼 지음
- 나는 아버지입니다 / 딕 호이트·던예거 지음

부딪쳐봐라,
즐겨라,
하면 된다

책속 힐링
한구절

오늘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평범하지
않은 아들을 키우는
'축복'을 받은 지
극히 평범한 아버지
일 뿐이다~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읽다



도미니크 불통 지음, 채종대 옮김 / 살림 / 2011 - 331.5-불885#



평촌도서관 최순애

오늘날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의 승리 이후, 우리는 소통의 제한성을 발견한다. 이러한 비소통의 발견은 소통을 다시 숙고하게 만들고, 21세기 초반의 근본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보고 알며, 차이점은 더 현저히 드러나고, 협상의 여지는 줄어드는 세계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위 정보통신의 혁명은 소통과 문화, 지식 사이의 관계를 관통하고, 현대사회의 관계조건을 새롭게 고찰하는 데 공헌한다. 그러나 소통과 상호작용의 문제를 사회적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오늘날만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실체적 장벽, 즉, 부자와 가난한 자들, 노인과 젊은 사람,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물이해 장벽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소통에서의 기술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 사이의 소통을 발전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의 세상에 몰입된 사람들이 상호 이해의 측면에서 50년 전보다 소통을 더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 발전된 기술이 더 좋은 소통을 만들어 내리라는 희망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아마도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블랙베리는 손가락 몇 개로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 소통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소통 없이 삶은 존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산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누거나, 유혹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소통한다. 그러나 우리는 곧 타자를 통해 비소통이라는 장애물을 만난다. 이 난관을 극복할 때 우리는 공존을 이룰 수 있다.

- 도미니크 불통 - 우리가 자신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타인과 더 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소통의 필요조건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 충분히 겸손하고 강하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위대한 운명들과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ntents

- 제1장 성공을 위한 기본조건
- 제2장 성공을 위한 실전법칙
- 제3장 성공을 향한 선택

※키워드 : 소통, 불통, 공존

- 제4장 성공으로의 안내
- 제5장 성공을 위한 충고
- 부록 남자/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열 가지 방법

신이 준 손가락



우갑선 지음 / 미래인 / 2008 ▶ 818 우124신



석수도서관 김민자

이 책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과정을 극복해내고 피아니스트로 세계를 누비는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딸과 엄마의 이야기이다.

저자인 엄마 우갑선씨는 사고로 하반신 불구의 중증 장애인이 된 남편을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딸 이희아를 만나게 된다. 희아는 팔다리뼈의 결손으로 단축을 보이는 선천성 기형인 해표상지증으로 태어난다. 양손에는 손가락이 2개씩, 다리는 거의 없는 희아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아빠는 희아를 포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희아는 보이는 그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딸이었고 보물 같은 존재였고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례한 시선, 무신경한 표현 등을 극복해가면서, 네 손가락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희망을 전하는 희아의 모습과 그런 희아를 뒤에서 앞에서 격려하는 엄마의 모습을 이 책은 전하고 있다.

저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내면의 능력을 일깨워 주라고’ 말하고 있다. 희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능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엄마의 노력과 함께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피아노를 사랑하는 딸의 이중주가 신체적으로 정상이지만 정신적으로 장애를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고, 미소 짓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 모두에게 삶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는 책이다.

Contents

- 1. 내겐 선물 같은 희아
- 2. 쉽지 않았던 결혼
- 3. 힘겨운 선택

※키워드 : 손가락, 장애, 피아노

- 4. 피아노와의 운명적 만남
- 5.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의 탄생
- 6. 역경을 딛고
- 7. 엄마와 희아의 희망 이중주

닉 부이치치의 허그



닉 부이치치 지음 / 최종훈 역 / 두란노 / 2010 ▶ 234.8 부68나



석수도서관

박지현

이 책은 팔과 다리가 없는 희망 전도사로 잘 알려진 닉 부이치치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은 행복의 비밀을 전하는 책이다.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도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 내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수많은 이들과 트위터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을 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커다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지금 세상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닉,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는 이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그 자신에게도 한 없이 절망했던 때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답한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 때문에 ‘괴물’이나 ‘외계인’ 같다는 놀림을 받고 몇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그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다. 그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마침내 절망 가운데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찾는다. 그 후 그는 달라졌다.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그는 숨이 막히도록 멋진 삶을 맛보고 싶었고, 자신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도전한다.

양팔이 없는 그에게 ‘허그’는 역설적인 제목이다. 하지만 그가 허그(품고)하고 있는 비전과 열정과 희망의 세계를 본다면, 팔 다리가 없는 것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데 결코 한계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겪은 아픔과 절망의 나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행복을 누리고 전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의 씨름을 치르느라 버거운 이들에게 감동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Contents

- 1부 절망이 희망이 되는 삶
- 3부 실패가 기회가 되는 삶

※ 키워드 : 닉부이치치, 기독교, 전도사, 희망

- 2부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삶
- 4부 한계가 비전이 되는 삶

수화가 꽂피는 마을



자닌 태송 지음 / 한울림스페셜 / 2010 ▶ 863 테556▶



만안도서관

김종혁

미국 남동부에 있는 마셔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수화’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한다고 한다. 모두가 수화를 사용하는 이 특별한 마을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귀가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특별한 마을’이 있다. 차이와 편견을 넘어 ‘따뜻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수화가 꽂피는 마을’이다.

이 책은 청각장애인 푸르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차이와 편견을 넘어 ‘수화’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또한 한 마을에 숨겨진 비극적인 역사를 19세기 청각장애인 청년 장의 편지를 통해 보여주면서, 푸르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화합이 갖는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청각장애인들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이 마을의 이야기는 ‘장애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 책의 구성은 ‘21세기 폴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9세기 청각장애인 청년 장의 편지’ 2가지의 내용이 교차하며 이루어진다.

첫 번째 ‘폴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청각장애인 푸르네 부부의 아들 앙투안과 폴루 할아버지 사이에 쌓아가는 아름다운 우정과, 편견에 가득 찼던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폴루 할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이처럼 천진하면서도 노인의 지혜와 유머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려준다.

두 번째 ‘장의 편지’는 사회적 편견과 물이해로 일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청각장애인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편지는 ‘폴루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을의 오래된 떡갈나무가 왜 ‘목매달아 죽은 귀머거리의 나무’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임을 암시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더해준다.

Contents

- 이야기 하나 – 폴루 할아버지의 이야기
- 이야기 둘 – 장의 편지

※ 키워드 : 수화, 장애, 청각장애인

춤추는 휠체어



야엘 아쌍 지음 / 한울림스페셜 / 2008 ▶ 863 아526줄



박달도서관 김성아

승마 챔피언이 되고 싶었던 열네 살 소녀 루이즈는 치명적인 낙마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한다. 사고를 당한지 일년이 지났지만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 채 방안에서만 지내는 소녀.

“나는 방해받고 싶지 않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절망스런 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던 어느 날,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호기심이 생기면서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와 담 너머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할아버지와 손자, 그들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사고를 당한 것인지 거리낌 없이 물어본다. 오히려 그런 반응이 편안한 루이즈.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글을 쓰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냄으로써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전의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차츰 돌아간다.

이 책은 사춘기시절 관심 있는 소재로 구성하였으며, 사춘기 소녀의 솔직한 감정을 쓴 일기를 보는 듯하게 엮어져 있다. 이성친구 레오를 만나면서, 나를 늘 돌보는 보모 없이 스스로 하나씩 생활해가면서 루이즈는 이제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소녀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교통사고로 20년 넘는 여행전문가의 경력에 마침표를 찍고 고통과 실의에 빠져 살았던 작가의 경험이 오롯이 묻어나는 책이다.

Contents

- 목소리
- 비밀의 정원
- 끝이 좋으면 다 좋지
- 맑은 날
- 레오

- 베네딕트, 일을 그만두다
- 내 이름은 남남
- 나디아의 선물
- 이리나 까간
- 옆집

※키워드 : 장애, 휠체어, 희망, 청소년

- 사모바르
- 카르페 디엠
- 세 채의 집에 관한 사연
- 사랑 이야기
- 어떤 사람들의 불행은
- 결코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에요
- 잊을 수 없는 하루
- 에필로그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김수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 ▶ 818-김56▲



평촌도서관 이 병 희

이 책은 어린시절 부모에게 2번이나 버림받고 설상가상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능숙한 4개 국어 실력으로 도쿄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림의 이야기다. 오른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 왼쪽 귀는 보청기를 끼고 자동차 경적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실력을 인정받고 그녀만의 행복을 쟁취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4살 때 먼 시골 친척집에 버려졌고, 6살 때 청력을 잃었다. 12살 때 다시 만난 엄마를 따라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 가 지바 현에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다. 1991년 일반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후, 어느 날 자신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단신으로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알파벳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던 그녀지만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 단기대학을 졸업하고 오지제지에 입사한다. 그러나 4년 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시기를 겪는다. 이후 3년 동안 30개국을 방랑하고 돌아와, 세계적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를 거쳐 현재 크레디트스위스에서 법무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행복해지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대화’, ‘상상력’, ‘다정함’을 말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 필요한 것 등을 파악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후 다정하게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그럼으로써 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든 현대사회에서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일본에서 김수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면서 큰 화제를 낳았고,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에 감동과 희망을 얻었다. 현재 그녀는 성실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tents

- 1장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 2장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 3장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란 없다

※키워드 : 대화, 상상력, 다정함

- 4장 내 인생을 만드는 건 바로 나 자신
- 5장 세계 최고의 무대 위를 달리다

스티비 원더 이야기

마크 리보스키 지음 / 명진출판 / 2011 ▶ 670.99 리45▲



평촌도서관 김현진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성공은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체념하거나 현실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이들이 많다. 어른들은 모두 할 일이 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꿈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을 결정함에 있어 롤모델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비 원더 이야기」는 장애와 인종, 가난이라는 악조건을 재능과 노력으로 뛰어넘은 유니션의 성장기 이야기로 인간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연예, 음악, 스포츠 등 대중문화와 관련된 전문 인터뷰어 겸 칼럼니스트로 스티비원더의 성장기와 어머니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다. 8개월만에 1.8키로그램의 몸 무게로 태어난 스티브는 인큐베이터 때문에 살았지만 그 안에서의 산소과다로 시력을 잃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되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가난 등 불우한 환경에서도 어머니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량배와 어울려 놀고 길거리 언어를 입에 담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엄하게 지도했고 스티브가 인기를 얻어도 어긋나지 않게 바로잡는 엄마의 노력이 끈질기게 보인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지,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될 순 없어!' 스티브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로 아파하기보다는 보지 못함으로써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위안하기도 했다. 뛰어난 청력과 음감으로 어려서부터 피아노, 봉고, 기타, 드럼을 능숙하게 연주하며 음악에 빠져들었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새겨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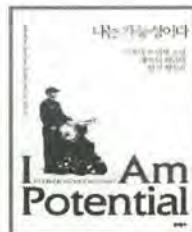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 을 부르면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 결과 세계 인권 명예의 전당에 가수로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2009년엔 유엔평화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다. 스티브 원더는 1950년에 태어나 열한 살 때 소년가수로 데뷔하여 50년 이상의 음악활동을 해온 미국 대중음악사에 살아있는 전설로,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인간승리자로 희망과 메시지를 안겨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롤모델, 장애, 인종, 음악

- 본명 : 스티블랜드 저드킨스
- 주요작품 : Uptight (1966),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1973),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1984)

나는 가능성이다



패트릭 헨리 휴스 지음 / 문학동네 / 2010 ▶ 990.95 휴57s



비산도서관

양민월

이 책은 기적의 트럼펫 소년으로 잘 알려진 패트릭 헨리 휴스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언제나 그의 뒤에서 훌체어를 밀어주며 동행해 온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듯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패트릭 헨리는 태어난 다음날 소아과 의사로부터 단신 이형성증과 사지 불균형 왜소증, 양안 무안구증의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 첫 아이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많았던 부모는 믿을 수 없는 운명에 괴로워 하지만 곧 아들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패트릭은 어릴 때 의안 이식과 척추 수술 등 신체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큰 수술을 여섯 번이나 받지만 자신의 의지와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남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다.

생후 9개월 무렵, 처음 피아노를 만진 패트릭은 채 두 살이 되기 전에 멜로디에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팔로 인해 제대로 된 테크닉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연주방식이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들의 지도로 즐겁게 피아노를 배우며 실력을 키워간다. 패트릭은 무대에 올라 음악을 연주하는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장애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피아노는 그에게 열정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패트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마칭밴드에서 트럼펫 연주단원으로 활동한다. 고등학교 때는 혹독한 행진 연습에서 면제해줘 다른 단원들보다는 수월하게 생활하지만, 대학교의 밴드 지휘자는 패트릭의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훈련에 동참할 것을 원하고, 결국 아버지가 훌체어를 밀며 고된 행진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한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패트릭은 2006년 마칭밴드 단원으로 ‘디즈니 세계 스포츠 정신상’을 수상한다.

현재 패트릭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며 아버지와 함께 마칭밴드의 단원으로 풋볼 필드를 달리고 전국을 돌며 공연을 하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텔레비전 게임쇼의 진행자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레몬, 피아노, 마칭밴드, 가족

- 제1장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더라도 받아들고 감사하라.
- 제2장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제3장 목숨이 걸린 것처럼 열정을 죽으라.

나의 마음을 들어줘



샤론 M. 드레이퍼 지음 / 개암나무 / 2012 ▶ 아 808.9 문92-36



어린이도서관 배소영

초등학교 5학년 멜로디는 수천 개, 아니 수백만 단어에 둘러 싸여 있다. 맛이나 색깔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장애인이다. 양쪽 뇌가 경직되어서 사지가 마비되는 병, 즉 뇌성마비에 걸린 멜라니는 겉으로 봤을 때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나 실제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마치 사진 찍듯 기억하는 천재소녀다.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멜라니의 부모님과 이웃집의 바이올렛 아주머니는 멜라니가 똑똑한 것을 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도 보내고 훨체어에 대화창을 만들어주어 엄지손가락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멜라니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외모를 우선 보는 주변 사람들은 멜라니를 불편해한다.

그러다 의료기기인 메디토커를 가지게 됨으로써 멜라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메디토커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사용도록 고안된 기기로, 필요한 단어를 입력해두면 간단한 작업만으로 기기에 부착된 스피커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와 연결하여 프린트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수 있는 보조기기이다.

뇌에 문제가 있어 몸을 움직이는 데에는 제약이 있으나 생각만은 자유롭게 가능해서 더 삶이 힘들었던 멜라니는 드디어 그녀의 천재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혼자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멜라니는 메디토커의 도움으로 전국대회까지 하는 초등생들의 퀴즈쇼에 학교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예선에서 우승하여 신문에까지 실린 멜라니를 질시한 학교 퀴즈팀의 외면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대회는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동생의 사고를 자신의 장애로 인해 막지 못한 멜라니는 자책을 하게 되나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다.

저자

※키워드 : 장애, 극복, 소통

■ 샤론 M. 드레이퍼 :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25년동안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며, 유명한 연설가이자 작가이다. 이 책은 뇌성마비를 가진 딸 웬디를 생각하며 글을 썼다고 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딕 호이트·던예거 지음 / 황금불고기 / 2010 ▶ 848 호68나



호계도서관

김 은 아

“아이를 포기하세요.”

기다리던 첫 아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은 뇌성마비이며 경련성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평생 사지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절망했다. 그러나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에게 어떤 꿈쩍한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었다. 보통 아이처럼 키우고 사랑할 자신이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상적인 아이처럼 대했다. 이웃들에게 아들에 대해 자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들과 함께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뇌에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학교 수업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터프츠 대학과 협력하여 쌍방향 의사소통용 기계를 만들었고, 장애아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했다. 열두 살 되던 해,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빠, 전 아빠와 달리고 싶어요.”

1977년 10월 22일 토요일, 지미 바나코스 자선 달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달리기 시작했다. 훨체어를 밀면서 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주를 해내었다. 아들은 말했다.

“아빠, 달리고 있을 때 저는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달리기로 결심했다. 달리기에 더 나은 훨체어를 개발했고, 꾸준히 달리는 연습을 했으며, 참가를 거부하는 대회관계자를 설득해 나갔다. 그렇게 그들은 ‘팀(Team) 호이트’의 이름으로 마라톤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아들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수영을 해본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해내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총 64회의 마라톤과 6회의 세계 철인 3종 경기, 206회의 단축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다. 때로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혼자 달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난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달리게 하는 것은 혼자만의 열정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의 열정이었다. 그들은 어떤 일에 마음을 쏟으면 누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란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Yes, You can!’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Contents

- 릭의 탄생, 그리고 운명
- 우리는 가족이다
- 마침내 아들과 함께 달리다

※키워드 : 아버지, 뇌성마비, 부성애, 팀호이트

- 아이언맨, 팀 호이트
- 예스 유 캔(Yes, you can)
-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버지

Healing 도서요약...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5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내 인생 최고의 학교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교실 안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변화와 참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과 학교(대안학교, 혁신학교 등)
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과의 소통방법과 학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사례가 담긴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서목록

- 우리학교가 달라졌어요
- 하워드의 선물
- 창가의 토토
- 이우학교 이야기
-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 애들아! 들꽃 피는 학교에서 놀자
- 북유럽에서 날아온 행복한 교육이야기
-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학교혁신, 정답입니다.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만,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기를 멈춘
다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워드의 선물>

성적표의 점수가 어떻든
교육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
하는 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은 여럿이 같이 뛰는
마라톤입니다.

<북유럽에서 날아온 행복한
교육이야기>

경쟁은 경쟁을 낳고 결국
유치원생들까지 경쟁의 소용돌
이 속에 말려들게 만들 것이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다.

<학교혁신, 정답입니다.>

호모 크리에이티브



오홍식 지음 / K-books / 2011 ▶ 181.53 오956호



석수도서관 주 봉 수

최근의 업무환경을 보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높은 도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한 도전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즉, 문제 풀이를 통한 어려움의 극복이 창의성 개발에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에선 창의적 인간, 즉 호모크리에이티브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남들과 다르게 보면서 색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다르게 보아 남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낸 사람한테 ‘창의적이다’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르게 본다.’는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기존의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맞닥드리게 될 때 우선 거부감을 갖게 된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사람을 배타시키고, 심하면 새로운 것을 제시한 사람을 기이하게 보기도 한다. 창의적 인간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해답이 여기에 있다.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사고력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이때 크기, 시간,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지식과 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독서나 간접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력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이 책은 천재들의 다차원적 사고방식, 자원 활용에 뛰어난 천재들의 공통점, 그리고 모든 발명의 공통점은 벤치마킹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각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퀴즈로 수록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날이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고, 모든 학교마다 창의성교육,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익숙하지만 낯선 창의적 인간(homocreative)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부르는 대명사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한다.

발명원리

※키워드 : 창조, 창의성, 문제해결, TRIZ

- 1. 분할(잘게 뜯개기. Segmentation)
- 2. 추출(뽑아내고 분리하기. Extraction)
- 3. 국부적 품질(부분별로 다르게 하기. Local Quality)
- 4. 통합(결합하거나 합치기. Merging)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후지하라 가즈히로 지음 / 부키 / 2010 ▶ 370.4 후78우



석수도서관

서성남

이 책은 2003년 4월 도쿄도 최초 민간인 출신 교장으로 와다 중학교에 취임한 후지하라 교장의 '사립학교를 뛰어넘는 공립학교 만들기'를 위해 고군분투한 1년 6개월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교장 취임식에서 그는 "학생, 선생님, 부모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약 300명의 관계자가 힘을 합쳐 1년에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간다면, 3년 동안 약 1,000가지를 개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교장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언제든지 질문하고, 책도 빌려주고, 고장난 컴퓨터도 같이 고쳐보고, 스포츠 동아리에서 땀 흘리며 같이 운동하는 등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거리를 좁히고 눈높이를 맞추는 일을 했다.

또한 통상적인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와 기술로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업 '세상'을 개설하여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주제에 맞는 다채로운 손님을 초빙하여 학교 안에 갖힌 지식이 아닌 세상과 연결되는 산지식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사회의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해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토요글방 설립과 운영, 학교녹화사업과 교정관리, 동아리활동의 지도자 찾기 등 100여명이 넘는 지역의 서포터와 함께 학교 경영을 뒷받침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년 학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수학여행과 체육대회, 급식, 교복, 학교도서관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밀바탕에서 다시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 변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창의성에 도전했다.

와다 중학교의 개선 노력은 불과 반년 만에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년보다 입학희망자가 늘어나면서 희망자 개선도에서 67개 지역 초중등학교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그 결과 2003년 169명이던 전교생은 380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취임 1년 뒤인 2004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고사에서 와다 중학교는 스기나미 구 5위 안에 들었고, 2008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

와다 중학교가 공교육 혁신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던지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지역이 함께 해답을 찾아 행동했다는 점으로, 우리나라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Contents

- 프롤로그: 학부모의 마음으로 바꾼 공립학교 이야기
- 1. 학생과 거리를 좁히다
- 2. 학교 교육을 다시 생각하다
- 3. 좋은 학교의 조건을 갖추다

키워드 : 공교육 혁신, 와다 중학교, 학교교육

- 4. 세상과 학교를 잇는 수업을 만들다
- 5. 교육을 떠받치는 지역의 힘을 되찾다
- 6. 세상에서 하나뿐인 학교를 만들다

하워드의 선물



에릭 시노웨이 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3 ▶ 325.211시195하



호계도서관

조 윤 숙

하버드 대학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기업가 정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워드 스티븐슨은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를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겼던 애 제자 에릭은 기적적으로 깨어난 하워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요청하게 된다. 이 책은 그렇게 수년 동안 스승 하워드와 그의 제자 에릭이 병실과 서재, 하버드 캠퍼스, 칠스강변, 노천카페 등에서 둘이서 함께 나눈 대화를 기초로 하여 쓰였다.

하워드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던 그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지칭하고 이 전환점을 통해 ‘지금 이대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강조한다. 또한, 삶이란 복잡하고 늘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경영계획은 꾸준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 기조로 잡고 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전환점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라고 조언한다.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 전환점이야말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은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 때인가?’ 그리고 자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하워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전환점을 인지할 것이지,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것인지, 용기를 선택할 것인지, 삶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 선택의 본질적 가치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등 자신의 삶과 경험, 생각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신에게 새롭게 부여된 생명이라는 선물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자기계발, 멘토

- 프롤로그 :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 1.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 2.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 3. 인생은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 4. 되고 싶은 나’를 향한 삶의 균형 잡기
- 5. 당신을 노리고 있는 달콤한 착각들
- 6. 당신에게 맞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려라
- 7. 그대는 그대의 삶, 그대로를 살아라
- 8. 당신 인생에 투자할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 메필로그 : 인생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라

창가의 토토



구로나야기 데츠코 지음 / 프로메테우스 / 2005 ▶ 833.6 구295창



박달도서관

김지은

문제아로 찍혀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토토가 도모에 학원에 입학하고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을 만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가면서 겪는 변화를 담은 구로나야기 데츠코의 자전적 소설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과 참된 교육의 의미를 일깨우며 소박하면서도 재미있게 어린이의 시선으로 써 내려간 문장이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천방지축인 사고뭉치 토토. 도모에 학원에서 토토는 여느 학교에서라면 수없이 비난받고 조롱받은 끝에 어른이 되어서도 핸디캡으로 굳어졌을 법한 천진한 활력을 교장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통해 토토만의 개성으로 더욱더 사랑스럽게 꽂피워낸다.

기차 모양의 교실 속에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면서 참교육을 배운다. 화장실에 떨어진 아끼던 지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분뇨를 꺼내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만두라고 했을 법한 행동에 대해 교장선생님의 '원래대로 해 놓거라'라는 믿음 섞인 한마디에 토토는 지갑을 찾지 못했어도 만족스럽게 다시 원상복귀하며 인격체로 존중받았다는 생각으로 한걸음 성장한다.

또한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자기 몸의 수치심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운동회의 우승을 모조리 훔쓴 장애아 다케하시 같은 아이들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아이들이 인생의 지혜와 덕목을 체득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이상을 제시한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들의 감정과 행동, 교육의 참모습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경쾌하고 따스하게 이어지며 여운을 남긴다.

오늘날의 교육에 관한 반성과 자각과 함께, 세상사에 이젠 시큰둥해져버린 어른들에게 자신의 어린시절을 비춰주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한 편의 수채화 같은 동화이다.

저자

※키워드 : 대안학교, 학교, 토토

■ 이와사키 치히로(Iwasaki Chihiro, 松本 知弘)

1933년 도쿄 출생. 도쿄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NHK 방송극단에 입단하여 텔레비전 방송 최초의 여배우가 된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그래픽상을 비롯해, 라이프치히 국제도서전 일러스트상,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소학관 아동문학상, 문부대신상 등을 수상하며 '어린이처럼 투명한 수채화의 작가'라는 명성과 함께 전 인류에 문화적 교감을 이루어냈다.

이우학교 이야기

정광필 외 지음 / 갤리온 / 2008 ▶ 372 정15601



석수도서관 최수영



분당에 위치한 이우학교는 사교육포기각서를 쓴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배움의 공동체를 일궈나가고 있다. 배움은 사물과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친구를 만들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학급별로 골고루 학생들이 섞이도록 배치하고, 각 학급 내 4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두고 모둠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습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정규교과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자발적 학습동아리가 생기고, 선배와 후배들이 서로 도우며 배움을 실천한다. 또한 중1은 방학이면 자기주도탐구 과제를 시작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지금까지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졸업작품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기 가능성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6년간 같은 마을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옴으로써 먹거리의 소중함과 도시와는 대조적인 농촌의 삶을 경험한다. 또한 학년마다 주제가 있는 해외로 통합기행을 다녀온다. “동아시아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5개국 중 한 나라를 찾아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익히고 다양한 아시아 젊은이들과 교류한다.

이우학교는 교복, 두발단속이 없고, 각 학년의 생활규칙은 교사와 학생전체가 함께 정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과 관계된 결정권을 갖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눠맡는다. 학생들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학기 중간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좋은 수업만들기” 간담회를 통해 수업개선책을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나눈다. 학생이 학교운영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회라는 자율기구를 통해 성장하듯 학부모는 학부모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학부모회는 학생생활문제 과정에 참여하고, 장학생선정, 학교평가, 학교환경 개선사업, 외부기관지원금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학부모회와는 별도로 자발적인 관심으로 생긴 학부모 동아리도 많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동아리를 통해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유지하며 자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 이처럼 학부모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통해, 다른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통해 같이 성장하고 삶의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

Contents

※키워드 : 배움, 대안학교, 이우학교, 더불어 사는법

- 1. 다르게 배워야 다른 꿈을 꾼다
- 2. 수업이 왜 재미있을까
- 3. 교실밖 세상속으로 아이들은 달려간다
- 4. 누가 감히 “내 삶”의 규칙을 정해?
- 5. 학부모, 두 번째 배움을 시작하다.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수지 모건스턴 지음 / 김예령 옮김 / 문학과자성사 / 2000 ▶ 808.9 문78▫8



어린이도서관

배 성 현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기대하지만 이내 실망하고 만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흰머리가 사방으로 뻗치고 코끝에 조그만 안경을 쓴 뚱뚱한 아저씨가 담임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베르 노엘’이라는 이름의 새 담임선생님은 아이들과 만나자 마자 인사도 않고 대뜸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내놓는다. 선물꾸러미 안에는 뒷면에 조커 표시가 있는 카드 한벌이 들어 있었는데, 그 ‘조커’ 카드의 앞면을 읽은 아이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지각하고 싶을 때 쓰는 조커』, 『숙제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조커』 등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일만 잔뜩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조커카드를 받은 첫 날, 용기를 내어 『아무 때나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싶을 때 쓰는 조커』를 사용한 샤를르를 시작으로 아이들은 점차 하나둘씩 조커를 사용한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모두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등 노엘 선생님만의 독특한 수업방식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기존의 수업방식과는 다른 노엘선생님만의 별난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앵카르나시옹 페레’ 교장 선생님은 노엘선생님에게 주의를 주지만 노엘선생님은 여전히 자신의 수업방식을 고집한다. 참다못한 페레 교장선생님은 결국 노엘 선생님에게 학기가 끝나면 노엘 선생님을 다시 기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과의 마지막 한주를 보내게 된 노엘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조커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말해보라고 한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신이 생각하는 조커를 말하고 노엘선생님은 그런 조커들을 아껴 두지 말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마지막 주가 지나고 노엘 선생님은 샤를르가 선물로 만들어준 자신의 조커를 챙겨들고 학교를 떠난다.

틀에 박힌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선물처럼 나누어 준 노엘선생님의 ‘인생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커를 아쉬움이 안남도록 사용하라’는 말은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다시 되새김질 되어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것이다. 이 소설속의 아이들과 같은 수업을 받지 못한 현실의 아이들이라도 이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조커를 상상 해본다면 같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Author

* 키워드 : 조커, 자유, 여유, 학교, 선생님

□ 수지 모건스턴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프랑스 수학자와 결혼하여 니스에 정착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 한 후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지금까지 40여권의 어린이·청소년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엉뚱이 소피의 못말리는 패션』, 『우리선생님 폐하』, 『공주도 학교에 가야한다』 등이 있다.

애들아! 들꽃 피는 학교에서 놀자



강벼리, 조선혜 지음 / 푸른나무 / 2010 / 370.4-강44애



식수도서관 최윤숙

남한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작고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남한산 초등학교. 이 학교는 사실상 폐교가 예정되어 있었다. 해발 400미터, 남한산성 안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주민수가 줄어 2000년 최종적으로 폐교 위기를 맞았을 때, 성남의 뜻있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면서 남한산 초등학교의 학교 살리기가 시작되었다.

먼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학교를 운영해갈 구체적 그림이 그려졌다. 학교의 기본설계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열띤 토론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도 새로운 학교에 대한 계획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다들 힘든 줄 모르고 뛰어다닌 결과 폐교 직전의 학교는 전교생 103명의 새로운 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시험으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자.”, “상장이나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교사들은 정성을 다해 아이들에게 참된 배움을 가르치자.”,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맘껏 뛰놀게 하고, 공부가 짐이 되도록 하지 말자.”라는 발제는 지금의 남한산학교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실제로 남한산학교에서는 80분 블록제 수업을 실시하여 80분 동안 제대로 된 체험활동이나 토론수업을 하고 ‘중간놀이’시간이라고 부르는 30분의 휴식 시간 동안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1박 2일로 진행되는 숲속학교나 바다학교, 두 차례의 계절학교, 토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는 종일 체험학습 등 남한산 학교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절대 지겨운 곳이 아닌 배움과 놀이가 함께 하는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학교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못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체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교 만들기의 중심에는 교사가 천직이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안순억 교사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소년이었던 안교사는 가난한 집안형편으로 교대에 진학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출날 글쓰기연구회,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모순된 교육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고,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순억 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교사들이 있는 한 우리교육은 희망이 있고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Contents

- 책을 펴내며_지역, 희망 그리고 묵직한 감동
- 프롤로그_그의 ‘솔개’ 이야기
- 1장 희망으로 꽂피운 학교
- 2장 한여름 날 느티나무처럼
- 3장 가을 열매 속, 꿈꾸는 씨앗들을 위해
- 4장 겨울은 깊고 봄은 더 빛났다

키워드 : 참교육, 스승, 학교

북유럽에서 날아온 행복한 교육이야기



첸즈화 지음 / 김재원 옮김 / 다산에듀 / 2012 ▶ 370.9236 천77▶



만안도서관

민경순

『북유럽에서 날아온 행복한 교육이야기』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 첸즈화는 어린 딸들에게 수학 과외를 시키고 영어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가르치려 애쓰는 전형적인 아시아의 엄마였다. 하지만 북유럽의 교육 강국인 핀란드에서 6년 간 두 딸을 키우며 아시아 국가의 광적인 경쟁에 회의를 느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 북유럽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 책은 전반적인 북유럽의 교육을 두루 소개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단기간 연수나 기획 탐방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목소리로 듣는 북유럽 교육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단순한 것이 최고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양, 북유럽에서 사교육, 영재반, 일류학교는 없다.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경쟁 없는 사회, 경쟁 없는 학교에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교육의 비결이 있다.

의사와 주방장을 똑같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엘리트만으로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험은 다 같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며, 성적은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성적을 공개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평가로 개인의 창조력이 발휘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북유럽의 교육은 현재 우리의 교육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북유럽 사회와 교육 체계는 학교의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인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직업학교에 가든 학생의 선택을 돋기 위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지도하고, 학생의 흥미를 고려해 앞날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갖도록 도울 뿐이다.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최종목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어른의 좁은 잣대로 아이의 시야나 재능을 점수 매기지 않는다. 교사와 학교, 사회 전체가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는 북유럽 교육은 모든 사람이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로망을 그대로 현실에 녹여낸 듯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Contents

※키워드 : 교육, 학교, 성적, 경쟁

- 1장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고 특별한 북유럽
- 2장 일등도 끌찌도 없는 활기찬 학교
- 3장 삶의 지혜와 감성을 일깨우는 교실
- 4장 경쟁을 넘어 미래를 향하는 아이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하이타니 겐지로 지음 / 양철북 / 2008 ▶ 833.6 하68-



평촌도서관 최미송

어린아이의 천진한 고백 같은 제목과는 달리, 이 작품은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시작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초등학교 여교사 고다니 선생님은 자기 반 1학년생인 데쓰조가 개구리를 찢어 죽인 것을 보고 교무실로 달려와 구토를 한다. 데쓰조가 키우는 파리를 개구리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파리를 개구리에게 먹인 같은 반 친구는 데쓰조에게 물어 뜯겨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데쓰조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다. 처리장 옆에 위치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데쓰조를 비롯해 대부분이 빈곤층·서민층 자녀들이다. 이 동네에서는 교통사고나 절도, 가출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학교 교사들도 처리장 아이들을 “바보로 알”거나 “냄새난다느니 바보 병신이라느니 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러나 고다니 선생님은 그런 편견을 거부한다. 그녀는 교내에서 불량하고 아이들이 잘 따르기로 소문난 아다치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며 그들의 삶에 뛰어든다. 파리떼만 키우던 데쓰조에게는 파리 도감을 선물하고, 정신지체아인 미나코를 자기 반에 받아들이며, 아이들이 저지른 사고의 처리비용을 대기 위해 함께 고철 수집을 하러 다닌다. 고다니 선생님의 노력은 느리지만 찬란하게 결실을 맺는다. 선생님과 함께 파리를 연구하던 데쓰조는 근처 행 공장에서 파리떼가 출몰하는 원인을 밝혀내 지역 언론에 소개되고 전교생에게 행을 선물한다. 또 미나코를 귀찮아하고 괴롭히던 학생들은 어느새 ‘조금 다른’ 미나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뿐만 아니라 고다니 선생님과 아다치 선생님의 창의적인 교육에 힘입어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깨우쳐간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연대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에 이른다.

쓰레기 처리장이 이전하면서 처리장 임시 직원의 가족들은 새 처리장 근처로 이사하게 된다. 문제는 새로운 집에서 지금의 학교까지 오는 길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또 이사와 관련해 임시 직원들에게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 처리장 아이들과 어른들은 임시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과, 구 처리장 자리에 새 주택을 지어 임시 직원들을 입주시킬 것을 요구한다. 모두의 노력 끝에 처리장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관청과 다시 교섭을하게 된다.

툭하면 눈물을 흘리던 ‘의사선생 댁 따님’ ‘초보 교사와, 열패감과 분노에 짓눌려 있던 빈곤층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Author 하이타니 겐지로

1934년 일본 고베 출생. 17년 동안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바탕으로 다수의 아동문학 작품을 선보였다. 1974년 발표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는 국제 안데르센상 우수작품에 선정된다.

키워드 : 성장, 이해, 지역사회

이후 오키나와의 비극을 다룬 『태양의 아이』, 드라마로도 제작된 『하늘의 눈동자』 등으로 변함없는 인기를 얻는다. 그의 작품에는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교육철학이 한결같이 담겨 있다.

학교혁신, 정답입니다.



최영란 지음 / 이매진 / 2011 ▶ 370.8 최64*



평촌도서관 양현미

학교 혁신, 정답입니다.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새내기 교사들 이야기

이 책은 새내기 교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당국이 모두 함께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한다. 힘겨운 교육 과정을 간신히 통과해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돼 학교로 돌아가길 바라는 예비 교사들과 이제 막 학교 현장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하는 새내기 교사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혁신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1부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새내기 교사들의 학창 시절 얘기가 주로 펼쳐진다. 새내기 교사들에게 학교는 늘 괴로운 곳이었다. 이유 없이 때리고 화내는 조폭 같은 선생님과 성적으로 편애하는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었고, 무엇이든 입시로 귀결되는 학교는 참된 교육의 현장과 거리가 멀었다.

2부 ‘학교 문화 이야기’에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예비 교사들은 교생 실습을 통해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처지로 학교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조직 운영의 가능성을 살피고, 아이들의 안타까운 학교생활을 진단한다.

3부 ‘학교 혁신 이야기’에서는 학교 혁신의 길을 찾아본다. 학교 현장에 몸담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은 학교 혁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기에 독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다양한 학교 현장과 교육 사례를 읽으면서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혀버린 새내기 교사들은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비판 능력을 키우며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새내기 교사들은 자신이 배운 교육학 수업에서 학교 혁신의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자 끝이고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숙제다. 학교를 움직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교육 문제의 진짜 ‘정답’은 학교 혁신을 위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새내기 교사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Contents

- 여는 글
- 1부 우리학교 이야기
- 2부 학교 문화 이야기

※키워드 : 학교혁신, 소통의 즐거움, 지지와 격려

- 3부 학교 혁신 이야기
- 닫는 글
- 참고 자료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설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6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베이비부머, 행복을 꿈꾸는 세대

은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들의 행복한 미래설계를
도와주는 다양한 분야(창업, 노후대비, 여가, 귀농, 인생설계, 관광, 철학 등)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서목록

- 퇴직후 인생경영 / 이희승
-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 송호근
- 은퇴 후 삶을 위한 희망 메시지 / 강창훈
-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 한혜경
- 노년의 즐거움 / 김열규
- 귀농귀촌 정착에서 성공까지 / 매일경제 경제부
-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 / 김형래
- 은퇴 후 8만 시간 / 김병숙
- 은퇴쇼크 / 전도근

베이비부머들이 겪 정말
나쁜 버릇이 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식들에겐 다해줘야 한다는
무모한 의무감 말이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실패보다 무서운 건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은퇴 후 8만시간>

나이든 사람이 지혜롭다면
그건 '쇠퇴'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리막길에서야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팅 | 직관에 귀기울여 활력을 찾는 놀라운 방법!



아루파 테슬린 지음, 안진환 옮김 / 눈과마음 / 2008 ▶ 325.04-테5529팅



석수도서관

유 옥 환

팅(Ting)이란 무엇인가? 직관(直觀), 바로 보다. 즉 철학적 용어로는 감각이나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일컫는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돌이 이는 것, 혹은 번쩍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느낌이 강하게 떠올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 경험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과 꿈 사이의 연결성을 문득 깨닫기도 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본능적인 느낌이나 직감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팅'은 여러 형태로 찾아온다.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야 할 때 대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 단, 그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무심코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팅'은 시작점이다. 경고를 알리는 작은 종소리이다. 따라서, '이게 뭘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더 깊이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한다.

직관은 학습된 인식을 버리고 실재하는 것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고(思考)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사고에는 노력이 들지만, 직관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많은 에너지를 준다.

그렇다면 직관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일단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한다. 지금 당장에 그리고 현재의 흐름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알아채는 것이 목적이다. 명상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상황과 정보, 아이디어, 감정 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팅'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라. 그리고 직관과 혁신의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평온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한다면,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도 훨씬 풍요롭기를 희망한다면, '팅!' 바로 '직관'에 귀기울여보자.

Contents

- 1. 직관으로 들어서는 문을 열어라
- 2. 자각 능력을 발달시켜라
- 3.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라
- 4. 직관의 신호, '팅!'
- 5. '팅!'에 귀 기울여라

※키워드 : 킹, Ting, 직관, 활력

- 6. '팅!' 올바르게 실행하기
- 7. 놀라운 '팅!'
- 8. '팅!'을 놓치지 말라
- 9. '팅!'을 넘어서
- '팅!' 뉴스레터

퇴직 후 인생경영



이회승 지음 / 마이북스 / 2012 ▶ 591.9 이95퇴



석수도서관 류지희

이 책은 저자 이회승 박사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친절하고 상세한 지침서다.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자신의 농장 운영 실패 경험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퇴직 후 인생 설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다 쳐도 퇴직 후 30~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남게 되었다. 이 기나긴 세월과 계획 없이 맞닥뜨렸을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곤궁한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 속에 노년기를 보내게 될 공산이 크다. 이제 퇴직은 더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요 분기점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사회 활동을 할 때 일찍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후 준비는 일 년 빨리 시작하면 십 년이 행복해진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현재 곤궁하더라도 퇴직 후를 대비한 자금 운용을 필수 항목으로 설정할 것이며, 자식들에게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투자와 자식들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하라고 권유한다. 또 노인들도 인터넷을 배우고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강 문제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항상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젊은이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충고한다.

실제로 퇴직 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이 녹아 있는 이 책을 읽으며 앞으로 퇴직을 맞게 될 직장인들, 또 이미 퇴직한 모든 사람들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퇴직 후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퇴직과 노년을 받아들여야 할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또한 퇴직 후 재취업 사례 등 실질적인 정보도 구성을 더한다.

Contents

※키워드 : 퇴직, 은퇴, 일

- 1장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인가
- 2장 퇴직 후 인생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3장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 4장 은퇴 후에는 일을 더욱 사랑하라
- 5장 부지런해야 건강하게 산다
- 6장 은퇴 후 자산 관리는 더욱 치밀하게
- 7장 최고의 인생은 가정의 행복에서
- 8장 나의 시니어 준비와 노후의 삶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송호근 지음 / 이와우 / 2013 ▶ 814.6 송95그



박달도서관

이 해동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분석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그린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이다.

50대 대리기사와의 만남에서 비롯하여 저자는 연구팀을 꾸며, 10여명의 베이비부머를 인터뷰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 경험을 집약하는 개념을 도출 하면 '가교 세대(bridging generation)'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부모와 자식 세대의 모든 부양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면서도 '농업 세대'와 'IT 세대'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았다. 베이비부머는 농촌 공동체의 문화적 유전자와 흐르는 마지막 세대이자 유교 전통을 계승한 막내 세대이다. 둘째, 근대와 현대 사이에 가교를 놓았다. 1960년대를 근대의 끝자락이라고 한다면, 현대가 시작되는 초입인 1970년대에 베이비부머는 이른바 신문명의 담지자가 되었고, 이후 1980년대 '운동권 세대', 1990년대 '탐닉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즉 베이비부머는 '근대'가 끝나는 절벽에서 '현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스스로 몸을 누이면서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베이비부머들의 경험, 가치관, 가족 책임,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을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펴 올려 다른 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베이비부머들의 독특한 세대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책의 전반부에는 필자 개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도 다른 베이비부머와 마찬가지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고, 교육, 주택, 생활비, 노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결책과 자원도 그리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에는 베이비부머들이 부딪힌 현실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다. 국가 정책도 일부 분석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후속 과제로 미루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연대감 확인을 통한 공감과 위로이다.

Contents

※키워드 : 베이비부머, 50대, 인생보고서

- 1장 50대 서울대 교수 그리고 대리기사
- 2장 아픈 청춘은 그래도 행복하다
- 3장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은퇴 후 삶을 위한 희망 메시지



강창훈 등 지음 / 일리 / 2012 / 591.9강826희



호계도서관 이혜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100세 시대가 오면서 당장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보다도 앞으로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걱정이 커졌다. 이 책은 이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후반인생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은퇴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공허감, 상실감 등으로 적잖이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러한 우울증세를 빨리 극복하고, 잘 치유하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만들어보기도 하며, 가장의 위치에서 내려와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에게 기대보라고 권한다.

또한 인생의 후반전 승리를 위해 저자는 몇 가지 조언한다. 우선 눈높이를 낮출 것. 퇴직 전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재취업이나, 창업의 성격에 맞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도 창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퇴직 후 평생 직업을 찾는 사람, 귀농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명심해야 할 점들을 조언하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때 제대로 준비기간을 거치고 충분히 알아보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귀농 전 지역사정이나 농지가격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이며 치밀한 계획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특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의 장점에 주목하고 상대방을 나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도 무한정 퍼주기 식 사랑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너무 자녀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퇴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문제도 은퇴 후 성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기 보단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기 위해 운동을 하는 등 항상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노후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고 그에 따른 은퇴자금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노후 계획에 대한 최고의 재테크는 ‘평생 현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Contents

- I. 다시 출발점에 서다
- II. 인생 후반전 승리를 위해
- III. 마음을 열어라
- IV. 도전하자. 나누자
- V. 여유로운 노후 만들기

※키워드 : 퇴직, 은퇴, 희망, 도전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



한혜경 지음/ 샘 터 / 2012 ▶ 591.9 한94나



석수도서관 해지회

‘호모 핸드레드’ 새로운 신인류의 탄생!

100세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인류, ‘호모 핸드레드’ 시대가 열렸다. 평균 수명 80세에 맞춰진 한국 노년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살아온 날만큼의 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책은 은퇴 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돈 문제를 배제하고 당장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 문제와 마음가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은퇴와 노년이 축복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노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든다. 노인복지는 날이 갈수록 분명 더 나아질 테지만 구체적인 일상, 사소한 행복까지 국가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저자는 이제라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조언한다. 나중에 홀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껍데기로 남은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우아한 쇠퇴론」을 시작으로 「행복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일과 놀이를 통한 일상의 재구성」, 「가족 사랑의 기술」, 「은퇴 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서라도 시작되는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도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테니 말이다.

“나이든 사람이 지혜롭다면 그건 ‘쇠퇴’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리막 길에서야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즐겨보자’고 주문한다.

Contents

※키워드 : 은퇴, 호모 핸드레드

- 1부. 우아한 쇠퇴론
- 2부. 행복한 나를 위해
- 3부. 일상의 재구성
- 4부. 새로이 배워보는 가족사랑의 기술
- 5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

노년의 즐거움



김열규 지음 / 비아북 / 2009 ▶ 591.9 김64s



비산도서관

김지혜

우리 인생의 황혼도 황홀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이 책은 노년을 ‘삼광(三光)의 나이’, 즉 ‘세 가지 빛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삶이 완벽하게 성숙한 노숙(老熟), 솜씨나 재주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 있는 노련(老鍊), 노숙과 노련을 겸하면 건장 할 수 있는 노장(老壯), 이 삼로(三老)를 황홀한 노년을 위한 빛으로 말하고 있다.

책은 크게 네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노년의 얼굴들 老의 몰골과 맵시’에서는 위인들의 초상화는 대부분 노년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말하며 노년의 삶은 지성과 정신이 최절정의 경지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과 지식이 완숙해지는 노년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황홀한 시기라고 말한다. 또한 노안(老顏)은 애듯한 인상뿐만 아니라 그 속에 풍요함과 넉넉함이 고여 있으며 또한 엄숙함과 사려가 어려있는 거룩함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2장 ‘행복한 노년을 위한 5금과 5권’에서는 ‘잔소리를 삼가라. 노하지 마라. 기죽는 소리는 하지마라. 노탐을 부리지 마라. 어제를 돌아보지 마라.’는 5금과 ‘유유자적하라. 달관하라. 소식(小食)하라. 사색(思索)하라. 운동하라.’는 5권을 전하고 있다. 3장 ‘노년의 즐거움’에서는 문학과 예술의 사례를 통한 노년의 진면목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예로 제시한 도나텔라의 막달라 마리아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겉으로는 늙은 여자의 처연하고 가여운 모습 같지만 그 안에는 절실함과 애듯함이 경건함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4장 ‘내가 걷는 그 푸른 노년의 인생길’에서는 여생을 싱그러운 초록빛의 시작으로 보며 새벽녘 시간을 분홍빛, 아침시간을 초록빛으로 표현하는 등 하루라는 시간을 색으로 표현하는 색시(色時) 방법과 천기(天氣)와 지기(地氣), 수기(水氣)가 어우러진 날씨로 하루의 시간을 표현하는 천시(天時)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삶의 노숙함과 노련함으로 무장한 노년이야말로 청춘을 뛰어넘는 가능성의 시기이며 가슴 뛰는 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노년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장로(長老)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고 덧붙인다. 웰빙, 노익장 등 노년의 짧은 생각에서 자연과 시간, 그리고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까지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노년이라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

Contents

※키워드 : 은퇴, 노후생활, 고령화

■ 저자소개 : 김열규

그는 삶의 노숙함과 노련함으로 무장한 노년이야말로 청춘을 뛰어넘는 가능성의 시기이며 가슴 뛰는 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진한 향기를 담아낸『노년의 즐거움』은 인간 김열규가 이미 걷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노년의 자화상이자 희망 자서전이다. 『노년의 즐거움』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귀농귀촌 정착에서 성공까지



매일경제 경제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2 ▶ 520.4 매68-7



박달도서관

조 향 순

도시인들의 삶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이미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집 장만, 자식교육에 노후자금은 꿈도 꾸지 못한 베이비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답이 바로 귀농귀촌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귀농귀촌을 선택하면 백전백패 당하기 십상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귀농을 선택해야 귀농을 도시에서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여는 재도약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귀농귀촌의 첫 번째 단계는 “귀농 결심”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전정보를 습득하고 탐구하는 기간으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결심을 위해선 미리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유관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자를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 동의”이다. 가족들과 함께 귀농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련 서적, 도농교류 행사, 귀농 선배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줄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농작물 선택”이다.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 능력에 맞는 적합한 농작물을 선택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영농기술 습득”이다. 영농기술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귀농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귀농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을 통해 실제 농사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도 포함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착지 물색”이다. 연고지가 아닌 새로운 정착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한 작목과 연관 지어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수나 낙농, 한우 사육을 할 때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 채소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을 할 때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 단계는 “주택 및 농지 구입”이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지,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인지, 빈 집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농지도 임차 또는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여러 곳을 골라 비교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농 계획 수립”이다. 농작물을 처음 수확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기간에 맞는 계획을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항산화물질을 입힌 폴리페놀 배추로 매출 4억원을 일궈낸 부농, 5년의 실패 후 풍뎅이로 억대 소득을 올린 농장 대표, 김장독 바닥에 계란 껌질을 엎어놓은 데서 힌트를 얻어 칼슘김치를 산업화에 성공한 식품회사 대표 등 성공한 귀농귀촌인의 경험담을 실었다.

Contents

- 마흔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 귀농에 도전하라
- 억대부농의 요람, 아그리젠토

※키워드 : 귀농귀촌, 베이비부머, 은퇴

- 도시에서 준비하는 귀농귀촌
- 나는 어떻게 억대부농이 됐나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



김형래 지음 / 청림 / 2010 ▶ 591.9 김94나



평촌도서관 이 유 림

은퇴.. 인정하기 싫고 서글픈 단어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며 만인에게 평등하다. 관행에 익숙해져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타인의 보살핌만을 받아오던 시니어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불안하기만 한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겪게 되는 바로 그 시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은퇴를 겪게 되는 중년 남성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은퇴 전 꼭 알아야 할 49가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체면을 유지하는 비용을 줄인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자원봉사를 통한 기쁨 맛보기 등 구체적이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7계명 중 「남에게 심부름 시키는 일을 중단하라」는 내용은 웃음을 자아내는 구절이다.

이처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만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사소한 변화와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한다. 지금이라도 진정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고 그 성공에 대한 만족을 주변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자기 안에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또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인생 전반부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후반부는 준비된 자세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평생 혈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자신의 후반전 인생을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행복한 여생으로 이끄는 방법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존 러스킨은 말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실로써 이루어져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누구나 늙어가며, 누구에게나 은퇴할 시점은 다가오게 되어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으로 지혜로워 질 것이다.

은퇴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불안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 제 2의 힘찬 도약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찬란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은퇴, 시니어, 행복

- 1. 은퇴는 평등하게 다가온다
- 2. 철든 생각, 새로운 마음가짐
- 3. 인생 후반전 경제학
- 4. 행복의 전제조건, 건강
- 5. 결국 사람이 남는다
- 6. 여전히 할 일이 있다
- 7. 8만 시간의 해피 라이프
- 8. 다시 청춘을 말하다

은퇴 후 8만 시간



김병숙 지음 / 조선북스 / 2012 / 591.9 김446◦



만안도서관 차소진

대한민국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평균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60세에 은퇴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중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면, 식사, 가사노동 등의 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 16만 시간 중 은퇴 후에도 우리가 일하며 살아야 하는 8만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8만 시간을 ‘내 꿈을 위해 일해야 할 8만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퇴 후 40년이란 긴 시간을 편안한 여가생활을 하며 편안한 생을 보낼 것이라고 막연히 계획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은퇴 후 자신이 평생 꿈꾸던 삶을 실현하고자 준비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30여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음악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가주 이장희를 비롯하여 변호사라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뒤로하고 불안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변호사 윤학, 은퇴 후 평생 꿈꿔오던 기타를 제작하는 기타제작사 최동수 등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2막을 멋지게 살고 있는 8명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동기와 과정, 은퇴 후 삶의 철학을 들려주어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으며, 가슴 뛰는 삶을 살라는 그들의 7가지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은퇴 후 8만 시간 인생 설계도 작성’, ‘진로일기 작성’ 등의 실질적인 방법과 은퇴자들이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심계명을 제시하고 있어 은퇴를 곧 맞이하게 될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은퇴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Contents

- part 1. 우리는 연출자였다
- part 2. 평생 걱정 없는 60을 위해
- part 3. 8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키워드 : 노후생활, 은퇴자, 베이비부머, 50대

- part 4. 러닝타임 8만 시간, 인생 각본을 짜다
- part 5. 은퇴자를 위한 심계명
- part 6. 은퇴자를 위한 직종 설명서

은퇴쇼크



전도근 지음 / 북포스 / 2011 ▶ 591.9 전250



평촌도서관 김태영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4세, 평균 81세로 추산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이에 따른 노후 생활에 대한 부담 역시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다행이지만, 보통의 경우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40대부터 제2의 직장을 설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구직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뚜렷한 전문성 없이 재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막연한 가능성은 보고 창업으로 뛰어들다가 노후를 설계할 종자 돈(Seed Money)까지 날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은퇴쇼크”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고 제2의 직장을 찾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노후생활로의 연착륙을 돋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직과 은퇴 이후의 생활 2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제1장 “박수칠 때 기분 좋게 떠나라”에서는 이직가능성을 염두에 둔 직장생활 요령과 이직 시기 등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제2장 “아름다운 박수 받는 ‘떠남’의 순간?”에서는 성공적인 전직을 위해 독자들에게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셀러던트(봉급생활자 ‘Salary man’ 와 학생 ‘Student’)의 합성어), 멀티플레이어, 커리어 관리를 통한 자신만의 강점(Selling Point)을 가질 것을 충고하고 있다.

제3장 “전직하려면 직업 트렌드를 읽어라”에서는 전직 전에 앞서 제 2의 직장을 고르는데 대한 조건을 다루면서, ‘평양감사도 저 삶으면 못 한다.’라는 소단락의 말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에 맞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재취업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재취업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 위해 제4장 “미래를 주무르면 ‘은퇴쇼크’ 없다”에서는 사이버, 실버산업, 웰빙, 녹색산업과 같은 근래 부각되는 블루오션(Blue ocean)을 추천한다.

제5장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옳다”에서는 전직과 퇴직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제6장 “이직 성공을 위한 5가지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이직을 위해 준비, 분석, 계획, 실행, 사후관리의 프로세스를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전직요령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실직,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는 ‘은퇴후유증’, ‘황혼이혼’과 같이 은퇴 후다가올 악영향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직업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보루이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는 현대인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지에 대해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Contents

- 제1장 박수칠 때 기분 좋게 떠나라
- 제2장 아름다운 박수 받는 ‘떠남’의 순간?
- 제3장 전직하려면 직업 트렌드를 읽어라
- 제4장 미래를 주무르면 ‘은퇴쇼크’ 없다

※키워드 : 은퇴, 이직, 실직, 은퇴쇼크

- 제5장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옳다
- 제6장 이직 성공을 위한 5가지 전략
- 제7장 실직,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설정하여 10권의 도서순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7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피서지에서 행복한 고전 읽기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피서지에서 평소 읽기 어려웠던 동서양 고전을 선택하여
읽어봄으로써, 고전읽기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도록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 존 매튜즈
- 이방인 / 알베르 카뮈
- 닥터 지바고 / 보리스 빠스쩨르나크
- 낯선 세계로의 여행 / 박희병, 정길수
- 파리대왕 / 윌리엄 골딩
- 수레바퀴 아래서 / 헤르만 헤세
- 지킬 박사와 하이드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전원 교향악 / 앙드레 지드
- 어린왕자 / 생텍쥐페리



노자의 학문 역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과 비움, 자신을
숨김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음을
높은 경지로 쳤다.

<낯선 세계로의 여행>

‘두려움 만큼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건 없소!’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사랑했던 열정이 없다면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오.’
<닥터 지바고>

만약 시험에 떨어진다면
신이 인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 알맞은 길을 걷도록 배려해
주신 것

<수레바퀴 아래서>

스마트한 생각들

롤프 도벨리 지음 / 걷는나무 / 2012 ▶ 189 도44▶



평촌도서관

최순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2가지 심리 법칙

희소성의 오류 – 한정판 제품이 더 잘 팔리는 이유

대학생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각각 열 장의 포스터를 나눠주고 매력적인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 포스터들 가운데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순위 배열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졌는데, 세 번째 자리에 배열한 포스터는 선택해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다시 열 장의 포스터를 새로이 평가해달라고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포스터를 가장 먼저 배열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리액션스’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물건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일종의 저항 반응인데, 심리학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희소성은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상실시킨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을 볼 때는 오직 비용과 유용성만으로 판단하라.

귀납법의 오류 – 수억 원을 가로챈 금융 사기꾼의 비밀

사기꾼은 먼저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이메일을 십만 개 발송한다. 그중 절반은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나머지 절반의 이메일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경고한다.

한 달 후에 주가지수가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제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주가하락을 제대로 예상해준 5만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낸다. 이 5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다시 처음 절반의 사람들에게 다음 달에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쓰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락할 것이라고 쓴다. 10개월이 지나면 사기꾼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조언을 해준 약100명이 남는다. 이 100명이 볼 때 사기꾼은 영웅이다. 이런 팬들 가운데 몇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길 것이다. 이제 사기꾼은 그 돈을 갖고 도주해버린다.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귀납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확신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원을 아끼기 위해 20분을 걸어가는 사람이 왜 4백만 원짜리 상품을 싸다고 느낄까?”

-번번이 후회하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생각법-

Contents

※키워드 : 스마트, 생각, 심리법칙

■ 롤프 도벨리(Rolf Dobelli)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경영인. 미국, 오스트리아, 홍콩, 스위스, 독일 등지에서 사는 동안 각국의 학자들과 교류하였고 지식이 한곳에 고여 있을 때 생각의 오류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지식을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오고 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존 매튜즈 글 / 국민서관 / 2009 ▶ 아 843.6 매889o



어린이도서관

배 소 영

알비온 왕국의 출룡한 왕이었던 유서 펜드라곤 왕의 죽음 이후로 영주들의 왕위 쟁탈로 어수선한 때, 대성당 앞에 커다란 칼이 꽂힌 바위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그 칼을 뽐는 자가 왕이 되리라는 계시가 내려왔다. 이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도전을 했으나 아무도 뽐지 못했다.

마상시합이 열리던 날, 아서의 형은 시합에 참여하고 싶어서 동생에게 칼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아서는 집으로 달려가던 중에 성당 앞의 바위에 꽂힌 칼을 보고 빼내어 형에게 갖다 주었다. 형과 아버지는 그 칼이 바위에 꽂혀있던 칼임을 알고 놀라서 대성당으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서가 칼을 뽐은 것을 믿지 않아 다시 아서는 칼을 바위에 꽂고 뽐았다. 그러나 힘 있는 영주들은 아서가 누구냐고 의심을 하여 싸움이 벌어질 듯 했으나, 마침 마법사 멀린이 나타나 아서가 원래 펜드라곤왕의 아들인데 왕의 죽음 후 아서왕자의 목숨을 걱정하여 몰래 숨겨서 키웠음을 알렸다. 이에 아서는 알비온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아서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마법사 멀린의 보좌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출룡하고 늄름한 왕이 되었고, 멀린은 마법으로 캐멀롯 성을 세우고 대회당 안에 큰 원탁을 놓았다. 그리고 원탁에는 용감한 기사가 앉을 것이며, 탁자는 둥글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침내 가장 출룡하고 용감한 기사들이 원탁에 둘러앉았고, 그들의 이름이 마법으로 원탁에 새겨졌다. 아서왕은 기사들에게 모험에서 돌아온 뒤에는 모험담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여 이후 대회당에서 모험담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호수의 여인 아르간테가 아서왕에게 준 엑스칼리버, 트리스탄의 모험과 이졸트와 사랑, 팔로미데스와 쫓기는 야수, 가웨인경, 토르경, 펠리노어왕과 새하얀 수사슴 이야기, 멀린의 로마에서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며, 아서왕의 전설에 나오는 여인들, 환상의 동물들 등 다양한 존재에 대한 설명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아서왕에 대한 전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Author

※키워드 : 아서왕, 원탁의 기사, 전설, 알비온

□ 존 매튜즈

저자 존 매튜즈는 아서왕과 기사들에 대한 실제 역사뿐 아니라 그들의 신화와 전설을 다룬 책들을 백여 권도 넘게 썼으며, 영화 “킹 아더 King Arthur of 2004” 제작시 역사담당 조언자로 활약함.

이방인

알베르 카뮈 지음 / 책세상 / 2003 ▶ 860.81 - 카360



식수도서관

장영진

평범한 월급쟁이 뮤르소는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 여자 친구와 해수욕을 하며, 영화를 본 뒤 하룻밤을 같이 지낸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아라비아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한다.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지만 왜 죽였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태양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재판관에게도, 검사에게도, 변호사에게도, 나아가서는 모든 일상사에 대해서까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은 사형이었다. 그는 재판도, 세상도 얼마나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런 것인가를 느끼고 교화신부(教化神父)도 거부한 채 고독한 이방인으로서 사형날을 기다린다.

사형집행의 전날 밤 '과거에도 행복했지만 지금도 역시 행복하다'고 말하며, 증오심을 발하여 자기의 사형 집행을 보기 위해 단두대 둘레에 많은 군중이 모여 줄 것을 원한다. 그는 독방의 창으로 내려다보이는 별빛 찬란한 하늘, 자연이 인간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무관심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다.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 생애동안,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상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 올라오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난달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뮤르소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상황의 부조리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이에 반항을 하려고 한다. 이 작품이 발표된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각국이 혼란함에 휩싸여 인간의 가치관은 급변하였고, 사람의 목숨이란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수없이 죽어 갔다. 이 작품은 부조리에 직면한 인간의 굴욕을 잘 표현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노파의 죽음, 사형수, 장례

Chapter 1부 노파의 죽음과 장례이야기

Chapter 2부 6가지이야기 속 사형수 이야기

닥터 지바고



보리스 빠스페르나크 지음 / 범우사 / 1993 ▶ 808.3 범66▶ 37



만안도서관

김종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지바고는 행복하게 자라난다. 그러나 집안이 몰락하고 어머니마저 죽음으로써 그로메코가에 입양되어 성장하게 된다. 의사가 된 그는 그로메코가의 딸 토냐와 결혼을 약속한다. 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라라는 러시아 고위법관인 코마로브스키와 원치 않는 관계를 지속하지만, 이에 환멸을 느끼고 새해 전날 밤 무도회장에서 코마로브스키를 저격하나 실패한다. 라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그 뒤 자기의 불운을 딛고 혁명가인 파샤와 결혼하지만, 파샤가 군에 입대해 버렸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 간호사로 전선에 나갔다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이때 전쟁에 참전한 지바고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만 서로의 처지가 다름을 발견하고 둘은 이별을하게 된다.

혁명으로 휴전이 되자 지바고는 가족을 찾아 모스크바로 가던 열차에서 우연히 라라의 남편인 파샤를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적군의 포로에서 풀려난다. 그 후 지바고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는 모스크바를 떠나 토냐의 고향인 유리아틴으로 떠난다.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이지만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시를 쓰며 살던 중 지바고는 우연한 기회에 도서관을 찾았다가 라라를 발견하게 된다. 지바고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적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운명적 사랑의 끌림을 거역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지바고는 산책 중에 빨치산에게 납치되고,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오지만, 가족은 이미 국외로 추방당한 후였다. 기진맥진한 그는 길을 걷다가 쓰러지게 되고, 라라가 그를 발견하여 둘은 다시 행복한 생활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토냐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오고, 지바고는 절망과 죄책감에 빠진다.

한편, 지바고가 빨치산에게서 도주했다는 죄목으로 지명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 코마로브스키가 나타나 라라와 같이 극동 지방으로 떠나라고 제의한다. 지바고는 거짓으로 자기는 집안 정리를 하고 떠나겠다면서, 라라를 먼저 보낸다. 라라와 헤어진 지바고는 걸어서 옛집인 모스크바로 향한다. 그곳에서 옛날 하인의 딸인 마리아와 결혼하여 딸까지 낳았으나, 실의와 좌절 속에서 집필로 시간을 보낸다. 직업은 의사였으나 시를 쓰고 번역하는 일로 가난하고 구차한 생활을 꾸려나갔던 것이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혁명 전야의 모스크바 거리에서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의 장례식에서 애절하게 흐느끼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항상 지바고의 옆에 있었던 라라였다.

Contents

- 피할 길 없는 운명
- 과거와의 고별

※키워드 : 고전, 러시아문학, 노벨문학상

- 달콤한 마가목 열매
- 유리 지바고의 시

낯선 세계로의 여행



박희병·정길수 편역 / 둘베게 / 2007 ▶ 813.5 박97천 2



호계도서관

김 은 아

이 책이 속한 ‘천년의 우리소설’이라는 총서는 신라말기인 9세기경부터 조선말기인 19세기 말의 우리 고전 소설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낯선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통념과 합리적 사고로는 해석할 수 없는 곳을 배경으로 하여 ‘이인(異人)’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8편의 중·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 지어져 작가도 다르지만, 등장인물 간에 유기적 관계를 갖기도 한다.

이 책의 첫 번째 작품으로 「최고운전」이 수록되었다. ‘고운’은 최치원의 자(子)로, 신라시대 최충의 아들이다. 최충이 문창령으로 임명받아 간 곳에서 금돼지에게 아내가 변을 당하자 최고운을 그 때 생긴 아이로 오인하여 버리게 된다. 최고운은 선녀의 젖을 먹고 자랐고, 하늘의 선비에게 글을 배워 문장에 통달하게 된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신라를 침략하려던 중국의 황제에게 보내져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질투한 대신들의 모함에 귀양을 가게 된다. 끝내 모국인 신라로 돌아왔지만 이 곳에서도 신라왕에게 죄를 얻어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영화·드라마로 익숙한 「전우치전」이 수록되었다. 전우치는 여우의 정령에게서 천서 세 권을 얻어 그 중에 한 권인 「인권(人卷)」을 익혀 묘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 능력으로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벌이고 다니던 중 서화담(서경덕)과 윤군평이 도술에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대결을 펼쳤으나 대패하고 만다. 이로써 전우치는 세상에서 그 종적을 감추게 된다.

그 외에도 추악하고 볼품없는 거지가 실은 조선 최고의 신선이라는 내용을 담은 「장도령」,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떠돌던 남궁두가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내용을 담은 「남궁선생전」, 속세에 묻혀 사는 이인의 이야기를 담은 「부목한전」,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의 내용을 담은 「안상서전」, 본래 친구였지만 세속을 떠나 욕망을 떨치는 이치를 깨달은 설생과 세속을 택하고 그 속에서 출세를 한 관찰사를 대비하여 이야기를 하는 「설생전」, 태조 왕건의 출생의 비밀을 담은 「왕수재」가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 최고운전
- 전우치전
- 장도령
- 남궁선생전

※키워드 : 우리소설, 한국고전, 초월, 낯선 세계

- 부목한전
- 안상서전
- 설생전
- 왕수재

파리대왕



윌리엄 콜딩 지음 / 민음사 / 2011 ▶ 808.9 세14민 19



박달도서관

김 성 아

비행기에 탄 채 어디론가 이송되던 소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떨어진다.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있는 무인도에서의 삶!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대여섯에서 열두 살에 이르는 소년들은 대표자를 선출한다. 열두 살 랠프의 지휘 아래 생존 방법을 찾고 구조를 위해 봉화를 피운다. 그러던 중 불을 관리하던 잭과 랠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겨 소년들은 두 패로 나뉜다. 구조를 위한 방법으로 오두막을 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랠프와 사냥을 통한 생존과 자기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잭은 대립한다.

처음에는 랠프를 따르던 소년들은 ‘짐승’의 출현을 통해 상황이 뒤바뀐다. 잭은 섬에 짐승이 있다는 루머를 통해 소년들 속에 공포를 심어준다. 위협적인 환경에 두려움을 느낀 소년들은 하나둘씩 잭에게 가담한다.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자 공포를 물리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추락한 조종사의 시체라는 것을 알리려 한 사이먼을 살해해 버린다. 이러한 공포와 광기의 본능은 소년사회를 야만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하고 그 섬은 어느새 지옥이 된다.

이제 랠프 옆에는 근시 소년 돼지도 죽고 오랑캐로 변한 잭의 사냥패들에게서 몇 번의 위기를 겪는다. 가까스로 바닷가로 나온 잭은 연기를 보고 섬에 들른 영국 해군 장교의 구조를 받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난다.

소설의 제목 파리대왕의 본 이름은 베엘제붑, 벨제뷔트 등으로 불린다. 중세 기독교에서 언급되는 3대 악마 중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파리라는 상징물인 파리대왕은 교활함이나 악랄함보다는 더럽고 본능적인 형태의 악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소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악을 엿보게 한다.

Contents

- 소라의 소리
- 산정의 봉화
- 바닷가의 오두막
- 색칠한 얼굴과 긴 머리카락
-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

※키워드 : 영국소설, 파리대왕, 본성

- 그림자와 높다란 나무
- 어둠에의 선물
- 어떤 죽음
- 소라와 안경
- 성채 바위
- 물이꾼의 함성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지음 / 하서 / 2008 ▶ 808.3H548



비산도서관

조 윤 숙

1900년 무렵 남부 독일 슈바르츠발트(‘검은 숲’이라는 뜻)라는 작은 마을에 한스 기 벤라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 한스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머리가 좋아 천재소리를 들으며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 교사들에게 촉망을 받는다. 그 지역에서는 주(州)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뒤 튜빙겐 대학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장래였다. 한스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마을브론 신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신학교의 생활은 엄격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오직 전통적인 신의 존엄만을 부여하는 숨 막히는 분위기이다. 이 곳에서 한스는 일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범생의 생활을 하지만 시인기질과 반항적인 성향의 같은 방 친구인 하일르너와 가까워진다. 두 사람 모두 영리하고 뛰어난 소질을 가진 사람이나 하일르너는 천재라는 조롱 섞인 평판을 받고 있는 반면 한스는 모범소년이라는 명성이 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하일르너는 선생님들의 권위에 반항하여 결국 학교에서 탈출을 기도한 후, 퇴학처분을 받고 그 일로 한스는 학교와 친구들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단짝 하일르너를 잃은 한스는 성적마저도 떨어지면서 두통, 우울증, 신경 쇠약증에 걸리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퇴학처분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행동이 빠르고 성격은 명랑한 에마라는 여성을 사랑도 해보지만 사랑의 쓰디쓴 고백만 마시고 그녀에게 희롱당한 채로 버림받는다. 한스는 아버지의 권유로 기계공장에 취직해 기계공 수련을 받지만 신학교를 나온 이후 더욱 죽음에 대한 생각만이 강해진다.

어느 일요일 한스는 술에 취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알 수 없이 강물에 빠져 죽게 된다. 어떻게 하여 그가 물 속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희미한 달빛이 그를 쳐다보자, 피로와 불안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에 이끌려 갔을지도 모른다.

Author

※키워드 : 헤르만 헤세, 독일소설, 성장소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남독일 뷔르템베르크의 칼프에서 전통적인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890년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에 어려운 주(州) 시험을 둘파하여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미래의 시인을 꿈꾼 헤세는 신학교의 속박된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곳을 탈주하는 등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노이로제가 회복된 후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도 못되어 퇴학당하고 서점의 견습점원이 되었다. 그 후 한동안 아버지의 일을 돋다가 문학수업을 시작하였으며 1904년에 9세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수레바퀴 아래서(1906), 데미안(1919), 싯다르타(1922), 유리알유희(1946) 등이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음 / 책만드는집 / 2007 ▶ 843 스888지



평촌도서관

이 병 희

1885년 영국 런던.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인 헨리 지킬은 인간에게 선과 악의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알지도 못하는 증조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다 떨어져가는 노트 한권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 낡은 노트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공식들이 담겨 있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연구에 몰두 중이던 그는 갑자기 흥분을 느낀다.

알 수 없는 그 비밀 공식과 씨름하던 지킬 박사는 실험 도중 얻게 된 약을 먹는다.

그러자 갑자기 기분이 거칠어지고 모든 것에 화가 나며, 급기야 의무의 구속이 없어져 가는 것이다. 놀란 지킬 박사가 실험실 거울을 보니 자신과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인간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 있었다.

지킬 박사는 정숙한 뮤리엘의 애인인 반면 하이드는 단정하지 못한 피어슨의 추종자가 된다.

지킬 박사는 약품 사용을 계속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더 이상 사악한 하이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성과 자유로운 인성을 지닌 에드워드 하이드. 하이드는 지킬의 모자라는 부분, 악한 부분을 모두 갖고 태어난 것이다.

자신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에드워드 하이드지만 이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위험에 놓인 지킬. 그리고 그를 자신의 내면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려는 에드워드 하이드...

마침내, 두 쪽으로 분리된 지킬 박사의 자아가 우열을 가리는 최후의 혈전에 돌입하면서, 이제 그의 부서진 영혼의 반은 자아를 찾기 위한 절망적인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지킬 박사는 2개월 동안 평온한 삶을 살지만, 결국 또 다시 하이드의 악마성이 분출하여 더 이상 지킬 박사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결국 지킬 박사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유서를 쓰고 자신의 속죄를 빌며 자살한다.

Contents

※ 키워드 : 선, 악, 본능

- 1장 문이야기
- 2장 하이드를 찾아서
- 3장 마음 편한 지킬박사
- 4장 커루 살인사건
- 5장 래니언 박사에게 일어난 이상한 사건
- 6장 창가에서 일어난 일
- 7장 래니언 박사의 이야기
- 8장 헨리 지킬의 사건 설명

전원 교향악



앙드레 지드 지음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09 ▶ 808.9 펭16# 39



평촌도서관 양민월

“전원 교향악”은 앙드레 지드가 이십오 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신앙심과 세속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 프랑스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지드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마을의 순회목사인 주인공은 어느 날 한 노파가 죽어가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집에서 노파의 조카인 눈먼 소녀를 만난다.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시설에 가야하는 소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목사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목사의 아내인 아멜리는 소녀를 맡아 기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목사의 설득으로 함께 생활하게 된다. 나이며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소녀는 목사의 딸인 샤를로트가 붙여준 ‘제르트뤼드’란 이름을 갖게 된다.

목사는 제르트뤼드에게 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심어주려 노력하지만 그동안 귀머거리 노파 밑에서 징승처럼 자라온 제르트뤼드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 제르트뤼드에게 목사는 실망하고 무력감에 지쳐가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한 결과 지적, 정신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희열을 느낀다. 제르트뤼드는 한 연주회에서 ‘전원 교향곡’이라는 곡을 듣고 나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이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목사는 자신의 큰아들인 자크가 제르트뤼드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자신이 어느새 제르트뤼드를 여성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에 괴로워한다.

친구인 의사에게 제르트뤼드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목사는 눈을 뜯 그녀가 늙고 추한 자신에게 실망할 것에 두려움을 느껴 망설이지만 결국은 수술을 받게 한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제르트뤼드는 시냇가 근처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목사에게 자신이 세상을 보게 되면서 목사를 사랑한 것이 죄악임을 깨달아 자살하려 했음을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Contents

※키워드 : 길 잃은 양, 전원 교향곡, 사랑

- 내면일기 I
- 내면일기 II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지음 / 전윤호 옮김 / 맑은소리 / 2003 > 863상 8841 어전



석수도서관 김민자

이 책은 순수한 영혼을 지닌 어린왕자의 이야기 속에 어른들의 세상 모습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으로 인간과 사랑의 참 모습을 아름다운 문체로 들려주고 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 구렁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상처받아 화가의 꿈을 접은 어린이는 평범한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세상을 두루두루 여행하던 중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어린왕자와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구라는 행성에 오기까지 어린왕자가 지나온 여섯 군데 소행성에는 혼자만의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지배하고 명령만 하는 왕, 자기 숭배만을 바라는 허영꾼, 부끄러움에 술만 마시는 술꾼, 하늘에 별마저 소유 하려는 상인, 가로등을 계속 점등하는 점등인, 변하지 않는 사실에만 집착하는 지리학자 등 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를 풍자하고 진정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지구'에는 많은 왕과, 지리학자, 상인, 술꾼, 허영꾼이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만난 뱀, 여우, 장미꽃을 통해 기다림과 인내로 서로를 길들여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애, 사랑, 소유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과 사랑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소중해져야지 세상은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지금,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레옹 베르트에게
- 지은이의 말_어린 왕자가 부르는 별의 노래
- 본문
- 옮긴이의 말_아름다운 동화를 위하여
- 작가연보

※키워드 : 장미, 여우, 사막

Healing 도서요약은...



산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시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6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8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재미와 교훈이 함께하는 웹툰

웹툰이 대중화 되고 있다. 웹툰을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각색하여 상영하는 등 현대인의 일상에 웹툰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웹툰으로 출판 된 도서 중 재미와 교훈이 담긴 책을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흰둥이 1 / 윤필
- 노블래스 / 손제호
- 미생 / 윤태호
- 그대를 사랑합니다 / 강풀
- 신과함께 / 주호민
- 26년 / 강풀
- 두근 두근 기분 좋아져라 / 정현재
-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 개 / 초
- 바보 / 강풀



‘이런 게 회사였지. 일 하나 하면서 무슨 일씩이나 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까. 그런데 왜....외롭냐...’
<미생>

“나눔은 풍요로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자선은 빙곤으로부터 나오며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흰둥이1>

‘난...왜...
나도 저 노인네들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늙고 싶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지...’
<그대를 사랑합니다.>

가슴 뛰는 삶



강현구 지음 / 쌈앤파커스 / 2008 ▶▶ 155.9 강9419-



비산도서관

김미영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누군가의 신화가 되어라!

‘꿈’을 ‘현실’로, ‘비전’을 ‘위대한 성취’로 만들어줄 단 한 권의 책!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슴을 두드리는 간절한 꿈을 품었다면,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돌파를 시작하자. 150만 밀리언셀러 저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비전 멘토(Vision Mentor)’인 강현구 교수가 십여 년 동안 수백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던 그 ‘꿈의 로드맵’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 한 줄의 비전을 찾고, 그 미래를 향해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며,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향해 뛰어오르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신나게 달려 나갈 수 있는 ‘인생 승리의 로드맵’이 펼쳐지는 내내, 유려한 필치와 수많은 감동적 실화와 함께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뿐 아니라 ‘인생이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다’고 느끼는 중견층에게도 큰 자극이 되어줄 책이다.

최고를 넘어선 비범으로 출찍 뛰어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슴 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때를 200% 재충전 기회로 활용하는 그들은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열정과 의지를 재고한다.

이 책은 꿈을 이루고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4단계 과정, 즉 통찰, 작심, 돌파, 질주를 통해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 위대한 삶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혹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통찰하는 법을, 꿈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막막하기만 한 사람에게는 작심 하는 법을,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울타리 앞에서 멈춰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돌파 하는 법을, 거침없이 질주해야 하는데 여전히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질주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은 누구에게나 지금 당장 달려 나가게 만드는 신비한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삶, 꿈, 비전

- 1. 통찰
- 2. 작심

- 3. 돌파
- 4. 질주

흰둥이 1



윤필 글,그림 / 두보북스 / 2012 ► 818 윤89829원 1



석수도서관 서성남

소박한 일상을 일깨우는 감동툰『흰둥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흰둥이는 힘든 길거리 생활에 새까만 깜둥이가 된다.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구하게 된 흰둥이는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와 어린 소녀 미래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달동네에 살면서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보다 인정 많은 미래는 길가에 놀인 깜둥이가 비를 맞고 굶주릴 걱정에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결국 할머니와 미래는 비에 젖은 깜둥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젖은 깜둥이를 닦아내니 그제서야 하얀 털이 제 모습을 찾게 된다. 그렇게 흰둥이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날 할머니의 리어카 사고로 미래 가족에게 힘든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흰둥이는 새로운 가족인 어린 미래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간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흰둥이는 불규칙 적이기는 하나 공사장 일용직 잡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일이 없는 날에는 폐지를 주우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공사장 일용노동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육육히 일하던 흰둥이는 일감 부족으로 그마저도 그만두게 되지만, 다행히 대학교 청소 용역원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청소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약연장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비정규직 이지만, 미래와 할머니와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흰둥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한 마리의 개를 의인화하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이 책은 “말없는 흰둥이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육육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노동과 나눔으로 소박하게나마 일상을 가꾸어가는 서민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

힘들고 지칠 때 토닥토닥 위로와 희망을 받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현재 흰둥이는 1권까지 출간되었고 앞으로 2권을 연재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내용이 사뭇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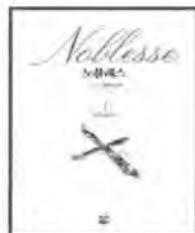
Contents

- 1. 흰둥이의 과거
- 2. 배고픈 흰둥이
- 3. 흰둥이라 부를게
- 4. 언덕 위의 리어카
- 5. 공사장의 흰둥이

※키워드 : 흰둥이, 강아지, 웬툰

- 6.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 7. 진짜 맛있어
- 8. 번쩍!
- 9. 토닥토닥
- 10. 오늘도 흰둥이는

노블레스



손제호 지음 / 드림북스 / 2011 ▶ 813.7 - 손74노



석수도서관

장영진

네이버 화요웹툰에 연재되고 있는 '노블레스' 소설판으로 웹툰에서 생략된 부분을 순수한 스토리 형식으로 감상할 수 있다.

820년이라는 긴 시간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나온 캐릭터(마스터)를 시작으로 악당의 역할을 맡고 있는 M-21, M-24...등 인간을 개조한 조직과 서로 경쟁한다.

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식에서 외국인 이사장이 새로 전학 온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청소년의 계층에 맞게 그들 나름대로의 일상을 이야기 한다. 예기치 않은 납치, 유인, 습격, 휴교 등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재미를 더해준다.

일반적인 고교생들의 일상과 우정, 신비스럽고 과기한 악당들의 출현, 학교에 예기치 않는 휴교까지 내려지는 비상사태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야기의 흐름은 절묘하게 일상과 범상의 조화와 균형을 보여준다.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흉혈귀의 대명사인 뱀파이어는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최면을 걸어 인간을 유혹하고 사냥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뱀파이어는 인간의 피를 보면 극도로 충분하면서 본능적인 방어기제 능력도 엿볼 수가 있다.

학생들이 이사장집을 습격하고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스스로 한 어둠 속으로 안내한다. 이것을 웹툰으로 감상한다면 실감이 배가 되었기에 인기 웹툰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닐까?

1권에서는 새로운 전학생의 요상한 실루엣부터 이사장댁을 침입하고, 불의의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점입가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2권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변장한 노블레스의 역할이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지 화요웹툰을 기다리게 한다.

Contents

※키워드 : 청소년, 휴교, 뱀파이어

Chapter 1권 접촉, 학교, 엘레강스한 전학생, 위기, 범인은..., 경고, 납치, 유인, 습격, 휴교

Chapter 2권 변형, 이유, 변화, 관심, 갈등, 상처, 도움, 혼적, 폐쇄작업, 연구소, 휴교의 끝

미생



윤태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2013 ► 813.7 윤883미



평촌도서관 최미송

아홉 살부터 바둑을 시작한 소년이 있다. 바둑 신동이라는 달콤한 칭찬과 부모님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던 시기가 지나고, 청년이 된 소년은 프로기사 입단에 실패한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급자에게 패배하는 나날이 이어지자 청년은 바둑의 세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대기업 상사에 지인의 도움으로 취직한다. 입단 실패, 검정고시 출신 고졸, 낙하산, 계약직. 이것이 청년 장그래의 스펙이었다.

지금까지 바둑 하나만 해 왔고, 업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며, 딱히 특기도 없는 장그래는 기본적인 업무 지식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다. 급기야 내 과거가 너무 싫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바둑을 하며 길러진 신중함과 통찰력은 그의 강점이었으며, 좋은 상사와 선배를 만난 것은 그의 행운이었다. 장그래는 기준의 직장인이라면 할 수 없었던 발상을 하고 상사와 선배들은 막내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은 마치 유사 가족처럼 함께 일을 해 나간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성취감을 공유하면서.

장그래와 그가 직장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삶은 마치 한국 어딘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오 차장은 직장에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상사이지만, 집에서는 아이들과 서먹한 가장이다. 선 차장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혼들리다가 답을 찾는다. 김 대리는 “별로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개팅 상대에게 차인다. 박 대리는 사냥꾼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겨우 버티는 소심한 농부 같은 인물이지만 자신의 약한 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낸다.

『미생』은 청년 장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을 보는 독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회사 생활과 그 속의 인물들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는 직장인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감 끝에 스스로에게 물게 된다. ‘직장은 과연 일만 하는 곳인가? 직장을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직장에 치어 가족이나 나를 위한 시간을 희생하는 대신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 작품의 위대한 점 중 하나다.

Author

키워드 : 직장, 성장, 바둑

1988년 허영만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으며, 1993년 『비상착륙』으로 데뷔했다. 『야후 YAHOO(1997~2003)』와 『로망스(2002)』로 문화관광부 상을 수상했으며, 첫 웹툰 연재작이자 영화로 만들어진 『이끼』로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만화부문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보



강풀 지음 / 재미주의 / 2011 ▶ 813.8 강896▶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이 책은 유명 웹툰작가 강풀의 작품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미디어 다음에 연재되었던 것을 단행본으로 묶은 책이다.

《바보》의 주인공인 승룡이는 어릴 적 어느 동네에나 한 명은 꼭 있었던 그런 진짜 '바보'다. 버젓이 우리와 똑같이 있는 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그런 바보를 주인공으로, 아무도 밟지 않아 새하얗게 빛나는 첫눈처럼, 바보이기에 가능한 순수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바보' 승룡이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다 잠깐 다니려 온 지호를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승룡이는 어릴 적 사고로 뇌 손상을 겪어서 늘 바보라 놀림당하며 자랐다. 부모님도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남들보다 모든 게 한참 모자란 듯이 보이는 청년이다. 하지만 세간의 알팍한 계산에 휘둘리지 않고 동생이니까, 친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지호니까 계산 없이 선뜻 믿고, 내주고, 원가 해주려 하는 승룡이는 모자라지 않아 보이는 여느 사람들보다 차고 넘칠 정도로 가진 것이 많다.

이런 진짜 바보 승룡이 말고도 이 책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 넘쳐난다. 승룡이의 진심을 알게 된 지호의 변화나 평생을 함께한 친구 상수, 그런 상수를 바라보고 따르는 카페 여종업원 희영이 등 멀쩡한 데도 바보나 진배없이 나누고 서로를 보듬는 인물들이 만화 내내 별처럼 반짝인다.

자신의 피아노를 믿을 수 없게 된 지호, 별을 내려주는 지호의 피아노를 바보처럼 마냥 기다려온 승룡이, 거칠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상수, 잊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수네 카페 희영이. 이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모자라고 흥이 난 인물들이지만 서로를 채워주고 편견 없이 감싸 안음으로써 이렇게 선뜻 바보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진정 바보가 아닌지 되묻게 만든다.

Contents

1권

- 1화. 동네
- 2화. 귀가...

2권

- 23화. 대답
- 24화. 당부...

※키워드 : 승룡이, 바보, 별

두근 두근 기분 좋아져라



정현재(페리테일) 지음 / 넥서스 books / 2013 ► 818 정9419두



박달도서관

김지은

『포엠툰』, 『멈추지 말아요, 완두콩씨』 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저자가 새롭게 펴낸 이 책은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고, 짜릿한 설렘을 느끼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환하게 웃고 싶은 이들에게 감성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순하고 짧은 컷 속에 깊이를 담아내는 카툰 에세이로 2011년에는 포털사이트 ‘다음’ 만화세상에서 ‘보고있으면 기분좋아져라’로 연재하였다.

독자가 공감할만한 일상적인 흐뭇한 소재에 소녀 감성이 묻어나는 스토리를 더하여 공감과 힐링이 되는, 제목처럼 두근두근 기분 좋아지는 책이다.

내 입은 소리 내어 웃고 있는데 가슴이 하염없이 먹먹해지는 날, 누군가의 위로도 격려도 소용없는 날, 마음과 머리가 말랑거릴 수 있게 저자가 들려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저자의 공감 가득한 그림과 사진과 글을 마주하며 저자의 일상으로 들어가 가슴 두근두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마음이 아프고 시려도 울지 말고, 더 많이 웃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저자와 함께 하하하 웃어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저자 정현재(페리테일)은 1976년에 태어나 국민대학교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단순하고 짧은 컷 속에 깊이를 담아내는 카툰 에세이 작가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뺨涨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자와 소통하며 첫 번째 책 『포엠툰』과 두 번째 책 『완두콩』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이후 다수의 책으로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힐링이 되는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둑직해졌다면 이 책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영국소설, 파리대왕, 본성

- 1 희망, 언제나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 2 마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 3 추억, 따뜻했던 그때 그 느낌
- 4 일상,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26년



강풀 글, 그림 / 문학세계사 / 2007 ▶▶ 813.6 강89629◦



만안도서관

민경순

1980년 5월의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는 강풀의 만화 『26년』.

전3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단죄와 복수라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비극에 훔쓸려야 했던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들의 아들, 딸들이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응징하지 못한 ‘전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의 팩션만화이다.

49세인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말기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19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김갑세는 광주에 내려가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혁직 경찰 ‘권정혁’, 흉상 조각가 ‘이치영’ 등 민중 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이들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 속에서 김회장의 계획에 동참하여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는데…….

『26년』은 이렇게 과거에 못 다 해낸 역사 청산을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풀어낸다. 하지만 강풀 특유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역사적 비극에 훔쓸려야 했던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따뜻한 시선 또한 드러난다. 『26년』 역시 결국 ‘인간’의 문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려는 휴머니즘을 잃지 않으며 역사적 비극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과 고민을 끌어내고 있다.

Contents

※ 키워드 : 5·18, 광주, 민중항쟁

- 1화 그 죽음을 기억하라
- 2화 단절되지 않은 아픔
- 3화 상처는 깊은 흉터를 남긴다
- 4화 일어서는 사람들
- 5화 길 위에 서다
- 6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글 그림 / 문학세계사 / 2007 → 818 강89629그



호계도서관

김현진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2007년 4월 연재를 시작하여 그해 9월까지 3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강풀의 순정만화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로 1일 평균 페이지당 23만, 총 리플 수 6만, 연재 기간 동안 총 3천만 누적 방문수를 기록하는 등 포털사이트 만화사상 방문자 최고치를 보이며 2010년 이순재, 윤소정 주연의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최금분 93세. 이분은 나의 친할머니시다”로 시작되는 작가의 웹툰 후기,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비둘기를 쳐다보고 앉아계시거나 동네 노인정에서 쪽심짜리 고스톱을 치며 세월을 보낼 것만 같았던 노인들에 대해 작가가 가졌던 이미지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내가 서른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할머니를 알 수 있었다. 내가 할머니와 가까워지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외롭스럽게도) 사랑스럽고 때론 너무(정말 외롭스럽게도) 귀여우시기까지 한 것이었다. 여전히 가슴 속엔 소녀가 살아 숨 쉬고 계시고 그 만큼 오래 사셨기에 더욱 정이 넘치고 따뜻한 분이 우리네 할머니셨다.”, “그분들은 특별하게 우리와 동떨어진 분들이 아니기에 노인이라고 해서 원가 특별한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젊은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에선 작품 여기저기에 묻어나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묻어나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였다...



난... 왜...
나도 저 노인네들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늙고
싶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지...

열렬하고 가슴 찡한 청춘의 사랑만이 사랑이라. 죽음에 더 가까운, 허나 아직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반복되는 세월처럼 새로이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하는 노년기에 새로 찾은 인연들의 이야기는 인간 대 인간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Contents

- 강풀의 ‘웹툰 제작과정’
- 1. 구상 및 기획(소재와 컨셉 구상)
- 2. 스토리작업 사건재배치(시나리오 작성)

키워드 : 웹툰, 순정만화, 강풀, 사랑

- 3. 만화배경 자료사진 수집
- 4. 콘티(만화 연출) 작업
- 5. 작화(원그림 작업), 배경 스케치 스캔, 채색 및 인물 컴퓨터 편집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 개



초 지음 / 북플리오 / 2011 ► 아 657.3 정55-



어린이도서관 배성현

이 책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약 일년 반 동안 연재되었던 웹툰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으로 작가가 실제로 기르고 있는 고양이 '순대'와 강아지 '낭낙이'를 주요 등장 캐릭터로 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때로는 반려동물의 동반자 입장에서, 감성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작가와 함께한 푸들 낭낙이는 나이를 15살이나 먹은 할머니 개이다. 나이가 많다 보니 낭낙이는 아픈 곳도 많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작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히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점점 아픈 곳도 많아지는 낭낙이를 보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할머니 개 이면서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낭낙이를 보며 변함없는 애정을 느끼고 앞으로 함께할 남은 소중한 시간에 대하여 생각한다.

순대는 작가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온 1년생 고양이로 백내장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순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 등을 이유로 순대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순대가 특유의 까칠함을 보여줄 때나 애교를 부릴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귀애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렇게 낭낙이와 순대, 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고 볼 수 있는 사람과 동물간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려내며,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모습을 차분한 그림체와 감성적인 손 글씨로 표현한다.

이 책은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사람과 똑같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 하는 존재로서 충분히 사람과 친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책 속의 한부분에서는, 그저 잠깐 귀여운 마음에 한번 키워봐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물을 기르게 되었을 때 촛날 그 동물들이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버려지게 된다면 그들이 느끼게 될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이 책에는 동물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동물의 감정과 마음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보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한 책이다.

Author

※ 키워드 :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저자 : 초

저자 초(필명, 본명: 정솔)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 네이버 화요일, 일요일 웹툰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개'를 연재하였다. 한 살 반의 고양이와 열다섯 살의 개와 함께 살고 있다.

신과 함께



주호민 지음 / 애니북스 / 2010



석수도서관 오세은

'신과 함께'는 네이버 포탈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작품으로 사후세계를 다룬 작품이다. 이 책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회사원 김자홍이 죽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영혼들은 죽게 되면 이승에서 지은 죄를 바탕으로 총 49일간 7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김자홍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유능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하지만 운 좋게도 그에게 선임된 신임 국선 변호사 장기한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재판을 통과해 나간다.

첫 번째 재판은 생전에 남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 공덕의 여부를 평가하는 재판으로 만약 통과하지 못 할 시 평생 뇌비우스띠 형태의 칼선 다리를 건너야 한다. 첫 번째 재판에서 절반의 사람이 떨어져 평생 칼날 위를 걸어 다녀야 한다. 이렇게 김자홍은 차례로 재판을 통과해나간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역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김자홍이 세 번째 재판 '한빙지옥' 즉 불효를 평가하는 재판에서는 부모님을 얼마나 얼어붙게 했는지를 평가한다. 재판 중 김자홍은 부모님에게 자신이 박은 옷을 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7개의 지옥 중에 가장 포화 상태인 곳이 바로 '한빙지옥'으로 요즘 얼마나 불효자가 늘고 있는지, 과연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은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이 관문을 통과할 지라도 '내가 과연 7개의 관문을 무사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게 된다.

이 밖에도 거대 저울로 죄의 무게를 짓는 '검수지옥', 입으로 지지은 죄를 벌하는 '발설지옥' 등 어려운 재판들을 장기한의 도움으로 김자홍은 무사히 헤쳐 나간다. 각 재판을 통과하지 못 할 시 처하는 벌은 어마어마하다. 똥물에 1000년 동안 튀겨지고 얼음 안에 갇히고 거짓말한 혀 위에 밭을 일구고 읽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다. 그러나 사실 이런 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다. 거짓말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불효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무심코 사소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 법으로는 처벌 되지 않지만 그런 사소한 죄들이 모아져서 사후에 재판을 받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산 김자홍조차 유능한 국선 변호사 장기한의 도움으로 간신히 각 재판들을 통과해 나간다. 과연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Contents

- 저승편
- 이승편
- 신화편

※키워드 : 저승, 지옥, 재판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해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로, 월 1개의
'힐링' 주제를 선정하여 10권의 도서요약을 제공합니다.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9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똑똑한 스마트폰, 멍청해지는 사람

스스로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기억력 감퇴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디지털치매"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현대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힘을 길러주는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니콜라스 카
-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 크리스토프 코흐
- 기억력도 스펙이다 / KBS <과학카페> 기억력 제작팀
- 기억력의 비밀 / EBS <기억력의 비밀 제작진>
- 생각정리의 기술 / 드니 르보 외
- 유쾌한 기억의 심리학 / 박지영
- 스마트한 선택들 / 롤프 도벨리
-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훈련 30 / 요네야마 기미히로
- 인터넷전화와 뇌의 종말 / 조중혁



‘기억은 양날을 가진 칼이다.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유쾌한 기억의 심리학>

평범한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만족할 만한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

<기억력의 비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계속 경험하고 반복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고 또 타고 또 넘어지면서, 그런 경험의 반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처럼요.’

<기억력도 스펙이다>

나를 넘어서는 변화의 즐거움

조신영 지음 / 하이파이브 / 2004 ▶ 199.1 조5819번



석수도서관

서 성 남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처럼,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킬 7가지 습관을 알려주고 있다.

습관 1. 규칙적인 기상 습관은 저녁시간의 통제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새벽에 뚜렷이 이루어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밤 시간에 자신을 조절·통제하게 되므로 이러한 습관이 결국 삶의 주도성을 강화시킨다.

습관 2. 플러스 사고습관은 인간의 2만 가지 사고의 흐름 중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깨끗이털어버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삶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습관 3. 시간 관리 습관은 인생의 목표를 장기 50년, 중기 10년, 5년, 단기 1년 단위로 세워 구체적으로 전략화 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의 삶에 대한 견인력을 갖게 해주고 하루의 시간 관리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짜임새 있게 하도록 도와준다.

습관 4. 방대한 독서습관은 “자기계발의 핵심”으로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책을 통해 빠르게 얻을 수 있음을 물론,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혀 준다.

습관 5. 꾸준한 운동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실천으로 활기찬 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른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삶의 혁명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힘을 얻게 된다.

습관 6. 성공일기 쓰기 습관은 셀프 피드백을 통해 자기 성찰적 사고능력을 길러준다.

습관 7. 용서와 칭찬 습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실제적이고 중요한 습관이다. 용서와 칭찬은 기술이나 기법이 아닌 인격으로, 앞의 6가지 습관을 통해 길러진 능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남을 용서하고 칭찬할 때 상대방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리더십을 길러준다.

결국 이 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하고, 변화방법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변화습관이 체질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자기계발, 변화, 습관

- 01. 만남
- 02. 의문의 공식을 풀다
- 03. 변화의 반지
- 04. 세상을 변화시킬 일곱 가지 습관
- 05. 반지가 일으키는 변화들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



조중혁 지음 / 에이콘 / 2013 ▶ 004.58 조766인



평촌도서관

이유림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간은 더 이상 두뇌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뇌의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IT산업의 과거와 현주소를 추보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도서이다.

‘비행기를 놓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전달됐다. 늦장을 잔 나의 상황을 파악한 항공시스템이 평소 움직임과 공항까지의 거리, 소요시간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 비행기를 예약할지를 묻고 도착지 레스토랑 프로그램과 연결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조정한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인터넷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찾아주는’ 도구로 변신한다.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적시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인터넷의 모습이다.

물론 지금의 인터넷 기술이 뇌를 대체할 만큼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예시처럼 인공지능과 결합된 검색의 가능성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꼭 맞게 가공해주고 사용자를 분석해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검색’이라 불리는 똑똑한 검색 기술의 발전이 뇌를 보완할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암기와 연산 등과 같은 고도의 두뇌활동을 필요로 하는 뇌 기능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뇌는 인터넷에 자리를 양보하고 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뇌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 주장이 과격한 것이 아니며 ‘인류’의 뇌가 또 다른 진화의 순간을 맞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작자는 미래 디지털 세상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사람에 달려있으며 그렇기에 행동과 감시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머리를 쓰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을 양산해내는 디지털 시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Contents

- 1. 디지털 기술의 영향
- 2. ‘알아서 찾아주는’ 인터넷
- 3. 인공지능
- 4. 자율검색

※키워드 : 인터넷, 뇌, 디지털

- 5. 진화의 순간을 맞이하는 ‘뇌’
- 6.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 7. 뇌의 종말
- 8. 똑똑한 바보들

유쾌한 기억의 심리학



박지영 지음 / 네마북스 / 2012 ▶ 184.6 박78유



석수도서관 김윤하

이 책은 인간 기억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억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기능을 하는지 등에 관해 각종 실험과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감각기억(Sensory Register/Memory)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왔다가 머릿속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기억을 말한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자기 이름이 들리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칵테일 파티현상, CF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사람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잠재의식 광고가 감각기억에 관련된 사례다.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은 수많은 감각기억 중 우리의 머릿속에서 약 18초가량 머물다 사라지는 것으로, 이 역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여기서 누락된 정보는 모두 소멸된다. 단기기억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것이며, 되뇌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장기기억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특성이 있다. 또 처음의 것과 맨 나중의 것이 잘 기억되는 특성도 있다.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은 무한대의 용량을 가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억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억으로서 특히 컴퓨터의 풀더와 같은 망상구조로,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된 것들을 순간적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 장기기억은 우리가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술기억과, 어떤 일의 절차와 관계있는 기억인 절차기억으로 구분되며, 서술기억은 다시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으로 나눠진다.

기억을 잘 하려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부호화 과정에서 처리를 잘해야 한다. 기억할 사항을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상하의 여러 단계로 개념을 조직화할 때 잘 기억된다. 책임감, 절박감, 흥미를 가지거나 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와 기억대상에 이미지를 연결하는 것도 기억에 도움이 된다.

애초에 기억이 저장될 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 우리의 기억도 변화해서 기억이 재구성되기도 한다. 그 외에 아주 놀랍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사건은 주변의 일상적인 것까지 아주 뚜렷하게 기억된다는 섬광기억, 상상과 혼동을 통해 왜곡되는 허위기억 등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쇠퇴이론, 기억하기 싫은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동기적 망각이론, 뇌손상으로 생기는 기억상실증과 일시적인 검색능력 장애인 건망증, 신경 계통의 진행성 불치병인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망각을 설명한다. 또한 망각된 기억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Contents

- 01 기억은 양날의 칼
- 02 감각기억
- 03 단기기억
- 04 장기기억

※ 키워드 : 기억,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망각

- 05 기억력을 높여라
- 06 재구성되는 기억
- 07 망각 –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젊은 뇌로 돌아가는 두뇌훈련 30



요네야마 기미히로 지음 / 전나무숲 / 2010 ▶ 511.1813 요194점



박달도서관

조향순

머리가 쌩쌩 안 돌아간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진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두뇌자극이 없어서였다!

‘뇌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이 명제는 대뇌 생리학의 대전제였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하루 2만~10만 개의 뇌세포가 줄어든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뇌와 관련된 대다수의 질병이 고치기가 어려운 까닭에,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정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뇌세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뇌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신경내과 전문의인 저자 요네야마 기미히로는 일상과 밀접하여 실천하기 쉬운 30가지 두뇌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다. 5개의 chapter로 나누어 두뇌훈련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chapter에서는 오감자극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눈 감고 밥을 먹기’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뇌에 더할 나위 없이 출렁한 자극이 된다고 한다. 두 번째 chapter에서는 ‘점심은 다른 음식점에서 다른 메뉴로 주문해라’, ‘가끔은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라’,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등 사소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다. 세 번째 chapter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네 번째 chapter에서는 운동으로 젊은 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 외에도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문자메시지 날리기’,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우고 글자 쓰기’ 등이 있다. 마지막 chapter에는 ‘테마를 정하고 관련 단어 100개씩 써보기’, ‘일주일에 한 번 휴대폰 꺼두기’, ‘낯선 시간에 낯선 프로그램 시청하기’, ‘구미가 당기지 않은 일에 취미 붙이기’ 등 작은 성공으로 젊은 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의쾌감을 느끼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뇌 신경세포를 발달시켜 두뇌의 회로를 확장시킨다고 한다.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만한 방법들이다. 물론 좀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을 시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두뇌 연령을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 작은 노력으로 젊은 뇌로 돌아가 보자.

Author

※키워드 : 기억력, 뇌, 두뇌훈련, 두뇌자극

- Part 1. 다양한 자극과 활동이 ‘젊은 뇌’를 만든다
- Part 2. ‘젊은 뇌’를 위한 유쾌한 두뇌훈련 30

스마트한 선택들



롤프 도벨리 글 / 걷는나무 / 2013 ▶ 189 도4429스



석수도서관

박지현

독일 경제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경영인이자 저자인 롤프 도벨리는 오랫동안 많은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래서 남다른 판단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결정적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비결을 물어 보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답했다. “그런 비결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들, 피하려고 한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후회하지 않는 탁월한 노하우란, 잘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 뿐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빈번하게 빠지는 생각의 오류들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고 착각한다. ‘돈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둘 중 어느 회사로 이직해야 할지’처럼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면 더욱 신중해진다. 하지만 몇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수많은 책과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서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 즉 결정에 앞서 생각의 오류를 체크해 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실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알려준다. 원금을 잡아먹기 시작한 펀드를 왜 해지하지 못하는지(후회에 대한 두려움), 스티브 잡스는 동경하면서 친구 아들이 획기적인 어플을 개발해 큰돈을 버는 것은 왜 배 아파 하는지(질투의 심리학), 신년 계획과 예산은 왜 항상 틀어지는지(계획 오류) 등, 빈번히 자신의 성격만 탓하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Author

※ 키워드 : 생각법, 스마트, 자기관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경영인. 스위스항공 그룹 산하 여러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했고 과학·철학·예술·경제 분야 대표 지식인으로 구성된 단체 취리히마인즈(ZURICH.MINDS)를 설립했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이자 능력있는 투자자, 냉철한 기업가로 손꼽히는 롤프 도벨리는 각국의 학자들과 교류하여 지식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생각의 오류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지식을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오고 있다.

생각정리의 기술



드니 르보 외 지음 / 지형 / 2007 ▶ 181.4 드19▲



비산도서관 김은아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노트에 여러 차례 적어서 외우거나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어 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A 다음에 B, B 다음에 C를 나열하여 외우는 이런 직선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개념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에 역부족이다. 때문에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은 마인드맵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직화하여 기억해왔다. 그러나 이 기술은 몇몇 천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빠른 정보처리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수적인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효과적인 생각정리 기술, 즉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마인드맵의 필요성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종 망라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마인드맵이란 나뭇가지 모양을 이용해 데이터의 상하관계를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으로 우뇌의 창의성과 좌뇌의 합리성을 이용하여 사고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하는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우선 가로로 긴 백지 한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중심 이미지를 하나 그려 넣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 가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위에 정보를 떠올릴만한 키워드나 이미지를 첨가한다. 이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마인드맵을 이루게 된다.

마인드맵은 기억력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뛰어난 도구이다.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계획, 달성도, 장애물 등을 시각화하여 정리하면 목표달성을 따른 진척 사항을 살펴보고 평가하기 쉽고, 만약 목표가 집단의 것일 경우 의견교환과 통합에 효율적이다. 또한 ‘의사결정’이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는 마인드맵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와 그에 따른 대안,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다. 또 마인드맵은 일상생활관리를 위하여, 혁신적인 메모기술로써, 회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구의 일부로써도 쓰일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마인드맵의 다양한 사례와 이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기억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마인드맵을 한 번 그려보자.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Contents

※키워드 : 마인드맵, 생각정리, 사고력, 기억력

- 마인드맵 만들기
- 목표 정하고 달성하기
- 올바른 의사결정 내리기
- 일상생활에서의 마인드맵
- 혁진적인 메모의 기술
- 효과적인 회의진행
- 프로젝트 진행하기
- 컴퓨터로 마인드맵 완성하기

기억력도 스펙이다



KBS <과학카페> 기억력 제작팀 지음 / 비전비엔피 / 2013 ▶ 181.4 캐68-▶



호계도서관

이혜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도 사고 즉 기억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책은 이렇게 인간의 기억하는 능력에 집중하여 기억력과 연관된 뇌과학적 정보와 새로운 기억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총 3파트로 구성하여, 기억고수들의 세 가지 비밀, 잘 기억하는 법, 학습을 도와주는 기억력 향상 전략을 알려준다.

처음으로 기억력이 좋은 고수들의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 기네스북의 최고의 기억력자 에린카츠는 기억을 잘하는 방법으로 기억해야 할 어떤 것을 단어로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게 한 후 외우라고 말한다. 그 외에도 기억할 내용을 부호화해서 외우기, 첫 글자만 따서 외우기 등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외우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고수들이 말하는 기억을 잘하는 비밀은 감정과 행동을 통해 기억하는 방법이다. 행동은 몸을 움직여 기억하는 것인데 몸을 움직이게 되면 두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두뇌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무한 반복하여 외우는 방법이다. 반복학습을 하려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다시 불러와야 하고 이때 이미 저장된 정보와 다시 들어온 정보들이 신경세포가 활성화 돼 서로 교신하며 기억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잘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로 주의 집중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만 기억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지우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절박해야 잘 외워지기 때문에 무엇을 암기할 때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부터 공략하여 암기할 것을 제안한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잊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하여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게 되는 양을 줄여야하며 띄엄띄엄 오랫동안 나누어 공부하여 기억을 지속시켜야 한다.

마지막 파트로 학습을 도와주는 기억력 향상 전략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이어서 공부하게 될 경우 독일어, 영어와 같은 어학류는 선행으로 공부한 것이 기억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수학과 영어와 같이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학습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한다. 예술은 교과 진도에 맞춰 핵심만 살펴보고, 복습은 공부하는 것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Contents

- Part 1. 기억고수들의 세 가지 비밀
- Part 2. 잘 기억하려면 이렇게 해라
- Part 3. 학습을 도와주는 기억력 향상 전략

※키워드 : 기억력 향상, 암기, 기억법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지음 / 최지향 옮김 / 청림출판 / 2011 ▶ 331.54 카.198▲



평촌도서관

김태영

아주 먼 옛날, 문자가 발명되기 전 수많은 정보는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어 입을 통해 구전되었지만 글자와 저장매체(종이)가 발명되고 나서는 책이 이를 대체했다. 아마도 많은 조상들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책을 뒤지고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지식 역시 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개인의 머리에 암기되거나 체득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은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읽을 필요없이 사람들은 손에 들린 작은 화면을 통해 1초도 되지 않아 자신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소 직설적인 이 책의 제목이 말하듯 저자는 과거 수십권의 책을 이러저리 들춰봐야 얻었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인류가 가진 사고능력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1장 '컴퓨터와 나'에서는 저자 본인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정보습득 패턴의 변화와 집중력의 저하를, 2장에서는 연구결과 등을 통해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성인의 뇌도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3장 '문자, 새로운 사고의 도구', 4장 '사고가 깊어지는 단계'는 구술로 전수되는 인간 지식이 문자와 종이,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서 파급된 효과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존 미디어들의 쇠퇴를, 6장에서는 전자책과 같은 대체재와 멀티태스킹이라는 '산만함'의 일상화를 다루면서 소결론이라 할 수 있는 7장에서 이에 따른 뇌의 촉사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인류는 '관련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능력은 진화하였으나, 사고 안에서 독창적인 지식이 피어오르게 하는 능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7장에서 내린 소결론의 구체적인 예로 8장에서는 검색회사인 구글과 그의 서비스인 구글 북서치 등을 예로 들면서 효율적인 정보수집으로 인한 사고의 저하를 적시하고, 그 결과로 인간은 기억을 검색에 맡긴 채 망각에 익숙해져가고 그 결과는 문화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린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언급하면서 컴퓨터에 의지하면서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화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나타냈다.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 정보에 길들여진 나머지, 인간적 사고와 창의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보면 좋을 것 같다.

Contents

- 1장 컴퓨터와 나
- 3장 문자, 새로운 사고의 도구
- 5장 가장 보편적인 특징을 지닌 매체
- 7장 곡예하는 뇌
- 9장 검색과 기억

※ 키워드 : IT, 컴퓨터, 지식, 검색, 사고

- 2장 살아 있는 통로
- 4장 사고가 깊어지는 단계
- 6장 전자책의 등장, 책의 종말?
- 8장 '구글'이라는 제국
- 10장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인간

기억력의 비밀



EBS <기억력의 비밀 제작진> 지음 / 북플리오 / 2011 ▶ 181.4 0148-▶



평촌도서관

양민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모두 두뇌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태어나서 부모를 알아보는 것,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 외출한 후 집에 돌아오는 것, 심지어 다리를 교차하며 걷고 손을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 뇌가 기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기억할 수 없다면 우리의 평범한 삶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순간순간이 낯설기만 한 새로운 경험일 것이고, 그 경험조차 정보로 저장되지 않고 곧 잊힐 것이다. 다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EBS TV에서 방영했던 다큐프라임 <기억력의 비밀>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두뇌 발달과 기억력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세상에는 놀라운 슈퍼 기억력을 가진 기억력의 천재들이 존재한다. 몇십 년 전의 일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과잉기억증후군’ 환자인 한 여성은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까지도 또렷이 기억하는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자 저주라고 단언한다. 또한 영화 <레인맨>의 실제 주인공인 킹 핏은 전화번호부 40여 쪽에 실린 이름과 번호를 20초 만에 외우고, 계산기로 3분여 걸릴 계산도 단 20초 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억력을 지녔지만 뇌의 일정 부분이 손상된 ‘서번트증후군’으로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른다. 이처럼 남다른 기억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지능과 지식지수, 기억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억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행복한 기억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

사람마다 기억력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늘어나듯이 인간의 기억력도 생활습관과 훈련에 의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해 우유 마시기나 내 몸에 맞는 낮잠,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기억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연상하라, 이야기를 만들어라, 그림으로 상상하라 등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전 트레이닝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슈퍼 기억력, 매직 넘버 7, 잠자는 뇌

1. 인간에게 기억력이란?
2. 슈퍼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3. 잠자는 뇌를 깨워라
4. 기억력 실전 트레이닝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크리스토프 코흐 지음 / 올리시즈 / 2011 ▶ 331.5412 코970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나는 왜 인터넷 중독자가 되었을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뇌를 바꾸고 생각하는 능력을 퇴보하게 만든다는 일명 '디지털 치매'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뉴욕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 전파까지도 차단해서 디지털 기술과의 접속을 막는 공간인 소위 '블랙 카페'라는 것이 인기를 끈다고 한다. 이 책은 파워블로거이자 유수 매체의 기자이기도 한 저자가 40일간의 디지털 해독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디지털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된 일상의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다.

작가는 인터넷 금단기간을 위한 십계명을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인터넷과 휴대전화 없이 지내기, 컴퓨터는 문서작성용도로만 사용하기, 게임하지 말기, 인터넷기사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해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자꾸 연락이 오는 것만 같은 '유령진동', 맞춤법이 생각나지 않는 '후천성 인터넷 정신박약' 등의 금단현상을 겪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좋은 소식만 올리고 나쁜 소식은 올리지 않는 경우 또는 옛 사진에 대한 소식만 전해 듣고 최근소식은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인간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우리 밥 한번 먹자'라고 말 하지만 정말로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 인터넷은 시간을 절약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어도 같은 양의 시간이나 혹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시간을 잡아먹기도 한다는 것, 매체에 의존하여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고무줄 시간처럼 탄력 있게 쓰지 못한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작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없는데 만약에 응급상황이 닥치면 누가 날 구해주지?'라는 악몽 같은 상상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이것을 더 아쉬워하게 될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환상통이 점차 줄어들까?' '아직 내게 남아있던 다른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 더 강해지고 발전해서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며 40일간의 해독 일상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Contents

- 1장 무모한 도전
- 2장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 3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4장 침묵의 울림

※키워드 : 인터넷, 디지털치매, 아날로그

- 5장 인터넷 중독 응급센터
- 6장 디지털 실험을 마무리하면서
- 7장 도전 후에 남은 것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끌어당김 / 안진환·이현주

10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고수를 만나다

한 분야 경지에 오른 사람들, 고수를 책을 통해 만나 그들의 인생철학, 삶의 지혜를 들여다 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 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술, 요리,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고수들을 소개합니다.

도서목록

-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 강수진
- 끌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 박찬호
- 착한그림, 선한화가 박수근 / 공주형
-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 / 자넷 로우
-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 손미나
- 한국 최고의 가게 / 김용범
- 밥 하는 여자 / 한복선
- 김연아의 7분드라마 / 김연아
- 내 기타는 잠들지 않는다 / 신증현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갈고 닦으면 그게 바로 보석이다.

<한국 최고의 가게>

어느 길이든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승자는 영웅이 되어야 하고, 패자는 쓰라려야 한다. 승자와 강자는 다르다.

<끌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는 동안 배운 것이 있었다. 많이 버릴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는 커진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끌어당김



안진환·이현주 공편역, 나플레온 힐 외저 / 생각의나무 / 2011 ▶ 325.04 끌64생



석수도서관

유 익 환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내면의 마음을 열자. 우주를 지배하는 긍정의 에너지인 ‘끌어당김’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여 작동시킨다면 언제나 기쁘고 힘차게 오늘(현재)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신비롭고 강력한 힘에 대해 직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원하는 어떤 존재든 될 수가 있다. 우주와 신이 우리를 돋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늘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의 생각으로 끌어당김을 작동시켜라.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성공을 부르고,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끌어당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초월적인 힘이 숨어있다. 그 안에 부정적 생각이 깃들 틈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원하고 있고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먼저 스스로가 원하는 꿈을 직시하자. 세상은 아름다우며 자신이 훌륭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한다.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기쁨만큼 커다란 만족은 없다. 좋은 반복을 통해 좋은 신념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정신훈련을 반복해나간다.

신은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며 성공과 기쁨으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발전하는 세상의 부분이기에 발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주와 신의 뜻을 믿고 끌어당겨라. 긍정의 힘으로 끌어당겨라. 마음의 과학은 나쁜 것을 암시하면 나쁜 것이 찾아오고 좋은 것을 암시하면 좋은 것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이웃을 믿고 끌어당겨라. 성공은 이미 끌어당김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끌어당김’이라는 성공의 비밀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마음속에 깊은 공명이 울리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간다면 당신도 이미 성공의 반열에 올라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성공, 끌어당김, 에너지

- Part 1.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끌어당김’을 향하여
- Part 2. 잠든 우리를 일깨우는 ‘끌어당김’을 더욱 당기며
- Part 3. 우주와 신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끌어당김’을 믿으며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



자넷 로우 지음 / 신리나 옮김 / 청년정신 / 2002 ▶ 326.7099 로66오



석수도서관 김민자

이 책은 저자의 ‘우리 시대에 가장 성공한 미국인들’ 이란 연재물 중 네 번째로 미시시피의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흑인 소녀가 유명한 앵커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불우했던 어린시절, 평탄치 않은 가정사, 힘든 방송생활, 인간적인 갈등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했다고 한다.

1. 네 인생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 말라.
2. 출세하기 위해 외모에 매달리지 말라.
3. 사업과 개인의 사생활에서 조화와 연민을 구하라.
4. 등 뒤에서 헐뜯는 사람들을 없애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워라.
5. 친절해라.
6. 음식이건, 술, 마약이나 행동 습관들이건 간에 중독될 만한 것을 없애라.
7. 본인만큼 똑똑하거나 아니면 더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해라.
8.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돈이라면 잊어버려라.
9. 절대 네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10. 꿈을 추구함에 있어 꾸준히 하라.

또한 한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상황이 어려울 때, 그녀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다고 한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한다.

Contents

※키워드 : 대중문화, 영향력, 교훈

- 제1장 오프라 그 이름의 파워
- 제2장 오프라의 뿌리 그리고 정상에 서기까지
- 제3장 안성맞춤의 자리를 찾다. 토크쇼 그리고 영화
- 제4장 CEO 오프라,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쓸 것인가
- 제5장 우정과 사랑 그리고 오프라를 비판하는 사람들
- 제6장 오프라의 정신세계,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 제7장 다이어트, 아름다움에 관하여
- 제8장 미래의 눈부심을 향하여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



박찬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 ▶ 695.7099 박8219▶



만안도서관

김종혁

LA 마크가 있는 파란 모자를 쓰고 다저스 마운드에 선 동양 청년. 그는 모자를 벗고, 심판을 향해 90도로 인사한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른 후, 있는 힘껏 공을 던진다. 시속 161킬로미터의 강속구를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후 포효하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이저리거, 그는 바로 박찬호다.

이 책은 박찬호가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일기장과 스마트폰에 남겨온 생각,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왜 야구를 해야 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끝은 무엇이고 시작이란 무엇인지... 야구선수 전에 한 인간으로, 인생의 커다란 굴곡을 경험한 첫 번째 메이저리거는 지난 시절의 눈물, 인내,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앞둔 불혹의 남자로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속스럽게 다짐해보기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최초'로 기록했다. 삼진도 최초, 안타도 최초, 홈런도 최초... 그는 어쩔 수 없이 최초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멋쩍게 고백하지만, 아마추어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행한 박찬호는 한국인들이 알고 있던 야구에 대한 통념을 깨버렸다. 시속 161킬로미터의 강속구로 메이저리그의 거구 타자들을 요리하는 박찬호를 통해서 우리는 수만 관중이 모여든 화려한 경기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 만드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처음 접할 수 있었다.

처음 가야 했던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았다. 부족한 실력, 서툰 영어, 미묘한 차별이 가져다줄 시련에 대해 귀띔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메이저리그 데뷔 기자회견 이후 18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면서부터 그는 오로지 혼자서 부딪혀야 했고, 혼자 뚫고 이겨내야 했다. 치즈 냄새가 몸에서 진동할 정도로 미국 선수들 사이에서 동화되어야 했고, 강해 보이기 위해 영어로 욕하는 연습도 해야 했다. 또한 차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운드에서 의사 표현을 하려면 우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말이 어색하다는 이야기까지 듣지만, 모든 것이 생존 문제와 연결되었던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박찬호는 스스로를 '메이저리그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배 류현진은 '한국 야구 검증의 문'을 열었다고 덧붙인다. 팔꿈치에 뻣조각을 간직한 채로 메이저리그라는 꿈의 무대에 선 그는 우리에게 가능성이라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박찬호로 인해 한국,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뛰어어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초란 바로 '관심을 끄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선구자로서 그가 걸어가야 했던 길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Contents

※ 키워드 : 박찬호, 야구, 메이저리그

- 첫 번째 메이저리거
- 삶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된다
- 승자와 강자는 다르다
-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시작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 야구가 없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착한그림, 선한화가 박수근



공주형 지음 / 예경 / 2009 ▶ 650.99 박56공



박달도서관 김성아

박수근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곤궁하게 살았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가들 중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불리고 있다. 박수근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좀 더 널리 알리고 왜 그가 한국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화가인지 보여주고자 이 책을 들고 나왔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젖먹이 아이, 더벽머리 소년과 단발머리 소녀,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아낙네, 할 일 없이 거리를 떠돌던 남정네, 더 이상 잊을 것 없는 노인네. 그들을 통해 수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 싶어 했다.

기다림은 수근 예술의 한 방식이었다. 생계를 아내에게 짐 지우고 매일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기다리며, 세상에 이해를 구하고자 한 수근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고 틈틈이 그렸습니다. 혼자서 밀레와 같은 출중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림 그리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의 이목이 아닌 신념의 더딘 박자에 맞추어 정해진 길을 육목히 나아갔다.

12살, 밀레의 <만종>을 접하고 화가를 꿈꾸기 시작한 그는 가난으로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끈기와 기다림으로 한국의 토벽과도 같고, 메밀깍지처럼 도돌도돌하고, 거친 창호지와 같은 그만의 독자적인 마티에르를 개척하여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착한그림, 선한화가, 박수근, 회화, 마티에르양식

- 적정온도 36.5도를 머금은 인간애
- 재래의 가치를 입은 사람들
- 맑은 정신으로 흐린 세상을 건너다
- ‘따로’ 또 ‘함께’ 가는 길
- 덜 가지고도 더 존재하는 이들
- 무딘 칼로 새긴 것이 오래간다
- 고난의 길에서 배운 인내
- 켜켜이 쌓인 기다림의 시간을 완주하다

김연아의 7분드라마



김연아 지음 / 중앙출판사 / 2010 ▶ 818 김6419김



석수도서관

오 세 은

‘김연아의 7분드라마’는 김연아가 세계 피겨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한 김연아의 무대 뒤 이야기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김연아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노력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된 피겨 스케이팅은 김연아 선수의 꿈이 되었고, ‘피겨 스케이터’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된다. 피겨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 ‘생존기’라고 말 할 만큼 힘들었던 전지훈련, 사춘기 시절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김연아는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다. 이후로 출전하게 된 많은 대회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일기를 쓰듯 써내려 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김연아는 힘들었던 시기마다 자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글귀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흘러가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고 오늘에서 비롯된 내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이다. 절망을 더 큰 희망으로 바꾼 김연아는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워 피겨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피겨퀸이 되었다. TV를 통해 손에 땀을 쥐고 보았던 김연아 선수의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때의 감동을 되새기게 된다.

책을 읽는 내내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각종 경쟁과 부상, 슬럼프 등 우여곡절을 겪는 김연아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할 순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통해 우리는 성장과 좌절을 맛보게 됨을 알 수 있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김연아 선수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한다.

Contents

※키워드 :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꿈

- 꿈이라는 마법의 신발
- 강철 나비, 날개를 펴다
- 고통 속에서 더붉은 꽃이 핀다

- 피겨퀸, 세상을 날다
- 소원을 말해봐
- 연아의 스무살 스케치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손미나 지음 / 웅진지식인하우스 / 2013 ▶ 982.6302손38파



평촌도서관 조윤숙

‘언젠가 파리에 살고 싶다’는 것은 내 오랜 소망이었다. 그러나 파리지앵이 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아찔했다. 파리에 온 첫날 부푼 마음으로 앞집 이웃인 마르틴에게 인사 차 문을 두드렸으나, 문도 열지 않은 채 다짜고짜 ‘원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들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눈물을 머금고 참담한 기분으로 들른 동네카페는 유럽에서도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은 파리의 웨이터까지.... 이방인의 서러움을 부추겼다. 이렇게 촉독한 파리 신고식을 치루며 파리에 대한 환상이 한꺼번에 깨져버렸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파리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돌아오는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린 이웃집 여자 마르틴이 아까 찾아온 용건을 묻는다. 한국에서는 이사를 오면 떡을 돌리지만 파리엔 떡이 없어 초콜릿을 대신 들고 찾아갔었다는 말을 들은 마르틴은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파리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사 왔다고 먼저 말을 걸어온 사람은 처음이라며 두 눈 가득 눈물을 보인다. 도대체 파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작은 친절에도 눈물을 보이는 걸까? 어쩌면 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쓸쓸한 도시일지 모른다.

파리에서 여행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두꺼비집 화재로 크리스마스이브에 모텔 신세를 지게 되고, 갑작스런 탈진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생기는 등 의도치 않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프랑스어가 서툴렀던 초기에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도 했다. “스페인이 호탕하고 성격 좋은 친구 같다면, 파리는 참으로 근사한 외모를 지녔지만 알수록 성격이 까칠한 아가씨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내가 머물러본 그 어떤 곳보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또한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 받는 삶이 흐르는 곳이다. 어떤 빛깔을 지닌 사람이든 파리에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는 것이다. 그러니 해밍웨이가 말했듯, 젊은 시절 파리에 살았던 것은 크나큰 행운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삶을 빚어 가든지 움직이는 축제처럼 내 영혼에 빛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시들한 내 삶에 선사하는 찬란하고 짜릿한 축제 “파리에 사는 동안 내 머릿속에선 혁명이 일어났다.” 어떤 빛깔을 지닌 사람이든 파리에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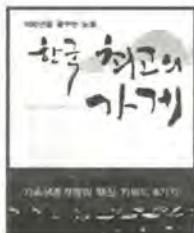
Contents

- 1장 에펠탑
- 2장 마카롱

※ 키워드 : 파리여행, 파리지앵, 손미나

- 3장 미모자
- 4장 샹페인

한국 최고의 가게



김용범 지음 / 흐름 / 2005 ▶ 325.04 김656한



석수도서관 서성남

일본의 경우 창업 1,000년이 넘은 가게가 10여개 정도 남아있고 500년 역사의 노포(역사가 오래된 가게)가 20여개, 400년이 지난 가게는 해야될 수 없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가게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음에도 100년이 넘은 가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왜 그럴까?

물론 일본과는 지리적, 환경적인 차이가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기질이 있어 수많은 가게들이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해가는 길을 걸어왔으며, 상인을 천시하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인재의 유입을 막고 대를 잇는 전승을 어렵게 했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34개의 노포들은 대중화와 전문화의 갈림길에서 전문화의 길을 택해 살아남은 가게들이다. 우리들 추억속의 피부병 만병통치약 (이명래고약), 곰탕 하나에 깍두기 하나로 60년 사랑 (하동관), 도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담아 판다 (박인당), 한국영화의 산 역사를 증명하는 문화결정체 (단성사), 정갈한 마음으로 긴 생명력을 유지하다 (동래할매파전), 아버지의 혼을 이어받아 동생이 깎고 형이 칠하고 (목기 지산공예), 베풂의 사랑으로 천안의 명물이 되다 (학화호두과자) 등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노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최고의 가게에서 배우는 경영노하우는 8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선택과 집중 전략을 써라. 둘째, 정직함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얻어라. 셋째, 핵심역량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라. 넷째, 모든 변수를 미리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다섯째,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여라. 여섯째, 기본에 충실한 핵심가치를 수립하라. 일곱째,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라. 여덟째,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라.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져온 노포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고수의 중요한 경영노하우와 세월을 이기는 힘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100년을 넘어 그 이상을 꿈꾸는 노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본다.

Contents

- 1.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 2. 변하더라도 핵심만은 지킨다.
- 3.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 4. 정신과 원칙을 남겨라.

※키워드 : 경영노하우, 노포, 창업

- 5. 문화상인이라는 자부심과 보람에 산다.
- 6. 정은 나누고 옛 맛은 지킨다.
- 7.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명품을 만든다.
- 8. 혜안으로 후계를 골라 천년 노포의 꿈을 쏘다.

밥 하는 여자



한복선 지음 / 에르디아 / 2013 ▶ 811.7 한45▶



비산도서관

이 병희

궁중음식 연구가이자 시인인 한복선이 음식 시집 '밥 하는 여자'를 발표했다. 《문파문학》 신인상 시 부문에 당선되어 문단에 발을 딛고 선보인 첫 시집이다. 그동안 수많은 음식을 손끝으로 전해온 그가 이번에는 감성으로 음식을 전한다. 레시피와 노하우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랑과 아픔, 그리움 등을 이야기한다. 그의 음식 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음식문화와 시문학을 접목시켜 현대 시문학 영역의 새 길을 트는 특단의 가치를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밥 하는 여자》에는 모두 7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굴전', '꽃국수', '궁중의 장(醬)', '열무김치', '모란꽃 식혜' 등 모두가 음식에 관한 시들로, 궁중음식에서 일반음식까지 우리의 음식문화가 그만의 맛깔스런 시어들로 벼루려져 있다. 궁중음식 대가의 팔로, 궁중음식 연구가로 살아온 그의 삶이 녹아 있어 한 편 한 편 따뜻하고 진한 향취와 잔잔한 공감이 느껴진다.

한복선

파김치

쪽파 다듬어

젓국에 절여 파김치를 담근다

푹 익혀

뜨거운 밥에 걸쳐 먹으면

(후략)

오이지

여름반찬 으뜸은

간간한 오이지

어머니 제일 좋아하셨다

찬물에 밥 말아서

오이지와 먹으면

(후략)

굴비대가리

창덕궁 담 밑의 한옥

따스한 봄날 뒷마루에 늙은 고양이 졸고

있다

몇 살이니? 야옹

가만히 희미한 눈으로 지그시 올려본다

(후략)

신선로

깊은 산속 신선의 화로

숯불에 타오름

떠오르는 태양빛

오색 빛이 타오른다

입을 즐겁게 해 주는 탕

(후략)

한복선

Contents

- 01. 맛있는 멋있는 음식
- 02. 유자이고 싶다

※ 키워드 : 마음, 자연, 속 깊은 맛

- 03. 밥 하는 여자
- 04. 떡 옆에 장김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강수진 지음 / 인플루엔셜 / 2013 ▶ 325.211 강56-



만안도서관

차 소 진

동양인 최초 스위스 로잔 발레 콩코르 우승, 동양인 최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입단, 독일에서 최고의 예술가에게 장인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영예인 동양인 최초 캄머텐저린(독일궁중무용수) 작위를 받는 등 발레리나 강수진의 삶은 최초, 최고가 가득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초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강수진하면 떠오르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울퉁불퉁하고 비정상적으로 관절이 튀어나온 흉측한 이 발 사진 한 장으로 강수진의 발레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강수진은 하루에 18시간을 발레 연습을 할 정도로 연습벌레다. 그동안 20만 시간 넘게 발레연습에 투자했으니 연습벌레 보다는 거의 중독에 가까우 수준이다. 그러나 강수진에게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하루하루를 연습에 몰두하고 노력하며 산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었다. 그녀의 삶의 모토가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녀에게 하루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하루가 아닌 것이다.

이 책에서 강수진은 얼마나 몰입했느냐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단순히 몇 시간을 일했는냐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한곳에 얼마나 집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Nobody is perfect but who wanna be Nobody! ’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누가 ‘아무도’이고 싶겠는가?)

‘아무도’이기를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권하고 싶다.

Contents

※키워드 : 발레리나, 하루, 연습, 열정

- part 1. ‘어제’ 가졌던 열정의 크기가 오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 part 2. 결코 포기란 단어를 모르는 한 여자의 ‘오늘’
- part 3.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 기타는 잠들지 않는다



신중현 지음 / 해토 / 2011 ▶ 673.509 신766내



호계도서관 배성현

한국 록의 대부로 불리는 가수이자 작곡가, 기타리스트 신중현의 자서전.

1938년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 만주를 거쳐 해방이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 신중현은 예술적 감각이 있던 어머니의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며 청음력을 키웠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바이올린과 기타사진을 보고 나무상자에 철사를 연결하여 만든 자작 기타가 그의 첫 기타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양친을 잃은 신중현은 생활이 어려워지자 친척 어른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게 된다. 고된 생활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로 음악을 선택한 신중현은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몽땅 털어 기타를 구한다.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기타를 치던 신중현의 기타실력은 나날이 늘었다. 당대의 유명 아티스트였던 김광수 선생에게 무턱대고 찾아가 오디션을 본 그는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음악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기타 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사람의 소개로 미8군 밴드에서 일을 하게 된 신중현은 그곳에서도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이교숙 선생을 만나 화성악과 작곡에 관한 공부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신중현의 본격적인 음악인의 인생이 시작 되었다.

4인조 그룹 ‘애드휘’를 통해 1964년 공식 첫 앨범을 낸 신중현은 1966년 ‘애드휘’를 해산하고 다시 미 8군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8군의 신인가수였던 ‘펄 시스터즈’를 가르치며 100만장이 넘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그들의 데뷔 앨범 <님아>를 제작한다.

그 후 김추자, 박인수 등 기라성 같은 유명 가수들을 길러내며 ‘신중현 사단’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신중현은 최고의 제작자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신중현과 엽전들’ 이란 밴드를 결성하여 1974년에 발표한 <미인>이라는 곡이 공전의 히트를 하였으나, 1975년 ‘공연활동 정화방침’에 따라 <미인>을 포함한 15곡이 금지곡이 되고 대마초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신중현은 감옥을 전전하는 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의 복귀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록 음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디스코 음악이 유행하게 되면서 신중현의 음악도 대중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 후 라이브 공연 문화를 대중화 하려는 생각으로 한국 최초의 록 콘서트장을 만들기도 하였고, 영화음악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대중성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을 연구하며 속세를 떠나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Author

※키워드 : 열정, 록, 기타

□ 저자 : 신중현

가수이자 작곡가.

대표곡은 <빗 속의 여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미인>, <봄비>, <님은 먼 곳에>, <꽃잎> 등이 있다.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시 한 줄에서 통찰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 황인원

11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영원한 청년작가 『최인호』

'영원한 청년 작가', '한국 문단의 큰 별'로 불리는 최인호 작가가 9월 25일 향년 68세로 별세했다. 최인호 작가의 작품세계를 회상해 볼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깊고 푸른 밤 / 최인호
- 인연 / 최인호
- 봉유도원도 / 최인호
- 상도 / 최인호
-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 최인호
- 할 / 최인호
- 최인호의 인생 / 최인호
- 천국에서 온 편지 / 최인호
- 이상한 사람들 / 최인호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돌이켜보면, 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해준 것은 바로 인연이라는 징검다리였다.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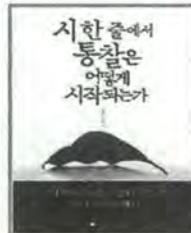
믿음이 굳지 않으면 큰 사랑이 없으며, 죽음을 뛰어넘는 정절이 없이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니...

<봉유도원도>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상도>

시 한 줄에서 통찰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황인원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 ▶ 181.53 황68▶



평촌도서관

최순애

이 책은 죽어가는, 혹은 의미 없어진 우리의 고정화된 지식과 통념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각의 힘을 얻고자 새로운 생각의 힘을 시인들의 통찰법에서 찾고자 했다.

1. 聞(문) 듣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암소 아홉 마리’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다.

2. 見(견) 보다

표현되지 않은 상대의 본심을 읽는다.

“말로 표현되는 욕구는 단 5%에 불과하다” 95%는 숨겨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숨겨진 95%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의인화와 투사를 통해 상대의 입장이 되면 숨겨진 행동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기업에서 생산자가 소비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일체화한 후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3. 覺(각) 깨다

튼튼하다고 믿는 데서 틈을 발견하다.

사실 세상 모든 이야기는 이런 방법으로 형성된다.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을 종이에 써보자. ‘시작’이라고 왼편에 쓰고, ‘끝’이라고 오른편에 쓴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라는 글자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틈이다.

4. 編(편) 엮다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머리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됐지 인문학과 경영학이 왜 필요한가 하지만 경영을 알아야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인문학을 알아야 상상력을 동원해 고객에 맞는 헤어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

5. 動(동) 행하다

원래 듣보잡의 의미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면 여기서의 듣보잡은 ‘듣고 보고 (자신의 생각을)잡아낸다’ 말하자면 관찰과 경청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통찰, 가치, 지식, 관찰, 관념, 편집, 생각, 역할, 소통

- 제1장 듣다
- 제3장 깨다
- 제5장 행하다

- 제2장 보다
- 제4장 엮다

깊고 푸른 밤



최인호 지음 / 문학사상사 / 1982 ▶ 810.82 0152무 6



평촌도서관

최미송

<깊고 푸른 밤>은 한때 유명가수였으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무대에서 쫓겨난 준호와, 준호의 노래 가사를 써주었던 학교 선배 '그' 가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을 그린다. 준호와 그가 마리화나 냄새가 가득한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집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그는 깨질 듯한 머리를 안고 준호를 깨워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는 긴 여정에 오른다.

준호는 인기 절정의 순간에서 무대를 빼앗긴 후, 이런 저런 사업에 손을 대 돈을 제법 모았지만 고질적인 방랑癖 때문에 결국엔 빈털터리가 된 상태다. 그는 현재 미국을 방랑하며 마리화나에 다시 손대고 있다. 준호에게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지만, 준호는 “아이들은 고아원 보내고 아내는 돈많은 출애비한테 시집이나 가라지 뭐” 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그 또한 몸과 마음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현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에 사로잡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술만 마시면 사람들과 싸우고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다. 그가 여행을 떠난 것은 그런 분노의 일상생활에서 ‘망명’ 해 온 것이었다.

L.A.를 향해 정신없이 차를 몰며 침묵에 잠겨 있던 준호는 아내가 한국에서 보내 준 테이프를 듣는다. 테이프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목소리, 노랫소리 등이 담겨 있다. 준호는 테이프를 끄더니 과속을 하고, 결국 그들이 탄 자동차는 쇠난간에 부딪치고 만다.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공허와 분노, 불안에 빠진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과연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까? 소설은 뚜렷한 서사를 담고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두 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을 섬세하게 그린다. 또한 그들이 보고 있는 미국의 정경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982년 이상문학상 수상 당시 “소설 공간을 미국으로 확대하여 현대 인간의 좌절과 회복을 세계의 문맥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뛰어난 묘사력, 풍부한 감성, 예리한 비평 정신은 현대 휴머니즘의 서사시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평을 받았다.

영화 <깊고 푸른 밤>

※키워드 : 현대사회, 좌절, 감성

배창호 감독의 1985년작. 최인호 각본. 안성기, 장미희 주연.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나 제목과 미국이라는 배경만이 같은 뿐 소설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던 남자가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한 여인을 냉혹하게 상처입히는 과정을 그렸다. 평단과 흥행에서 모두 크게 성공했다.

인연



최인호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 ▶ 814.6 최6819인



박달도서관 유민정

소설가 최인호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순간에 맺은 '인연'에 대해 쓴 글을 모아 엮은 에세이집.

작가는 마흔 세 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말하며 그 생애를 지탱해준 것은 일상의 곳곳에 물든 인연이었음을 고백한다. 평소 관심두지 않았던 마당의 나무에서 자라는 꽃잎, 길에서 주워 온 난이 피워 올린 꽃망울, 수십 년 동안 입고 신어 온 옷과 신발 등 삶의 구석구석에 작가의 인연이 있다.

작가는 인연이 우리 삶 속의 반짝이는 별이라 이른다. 인연은 우리의 삶을 어떤 지점으로 인도하는 등대이며, 생애를 증명하는 이력이자 추억의 총체다. 그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어 간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동무가 되어준 작은 돌멩이, 일상의 지난함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준 성경 말씀, 낯선 곳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가와 도움을 주었던 낯모르는 사람들, 계절과 생명의 위대함을 가르쳐준 꽃잎 한 장.

"돌이켜보면, 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해준 것은 바로 인연이라는 징검다리였다."라고 작가 최인호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을 지니고 있고, 인연이라는 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개인의 육체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 가치와 의미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나'가 된다.

우리는 모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신의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른다.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은 반짝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밤하늘에서 인연의 빛을 밝혀 나를 반짝이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삼라와 만상에게 고맙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Contents

※키워드 : 인연, 관계, 사람, 추억

- 1부 - 나와 당신 사이에 인연의 강이 흐른다
- 2부 - 인연이란 사람이 관계와 나누는 무늬다
- 3부 - 우리는 모두 우리가 나누는 인연의 관객이다

몽유도원도



최인호 글 / 열림원 / 2002 ▶ 813.6 최68동



석수도서관

박현정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기에도 짧은 우리들의 인생...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아랑

피처럼 절실하게 죽음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몽유도원도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설화 <도미전>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백제 21대 왕이었던 여경(개로왕)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절세의 미인을 만나게 된다. 꿈속에서 이 여인과 평생을 통한 사랑을 나누었던 여경은 잠에서 깨어나서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닮은 사람을 찾던 중 꿈속의 여인을 꼭 닮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아랑을 알게 되는데, 아랑에게는 이미 남편 도미가 있었다. 대왕은 아랑을 차지하기 위해 도미와 바둑내기를 하고 대왕의 음모에 걸려든 도미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아랑은 정절을 지키고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아랑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대왕은 도미의 눈을 찔러 앞을 못 보게 만든 후 배에 둑어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 남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강에 내던져지자 아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에게 몸을 허락하기로 마음먹고 늦은 밤 강물에 나가 목욕을 한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에 익은 피리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 작은 초막 앞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난 아랑과 도미는 고구려 땅으로 도망가게 된다.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겨우 연명하다 배를 타고 생사를 초월한 모습으로 바다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무도하게 아랑을 탐했던 개로왕(여경)은 후일 고구려 군사의 공격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몽유도원도'라는 제목은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노닐던 도원경의 선경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안견의 화제(畫題)에서 빌려온 것으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도미와 아랑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대왕 여경의 헛된 욕망을 통해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이 한갓 꿈속에서 본 도원경(桃源境)을 현실에서 찾기 위한 몽유병의 꿈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설화 중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쓰고 싶다던 최인호 작가의 각별한 애정이 가득 담긴 이 소설은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요즘 시대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다.

작품

*키워드 : 사랑, 믿음, 희생

「별들의고향」 「도시의사냥꾼」 「상도」 「잃어버린왕국」 「길없는길」 「해신」 「유림」 「제4의제국」
「낯익은타인들의도시」 등.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



최인호 지음 / 문예출판사 / 2001 ▶ 813.6 최680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이 책은 작가 최인호가 어머니를 그리며 써내린 자전에 가까운 소설이다. 작가는 여느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과 고마움을 절실히 깨닫고 가슴 저린 후회를 한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위해드렸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직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공사판 인부처럼 손이 두껍고 커지도록 고생하며 일하신 어머니를 최인호는 그리 곱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고 추억한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하여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이를 악문 어머니는, 그래서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여겨질 만큼 악착스럽게 사셨다. 난쟁이처럼 키가 작아 볼품없는 어머니는 툭하면 동네 사람들과 소리를 질러대며 싸웠고,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지 않겠다고 할 만큼 끈질기게 물건값을 깎기도 했다.

곱지도 똑똑하지도 품위 있지도 않았던 어머니. 그러나 나이를 먹고 머리가 반백이 되어도 가슴이 텅 비었음을 느낄 때마다 찾게 되는 어머니. 이미 다 읽은 동화를 어머니가 더듬더듬 너무나 열심히 들려주셔서 모르는 척 채근하며 들었던 기억, 새끼발가락이 겹쳐지고 작달막한 어머니의 맨 다리를 주무르던 기억 들을, 최인호는 애恸한 마음으로 되씹는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험난한 우리 현대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가족들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최인호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 그 수고로움이 모두 잊히기 전에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어머니상을 다시 한 번 형상화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영원히 마음 속에 새겨두겠다고 다짐하며 '어머니, 어머니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는다.

Contents

- 서장
- 영결미사
- 어머니의 꿈

※키워드 : 어머니, 최인호, 희생

- 용서하여 주십시오
- 거짓말하지 말아라
- 어머니의 묵주...

상 도



최인호 지음 / 여백 / 2005 ▶ 813.6 최6819상



박달도서관 김지은

2백여 년 전에 실재했던 의주 상인 임상옥. 우리나라가 낳은 최대의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던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의 삶을 주 배경으로 흥경래, 김정희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를 선형적으로 드러낸 최인호의 역사소설이다.

기평그룹의 총수 김기섭 회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은 후 그의 지갑에서 나온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이란 문장의 출처를 밝혀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에 주인공은 그 문장을 쓴 사람이 조선 중기의 무역왕 임상옥임을 알아낸다.

그는 의주 태생으로 스무 살 무렵 중국 연경에 들어가 처음으로 큰돈을 벌었으나 이 돈으로 유곽에 팔려온 장미령을 사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고 자신은 공금 횡령죄로 상계에서 파문을 당한다. 승려가 된 임상옥은 고관대작의 첨이 된 장미령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환속하여 상계에서 재기하기 시작한다.

하산할 때 석송 스님께서 내려주신 세 가지 비결, 즉 '죽을 사(死)!' 자와 '술 정(鼎)' 자와 '계영배(戒盈盃)'의 술잔을 통해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첫 번째로는 베이징 상인들의 인삼 불매동맹에 스스로 인삼을 태우는 방법으로 물리치고, 두 번째는 흥경래의 유혹을 '술 정(鼎)'자의 비의를 타파함으로써 그 혁명의 와중에도 온전히 목숨을 부지한다. 가득 채우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팔 할쯤 채워야만 온전한 '계영배'의 비의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이야말로 최고의 상도(商道)임을 깨달은 임상옥은 사랑하는 여인 송이를 떠나보내고 스스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 한 마리를 솔개가 채가는 모습에, 자신의 명운이 다하였음을 직감한 임상옥은 자신에게 빛진 상인들을 모두 불러 일일이 빛을 탕감해주고 오히려 금덩어리까지 들려 보낸다. 임상옥의 건강이 급속도로 쇠약해지면서 박종일에게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끝으로 주인공은 김기섭 회장의 호를 딴 〈여수기념관〉의 개관식에 참석, 추사 김정희가 임상옥을 위해 쓴 발문의 내용을 춘독한다.

저자는 독자에게 부도덕한 상인정신에 대비되는 참된 상인정신을 통해 진정한 상인정신이 무엇이며, 바람직한 상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와 같은 상인이 실존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Author

※ 키워드 : 임상옥, 가포, 무역상인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서울고 2학년 재학 중(1963)에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벽구멍으로』로 당선작 없는 가작입선을 했다. 시류의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으로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작품을 써내며 천재적 작가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 다수의 작품으로 신인문학상(1967), 현대문학상(1972), 이상문학상(1982), 가톨릭문학상(1998), 불교문학상(2003) 등을 수상했다.

최인호의 인생



최인호 지음 / 여백 / 2013 ▶ 814.6 최6819인



호계도서관

김현진

<상도>, <해신>, <별들의 고향> 등 우리에겐 드라마, 영화로 친숙한 최인호씨가 2008년부터 침생암으로 투병하다 올 9월 향년 68세로 50년간의 문학인생을 마감했다. 투병 중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세상에 선보이기까지 최인호는 한결같이 '작가'였다.

이 책은 2008년 5월 첫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쓴 작품들로 1부는 가톨릭 <서울주보>에 5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한 글을 모은 일종의 뮤상록이며, 2부는 수상(隨想)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며 굳이 이름 하자면 연작소설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의 삶 중 어떤 때보다도 치열했던 지난 5년간의 시간, 육신의 쇠락과 문학적 죽음을 견디며, 고통을 신이 내려준 선물로 받아들이는 와중에 '끝'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진실을 담은 삶의 일기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불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지만 1987년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가톨릭에 입교하면서 황폐해지는 내면이 종교로 이끌었다는 것이 고인의 고백이다. 육신의 쇠락과, 그보다 더 아픈 문학적 죽음의 시간 앞에서 좌절하고 몸부림 쳤던 최인호는, 그 아픔의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영혼의 재생을 경험하며 감사함에 이르게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엔 최근 우리 곁을 떠난 세 사람의 '어른'들과 맺었던 인연과 이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울지 마 톤즈》라는 다큐 영화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 두 번째는 2009년 우리 곁을 떠난 고 김수환 추기경, 세 번째는 법정 스님과의 인연 등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던 뜻 깊은 시간들을 보여준다.

"울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어서 어서 꽃 피는 춘삼월이 왔으면 좋겠다. 혹여나 이 책을 읽다가 공감을 느끼면 마음속으로 따뜻한 숨결을 보내주셨으면 한다. 그 숨결들이 모여 내 가슴에 꽃을 피울 것이다. 2013년 2월 최인호." 머리글 中에서. "주님을 봤다. 됐다. 가자." 마지막에 남긴 말이라고 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죽음 앞에 의연함을 잃지 않은 모습에서 삶을 통찰하는 혜안과 인간을 향한 애정을 엿보게 된다. 독자들의 따뜻한 숨결이 보태져 하늘나라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길 바래본다.

Contents

※ 키워드 : 인생, 생명

- 1부. 아무것도 청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며
- 2부.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들



최인호 지음 / 열림원 / 2006 ▶ 813.6 최6819◦



석수도서관

오세은

이 책은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3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편소설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은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다. 거지와 미친여자 사이에서 태어나 자신만의 집을 갖는 것이 평생소원인 주인공 '작은 노마'는 오십여년간 동냥을 통해 모은 돈으로 자신의 집을 갖는다. 그러나 노마는 공원 조성으로 인해 강제로 집을 잃게 되고, 결국 그는 집이 있었던 자리인 공원 풀밭에 원을 그린 후 자신만의 집을 갖는다.

두 번째 단편 소설의 주인공은 과거에는 높이뛰기 선수였지만, 현재는 대장장이로 살아간다. 사고로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주인공은 포플러나무를 기르며 조금씩 자라는 나무를 뛰어 넘는다. 결국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를 뛰어오르며 허공으로 사라진다.

마지막 소설의 주인공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갑자기 말이 싫어진 주인공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말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만다.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후에 신기료 장수가 되어 나타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으며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얼핏 자폐적이며 불구의 영혼을 가진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란 한갓 풀 같은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즉, 인생은 들에 편 들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 사라져 그 서 있던 자리조차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꿈에 불과한 것이라 말이다.

이상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주인공들을 보며 행복이란 결국, 인생이란 결국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Contents

-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
- 포플러나무
- 침묵은 금이다

※ 키워드 : 이상한 사람들, 꿈, 잠언집

할



최인호 지음 / 여백 / 2013 ▶ SL 813.7 최68할



평촌도서관

황신혜

'할(喝)'은 사찰과 선원에서 확인을 꾸짖거나 말이나 글로써 나타낼 수 없는 도리를 나타내 보일 때 내뱉는 소리를 이른다. 법기와 수련이 높은 승려가 토해내는 '할'에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자후와 같은 기운이 서려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소리보다 큰 침묵의 소리, 모든 분별과 욕망과 번뇌를 일거에 불태워 버리는 자각의 번갯불,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침묵의 함성이다.

이 책에서는 오묘한 이치를 담은 설법으로, 때로는 경악할 경지의 파행과 기행으로 세속의 부조리를 꾸짖던 우리나라 근대 불교의 선구자 경허 선사와 그의 수법제자인 수월, 혜월, 만공의 여러 일화와 법훈을 적고 있다.

1장은 바람으로 사라진 방랑승, 경허에 관한 이야기이다. 스승 경허가 거령뱅이 나병에 걸린 여인을 눈 속에서 살리는 모습을 제자 만공이 지켜보며 스스로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느낀 일화로 시작하여 객승으로 북방을 떠돌며 지은 시들을 통해 경허의 자유인으로서의 자취를 살피고, 박난주라는 유생으로서 당을 개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다 입적하기까지의 경허의 삶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경허의 수법제자 중 가장 맏이 수월이 33세에 천수경을 외어 수월 법호를 얻고 세속뿐만 아니라 불가에조차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겸손히 자비를 베풀며 덕의 향기를 풍기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

3장은 개간선사로 불릴 만큼 땅 일구기를 좋아했던 혜월이 배고픈 대중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산비탈을 개간하며 속물의 계산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명한 '활인검'과 '사인검' 일화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불세출의 선승, 만공이 불가에 들어 경허를 스승으로 모시고 도를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김좌진과 한용운과의 인연, 일제에 의해 국운이 스러져 가고 불심이 퇴색해 가는 현실 앞에서 대중들을 깨우쳤던 만공의 일화로 엮었다.

한 없이 어두웠던 절망의 시대에 경허 선사와 세 명의 수법제자들이 남긴 법훈과 선화들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에 큰 울림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근대 불교, 경허, 수월, 혜월, 만공

- 1장 부처를 버려라
- 2장 온 곳이 없으니 간 곳도 없다
- 3장 일체의 법은 본래 그 실체가 없다
- 4장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온 편지



최인호 지음 / 누보 / 2010 ▶ 814.7 최68천



석수도서관 해지회

이 세상에 나의 어머니로 찾아왔다
하늘로 돌아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문 영혼이여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신의 뜻을 발견하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자식들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겠다.’ 고 약속했던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켰다. 여섯 형제를 키우면서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대학까지 보냈다. 하지만 여섯 명의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어머니는 ‘액체어멈’에 ‘총뜨기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최인호에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의 이미지에 가까웠다. 이웃들과 악다구니를 하고, 성못길에 주위의 시선엔 아랑곳없이 비석을 불들고 긴 울음을 토해내고, 칙칙한 쥐색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로 찾아오는 어머니는, 한마디로 최인호가 꿈꾼 인자한 어머니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은 어머니가 병환으로 무너지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찾아왔다. 그러한 사실을 어머니 살아생전에 왜 알지 못했겠느냐마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깊은 회한으로 남았다.

배움이 짧아 고상하지 못했고, 생전에 자식을 위한 교훈 한 마디 남기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성인(聖人)이 자신의 삶으로써 복음을 쓰듯, 어머니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이었다.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신새벽부터 일어나 고군분투했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미 어머니가 떠나고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은 세상 곳곳, 물건 하나하나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순간마다 오랜 기억들을 소환한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어도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 속에서 그는 청년이고, 소년이고, 갓난아기가 된다. 그 어떤 사람도 어머니 앞에서는 결국 ‘어린 아들’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머니라는 배역을 벗고 무구한 영혼으로 돌아간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하느님에게 최인호는 기도한다. 내 마음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매일 매일의 일상으로 찾아와달라고…….

Contents

- 그래도 내게는 부를 이름이 있네
- 내 인생의 꽃밭에서 만난 꽃들과 나비
- 하늘과 돌아가 영원히 내 곁에 머물다

*키워드 : 어머니, 희생, 사랑

Healing 도서요약은...



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긍정심리학 / 마틴셀리그만

12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길위의 인문학

각 종 도서관마다 시민들에게 인문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천된 도서를 소개해 봄으로써 삶의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인문학을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도서목록

- 퇴계처럼 / 김병일
- 막걸리, 넌 누구냐? / 허시명
- 잘가요 엄마 / 김주영
-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 신병주·노대환
- 왜관 / 다시로 가즈이
-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 / 안형준
-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 안대희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2 / 유홍준
- 책은 도끼다 / 박웅현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료하세요~!!



재능이 있는 곳이 바로 스승이 있는 곳이다. 나는 재능을 스승으로 삼을 뿐 귀천이 있고 없고는 모른다.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은 탑승우주인과 예비 우주인, 과학실험을 준비한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별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다리를 뻗고 앉거나 기대거나 눕거나 엎드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퇴계처럼>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만 지음 / 물푸레 / 2012 ▶ 189 쪽 298 원



비산도서관

김미영

이 책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대처하는지 알려주면서, 다양한 임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 이란 화두를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하지만 기존의 책들에서 보여지 듯 마음을 비우라는 식의 관념적인 조언이 아닌, 행복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물론 심리학계에 일으키고 있는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바람의 핵심인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행복은 습관이며,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안내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도 명쾌한 희망을 던져준다.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 이란 만족적 행복에 머물지 않고, 사회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미덕과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24가지의 강점과 미덕을 설명한다. 사람은 저마다 다섯 가지 이상의 ‘대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삶에 통합시키면 긍정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친절, 독창성, 유머 감각, 낙관주의, 호기심, 열정, 너그러움 따위의 대표 강점을 삶에 통합시키면 긍정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독자의 행복 수치와 긍정적 정서,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다양한 검사지가 들어 있다. 실질적인 조언과 활용법이 가득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일, 사랑, 자녀 양육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기쁨과 만족, 더 나아가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은 행복은 좋은 유전이나 행운을 타고난 결과가 아니라 꾸준히 연습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의 ‘기술’ 같이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찾아서 발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혁명적이고도 과학적인 긍정심리학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Contents

- 1.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 2. 당신의 행복도를 높이는 비결

※키워드 : 행복, 강점, 비전

- 3. 만족에 이르는 길 - 강점과 미덕
- 4. 강점을 활용하여 행복한 삶 만들기

나는 대한민국 우주인이다



안형준 지음 / 동아사이언스 / 2008 / 558만94-



호계도서관 이혜준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여는 한국최초우주인배출사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과학동아 안형준 기자가 직접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1부에서는 서류접수부터 최종 후보 2인을 확정하기까지 우주인 후보들이 치러 낸 과정을 그려냈고, 2부에서는 최종 2명의 우주인 고산씨와 이소연씨가 러시아에서 받는 고된 훈련과 우주선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과학동아 신참기자 안형준씨가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생생한 우주인 선발과정을 담고자 직접 우주인 선발에 지원한다. 3개월의 접수기간동안 3만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했고, 그 중 서류심사와 마라톤 시험, 필기시험을 거쳐 500명으로 걸러졌다.

이들이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2차 시험으로 1박 2일 동안 체력검사, 영어면접, 정신심리검사가 이어진다. 이를 중 최종 30명이 뽑혀 3차 검사를 치르게 되는데 안형준 기자도 최종 30인에 들었다. 3차 검사는 본격적인 정밀신체검사와 우주적성검사로 이중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중력가속도 훈련이나 저압실 적응훈련 테스트도 포함되어있다. 3차 검사를 통과한 10명만이 '스페이스캠프'라는 가상의 우주공간에서 테스트를 받고 또다시 8명으로 추려진다. 8명은 러시아로 가서 실제 무중력 비행기 탑승과 수중 임무 훈련, 러시아 현지 적응 테스트를 받게 된다. 무중력 비행기에서는 물건 던지고 받기, 공중제비돌기 등 무중력 환경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을 받고, 현지적응 테스트에서는 러시아 재래시장에서 러시아 물건을 사는 시험을 받는다. 러시아에서 치러진 테스트를 통해 최종 2인이 선발되었다.

고산씨와 이소연씨가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 가가린 훈련센터에 입성한 이 두 사람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고 체력훈련을 한달간 받고 본격적으로 우주선에 대한 원리와 장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유스 우주선 모형수업을 받았다. 또한 우주선이 바다에 착륙하거나 눈 덮인 산악지대에 불시착 할경우를 대비에 특해 생존훈련과 동계생존 훈련도 받았다. 이런 훈련을 병행하면서 이들은 우주공간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여러 가지 과학실험들을 준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우주에서 보여주는 과학실험들은 어린이들에게 높은 교육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 중 실제 우주선에 탈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처음에는 고산씨가 뽑혔지만 러시아측에서 이소연씨로 탑승우주인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 이소연씨로 바뀌게 되었다. 2008년 4월 8일 이소연씨는 바이코누르 발사기지에서 출발하여 우주정거장에서 9박 10일간 머물며 18가지의 과학실험을 수행하고, 무사히 잘 귀환했다.

Contents

※키워드 : 우주인, 꿈, 도전

- Part 1.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 Part 2. 우주에 휘날린 태극기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안대희 지음 / 한겨레출판 / 2010 ▶ 911.05 안23-2



평촌도서관

양민월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은 조선후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길거리 고수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18세기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주목한 조수상의 『추재기이』를 중심으로 '추재기이'에 간략하게 소개된 등장인물들이 다른 문헌에 나오는 어떤 이와 동일인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맞물리는지를 정밀하게 맞춰가면서 이들 인물들을 풍부하면서도 입체적으로 고증하고 있다.

1부에서는 맨입으로 온갖 소리를 모사하는 구기 전문인 박밥새와 군할, 문맹률이 높은데다 책값이 비싸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 입이 커서 두 주먹이 입안에 들락날락했고 한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린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광대 달문 등 조선후기의 시대적 활력을 배경으로 근대적인 대중예술이 꽃피기 전에 화려한 기예들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위무한 스타들이 등장한다.

2부에서는 성별의 장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봉건적 여성상에서 벗어난 18세기 색다른 여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도 기생 출신이면서 거부었던 김만덕은 사재를 털어 제주 빈민들을 구제한 여장부였으며, 시장에서 떡과 옛을 팔아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온 세상 남자가 모두 내 남자라며 호기롭게 거리를 활보한 순 살의 노처녀 삼월이의 얘기와 무인 남휘와 가사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눈 비구니의 로맨스가 흥미롭다.

3부는 조선후기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새로운 풍경들을 그린다. 몰락한 양반들이 저잣거리로 나와 장사를 하는 풍경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노비가 한양 제1의 교육특구였던 성균관 근방에 큰 서당을 차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노비 출신의 시인도 출현한다.

4부에서는 치안이 불안하던 조선후기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대도와 신출귀몰한 의적 일지매가 민중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현상을 각종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오입쟁이를 기생에게 중개하는 조방꾼들과 18세기의 제일가는 점쟁이 유운태 등을 소개한다.

Contents

※키워드 : 통영동이, 달문, 맹인 점쟁이

- 1부. 널리리야, 딴따라들의 향연
- 2부. 파란만장해라, 기고만장한 여인들

- 3부. 웃것 아랫것 뒤섞인 반상의 풍경
- 4부. 어두운 뒷골목을 사로잡았나니

왜 관



다시로 가즈이 지음 / 정성일 옮김 / 논형 / 2005 ▶ 911.05 다.580



평촌도서관 김태영

요즘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권의 잇따른 망언으로 한일 관계는 점점 악화 일로에 있다. 한때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일본 내의 한국 배우의 열풍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호감도가 상승했던 걸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오랜 옛날 상고시대부터 수천년 간 이어져 왔지만, 국사 교과서 등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고려 말의 왜구로 인한 피해와 임진왜란, 근대의 일제 지배하의 수탈 등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일본과의 관계는 침략과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것처럼 보이나, 이 외에 문물의 교류도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 일행일 것이다. 이외에 역사책에는 짧게 한줄 정도로 다뤄지던 것이 바로 왜관 설치이다. 단순한 물물교환을 위해 일본이 요구해서 조선 땅의 끝자락을 내어 준 것으로 여긴 이 왜관이라는 장소에 대해 저자는 엄청난 사료를 바탕으로 수백년 전 조선땅에 머물면서 문화를 흡수해간 일본인들의 과거를 재현해내었다.

1장 ‘고왜관 시대’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쌀농사가 불가하여 조선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마도 측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왜관이 설치된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2장 ‘일본인 마을 200년의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작은 규모로 허용되었으나 입지 등에 불리함이 많았던 고왜관에서 10만평 규모의 신왜관으로 이전 과정을, 3장 ‘쇄국시대의 왜관무역’은 왜관을 통한 양국 간의 무역, 특히 조선에서 나는 인삼이 인기가 많아 이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대마도 측의 무역특수를 자세히 다루었다.

4장 ‘왜관에 살다’에서는 왜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소개하면서 왜관의 실태를 자세히 보여준다.

5장 ‘조선과 일본의 음식문화 교류’에서는 향응 등의 자리를 통한 음식문화 교류와 그에 대한 양국 사람들의 느낌 등을 소개하면서 상호간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6장 ‘조선을 조사하다’이다. 동의보감을 보고 흥미를 느낀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근 30년간 한반도의 동식물에 대해 왜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1,200여종의 약재를 확인하는 등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 행위를 조선에서 벌였다는 내용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때 확보한 인삼 생초를 재배하여 일본에서 국산화한 결과 인삼 무역으로 재미를 보던 대마도 측의 독점적인 위치가 무너져 결국 양국 무역이 쇠퇴하는 결과가 이어졌다 사실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는 소소한 재미는 130년 전까지 부산에 있었던 ‘왜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 양국간의 교류와 그 속을 채워나간 그 시대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Contents

- 1장 고왜관 시대
- 3장 ‘쇄국’ 시대의 왜관 무역
- 5장 조선과 일본의 음식문화 교류

※키워드 : 일본, 역사, 한일, 문화

- 2장 ‘일본인 마을’ 2백년의 역사
- 4장 왜관에 살다
- 6장 조선을 조사하다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신병주·노대환 지음 / 돌베개 / 2002 / 911.05 신446고



만안도서관

차 소 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 「춘향전」 등의 고전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 심청, 홍길동, 흥부, 춘향은 실존인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허구의 인물도 아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았을 법한 인물로 그 당시의 역사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고전소설은 이러한 등장인물과 흥미로운 극적인 상황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허구인 줄 알면서도 소설의 재미에 빠져들게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고전소설부터 「설공찬전」, 「은애전」 등과 같은 다소 생소한 소설까지 16편의 고전 작품을 통해서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조선시대의 정치사·경제사·사상사·생활사를 상세히 담아내고 있다. 즉, 「임진록」,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 「박씨전」을 통해서는 정치사를 「설공찬전」, 「전우치전」을 통해서는 사상사를, 「허생전」에서는 경제사를, 「홍길동전」, 「춘향전」, 「옹고집전」, 「배비장전」, 「은애전」을 통해서는 사회와 문화사를, 그리고 「흥부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을 통해서는 조선시대의 생활과 풍속의 역사를 새롭게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는 고전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 배경, 작가의 집필의도, 역사적 허구와 사실을 평이하게 서술하여 소설을 읽는 재미와 역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각 장마다 앞머리에 소설 줄거리와 작품, 작가, 시대배경을 간단히 소개한 '작품해설'을, 말미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역사와 생활에 관련한 흥미롭고 재미난 글이 같이 실려 있고,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지도 등도 책에서 함께 볼 수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고전소설을 통해 역사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부담 없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흥미롭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 설공찬전
- 전우치전
- 임진록
- 홍길동전
- 계축일기
- 박씨전
- 장화홍련전
- 인현왕후전

※키워드 : 고전소설, 역사여행, 고전작품

- 한중록
- 춘향전
- 옹고집전
- 허생전
- 은애전
- 배비장전
- 흥부전
- 심청전

잘가요 엄마



김주영 지음 / 문학동네 / 2012 ▶▶ 813.7 김76×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잘가요, 엄마. 안개처럼 씨앗처럼…’

한평생 무겁고 가혹한 삶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결국 한줌의 먼지였다’

자식들을 위해 ‘여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한없이 미련하고 바보같이 희생하는 ‘엄마’의 모습을 철없는 자식들은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기억에서 숨기려한다. 이 책은 어린 시절 엄마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한 평생 무심하고 남처럼 대한 엄마를 죽음으로 떠나보내면서 엄마의 삶과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어린 시절 낯선 새아버지라는 존재, 고통스러운 가난으로 인하여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나’는 고향을 떠나 ‘출세’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번 용돈을 엄마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효도를 합리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내가 가기 전에 어머니가 화장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회피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어머니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나’는 엄마의 싸늘하게 말라붙은 살가죽, 건포도 같은 작은 유두를 보고나서야 엄마의 부재에 회한을 느끼게 되고, 엄마가 쓰던 비닐가방 속에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립스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어머니 역시 여자였구나,’라는 연민과 동시에 엄마의 삶에 대해 미안함과 애잔함을 느낀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엄마’를 회상하며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개인적인 관점 외에도 6.25전쟁으로 인한 강제징병의 희생자, 그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 우리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서로가 존재와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소외 되고 있다는 점, 무허가인 화장장 직원이 허가받은 채석장직원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는 부조리한 모습 등을 통해 사회 고발적인 관점도 볼 수 있다.

김주영 작가의 ‘잘가요 엄마’라는 외침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을 잊고 살아가는 ‘엄마’, ‘엄마’라는 자리를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익숙해져 입 밖으로 더디게 부르게 되는 ‘엄마’라는 존재 역시 한명의 여자이자 사람이라는 점과 가족구성원간의 부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잊게 만든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Author

※ 키워드 : 가족, 엄마, 모성애

1907년 「여름사냥」이 『월간문학』에 가작으로 뽑히고, 1971년 「휴면기」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액주」, 「활빈도」, 「천둥소리」, 「화척」, 「홍어」, 「빈집」 등 다수의 작품이 있고, 유주현문학상(1984),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93), 이산문학상(1996), 대산문학상 (1998), 김동리문학상(2002), 김만중문학상(2013) 등을 수상하였다.

막걸리, 넌 누구냐?



허시명 지음 / 예담 / 2010 ▶ 573.41 해58막



박달도서관

조향순

막걸리와 동동주, 막걸리와 탁주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구분하기 모호하다. 이 책에서 막걸리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 저자는 술 평론가이자 인문학 체험공동체인 막걸리학교의 교장으로, 우리 술을 찾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전국을 누볐다고 한다. 때마침 막걸리 열풍이 일어났고, 막걸리의 과거와 현재의 이력을 처음으로 정리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첫째 장에서는 ‘막걸리, 넌 누구냐?’, 아리송하고 파란만장한 막걸리의 정체와 역사를 알려준다. 막걸리의 다양한 별칭들, 탁주의 도수가 6도가 된 사연, ‘시금털털’ 하던 막걸리가 ‘달보드레’하게 변한 이유, 막걸리의 씨앗, 누룩에 관한 내용 등을 살고 있다. 특히나 전통 방식으로 고무신을 신고 발로 디뎌 누룩을 만드는 사진이 인상적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대체 술이야, 약이야?’, 막걸리를 건강발효음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준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능, 혈당 수준을 저하시키는 효능 등 새로운 효능과 막걸리 다이어트와 누룩 마사지 방법 등을 살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전국 막걸리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구석구석 숨어 있는 지역 막걸리 양조장을 순례하며 막걸리 고장을 소개한다. 여러 양조장,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 막걸리 명소 사진들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2009년에 언론사의 취재열기, 막걸리 품질 향상, 일본에서의 막걸리 인기, 농림수산식품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 막걸리 열풍의 원인에 대해 얘기하고, 한 때의 히트 상품이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저자의 의견을 수록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집에서 막걸리·누룩 만드는 법, 막걸리 칵테일 레시피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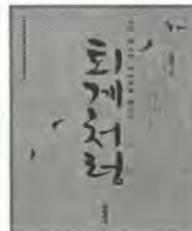
막걸리는 우리 민족에게는 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막걸리는 일꾼들의 힘을 돋우는 노동의 벗이었고, 시인을 노래하게 하는 밥이었고, 노인을 봉양하는 우유였다. 저자의 바람대로 막걸리바람에 엔진을 달아 돌풍이 아닌, 새로운 술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Contents

※키워드 : 막걸리, 탁주, 전통주

- 1장 막걸리, 넌 누구냐?
- 2장 대체 술이야, 약이야?
- 3장 전국 막걸리의 다양한 매력 속으로
- 4장 막걸리 우리 문화에 말을 걸다
- 5장 요리조리 막걸리를 디자인하다

퇴계처럼



김병일 지음 / 글향아리 / 2013 ▶ 151.53 김44=



비산도서관

김은아

과거 조상들의 ‘오래된 만남’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엿보고자 하는 책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퇴계 이황의 삶과 그의 리더십을 학문적, 관료적 면모가 아닌 일상적인 면모, 특히 퇴계가 삶을 통해 접했던 ‘여성’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 1장 퇴계가 받든 여인들에서는 퇴계의 두 부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들 둘을 낳고 산고에 일찍 숨을 거둔 첫째 부인, 그리고 정신이 모자랐던 둘째 권씨 부인과의 일화를 통해 신분고하와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퇴계의 인성을 알 수 있고, 오히려 모자람을 채워주고자 하는 퇴계의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제 2장 퇴계를 만든 여인들에서는 퇴계의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다. 퇴계는 7살 때 아버지 이식을 여의고 오롯이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퇴계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별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고 다리를 뻗고 앉거나 기대거나 눕거나 엎드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엄했던,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퇴계는 조선 최고의 선비로 자랄 수 있었다.

제 3장 ‘퇴계, 백성을 받들다’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을 통해 갖게 된 섬김의 자세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농사를 염려하는 마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 의롭지 않은 것은 멀리하며 가난을 즐기는 모습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신념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다.

부성이 부재했던 퇴계는 여성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오히려 여성과 가까웠기 때문에 퇴계만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다. 지배하기보다는 섬김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고차원적 윤리와 철학은 그가 받들었던, 그를 만들었던 여성들의 힘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Contents

- 제1장 – 퇴계가 받든 여인들
- 제2장 – 퇴계를 만든 여인들
- 제3장 – 퇴계, 백성을 받들다

※ 키워드 : 퇴계, 리더십, 한국인물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유흥준 지음 / 창비 / 2011 ▶ 981.102 유956나 2



석수도서관 박지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학자 유흥준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며 관련된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한 기행문으로 제 2권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는 지리산 동남쪽의 함양·산청, 영주 부석사, 평창·정선 일대, 토함산 석굴암, 철원, 운문사와 부안 변산 일대, 고부 녹두장군의 생가를 다루고 있다. 아우라지로 대표되는 강원도 천혜의 자원과 문화유산, 새롭게 조명되는 석불사의 신비, 옛 산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부석사와 운문사를 소개한다.

이 책은 '탁족(濯足, 흐르는 물에 발을 씻음)' 문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석사 입구에서 만나는 사과밭의 회화적 아름다움이나 무량수전에서 바라본 소백산맥 줄기의 장대함,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의 미, 청도 운문사의 여성적 아름다움 등은 답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전체 답사기 중에서 특히 제2권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데, 그에 따라 당대의 대 안목들이 보여준 높고, 깊고, 넓은 해석을 다양한 각도로 소개하고 있어 한국미술사에 관한 내용을 가장 풍성하게 담고 있다.

화가 황재형의 「앰뷸런스」나 임옥상의 「들불」 같은 작품이 언뜻 보기에도 추상적이나 작품이다운 실제 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리얼리즘적인지 깨닫게 된다는 저자의 주장은 제2권에 수록된 답사처들의 아름다움과 함께 생생히 전달된다. 특히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석굴암의 설계미학이라든지, 석굴암 본존불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분석, 일제시대 파헤쳐진 석굴암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등을 실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Contents

※ 키워드 : 문화유산, 부석사, 석불사, 운문사

- 지리산 동남쪽 – 함양·산청
- 영주 부석사
- 아우라지강의 회상 – 평창·정선
- 토함산 석불사

- 철원 민통선 부근
- 청도 운문사와 그 주변
- 미완의 여로
- 부록: 답사 일정표와 안내지도



책은 도끼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 2011 ▶ 001.3 박666책



석수도서관 최수영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꼬꼼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되는 거야” – 카프카 “변신” 중에서 –

위 인용글은 이 책의 제목이자 저자가 인문학 강독회를 하게 된 중요한 모티브이다.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로 잘 알려진 저자 박웅현은 창의성이 필요한 광고를 20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이 인문학이며, 그 중심은 책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 문장 한 문장 놀러 읽으면서, 책에 줄을 치고 책 읽기가 끝나면 따로 옮겨 적는 작업을 하는 독특한 독법으로 읽은 책의 울림을 많은 사람과 나누려는 마음에서 강독회를 시작하였고, 이 책에서 자신에게 울림을 주었던 책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도 각자에게 울림을 주는 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있다.

일상에서 찾아내는 순간순간의 행복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감상하고 감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뉜다. 순간의 행복을 보는 눈은 훈련이 필요하다. 책을 깊게 읽는 것은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준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든 거기서 이야기 거리를 찾고 풍요로운 생각을 갖게 해준다.

시이불견 청이불문(視而不見 聽而不聞)

저자가 좋아하는 말이다. 시청은 둘려 보고 듣는 것이고,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 앞에서 ‘얼른 사진 찍고 가자’는 사람은 시청을 한 것이고 휘슬러 〈화가의 어머니〉에 얼어붙은 사람은 견문을 한 것이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청을 한다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단 한권을 읽어도 머릿속의 감수성이 깨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Contents

- 1강 시작은 울림이다
- 2강 김춘의 힘, 들여다보기
- 3강 알랭 드 보통의 사랑에 대한 통찰
- 4강 고은의 낭만에 취하다
- 5강 햇살의 철학, 지중해의 문학
- 6강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7강 불안과 외로운에서 당신을 지켜주리니, 안나 카레니나
- 8강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다

*키워드 : 감동, 자연, 천천히 읽기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에코 크리에이터 / 김대호

2014년 1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사서들이 추천하는 2013년 한권의 책

수많은 책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서들이 2013년 놓치기 아까운 책들은 어떤 것일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크게 화제를 모으진 못했지만 시민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거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 김숨
- 아이의 두 얼굴 / 린이
- 두근두근 내 인생 / 김애란
-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 한호택
-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 김은섭
- 앤저넌에게 꽃을 / 대니엘 키스
-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 리즈 머리
- 웃장 심리학 /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 태원준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칠정하세~!!



실패해 보고 싶었어요. 실망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크게 울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뭔가 실패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두근두근 내 인생>



한순간에 인생이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도 변할 수 있어

<길위에서 하버드까지>

이 지성이 나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사이에 벽을 쌓고 나를 기계에서 추방했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더 고독해졌다.

<앤저넌에게 꽃을>

에코 크리에이터



김대호 지음 / 아이엠북 / 2012 ▶ 331.54 김23에



석수도서관 서성남

에코 크리에이터란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단순한 구호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시도가 세상을 바꾸고 창조적인 생각만이 무너져가는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1장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에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브라질 빈민 슬럼가를 벽화예술로 아름답게 바꾼 ‘파벨라 페인팅’, 환경 재앙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글로벌 사회적 기업에서 개발한 물 정화기 ‘라이브 스트로우’ 등의 사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2장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사람과 환경에 기여하는 패션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한다. 사탕봉지로 유니크하고 팝아트적인 핸드백을 만드는 ‘에코이스트’, 카세트테이프를 재활용하여 옷을 만드는 ‘소닉페브릭’ 등 착한 패션브랜드를 만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3장에서는 문화예술 가운데 꽃피는 에코 아이디어 소개로 버려진 레코드판, 맥주 캔, 플라스틱, 합판 등 쓰레기들을 재활용하여 멋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사례를 만나본다.

4장에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꾸며주는 건축과 인테리어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돔형 지붕 ‘아크로스 후쿠오카 빌딩’, 흙과 대나무, 유리병으로 지은 학교, 도서관이 된 전화박스 등 지구를 살리는 공간 창작물을 만나게 된다.

5장과 6장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참신한 캠페인과 톡톡 튀는 참신한 크리에이티브로 자원을 아끼는 생활 속 소품들을 소개한다. 휴지를 뽑을 때마다 숲이 사라진다는 경각심을 전달해주는 국제야생동물기금의 광고, 비행기를 재활용한 가구 브랜드 ‘모토아트’, 바다의 쓰레기로 만든 진공청소기 ‘일렉트로룩스’, 달걀포장으로 만든 전등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만난다.

이 책은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로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에코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로, 앞으로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에코 크리에이터, 친환경, 재활용

- 1장 에코 크리에이터. 희망을 쏘다
- 2장 에코 크리에이터, 패션을 바꾸다
- 3장 에코 크리에이터. 예술을 말하다
- 4장 에코 크리에이터, 공간을 디자인하다
- 5장 에코 크리에이터, 공존을 꿈꾸다
- 6장 에코 크리에이터. 생활을 절약하다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지음 / 창비 / 2011 ▶ 813.6 김63두



평촌도서관

이유림

조로증에 걸린 아들, 자신들보다 빨리 늙어가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부의 이야기를 애잔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일곱에 ‘나’를 가졌고, 올해 나는 열일곱이 되었다... 하루하루 빛의 속도로 늙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름이의 신체 나이는 80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부모와 늙을 준비가 되지 않은 늙은 자식의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름이의 부모는 어린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된다. 아름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결국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원을 받은 경비로 병원에 입원을하게 된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알게된 친구 ‘서하’... 유일하게 아름이와 비밀을 나눴던 아이, 첫사랑 혹은 마지막 사랑이었던 아이가 실은 열일곱 살 소녀가 아닌 남자, 그것도 서른여섯살이나 된 아저씨라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서하라는 허구의 인물이 죄책감에 병원을 찾아온 후 아름이는 열린 마음으로 아저씨를 용서해주며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난다.

의젓하게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잘 이겨내는 아름이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며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름이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부모의 사랑이야기, 슬프기 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잔잔한 동화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누구나 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다 이루면서 살 순 없다. 지금 우리는 아픈 아름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당연하고 소소한 일을 쉽게 이루어며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책 속 한 구절을 떠올리면 어떨까?

“실패해보고 싶었어요. 실망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크게 울어보고 싶었어요” ...
“저는 뭔가 실패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Contents

- 1. 두근두근, 인생
- 2. 아버지, 어머니
- 3. 희귀병, 조로증
- 4. 부모, 자식

※키워드 : 희귀병, 부모, 자식

- 5. 17세, 연애
- 6. 친구, 슬픔
- 7. 삶, 편지
- 8. 서하

아이의 두 얼굴



린이 지음 / 부키 / 2013 / 598.1 린68아



석수도서관 류지희

아이와의 싸움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조언 『아이의 두 얼굴』은 2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해 온 저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직접 겪고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110개의 아이 행동 사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의 속마음을 알고 내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아이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행동 사례와 더불어 저자는 아이들의 성격을 10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신중한 아이, 두 번째 성격이 급한 아이, 세 번째 예민한 아이, 네 번째 반항적인 아이, 다섯 번째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여섯 번째 성격이 불같은 아이, 일곱 번째 협동심이 많은 아이, 여덟 번째 집요한 아이, 아홉 번째 독불장군인 아이, 열 번째 느긋한 아이로 유형별 특성을 지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본성과 성격,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며 쉽고 즐거운 육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아이의 주장이 강해지고 언어표현이 늘어나며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엔 더 많은 다툼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다. 이 책의 부제가 “아이와의 싸움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조언”인 것처럼 저자가 제시한 아이들의 행동 사례와 성격별로 나누어 제시한 조언들은 이 시기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아이, 육아, 조언

-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기
- 때쓰는 아이 이해하기
- 아이의 성격에 집중하기
- 아이를 사랑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 이렇게 들어주고 말하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 좋은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나온다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태원준 지음 / 북로그컴퍼니 / 2013 ▶ 980.24 태6619◦



비산도서관

이 병 희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장한' 청년이 아니고 엄마는 '억척스럽고 풍채 좋은' 아줌마가 아니다. 4kg에 가까운 우량아로 태어나 주목받았던 나는 기대와 달리 살면서 60kg을 제대로 넘긴 적이 없고, 엄마의 몸무게 역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수십 년째 40kg의 언저리에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무려 둘이 합쳐 계란 세 판, 하드웨어는 둘이 합쳐 달랑 100kg. 이 바람 앞의 촇불과도 같은 조합이 무려 세계를 정복해보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다. 두 깊마른 촇불에 몰아치는 바람이 차고 거세다.....

짧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시름에 빠져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엄마의 환갑잔치를 대신해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동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 며칠 고민하는가 싶더니 엄마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발할 당시에는 엄마가 과연 잘 놀 수 있을지 걱정이었고 언제라도 엄마가 돌아가자고 하면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웬걸. 하도 조신해 음주가무는 꿈도 꾸지 않던 엄마가 베이징 공원에서 벌어지는 춤판에 끼어들어 무아지경 몸을 흔드는 건 기본. 청두의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만두 빚기 대회에서는 손놀림 신공을 선보이며 어깨를 으쓱했고, 베트남에서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뜯 씨클로 운전석에 냉큼 앉아 돌아온 씨클로 기사의 뒷을 빼놓기도 했다.

아들은 여행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마의 모습을 남기고자, 그리고 다신 없을 이번 여행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자신의 블로그 '둘이 합쳐 계란 세 판, 세계여행을 떠나다'에 포스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블로그 팬들이 생겨났다. 하루 방문자만 수백여 명. 금세 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나면서 이 가냘픈 모자는 갑작스레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여행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들 모자는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 대륙 끝 싱가포르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 하늘 길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의 섬나라와 중동의 이집트까지 여행했으며 유럽 전역에 꼼꼼히 족적을 남기며 마침내 런던에서 300일간의 긴 여정을 끝냈다. 장장 50개국, 100여 개가 넘는 도시에 발자취를 남긴 것이다.

이 책은 때로는 드라마처럼, 때로는 시트콤처럼 보는 이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는 매력이 있으며 세계지도를 옆에 펼쳐놓고 보면 더욱 실감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자유, 꿈, 여행

- 01.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 02. 넘어지고 쓰러져도 국경은 넘어야 해
- 03. 종교는 달라도 모두가 한마음
- 04.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by 동의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한호택 지음 / IGMbooks / 2013 ▶ 325.04 한95무



평촌도서관 김태형

이 책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삶과 일,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 20년간 한 회사에 몸담았던 직장인이자 강단에서 수많은 기업가들의 경영 멘토 역할을 해온 저자는 사람들이 진정한 일의 의미를 깨닫고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일하는 비결이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즉 회사의 본질은 ‘사람’이다. 즉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회사의 본질이 된다. 그래서 회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 법인法人이라는 단어에는 ‘사람 인人’자가 들어가 있다.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회사는 존경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외연과 경멸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가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 또한 무조건 돈만 벌고 보자는 식으로 영리만 추구하고 성과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돈으로 사람을 쥐어짜려는 회사에서는 직원들 역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 앞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배금주의에 빠지거나 진정한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 한없이 초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회사에서 가치관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실제로 거쳐야 할 과정을 재미있고 생생한 소설 형식으로 전달한다. 주인공인 ‘가한’의 고민은 지금 우리 시대 기업인들이 당면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경영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보면 마지막에는 그토록 원하던 해법을 손에 훨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인 삶과 일,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가치 있게 일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Contents

- 다시, 경영의 원점에 서다
- 다른 사람, 다른 생각
- 사람을 움직이는 힘
- 회사도 사람이다

※키워드 : 경영철학, 가치관, 자기계발

- 가치 있게 일한다는 것
- 혁신은 혼자 오지 않는다
-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 무엇이 우리를 꿈꾸게 하는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김은섭 지음 / 지식공간 / 2012 ▶ 029.4 김67*



호계도서관

김보근

온라인 서평가이자 후천적 활자중독자인 김은섭은 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그가 읽은 책의 서평을 남기고 방송이나 강연 등을 통해 좋은 책을 소개한다. 김은섭은 20년동안 매달 2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독서생활을 즐기고 있다. 저자 김은섭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를 통해 자신이 후천적 활자중독자가 되기까지 다양한 독서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즐거움에 바탕을 둔 독서방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올바른 독서습관을 들이고 후천적 활자중독에 빠지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재있지도 않은 책을 억지로 불들고 있지 마라.」 저자는 소설을 읽으며 책 읽기 습관을 들였고 1년 뒤 책이 손에 달라붙는 경험을 하였다. 좋은 책이 아닌 즐거운 책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또한 그러한 독서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고 책 읽기가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머리라는 항아리에 독서라는 물을 부어라.」 흔히 독자들은 독서라는 인풋(input)을 하고 서둘러 아웃풋(output)을 기대하게 된다. 김은섭은 이러한 독자들의 기대에 독서라는 행위를 「머리라는 항아리에 독서라는 물을 붓는 것」으로 정리한다. 꾸준히 채워가다가 마지막으로 한바가지를 들이붓게 되면 찰랑거리던 항아리가 훌러넘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아웃풋(output), 즉 독서를 통해 쌓였던 지식이 밖으로 분출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아웃풋이 직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잠재적인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셋째 「리뷰를 쓰면 책은 당신의 것이 된다.」 저자는 독서의 완성은 실천이고, 실천의 시작은 리뷰 쓰기다 '라고 생각하며 읽어서 좋았던 책에 대해서는 꼭 북 리뷰를 쓰도록 추천한다. 독서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리뷰를 쓰는 방법, 책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유지만 저자가 책을 낸 목적은 꼭 파악하도록 당부한다. 끝으로 책의 결정적 한 문장을 찾으라고 권한다.

김은섭의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는 위의 3가지 방법인 읽고 배우고 쓰기를 통해 누구나 책을 즐겨 읽어 책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이다.

Contents

※키워드 : 책, 독서, 몰입, 리뷰, 글쓰기

후천적 활자 중독에 빠지는 3가지 방법

- 첫째 방법 - 재있지도 않은 책을 억지로 불들고 있지 마라
- 둘째 방법 - 머리라는 항아리에 독서라는 물을 부어라, 훌러넘칠 때까지
- 셋째 방법 - 리뷰를 쓰면 책은 당신의 것이 된다

앨저년에게 꽃을



대니얼 키스 / 동서문화사 / 2006 ▶ 843 키57앨



석수도서관 신아영

KBS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원작 소설인 ‘앨저년에게 꽃을’은 IQ 70의 바보에서 IQ 180의 천재가 되어버린 뺑가게 점원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을 잘 그려내고 있다. 찰리는 제이 스트라우스 박사에게 뇌수술을 받게 되고 천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1인칭의 일기체로 서술한다. 천재가 되면서 찰리는 바보였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가 속한 사회의 이면을 깨달아 간다. 그리고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의 머리에 쌓이는 지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막상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혹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어설프기만 하다. 그는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은 실험용 쥐 ‘앨저년’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점차 지능이 퇴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역시 앨저년과 다를 바 없는 실험용이며, 같은 운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된다.

저자는 서술 방식을, 주인공 찰리가 급격한 지능변화로 천재가 되기까지, 일기체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서술할 때 처음에는 어설픈 문장과 맞춤법을 쓰다가 점차 완전하고 매끄러운 문장을 구현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이 작품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고 긴장감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는 현재 너무도 성취 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인간이 이룩해낸 중요한 성과 이지만, 인간의 대부분은 이러한 발전된 양식을 충분히 영위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많은 지식의 섭렵만 최고의 가치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다시 바보로 돌아온 찰리의 눈을 통해 주위의 작은 것에도 즐거움을 느낄 줄 알고 가치를 부여하며 현재의 ‘나’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Author

※키워드 : 영미소설, 천재, 뇌수술

■대니얼 키스(DANIEL KEYES 1927~) 브루클린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 동대학원 영미문학으로 석사학위. 35년간 대학에서 문학과 창작을 교육. <앨저년에게 꽃을>은 그의 대표작으로서 휴고상과 네뷸러상 수상과 전세계 30개 국어로 번역,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만들어졌음. <대니얼 키스 작품선>을 비롯한 많은 최근작으로 <앨저년에게 꽃을>의 창작과정 회상기 <앨저년, 찰리, 그리고 나>가 있음.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리즈 머리 자음 / 다산책방 / 2012 / 848 메298-7



만안도서관

김종혁

15살부터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하버드에 입학한 리즈 머리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담은 에세이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그녀에게 세상이란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벽과 같았다. 하지만 위험뿐인 거리에서의 생활은 그녀를 변화시킨다. 어느 날 우연히 목격한 한 여자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고 그 일을 계기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저자 리즈 머리는 1980년 뉴욕 브롱크스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마약 중독자인 부모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고통에 가까운 굶주림과 늘 악취가 진동하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어머니가 에이즈에 걸린 후 가족이 해체되고, 그녀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보호시설로 보내지면서 결국 그녀는 거리에 나앉게 된다. 갈아입을 속옷도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기 일쑤였고, 결국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배회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따뜻하게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지하철을 타거나, 밤새 추위와 싸우며 공원에서 간신히 살아간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위험뿐인 거리 생활에 지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대안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여전히 집이 없는 그녀는 거리를 전전하며 건물 계단과 지하철역에서 공부를 하며, 고등학교 4년을 2년에 끝마친 뒤 『뉴욕타임스』 장학금을 받고 당당히 하버드대학에 입학한다. 그녀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2009년에 하버드대학을 졸업한다.

그녀가 어둡고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객관적이고 무겁지 않은 문체로 생생하게 담아낸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는 오프라 윈프리가 수여한 추퍼상과 백악관 프로젝트 롤모델상, 그리고 크리스토퍼상을 수상했다. 라이프타임 텔레비전은 리즈 머리의 인생에 관한 영화 <노숙자에서 하버드까지: 리즈 머레이 이야기>를 제작했다. 현재 뉴욕에 있는 매니페스트 리빙이라는 회사의 창시자이자 이사인 그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연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Contents

※ 키워드 : 희망, 꿈, 도전

- 1. 모든 것의 중심
- 2. 파국

- 3. 벽
- 4. 가능성

옷장 심리학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지음 / 명진출판 / 2013 ▶ 180.1 바663옷



박달도서관 유 솔 지

『옷장 심리학』은 패션 치료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임상 심리학자인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박사가 쓴 여성을 위한 심리서이다. 이 책에서는 옷 입기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있어 어떠한 심리가 작용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옷 입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동이 내면의 상처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책에는 옷을 구입해서 입지 않고 저장만 하는 저장 강박증, 무채색만 고집하는 패션 우울증, 자신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혈령하거나 꽉 끼는 옷만 입는 외모 혐오증, 나이를 잃어버리고 망각한 듯 보이는 옷차림을 한 연령 망각증 등 총 9가지의 사례들이 나온다. 각 사례마다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박사가 직접 사례자의 옷장을 살펴보고 치료하는 과정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새로운 방식의 옷 입기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제니퍼 바움가르트너 박사의 도움으로 각자에게 맞는 코디법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고 변화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옷 입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부터 이끌어내고 있으며 단순히 옷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책 중간 중간에 독자들 스스로 본인의 옷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어 읽는 재미 또한 주고 있다.

Contents

- 1. 충동을 못 이기는, 쇼핑 중독증
- 2. 과거에 집착하는, 저장 강박증
- 3. 활력을 잃어버린, 패션 우울증
- 4. 자신의 몸을 부정하는, 외모 혐오증
- 5. 어른의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 과다 노출증

※ 키워드 : 여자, 마음치유, 옷장, 심리학

- 6.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연령 망각증
- 7. 시간, 장소, 상황 무감각증
- 8. 자신감을 잃은, 브랜드 집착증
- 9. 희생을 강요받는, 패션 무력증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김숙 지음 / 현대문학 / 2013 ▶ 813.6 김56여



별말도서관 김성아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은 직장 생활하는 한아이의 어머니인 여인과 그녀의 필요로 인해 같이 살게 된 침이 말라가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문대를 나와 흡쇼핑 콜센터 상담원을 하고 있는 여인은 자신의 아이만은 생존에 유리하게 살기를 바라며 당당히 브랜드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어서 오 년 전, 직장에 다녀야 하는 자신을 대신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해줄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선택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지도 오년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알고 싶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없다.

“침이 마르는 것, 말라가는 것은 햇빛 속 탈수된 수건이 마르는 것보다 조용한 일이었다. 침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훌로 사는 노인의 죽음처럼 소리 소문 없이 말라갔다.” 단수로 불편한 현실과 시어머니의 침이 말라가는 사실을 비유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침이 마르는 시어머니의 건강보다는 병원비가 걱정인 며느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자주 ‘침’ 같다고 말한다. 며느리에게 침은 중요할 것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다. ‘뱉어버리는 게’ 바로 침이다. 그녀는 전화상담원을 하면서 본래의 감정을 상실하고 기업이 요청하는 감정만을 강요받으며 지내왔다. 그러한 직장마저도 한순간 해고되자 우울과 수치심, 열등감, 자기모멸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적대적인 감정만 남았다.

시어머니의 대응방식은 무감정의 표현으로 일관한다. 쉽게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감정의 불균형은 그들의 관계를 무시와 모욕 행위의 생각과 행동, 말로 채워버린다. 침이 점점 마르면서 그녀는 인류 최초의 어머니인 ‘루시’를 닮아간다. 급기야는 신축빌라 공사현장 구덩이 속에 들어가 눕는 행동은 – 신장이 고작 1미터밖에 안 되었던 – ‘루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인 ‘루시’의 존재를 생각하며 현실에서 나타나는 삶과 공존의 불균형으로 잊고 지낸 존재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Contents

- 침이 마를 때
- 번식 후기
- 진화와 멸종 사이
- 루시 이후, K선택

- 완두콩과 돌연변이 심리학
- 종의 분화
- 공생이라는 환상
- 이중생물

※키워드 : 침, 루시, 화석인류, 어머니

- 증상과 처방
- 아주 오래된 처방
- 침 심리학
- 거울의 목적
- 의웅스런 전략
- 기생머리생파리의 사례
- 아귀 손질법
- 침을 모을 때
- 루시의 출현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스마트 에이징 / 김동엽

2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성장을 위한 감정수업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 좋은 그림이나 글을 통해 현대인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기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를 소개해보자.

도서목록

- 감사 / M. J. 라이언
- 방황해도 괜찮아 / 범륜
- 연금술사 / 파울로 코엘료
- 심야치유식당 / 하지현
-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 박종하
- 이건 완전 종이 낭비야! / 션 테일러
- 마음놀이 / 비수민
- 강신주의 감정수업 / 강신주
-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 서천석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칠링하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금방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충분히 소중하고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강신주의 감정수업>

당신, 오늘 하루도 너무 열심히 살았다.

<심야치유식당>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물라서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방황해도 괜찮아>

스마트 에이징



김동엽 지음 / 청림출판 / 2013 ▶ 591.9김25▲



평촌도서관

조윤숙

『스마트 에이징』은 행복한 ‘100세 살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책이다. 고령화 시대의 달라진 사회상을 살펴보고 은퇴 후 가족관계, 노후자금 관리 등 노후준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은퇴설계가 주로 재무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가족관계, 여가 및 건강관리에 이르는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다각적인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동안 회사를 중심으로 이어져오던 인간관계를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

1장에서는 은퇴와 노후준비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급증하는 고령인구 부양에 드는 비용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갈등 등 고령화가 우리 삶에 어떤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주는지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급증하는 캠거루족과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황혼이혼 등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그 동안 직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얼마나 빨리 가족과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

3장에서는 변화된 노후자산 준비 전략 및 증가하는 의료비와 부양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법 등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전략들을 만나본다.

4장에서는 노후자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다. 제대로 된 노후설계를 하려면 각종 연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특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이 책은 100세 시대의 은퇴설계 지침으로 노년기 인생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고령화에 대한 이해를 돋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퇴 이후의 스마트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은퇴, 노후대책, 핵가족

- 1장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 2장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 찾기
- 3장 감속시대, 은퇴 경제학
- 4장 길어진 인생, 노후자금 관리법

감사



M. J. 라이언 지음/ 혜문서관 / 2012 ▶ 199.1 라68감



석수도서관 허지회

친절과 감사, 관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미국 작가 M.J. 라이언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1장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서는 감사할 때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변화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하기에 더는 바랄게 없다’는 만족감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2장 <감사가 주는 선물>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삶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4가지 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단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선물들 – 기쁨, 생기, 우울증 치유, 건강, 매력, 사랑 등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공짜선물’ 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색할 수 있을 것이다.

3장 <감사의 마음을 가꿔주는 생각과 태도>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보다 심화시켜줄 수 있는 태도의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등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과 태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한다.

4장 <감사의 실천>에서는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된다. 매일 열 가지씩 감사한 일 찾아보기, 익숙해진 것에서 감동을 되찾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에 초점 맞추기, ‘고맙다’는 말 자주하기, 카드, 전화, 이메일로 행복의 메시지 전하기 등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소개한다.

오늘 감사의 손전등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라. 자신의 능력에 감사하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과 나를 둘러싼 세상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Contents

※키워드 : 감사, 행복, 만족, 긍정, 역경

- 1장.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
- 2장. 감사가 주는 선물

- 3장. 감사의 마음을 가꿔주는 생각과 태도
- 4장. 감사의 실천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음 / 지식채널 / 2012 ▶ 199.5 법29619방



석수도서관 장영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연애나 인간관계, 취업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다. 특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지지하지 않아 힘들거나, 사랑에 치이고, 연인에게 상처받아 지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법륜스님과 만나보자.

10대는 물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인 법륜스님이 전하는 '쿨'한 인생 방법은 네 가지로 나뉜다. 도전과 실패, 사랑과 이별, 꿈과 희망, 감사와 행복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친절한 조언보다는 차가운 의견을 직설적으로 너무도 '쿨'하게 답한다. 4년째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수험생이 고민을 털어놓자 "올해까지만 하고 딱 그만두세요."라고 말한다. 일견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찬찬히 풀어주는 이유를 들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고민 앞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법륜 스님이 주는 말은 한 가지다.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몰라서 틀리면 고치면 되고, 물어서 배우면 된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넘어졌구나!' 하고 투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실패도 없고 방황도 없는 청춘이 아니다. 틀리고 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연습이다. 지금의 이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내일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패하고 방황할 때 연습이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힘을 이 책 속에서 다시 한 번 배우게 된다.

Contents

※ 키워드 : 도전, 실패, 감사

- 오늘과 내일 사이의 쉼표
- 달콤한 연애와 쌉쌀한 이별

- 꿈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 무지갯빛 사랑, 하나로 만나다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 2001 ▶ 879 코6429◦



만안도서관 김란아

1988년 연금술에 빠져 현자의 돌을 찾아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18개국에서 4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인 <연금술사>는 자아의 신화와 만물의 정기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연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반추하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 *연금술사*는 양치기 소년이 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드는 일상보다는 모험을 하고 싶어 한 소년은 아버지에게 여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양치기가 되어 세상을 돌아볼 것을 권한다. 양치기가 된 소년은 낮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면 별빛을 이불삼고 책을 자장가 삼아 잠이 드는 생활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하나의 계시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서 보물을 찾게 되는 꿈. 그런 그에게 선자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 보물을 찾아 떠나도록 용기를 북돋는다. 양치기는 양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로 가는 여행길에 오른다.

여행 중 만난 한 연금술사는 소년에게 이야기한다. “어떤 물질을 분해해 그 안에서 금을 추출해 내는 신비의 기술인 연금술. 모든 사람이 연금술의 결과물인 금을 얻는데 만금급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금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갖은 고난 끝에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한 소년. 소년은 그곳에서 과연 어떤 보물을 찾았을까?

Author

※키워드 : 피라미드, 자아, 꿈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 1947~) 브라질 중산층 가톨릭 집안 출신. 대학시절 법학을 전공하지만 중퇴하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극작가, 연극연출가, 저널리스트, 대중가요 작사가로도 활동.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삶의 본질적 접근들을 신비로운 필치로 담아내며, 발표작들마다 큰 성공을 거둠. <11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등이 있다.

심야 치유식당



하지연 지음 / 푸른숲 / 2011 ▶ 180.4 하78심



박달도서관

유민정

전직 정신과 의사 철주. 그가 대학가 뒷골목에 '노사이드'라는 바를 차린다. 이곳에 들른 여덟 명의 손님들과 만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이 책의 중심이다. 저마다의 증상(불면증, 음식 중독, 공황장애 등)을 갖은 이들은 모두 평균 이상으로 잘 살아오던 사람이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어쩔 수 없는 한계란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원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과연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의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 저자는 '정상'의 범위를 넓혀보자 한다. 행복이라 느끼는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넓혀 일단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이 재미없고 힘든 사람 – 이들의 문제는 성공을 해도,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쳐 지금껏 살아온 방식에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삶을 꽉 채워 살지 않도록 하는 것. 70퍼센트 정도만 채우고 의도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두어 삶의 주도권을 잊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저자는 행복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과거', '내가 가까이하는 사람과의 비교', '내 마음속의 이상' 이 세 가지와의 비교에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삼십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젊은 성인이 경험하는 과거의 후회와 자책,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 이상과의 괴리에 의한 좌절감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삶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한다.

『심야 치유식당』의 여덟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상황, 어떤 한계에 처해 있는지 가능해보고 그러한 증상의 원인들을 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당신, 오늘 하루도 너무 열심히 살았다.
- 난 성취감에 중독된 게 아닐까?
- 꼭 남들처럼 살아야 하나?
- 성실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함정

※키워드 : 치유, 삶, 심리, 행복

- 오늘 몇 분이나 멍한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 예민할수록 인생이 피곤하죠
-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 혹은 열병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



박종하 지음 / 다산북스 / 2007 ▶ 325.04 박750



평촌도서관

황신혜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아빠이자 무능한 남편으로 소외당하고 회사에서는 부하직원과 갈등을 겪는 불안한 상사인 주인공 '공준태'. 나름대로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늘 공준태는 아들의 성적표 때문에 아내와 큰 말다툼을 벌이고, 회사에서는 상부의 질책과 부하직원의 하극상의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던 중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삶의 목적을 찾아 무작정 아프리카로 떠난 친구 동기의 메일을 통하여 아프리카에서 얻은 소중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된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초원을 지나 큰 언덕을 넘으면 토고자 마을이 있다. 토고자 마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암소를 데리고 가는 전통이 있다. 이 전통은 남자에게는 부와 권세를 나타내지만 사실 여자의 가치이기도 했다. 어렵게 구한 소는 결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여자일수록 더 많은 암소를 받는다.

어느 날 추장은 마을 사람을 불러 모아 이방의 땅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아들 쿠타사를 새로운 추장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을 사람은 능률한 모습으로 돌아온 쿠타사의 청혼 상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원로의 딸, 부잣집 딸, 미모의 여인에게 청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쿠타사는 변두리 허름한 노인의 움막에 사는 말라깽이 여인, 은타비쌩에게 청혼을 하러 갔고 모든 사람은 의아해했다.

그 후 아프리카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스리랑카에서 봉사를 하던 동기는 토고자 마을의 추장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3년 만에 아프리카를 다시 찾게 된다. 그곳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믿어주었기에 겁 많고 평범한 소년이 영특하고 용감한 추장으로, 불품없는 말라깽이 여인이 누구보다 빛나는 여인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책이다. 긍정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암소 9마리의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은 믿어주는 것과 믿는 사람 사이의 신비한 힘을 설명한다. 이 책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어주는 것, 지금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ntents

※키워드 : 긍정, 믿음, 자신감

- 1부 엉킨 실태래
- 2부 암소 9마리 이야기
- 3부 오늘과 다른 내일

이건 완전 종이 낭비야



선 테일러 지음 / 다림 / 2012 ▶ 843 테68o



평촌도서관 최미송

가슴 속의 슬픔과 분노를 가득 안고 살던 한 소년이, 글쓰기 선생님을 만나 일기를 쓰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책이다. 문예 창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아동문학작가인 저자 션 테일러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담았다.

소설의 주인공인 제이슨은 모든 것에 화가 나 있는 소년으로, 누가 살짝 시비를 걸어도 크게 사고를 치고 만다. 노상 학교에서 사고만 치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소위 ‘문제아’들만 모이는 해런포드 학교까지 오게 됐지만, 제이슨의 폭주는 여기서도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시비를 참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끌려가서 상담 받는 일이 반복된다.

그의 가슴속에 갇힌 분노의 근원은 어린 시절에 당한 폭력이다. 제이슨에게 엄마의 예전 남자 친구 ‘존 아저씨’와 함께 지난 시절은 악몽 같은 기억이다. 아저씨의 폭력을 어린 몸으로 혼자 견디면서 자신과 엄마가 다칠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예전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찍혀 버렸고, 청소년 보호 시설에서는 자신을 ‘행동 장애’라고 단정지었으며, 마음을 나눌 친구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런포드 학교에는 늘 유쾌하고 활기찬 피트 선생님이 있었다. 한동안 제이슨을 유심히 지켜보던 피트 선생님은 제이슨에게 일기를 써 보라며 공책 한 권을 내민다. 그러자 제이슨은 “이따위 것 완전 종이 낭비야!”라고 빙정거리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빠딱하게 굴기도 한다. 하지만 제이슨은 점점 글을 쓰는 데 몰입하여 십대 특유의 거친 입담으로 낙서하듯 자신의 이야기들을 쏟아 낸다. 그러면서 점점 일기장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일기장이 제이슨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장을 남겨 둔 시점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제이슨도 스스로 놀라워한다.

저자는 이야기 속 이야기인 ‘사냥꾼 소년 이야기’를 통해 제이슨의 심리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읽는 재미를 더했다. 저자가 ‘이야기가 주는 힘’을 믿고 아이들과 이야기 치료 수업을 했던 경험을 녹여 낸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제이슨의 자아를 사냥꾼 소년에 투영하여 재해석한 화가 박형동의 그림이 더욱 돋보인다.

저자의 말

※키워드 : 성장, 십대, 상처, 치유

지난 10년 동안 감정이나 행동 표현이 많이 서툰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이 소설은 그때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지금도 여리디 여린 마음을 다쳐 아파했던 아이들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 한쪽이 욱신거린다. 상처투성이인 자신과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선생님들에게 이 소설을 전하고 싶다.

마음놀이



비수민 지음 / 이랑 / 2012 ▶ 185. 3 비56▶



비산도서관 김수연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소한 것까지 밝고 세심하게 살피는 법관이 죽은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짬다고 믿었다. 즐거운 사람은 마음의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법관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지만, 반대로 무거운 마음에는 죄악과 범뇌로 인해 주름이 잔뜩 새겨져 있어서 법관은 그런 영혼에게는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는 지옥행 판결을 내렸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몇 가지씩의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후회가 있다. 누구나 '힐링'을 외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힐링'은 어렵다. 중국의 내과의이자 심리상담사인 비수민의 책 『마음놀이』는 일곱 가지 심리치유 프로젝트(놀이)를 통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첫 번째 놀이는 나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나의 중요한 다섯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과 가치관 사이의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놀이는 나의 가장 중요한 타인이 누군지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타인을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주인은 오직 자신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 놀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받아들이는 놀이이다. 실제의 나, 이상 속의 나, 남들 눈에 비친 나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연필을 들고 내 마음 속에 복잡하고 무겁게 얹겨있는 나라는 존재를 꺼내 종이에 적으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읽고 나면 이러한 놀이를 통해 꺼내어진 나의 마음이 보이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것이다. 고대 이집트 법관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봤을 때 깃털처럼 가볍게 들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보자.

Contents

※키워드 : 마음치유, 심리학, 감정수업

- 첫 번째 놀이, 나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 두 번째 놀이, 나의 가장 중요한 타인은 누구인가?
- 세 번째 놀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 네 번째 놀이, 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다섯 번째 놀이, 부모 다시 고르기
- 여섯 번째 놀이, 나의 묘비명을 쓰라
- 일곱 번째 놀이, 나의 생명줄을 작성하라

강신주의 감정수업



강신주 지음 / 민음사 / 2013 ▶ 181.7 강5819감



호계도서관

김현진

철학과 문학을 동시에 이야기하며 이성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철학자 강신주. 그가 감정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위해 감정수업을 썼다. 사회나 제도에서 가르치지 않는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개개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 삶을 돌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 저자는 그걸 도와주려는 의도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분류한 48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작품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문학작품 속 캐릭터들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쉽고 흥미 있게 풀어냈다. 실생활에 녹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저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를 더했으며, 여기에 감정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술가들의 명화 45개도 함께 실었다.

감정을 죽이는 것, 혹은 감정을 누르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팍팍해졌다. 삶의 조건이 악화된 만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도 쉽다.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에 내일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 내일은 행복한 감정에 젖을 수도 있다는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감정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감정의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출이 가능한 삶이 아닌가.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슬픔을, 쏟아지는 은하수에서 환희를, 친구의 행복에 기쁨을, 말려의 5번 교향곡 4악장에서 비애를, 멋진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시부모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를, 타인의 평판에 치욕을,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릴 때 불안을, 이 모든 감정들의 분출로 우리는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나만의 소중한 감정을 잘 가꾸고 보듬으며, 감정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과 진지하게 맞닥뜨리는 수업을 함께 해보자.

저자의 또 다른 책

※키워드 : 감정, 감정수업, 스피노자

- 원치 않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자본주의 비판을 시도한 「상처받지 않을 권리」 . 2009
- '나다움'을 찾아라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 2013
- 자기 자신을 잊고 자유를 잊은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김수영을 위하여」 . 2012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서천석 지음 / 김영사 / 2013 ▶ 일 814.6 서83▲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매일 아침 우리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어준 목소리, 서천석의 ‘마음연구소’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서천석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아이들은 물론 상처 입은 아이를 감춰둔 어른을 치료하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는 방송에서 들려주었던 행복을 느끼는 습관, 회사의 무서운 상사를 견디는 법, 원만한 아이 교육 등 총 110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부터 질투, 외로움, 조바심 등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의 갈등들까지. 실험과 상담의 이론적 토대 위에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충고를 건네며,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삶의 어려움 극복하기, 행복해지는 기술, 인간관계, 감정의 문제, 하루 일상을 잘 사는 법, 마음의 병에 대한 처방을 주제로 하여 총 6개의 장으로 나눠 둑어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인생 역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생해서 산을 오른다고 일출을 본다는 보장은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지 않는다면 일출을 볼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다음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것. 인생에서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인생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일상에서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있다면,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고민될 때, 부모와 친구와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워 지쳐있을 때 등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잠깐 멈추고 이 책 속 글을 찾아 읽어보며 마음을 쉬어보자. 꾸준히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한다면 내 인생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행복의 비결일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마음, 자신, 내면

- 1. 자꾸만 뒷걸음질치고 싶다면
- 2. 인생이 따뜻해지는 행복의 기술
- 3. 날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우리
- 4. 감정에 훨씬 려간 하루
- 5. 마음의 교과서, 삶의 순간들
- 6. 마음도 병에 걸립니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행복한 달인 / 이지성

3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청소년문학이라는 블루오션

도서관에서의 청소년 서비스는 어린이와 성인 대상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분야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완득이」 이후로는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지만, 청소년 문학상의 종류가 많아지는 등 예전보다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자료 중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청소년 문학 작품을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상큼하진 않지만 / 김학찬
- 뾰이들이 온다 / 윤혜숙
- 직녀의 일기장 / 전아리
- 시간을 파는 상점 / 김선영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 바바라 오코너
- 우리 반 일용이 / 김숙미 외
-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 김이윤
-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 카를로 프라베티
- 위저드 베이커리 / 구병모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칠칠하게~!!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위저드 베이커리>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일 필요도 없고, 그것일 필요도 없어요.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엄마도, 아빠도, 시리우스도, 어쩌면 세미도, 눈에 보이는 동반자는 결국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다가 쓸쓸해할 필요는 없지. 나는 반짝이기 위해 혼자 서 있는 거니까.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행복한 달인



이지성 지음 / 다산라이프 / 2008 ▶ 325.04 0178행



석수도서관

유 익 환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책 「행복한 달인」은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가 전하는 변화의 비결이다.

주인공 승호는 삶증 난 직장생활, 선배의 배신, 압류위기의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차츰 무기력해지기 시작한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절실히 꿈꾸는 그에게 꿈처럼 다가온 7명의 멘토는 그에게 행복한 달인이 되는 비법을 전수한다. 정주영, 오프라 윈프리, 커넬 헬랜드 샌더스, 존 텁플턴, 메리 케이 애시, 파블로 카잘스, 유일한의 사례를 통해 자기 일을 최고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달인임을 강조한다.

밀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양손 가득 돌멩이를 쥐고서 놀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금을 줘여주려면 먼저 돌멩이를 빼앗아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존재하는 법, 우리가 찾는 해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원인은 일과 삶에 대한 열정 또는 즐거움이 부족한 탓일 수 있다.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현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즉 적성에 맞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하기 때문에 재능이 생겨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실천하기를 권한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큰 아픔이 하나쯤은 있다.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마음마저 불행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인생길에 차갑고 슬픈 비가 내릴수록 마음속엔 맑고 밝은 해를 띄우자. 머지않아 밝은 해는 슬픈 비를 거두어갈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인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므로...

Contents

※키워드 : 행복, 마음, 즐거움, 달인

- 첫 번째 멘토 : 인생길에 비가 내려도 마음속엔 해를 띄워라
- 두 번째 멘토 : 어떤 상황에서도 눈부신 미래를 생생하게 꿈꿔라
- 세 번째 멘토 : 천만 번 넘어져도 웃는 얼굴로 다시 일어나라
- 네 번째 멘토 : 언제나 행복을 불러들이는 질문을 던져라
- 다섯 번째 멘토 :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라
- 여섯 번째 멘토 :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뜨겁게 일하라
- 일곱 번째 멘토 :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상큼하진 않지만



김학찬 지음 / 문학동네 / 2012 ▶ 813.6 김921상



석수도서관

김유진

이 책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서서히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매일 학교와 집을 오가지만 불안한 마음 한편에는 같은 반 여학생과의 데이트 찬스를 기다리는 평범한 소년이다.

소설에는 소년의 열일곱 살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의 일상과 일년 넘게 별거중인 부모님, 같은 사람과 이혼하고 재혼한 큰누나, '공부머신'으로 명문대 대학원생 작은누나, 학교를 관두고 프로게이머에 도전하는 친구이야기 등이 등장인물 간 유머러스한 대화와 함께 담겨 있다.

"영웅은 식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영웅을 바란단 말야. 빤한 건 싫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영웅이 없는 건 또 싫어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것 봐라 그래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미담을 만드는 거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슈퍼맨과 다를 게 없는데 마치 평범한 학생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 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위로를 받지.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될까?"라는 구절은 우리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이야기만 보고 듣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한다.

"엄마 아빠도 알고 보면 애지. 어른들이 무슨 성인군자야? 니가 이때까지 봐 왔던 어른들이 그렇던? 아니잖아 사람들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야. 죽을 때까지 크는 거라고"

이 소설은 우리주변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있는 평범한 열일곱 살의 모습을 특별함으로 포장하지 않는 대신 현실의 모습과 가깝게 표현하였다. 세상에 몇 안 되는 슈퍼맨 같은 영웅이나 위인들의 삶만 쫓아 괜한 열패감에 시달릴 필요 없이 평범한 모습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어른이 되어도 일평생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고 소설에서는 말하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청소년 문학, 성장소설, 평범함

- 1. 프롤로그
- 2. 가을부터
- 3. 겨울과 여름
- 4. 다시, 가을
- 5. 에필로그를 빙자해서
- 6. 작가의 말

뽀이들이 온다



윤혜숙 지음 / 사계절 / 2013 ▶ 813.7 윤94뽀



석수도서관 김은아

우리는 지금, 책,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 글을 제대로 읽는 사람도 없고, 책도 비싼 값에 팔리던 시절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통로는 ‘전기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수한은 전기수로 살아가는 소년이다. 청계천 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새는 벌이가 영 시원찮다. 조선에도 속속들이 영화관이 생겨나고 변사²들이 읽어주는 무성영화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판을 떠나는 추세이다. 수한의 친구인 동진 또한 전기수를 떠나 변사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 동진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 그래야 서자 신분을 벗어나 본가에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동진은 변사가 되기 위해 지금 상한가를 달리는 변사이자 스승 도출의 라이벌인 한기에게로 가버린다. 수한도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대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 도출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 전기수의 길을 걷기로 한다. 그러나 정작 한기는 수한을 제자로 삼고 싶은 눈치를 보인다. 한기는 이렇게 말한다.

“세월이 바뀌고 세상도 달라졌으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달라지게 마련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진짜 이야기꾼이 지녀야 할 덕목이지.”

수한은 자신을 최고의 변사로 만들어주겠다는 한기의 꿈에 잠시 흔들리지만 이내 굳꿋하게 전기수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는다. 그 바탕에는 “이야기의 주인은 이야기 그 자체다. 사람이나 돈을 쫓지 말고 주인인 이야기를 좋아야 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도출의 가르침이 있었다.

책으로 영화로, 또는 고전으로 서양동화로, 이야기를 담는 그릇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기수에서 변사로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이야기’라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던 근대 초입,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이야기, 전기수, 가치

1. 전기수(傳奇叟) : 조선시대 후기 고전소설을 직업적으로 낭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소설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낭독법을 통해 소설의 보급과 독자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변사(辯士) : 무성영화 시대에 스크린에 펼쳐지는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하여 주던 사람. 변사는 속칭으로서, 활동사진해설가라고 한다.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지음 / 자음과모음 / 2012 ▶ 808자 673자 15



박달도서관

조향순

이 책은 제1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김선영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당선작이라는 말에 어떤 작품인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흐르는 시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평론가들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었다는 것과, 우리 옛말을 잘 구사하면서도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를 적절하게 배합시켰다는 것을 칭찬한다.

소방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다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여고생 온조. 온조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두 번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지만 실패하게 되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생각해낸다. 시간은 돈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팔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 카페에 '크로노스'라는 닉네임으로 '시간을 파는 상점'을 오픈한 것이다. 이 상점에는 나름 몇 가지 조항이 있다. 뚫지 않은 일은 절대 접수하지 않을 것. 의뢰인에게 마음이든 워든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무엇보다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

첫 번째 의뢰는 의도치 않게 접수된다. 도난당한 PMP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상점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꺼려졌지만, 작년 MP3 도난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의 일과 오버랩 되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일을 맡게 된다. 이 사건은 수습되지만 내내 온조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준다. 그 후로,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해달라는 엉뚱한 의뢰, 천국의 우편배달부가 되어 달라는 의뢰 등 여러 가지 의뢰가 이어진다. 온조는 이러한 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의 말

※키워드 : 청소년문학, 시간

이번 작품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몇 가지 주문을 넣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 소설과 다르게 쓰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아보다는 나름의 자기 빛깔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평범한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 철학을 녹여 넣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직녀의 일기장



전아리 지음 / 현문미디어 / 2008 / 813.6 전62직



박달도서관 김지은

열여덟 살, 주인공 직녀의 좌충우돌 고교 생활기를 담은 성장소설이다.

제2회 세계청소년문학상 당선작으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출판사의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전아리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청소년기를 때론 발칙하게, 때론 유쾌하게 그녀만의 톡톡 튀는 스타일로 풀어나가고 있다.

직녀는 천방지축 말썽꾸러기에 대당한 행동으로 늘 선생님들의 감시 1순위에 있고, 집에서는 찬밥 신세이다. 그녀의 가족은 언제부터인가 엄마와는 거의 대화가 없고 회사에 젊은 애인을 둔 아빠와 자식들의 그럴싸한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표인 것 같은 엄마, 이런 엄마의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고3 유세를 톡톡히 하는 오빠, 이렇게 네 식구이다. 특히 늘 무시하고 괴롭히는 엄마와 오빠의 행동에 서운할 만도 하지만 직녀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한다.

학교에서는 버금가게 말썽꾸러기인 모델지망생 연주와 늘 붙어 다닌다. 그리고 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범생 부류에 속하는 민정이 까지 셋은 각각의 고민을 안고 좌충우돌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다. 직녀는 늘 매사에 솔직하고 쿨하게 대처하고 소소한 감정에 얹매이지 않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들어가는 한두 줄의 일기에서는 청소년기의 순수함과 사춘기 소녀의 여린 감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책 『직녀의 일기장』은 큰 사건이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학창시절에 겪었을, 그리고 겪고 있는 이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크게 심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혀 심각하지 않은 것도 아닌 당돌하고 발칙한 한 소녀의 성장소설로 저자의 발랄하고 유쾌한 문체가 글을 읽는 내내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

책 속 한 구절

※키워드 : 성장소설, 직녀

“하나 잊은 게 있지 않아?”

내가 말하자, 연주와 민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얼마 뒤, 문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는 학생부실로 잠입한 우리는 참가 주임의 자리로 간다. 수업도 없는 출업식인데 무얼 그렇게 넣어 가지고 왔는지, 가죽 가방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 가방 옆쪽으로 각기 길이와 굵기가 다른 세 개의 몽둥이가 보인다. 우리는 몽둥이를 하나씩 집어 듈다.

“니들 거기서 뭐하냐?”

- 258쪽 중에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지음 / 다산책방 / 2008 > 843 오875개



평촌도서관

최수영

이 책은 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직은 순수한 열한 살짜리 소녀가 가족이 불과되고, 경제력 하락이라는 현실을 헤쳐 나가려는 모습을 엉뚱하고 발랄하게 그리고 있다.

열한 살 소녀 조지나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빠가 사라지고 없다. 게다가 집세를 내지 않아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엄마는 하루에 2개의 일을 하며 '집세를 구할 동안만' 자동차에서 생활할 것을 제안한다.

자동차에서 자고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씻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조지나는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비참한 생활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부끄러운 자동차 생활을 벗어나 이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고민하던 조지나는 개를 찾는 전단지를 보고 돈을 구할 방법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단계별로 잘 진행되던 계획은 개를 훔치고 나서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훔친 개를 돌보면서 조지나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개에 대한 애정과 개주인에 대한 미안함과 도둑질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이 조지나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

주인공 조지나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우는 대신 화를 낸다. 체념하지 않고 머리를 굴린다. 떠나버린 아빠를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자신 곁에 있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세상을 향해 썩썩거린다. 그리고 가장 아이다운 발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재기발랄한 집구하기 프로젝트'를 꾸민다. 이렇게 의욕적이고 생생한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소설 전면에 녹아 있는 현실성, 유머러스함, 열한 살 소녀의 천진난만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시련이 닥칠 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곱씹게 한다.

Author

※키워드 : 가족, 애정, 개

■ 바바라 오코너 UCLA에서 아동문학을 수강한 후 청소년작가의 길을 택했다. 그 후로 여러 권의 주목할 만한 성장 소설을 발표하였으며, 평론가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머 감각을 놓치지 않는 특유의 문체는 독자에게 '생각할 시간'과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고 있다. 특히 이 책으로 2007년, 2008년 14개의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성장소설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

우리 반 일용이



김숙미 외 지음 / 양철복 / 2013 > 814.7 김56◦



평촌도서관 강석림

『우리 반 일용이』는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하는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여 만든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에서 다달이 펴낸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회보에서 낸 교실 일기를 엮어 만든 책이다. 중·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1부와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2부로 총 43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시형식이나 학생의 일기를 소개한 글도 있어 읽기에 아기자기하고 흥미롭다.

이 책에 나오는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문제아라 불릴 법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깊은 사연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끗꼿이 제 힘으로 자라나고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이해해주려 노력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책에는 제 손으로 도토리를 주워서 할아버지 내복 사다 주는 남수, 들일하려 가는 엄마 대신 동생을 등에 업고 공부하는 정임이, 무릎 다친 아이 보고 같이 우는 재진이, 우리 오빠는 장애인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민지, 조금 모자란 동무 곁에서 함께 놀고 장난치며 웃는 형범이, 병원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꼭 참고 비 오는 미장원 놀이하며 마음 달래는 유경이, 새엄마와 살다 혼자 남겨진 6학년 미영이가 제 손으로 짐을 싸서 이사하는 등 다양한 아이들의 사연이 있다.

그 외의 책에 소개된 많은 아이들이 별 것 아닌 일로 왕따를 당하기도하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잠시 방황을 하기도하며 사회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한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스스로 변화해 나가며 힘든 일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미숙하게나마 헤쳐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선생님 자신이 배운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뜻한 시선의 책 속에서 지친 학생들은 위로와 힘을 얻고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1부. 지금도 나를 가르치는 아이
- 2부. 달팽이

※키워드 : 희망, 성장, 교실, 선생님

책을 처방해드립니다



카를로 프라베티 지음 / 문학동네 / 2009 ▶ 883 프292*



비산도서관

박지현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둘 다일 수도!’

모든 것이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이 책의 메시지다.

황량한 저택에 숨어든 빈집털이범 루크레시오는 묘한 분위기의 대머리 아이 칼비노(칼비나)와 마주친다. 그 이상한 아이는 루크레시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부모가 없는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감옥행이 두려운 루크레시오는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다.

그날부터 루크레시오에게 알쏭달쏭하고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칼비노(칼비나) 때문에 황당한 사건들을 거듭 겪게 되는 루크레시오는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에 어리둥절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외친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거야, 저거야?” 하지만, 차츰 루크레시오도 세상 모든 것이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획일화된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삶이 무색무취해진다는 걸 깨닫게 된다. 어린아이 칼비노(칼비나)는 “결론에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일 필요도 없고, 그것일 필요도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사고의 전환’을 도와준다.

총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각 장의 제목 역시 흥미롭다. ‘남자애야, 여자애야?’ , ‘재단사야, 제본사야?’ , ‘죽은 거야, 산거야?’ , ‘플루트야, 몽둥이야?’처럼 수수께끼 같은 제목을 던져줌으로써 작가는 미스터리 소설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칼비노(칼비나) 가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바로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다. 마지막 장을 읽고나서야 자신의 추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Author

※ 키워드 : 책, 상상, 책 악국

■ 카를로 프라베티(Carlo Frabetti 1945~) 194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스페인으로 옮겨온 이후 계속 스페인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뉴욕 과학아카데미의 수학자이자 50여 권이 넘는 문학작품을 쓴 작가이기도 한 그는 과학과 아동·청소년 문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1998년 『위대한 놀이』로 하엔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 『책을 처방해드립니다』로 스페인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엘 바르코 데 바포르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이 망할 놈의 수학』 『가장 강력한 마법』 『무시무시한 천사』 『채식주의 드라큘라』 등의 작품이 있다.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



김이윤 지음 / 창비 / 2012 ▶ 808 창48창43



호계도서관

이혜준

여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드럼 치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아이 같지 않은 보이시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그 또래라면 반에 단짝친구 한명은 꼭 있기 마련인데 여여 또한 세미라는 단짝친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다른 게 단 한 가지 여여의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여의 삶은 달라졌다. 여여의 엄마는 요양을 하기 위해 시골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여여는 주말에만 어머니를 만나러가고 평일에는 살던 집에 머물면서, 점점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다. 그래도 친구 세미와 엄마의 중학교 시절 단짝인 정화이모가 그런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옆에서 챙겨주고 때마다 연락도 한다.

어느 날 세미가 학교에서 시리우스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시리우스는 여여의 같은 고등학교 선배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유명한 선배이다. 처음에는 그런 선배가 있나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선배가 여여가 다니는 문화센터 드럼반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시리우스 선배는 여여에게 아는 척을 하게 되고 여여는 점점 시리우스 선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여여는 좋아하는 감정을 선배에게 전했고 데이트도 했지만 결국 고3인 선배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감정이 지속되면 사귀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이별임을 알기 때문에 해어짐을 받아들인다. 한편 여여는 엄마가 아프게 되면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되었고 결국 정화이모에게 물어 대기업에 다니는 A그룹의 서동수 이사가 아빠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다. 그리고 세미와 아빠가 강연하는 경제 캠프에 참석하면서 아빠와 처음 만나게 된다. 물론 자신이 아빠의 딸인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빠와 만나게 되면서 또 한번 아빠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미는 학교 과제로 멘토를 정하여 도움 받는 과제로 멘토를 아빠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하고 결국 아빠에게 멘토가 되어줄 것을 메일을 보내 아빠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그러던 중 점점 엄마의 병세는 깊어지게 되었고 엄마와 여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 여여는 엄마와 이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고 엄마는 마침내 세상을 떠난다. 여여는 상실감이 컷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이별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엄마뿐 아니라 아빠와 시리우스와 또 다른 반이 되어버린 세미도 언젠가 사라질 존재인 걸 알기에 혼자 온전히 스스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Contents

※키워드 : 두려움, 성장, 죽음

- 여여의 다이어리
- 무야, 엄마의 병을 가져가 주령
- 나는 원손잡이, 그는 누구일까
- 멘토가 되어주세요

- 걱정마, 내가 널 잡아줄게
-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엄마의 유언은 짧기도 하다
- 강한 오른쪽은 눈을 따윈 훌리지 않아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지음 / 창비 / 2009 ▶ 808 창48*16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무형의 의지라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을 터이다. 늘 강조했듯이 나는 단지 거기 있었을 뿐인데...’

어린시절 어머니에 의해 낯선 역에 버려진 ‘나’, 며칠 만에 돌아온 집에는 부재소식만 남은 어머니의 죽음,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자리매김 하고자하는 새어머니의 위협, 냉소적인 아버지의 존재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의붓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으로 집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온 주인공은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빵집으로 간신히 몸을 피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겉으로는 평범한 빵집이지만 사실 이곳은 짹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체인 월넛 프레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부두인형’,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 리와인더’ 쿠키까지 사람들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마법효능을 가진 빵을 만들어 주는 곳이었다. 주인공은 이곳에서 빵집보조업무를 하면서 타인의 꿈을 이뤄줌으로써 자신이 대신하여 죄를 받는 빵집점장의 모습,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마법의 빵을 선택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본래 자신의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사랑과 진심이 담긴 삶에 대한 충고도 듣게 된다.

사람들의 신고로 위저드 베이커리가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나’는 이제 현실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다. 마지막 선물로 빵집점장이 주인공에게 줘어준 것은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수포로 만들 수 있기에 점장도 사용을 신중히 하는 ‘타임 리와인더’ 쿠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손에 든 타임 리와인더 쿠키를 입에 넣을지 고민하게 된다.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아무런 목적도 의지도 없는 채로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그때부터 이유를 만들어 간다고 해.’라는 점장의 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감을 청소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Author

■ 구병모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제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위저드 베이커리』는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문장력과 매끄러운 전개, 흡입력 있는 줄거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키워드 : 청소년문학, 구병모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 김난도

4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4월, 시가 내게로 왔다

바쁜 현대인에게 시는 삶과 동떨어지고 어렵기만 한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따뜻한 봄날 시 한편을 외워보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시집을 소개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아름다운 언어로 담은 시를 통해 우리 감수성을 자극해 보자.

도서목록

- 365일 매일 읽는 향기로운 시 한편 / 용혜원
-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혜원의 시 / 용혜원
- 내 입은 불량 입 / 경북봉화분교 어린이들
- 순간의 꽃 / 고은
-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 류시화
- 마종기 시작時作 에세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 마종기
- 섬진강 / 김용택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 신현림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 / 정민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료하세요~!!

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정신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등불이었다. - 시인 네루다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욕실에 있는 낡은
세탁기가 아빠의 고된 하루를
깨끗이 씻겨 준다.

<내 입은 불량입>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순간의 꽃>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지음 / 오우아 / 2012 ▶ 818 김192*



평촌도서관

최순애

지난 겨울은 유달리 집요했습니다. 응당 봄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겨울은 악다구니를 쓰며 버티더니, 4월 말 소란스런 비가 한바탕 으름장을 놓은 후에야 비로소 물러갔습니다. 걸늦은 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정쩡 머뭇거리는 사이, 젊은 여름이 재빨리 도시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두 계절의 다툼에 죽어나는 것은 꽃이며 잎들이었습니다. 올봄에 매화, 개나리, 진달래, 목련, 철쭉, 벚꽃이 제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겨울이 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여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1부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으로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의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십 센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미터에 이르도록 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아무 성과 없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제2부 청춘, 세상에 나가다

마음에 사표를 품은 직장인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는 행렬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매달 급여일만이라도 첫 월급날을 기억해야겠다. 내 인생에 경제적 이등분점이 찍히던 날, 내가 소득으로써 비로소 어른이 된 기념일을 통해 흐트러진 일상을 다잡고 초심을 떠올리고 싶다.

제3부 만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을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경험자로서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이다.

마음먹었거든, 실행하라.

이제 생의 반환점에 들어서려는 그대여...

저기 당신의 ‘그 꽃’이 보이는가? 그 ‘소중한 것’을 부여잡을 용기를 챙겼는가? 건투를 빈다.

Contents

※ 키워드 : 청춘, 어른, 성공, 사랑, 인생

- 제1부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 제2부 청춘, 세상에 나가다
- 제3부 만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아가라

365일 매일 읽는 향기로운 시 한편



용혜원 지음 / 나무생각 / 2011 ▶ 811.6 용94향



석수도서관 김민자

이 책의 저자 용혜원은 1992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한 시인으로 ‘유머자신감 연구원’ 원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을 가졌으며, 66권의 시집, 5권의 시선 등 170여권의 저서가 있는 시인이다.

그는 詩에 대하여 ‘삶의 표현이며 만나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며, 우리 일상의 작은 감동과 감성 모두 詩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詩를 통해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1년 365일 하루하루를 서정적인 작은 감동으로 삶 속에서 시를 만나고, 보고, 느끼는 순간들을 짧은 4행시로 표현한 이 책을 통해, 감성이 메말라 가는 이 시대에 향긋한 차 한잔과 짧지만 따뜻한 감성이 넘치는 시 한구절로 마음의 여유와 나눔이 있는 하루를 시작한다면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한다.

1월 1일 새해 새 아침	2월 1일 창문	3월 1일 봄소식 3	4월 1일 모험
찬란하게 동트는 희망의 새 아침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라 새해를 화창하게 만든다	그리워 질 때 열리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 닫힌다	꽃들의 웃음판이 벌어져 다시 찾아온 봄을 축하의 노래로 마음껏 환영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 멋대로 분탕질해서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하고 흥미가 넘치도록 만든 일

Contents

- 1월 새해 새아침 ~ 벽난로
- 2월 창문 ~ 봄소식2
- 3월 봄소식 3 ~ 개미
- 4월 모험 ~ 똥고집
- 5월 장미 ~ 기대
- 6월 열무국수 ~ 담

※ 키워드 : 시, 향기, 매일

- 7월 빵 ~ 냠두리
- 8월 숯 ~ 가난
- 9월 가을 1 ~ 무덤
- 10월 감나무 ~ 탈춤
- 11월 기린 ~ 누구일까
- 12월 인기 ~ 겨울강가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혜원의 시



용혜원 지음 / 나무생각 / 2007 ▶ 811.6 용94용



석수도서관

류지희

이 책의 저자인 용혜원 작가는 「문학과 의식」을 통하여 등단하였으며 꾸밈없는 사랑의 감정을 쉬운 언어로 노래한 그의 시들은 20여 년 동안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동안의 용혜원 시집 중에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1부 「내 사랑이 참 좋던 날」, 2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3부 「내 작은 소망으로」 총3부 테마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 중 3부 「내 작은 소망으로」에 실려 있는 「내 마음에 그려놓은 사람」을 소개한다.

내 마음에 그려놓은 사람

- 용혜원 -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이 고운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살맛나고
나의 삶은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누구나 안고 살지만
이를 수 있는 그리움이 있다면
삶이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루 해 날마다 뜨고 지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리움도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살아 빛나고
날마다 무르익어 가는 사랑이 있어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려놓은
마음 착한
그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즐겁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 따뜻한 차 한 잔과 아름다운 시 한편의 여유를 누려 보자.

Contents

※ 키워드 : 삶, 마음, 사랑

■ 1부 내 사랑이 참 좋던 날

■ 2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 3부 내 작은 소망으로

내 입은 불량 입



경북봉화분교 어린이들 지음 / 크레용하우스 / 2013 ▶ 01811 경461-



만안도서관

장영진

동시집 『내 입은 불량 입』에는 봉화분교 아이들이 쓴 60편의 시와 그림이 담겨있다.

하루 종일 사과를 따서 예쁜 사과는 판매하고, 못생긴 사과를 먹는 친구,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면 아빠 마음이 찢어질까 걱정하는 친구, 돼지가 새끼를 낳는 순간을 지켜본 이야기, 졸업 사진을 찍는데 졸업생이 세 명이라 사람보다 나무가 더 크게 나오는 이야기 등 도시의 아이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재미나게 그려진다. 또한 열심히 사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 상황과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약하게 불어도 안 되고 / 세게 불어도 안 된다. / 진한이가 가진 새 단소로 불어도 안 되고 / 소리 잘 나는 한결이 단소로 불어도 안 된다 / 내 입은 불량 입인가 보다.
(4학년 김한샘 「단소」)

- 나는 아빠의 수화를 못 알아보고 / 아빠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 나는 답답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 아빠는 답답해서 손이 빨라진다.
(3학년 유한결 「아빠와의 대화」)

- 제비꽃 얹고 / 쑥 얹어 / 구워 낸 꽃전 / 먹기 아까워 / 살살 / 베어 문다. / '바사삭!' / 고소한 봄 오는 소리 (6학년 김누리 「꽃전」)

아이들이 쓴 시는 꾸밈없고 솔직하며, 그래서 더 예쁘고 짠하게 느껴진다. 아이들이 만들어 낸 순수한 세계 속 이야기가 읽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 받으며, 저절로 웃음 짓게 한다.

이 동시집은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 소중함을 느끼고, 시를 통해 시에 대한 낯선 마음이 사라지고, 표현력과 상상력도 풍부해 질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아빠, 선물, 농사

- 1부 하늘을 보러 뛰어 오르고 싶은 물고기
- 2부 보라색 오디 비가 내린다
- 3부 고소한 봄 오는 소리

순간의 꽃



고은 지음 / 문학동네 / 2001 ▶ 811.6 고6719순



박달도서관

김종혁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담아낸 시!

이 책은 고은 시인의 제목 없는 짧은 시 185편을 엮은 시집이다. 저자가 삶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그만의 절제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파리 한 마리, 눈송이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저자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그의 작품을 소개해 본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어쩌자고 이렇게 큰 하늘인가
나는 달랑 춘자인데

겨울 잔설 경건하여라
낙엽송들
빈 몸으로
쭈뼛
쭈뼛 서서
어떤 말에도 거짓이 없다

이런 데를 감히 내가 지나가고 있다

누우면 끝장이다
앓는 짐승이
필사적으로
서 있는 하루

오늘도 이 이세상의 그런
하루였단다 숙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더라

Author

※ 키워드 : 시, 노벨문학상, 고은

저자 고은은 1933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하였다. 1958년 『현대문학』에 「봄밤의 말씀」 「눈길」 「천은사운」 등을 추천받아 등단한 이래 시·소설·평론 등에 걸쳐 12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하였다.

1983년 『고은시전집』, 1986년 전작시 『만인보』 간행을 시작(현재 15권 간행)하였으며, 1987~94년 서사시 『백두산』(전7권)을 간행하였다. 2000년에는 시집 『남과 북』과 『히말라야 시편』을 간행하였다. 미국 하버드대학 하버드 옌칭 연구교수, 버클리대 객원교수, 경기대 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3회 만해문학상, 제1회 대산문학상, 중앙문화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류시화 지음 / 문학의숲 / 2012 ▶ 811.7 류58▶



평촌도서관 양민월

이 책은 류시화 시인이 15년 만에 발표한 세 번째 시집으로, 그동안 써온 350편의 시 가운데 56편을 소개한다. 시인은 짧은 서문에서 ‘시 <옹이> 외에는 모두 미발표작이다. 주로 길 위에서 시를 썼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한 채 마음의 갈피에서 유실된 시들이 많았다. 삶에는 시로써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돌 속의 별』, 『만일 시인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등 저자만의 독특한 리듬과 언어적 감성이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한 개의 슬픔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이따금 나는 생각한다, 무당벌레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삶이 더 가벼울 것이라고
더 별의 눈동자와 닮을 것이라고
멀리 날지는 못해도 중력에
구속받지 않을 만큼은 날 수 있다
흔자 혹은 무리 지어 날 만큼은
아무도 그 삶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 원하는 장소로 은둔하거나 실종될 수 있다
명색이 무당일 뿐 이듬해의 일을 점치지 않으며
죽음까지도 소란스럽지 않다

———— 중 락 ————

이따금 나는 생각한다, 손등에 날아와 앓은 칠성무당벌레와
삶을 바꾸고 싶다고
나는 아무것도 손해 볼 것 없지만
무당벌레는 후회막급이리라
그에게는 한 개의 슬픔이 천 개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겠지만
나에게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할 테니까

Author

※ 키워드 : 첫사랑의 강, 화양연화, 불혹에

시인 류시화는 인도 사상에 심취하여 여행과 명상을 통한 자기 탐구의 길을 걸으며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치유시집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인도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를 썼다.

마종기 시작詩作 에세이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마종기 지음 / 비채 / 2010 ▶ 814.6 마75=



평촌도서관

김태영

저자가 문단 등단 50년을 지나며, 저자가 좋아하던 시, 주위 분들이 좋다고 해준 시 그리고 하고 싶은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시 50편을 골라 그와 관련된 50편의 에세이를 덧붙여 쓴 시작 에세이이다.

꽃의 이유

꽃이 피는 이유를
전에는 몰랐다.
꽃이 필 적마다 꽃나무 전체가
작게 떠는 것도 몰랐다.

꽃이 지는 이유도
전에는 몰랐다.
꽃이 질 적마다 나무 주위에는
잠에서 깨어나는
울 젖은 바람 소리.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
누가 물어보면 어쩔까.

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시인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에세이를 통해 한명의 의사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느꼈던 삶의 기쁨과 죽음을 바라보는 쓸쓸한 체험과 시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Contents

※ 키워드 :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시작 에세이, 마해송

- 1장 해부학 교실
- 3장 꽃이 피는 이유를
- 5장 귀에 익은 침묵
- 2장 당신 사랑은 남는다
- 4장 그래서 나는 강이 되었다
- 6장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로

섬진강



김용택 지음 / 창비 / 2013 ▶ 811.6 장48×46



비산도서관 이병희

김용택 시인은 전북 임실 출생. 순창농업고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연작시 「섬진강」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초기 시는 대부분 섬진강을 배경으로 농촌의 삶과 농민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연작시 「섬진강」의 경우, 시적 서정성만이 작품의 지배적인 정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의 일상이 조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현실의 각박한 변화와 농촌의 퇴락을 비판과 풍자의 시선으로 지켜보기도 한다.

대표작으로 시집 「섬진강」(1985), 「맑은날」(1986), 「꽃산가는 길」(1988), 「누이야 날 저운다」(1988), 「그리운 꽃 편지」(1989), 「그대, 거침없는 사랑」(1993) 등이 있다.

섬진강 1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울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키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훈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빼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자리산 웅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후 락>

섬진강 2

저렇게도 불빛들은 살아나는구나.
생솔 연기 눈물 글썽이며
검은 치마폭 같은 산자락에
몇 가옥 집들은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불빛은 살아나며
산은 눈뜨는구나.
어둘수록 눈 비벼 부릅뜬 눈빛만 남아
섬진강을 위에 불송이로 뜨는구나.

밤마다 산은 어둠을 베어내리고
누이는 매운 눈 비벼 불빛 살려내며
치마폭에 쌓이는 눈물은
강물에 가져다 버린다.
누이야 시린 울소리는 더욱 시리개
아침이 올 때까지
너의 허리에 두껍게 감기는구나.

<후 락>

Contents

* 키워드 : 섬진강, 청산, 꽃등

- 01. 섬진강 1~20
- 02. 쟁기질
- 03. 꽃등 들고 임 오시면
- 04. 고춧값
- 05. 땅에서
- 06. 오월편지
- 07. 눈길
- 08. 어머니 이야기
- 09. 후기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신현림 지음 / 걷는나무 / 2011 ▶ 808.1 신9419딸



호계도서관

김보근

신현림 시인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자 가장 고민이 많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를 골라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녀 역시 철없는 딸이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어린 시절에 시를 통해 위안을 받고 인생의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한다.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은 노자, 루쉰, 셰익스피어, 바이런, 타고르에서부터 백석, 서정주, 정호승, 이성복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모습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시인들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신현림은 인생의 어떤 시절에서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시라는 싱그러운 바람이 세상의 모든 딸들의 삶에 물들기를 바라며 90편의 시를 책 속에 담았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백석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 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은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또 내 많지 못한 월급이 얼마나 고마운 탓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로 코밀수염도 길려보는 탓이고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짐장에 꽂꽂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말이 자꼬 들려오는 탓이다

Contents

* 키워드 : 외로움, 딸, 인생, 지혜

- 당신 같은 친구가 있기에 - 작자 미상
- 마음껏 울어라 - 메리 캐서린 디바인
- 사랑의 아픔 - 미셸 캐서린 디바인
- 기도 -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



정민 지음 / 보림 / 2002 ▶ ISBN 978-89-341-0111-9



어린이도서관

홍민희

한시의 매력에 빠진 지은이가 초등학생 아들 벼리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하는 이 책은 한시에 대한 열아홉 편의 이야기를 통해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글로 끝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시 원문과 책 속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짧막한 소개로, 한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은 금세 이해할 수 있지만, 시에서 쓰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시를 읽는 재미이다. 좋은 시 속에는 감춰진 그림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살찌워 준다.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시인은 말하지 않으면서 다 말한다. 좋은 시는 직접 말하는 대신 읽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시는 우리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주변에 있는 온갖 사물들은 모두 우리의 선생님이다. 시인은 남들이 날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냥 보지 않고 관찰하며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시인은 사물과 새롭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시를 통해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물과 새롭게 만난다. 시는 사물이 나에게 속삭여주는 이야기를 글로 적은 것이다.

시인은 일부러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해서 독자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말에는 느낌이 있다. 시인은 이 느낌을 잘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말과 글은 다르다. 말을 아낄수록 좋은 글, 좋은 시가 된다.

때로는 침묵이 웅변보다 더 힘 있게 느껴질 때가 있다. 다 말하는 것보다 아껴 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시 속에서 시인은 다 말하지 않고 조금만 말한다.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신 스스로 깨닫게 한다.

한시 속에는 우리 선인들의 체온과 삶의 지혜가 풍부하게 녹아 있다. 세상은 월 새 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다. 지혜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것 속에 반짝 이는 보석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법이다.

Contents

- 시에는 이상한 힘이 있단다
-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 진짜 시와 가짜 시
- 다 보여 주지 않는다
- 연꽃에서 찾는 여러 가지 의미
-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 키워드 : 한시, 시조, 시

- 사물이 가르쳐 주는 것
- 새롭게 바라보기
- 의미가 담긴 말
-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 시는 그 사람과 같다
- 치마 위에 쓴 시
- 계절이 바뀌는 소리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 월 보웬

5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작은 얘기, 큰 감동 어른들의 동화

바쁜 일상으로 우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동화의 매력은 작은 이야기로 인생에 대한 가르침과 감동을 준다. 지난 세월에 대한 반성과 함께,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되살리게 하는 동화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강아지똥 / 권정생
- 뜨개질 할머니 / 우리 오를레브
- 꽃들에게 희망을 / 트리나 포올러스
- 낙타굼/ 박기범
-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 J. M. 바스콘셀로스
- 제비꽃 / 정채봉
- 처음 받은 상장 / 이상교
- Love you forever / Robert Munsch
- 바보 같은 내 심장 / 자비에 로랑 뼈띠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 가슴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I'll love you forever
I'll like you for always
As long as I'm living
My baby you'll be

<Love you forever>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나 그것을 지켜보는
누구든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나비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꽃들에게 희망을>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월 보웬 지음 / 세종서적 / 2013 ▶ 844 보666



비산도서관 김미영

저자 월 보웬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 강연 여행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며, 이 책에는 저자가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낸 놀라운 비밀이 모두 담겨 있으며, 당신의 생활 전반을 바꿀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해답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은 이런 심리 상태를 당신에게 되비쳐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행복 지수는 자연히 올라간다. 그러니 틈만 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거듭 확인하라. 운전할 때나, 집 안 청소를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나 그 말을 반복하라. 특히 당신이 막 잠들려고 하는 순간,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라.

돌이켜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앞서 걱정하고 그러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행복은 물질이나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책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것에 대해 적으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것이며,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닌, ‘행복하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외쳐본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한 딱 그 수준만큼만 행복해진다.

즉, 행복을 생각해야 행복이 따라온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선은 자신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 책은 크게 ‘행복의 원인’과 ‘행복의 실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의 원인’ 편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형성되는지, 말 한마다가 삶의 질을 어떤 방식으로 좌우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행복의 실천’ 편에서는 그렇게 바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습관화되어 성격이 바뀌는지, 나아가 당신의 운명 자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실제적인 예시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Content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방해하는 내 생각 통제하기 - 생각은 말을 지배하고 말은 생각을 바꾼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관의 힘을 이용하면 생활전체가 바뀐다 - 행복을 부르는 성격 만들기 |
|--|---|

* 키워드 : 행복, 습관, 생각

강아지똥



권정생 글 / 길벗어린이 / 2003 ▶ J813.8 권746강



석수도서관

해지회

골목길 담 밑 구석에 돌이네 흰둥이가 똥을 놨다.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그 똥도 강아지똥이 된다. 날아가던 참새가 "똥! 똥! 에그, 더러워……."하자 초라해진 강아지똥은 서려워 눈물을 흘렸고,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서 훕굴고 있던 흙덩이는 그런 강아지똥을 보며 빙긋 웃고 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강아지똥이 대들자,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 놀리는 흙덩이 때문에 강아지똥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한참이 지난 후, 흙덩이는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래며 어쩌면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모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우고, 여름엔 감자 꽂도 피우던 흙덩이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했던 지난여름,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 오다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때, 덜컹거리며 다가오던 소달구지가 멈추고, 소달구지 아저씨는 떨어진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다. 혼자 남은 쓸쓸한 강아지똥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슬펐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강아지똥이 민들레 썩을 만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 민들레 썩이 자신의 거름이 되어 자신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자 너무 기뻐 민들레 썩을 힘껏 껴안아 준다. 내리는 비에 녹아 강아지똥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민들레 뿌리로 모여 줄기를 따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게 해 준다. 강아지똥이 녹아 없어지면서 민들레 꽃봉오리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방긋 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다.

<강아지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 온 몸을 녹여 새 생명을 꽂피우는 존재가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어떠한 생명체나 물질에도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며, 아무리 미약한 형태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스스로를 낮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면 좋을 책이다.

Author

※ 키워드 : 자존감, 희망, 가치

■ 권정생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1969년 동화 <강아지똥>으로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 그 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굴곡 많은 역사를 살아 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듬는 진솔한 글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강아지똥>, <사과나무밭 달님>, <하느님의 눈물>, <몽실 언니>, <점득이네>,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오물덩이처럼 훕굴 면서>, <오소리네 집 꽃밭>,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황소 아저씨> 등이 있다.

뜨개질 할머니



우리 오를레브 지음 / 문학동네 / 2002 ▶ ISBN 8974 02972



석수도서관 김성아

어느 날 작은 마을에 할머니가 찾아온다. 뜨개질바늘과 털실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할머니. 살 집을 찾을 수 없었던 할머니는 포근한 슬리퍼, 카펫, 마룻바닥, 침대, 베개, 이불, 시트, 요강, 벽, 창문, 등불을 놨다. 또각또각 뜨개질로 과자, 컵, 주전자, 집을 만들었다.

할머니는 또각또각 뜨개질바늘을 놀려서

이번엔 정말 소중한 걸 떴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정성껏,

어린 아이 두 명을 떴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남자 아이.

너무너무 귀여운 여자 아이.

할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생글생글 웃는 마음, 출짝출짝 우는 마음, 장난꾸러기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아이들에게 넣어 주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갔다. 선생님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학교에 대한 실례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불만을 확실히 말해야겠어. 불평을 똑바로 말해야 한다고” 동사무소에 갔다. 동장님과 비서들은 회의 결과 ‘훌륭한 인간들이 사는 이 마을에 털실로 뜯 아이들은 살 수 없음.’ 전보를 쳐서 알렸고 그 무례함을 참지 못한 할머니는 헬리콥터를 만들어 장관님들이 있는 정부로 갔다. 장관님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동장이랑 선생님들 말이 맞소. 이 나라에서는 털실로 뜯 아이는 거절하오.” 어느 새 온 나라에 그 소문이 퍼졌고 그 작은 마을은 유명해졌다. 온 나라에서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동장님은 할머니 집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한다. 화가 난 할머니는 순식간에 두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털실들을 풀어 버리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어디론가 떠난다.

털실로 뜯 아이들을 인정해 줄 착한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뜨개질을 하실 할머니를 그리며 글은 끝난다. 부조리와 모순된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며 당당히 맞서는 할머니, 그리고 희망을 찾아 떠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이 책은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Author

※ 키워드 : 뜨개질, 할머니, 모순

- 우리 오를레브 1931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 동화작가로서 그림책과 판타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 등을 발표하였다. 1996년에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벽 저 편의 거리>, <벽 저 편에서 온 남자> 등이 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울러스 지음 / 소담 / 2003 ▶ 808 베57소20



석수도서관 오세은

이 책은 짓밟거나 짓밟히는 살벌한 현실을 벗어나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알려준다. 나비가 되기까지 자신을 찾아 헤매는 애벌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는 힘은 희망과 사랑임을 깨닫게 해준다.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어딘가로 향하는 것에 이끌려 같은 길을 가게 된다. 그곳에는 애벌레 탑이 하늘 끝까지 솟아 있었고, 애벌레들은 꼭대기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른 채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 서로를 밟고 경쟁한다.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는 끈질긴 노력 끝에 꼭대기에 올라가지만, 그 곳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날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책은 도전, 용기, 꿈, 호기심, 안도감, 사랑, 좌절과 같이 사람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로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끔 만든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삶에서 미래를 향해 선택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단념하고 일어서기도 한다. 또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기도 하고 밟히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치유를 받기도 한다. <꽃들에게 희망을>에서 실패한 인생이란 없다. 자신이 도전하려고 잡았던 목표를 이뤄내고 그것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의 진정한 꿈이 아닐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작은 실패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과 도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Author

※ 키워드 : 나비, 애벌레, 희망, 도전

■ 트리나 포울러스 작가이자 조각가, 운동가. 1972년 처음 출간된 뒤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이다. 국제여성운동단체인 '그레일(The Graal)'의 회원으로, 공동농장에서 14년 동안 직접 우유를 짜고 채소를 재배했다. 성경 구절을 쓰고 성가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조각가인 만큼 자신의 조각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기도 했다.

낙타굼



박기범 글·오승민 그림 / 낮은산 / 2008 ▶ 01813.808 낮6719-11



만안도서관 최미송

동작이 느릿하고 우물우물 말을 하는 소년이 있다. 소년의 이름은 ‘한구름’이지만 귀가 어두운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 ‘구름’을 ‘굼’이라고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그것이 별명이 되었다. 게다가 낙타를 닮았다는 이유로 별명은 ‘낙타굼’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구부정한 모습, 흑처럼 등에 진 불룩한 가방, 커다란 눈과 긴 속눈썹. 아닌 게 아니라 소년은 정말로 낙타를 닮았다.

낙타굼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는 만나지 못했고 아빠는 일을 하려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들다. 할머니는 구멍가게를 하며 마늘이나 도라지를 다듬어 팔아 낙타굼을 키운다. 할아버지는 일은 안하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 술자리를 벌여 매일같이 할머니에게 타박을 받는다. 낙타굼은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자신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쪽’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어느 날 낙타굼은 교실 창가에서 느릿느릿 떠가는 낙타 모양 구름을 본 후 자신도 낙타 무리에 끼어 함께 사막을 걷는 환상에 빠진다. 낙타 무리의 환상은 꿈속에서도, 걷다가도, 교실에서도 소년을 찾아온다. 환상 속에서 소년은 어린 낙타와 대화를 나누는데, 어린 낙타는 ‘우리 등에는 쪽이 있어 걷다가 중심을 잃기 쉽지만 우리를 지켜 주는 것도 그 쪽’이라고 말한다. “쪽이 한 걸음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루하루를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선물 같은 거야.”

어린 낙타는 노을이 질 무렵 한 번 더 다녀간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낙타는 가기 전 ‘너는 누군가의 쪽이 아니며 스스로 쪽을 짊어지고 걷는 낙타’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해가 저무는 곳으로 멀어져 갔다. 낙타굼은 이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잘 어울린다. 할머니는 소년더러 늘그막에 온 선물 같은 아이라고 했다.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거의 연락도 되지 않지만, 소년은 늘 밝고 건강하게 지낸다. 종이 줍는 할머니를 도우며 구김살 없이 웃는다. 낙타처럼 타박타박 걸으며 잘 살고 있다.

Author

※ 키워드 : 쪽, 성장, 자아

- 박기범 동화작가이자 평화운동가. 1999년 <문제아>로 창비에서 주최하는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대상을 받으며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새끼 개>(2003), <어미 개>(2003), <미친개>(2008) 등 악하고 소외된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을 주로 썼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반전평화 단의 일원이었으며 이후로도 전국을 돌며 평화운동가로 활동했다. 목수 일을 배운 후 지금은 강원도의 작은 오두막에 살며 동무들의 집을 짓고 있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J. M. 바스콘셀로스 지음 / 동녘 / 2007 ▶ 879.3 바57나



박달도서관

유민정

갖가지 말썽에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장난꾸러기. 혹은 악마. 다섯 살짜리 꼬마 남자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름은 '제제'

제제네 집은 가난하다. 아버지의 실직이 가장 큰 이유였다. 어머니와 누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은커녕 칠면조 구이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였다. 작은 기대를 하고 모였던 가족들이 어둡고, 춥고, 쓸쓸한 방으로 각자 돌아갔다. 제제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동생을 데리고 선물을 받으러 읍내로 나갔다 헛걸음으로 돌아온다. 이 일로 제제는 세상은 공평하지도,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제제네 가족은 지금보다 살기 불편하지만 돈이 덜 드는 집으로 이사를 한다. 제제는 그곳에 있는 나무에게 '밍기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친구로 지내기로 한다.

제제는 어느 날 거리에서, '나는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라는 노래를 듣는다. 아버지께 불러드리면 기운이 날 것 같았다.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들은 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다시 불러 봐.", 노래를 부를수록 아버지의 매질이 세졌다. 맞고 부르고, 맞고 부르고, 나중엔 가죽벨트로 맞으면서도 계속 불렀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한 제제의 마음은 오해를 거쳐 오기만 남은 상처로 바뀌었다. 누나가 와서야 그 싸움은 끝났다. 그날 이후 3일간 제제는 심하게 앓아누웠다.

이후 제제는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여 버렸다.' 다행히 '뽀르뚜까'라 불리는 포르투갈 사람 '마누엘 발라다리스'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는 제제와 함께 낚시도 하고, 차를 태워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가기도 했다. 그는 제제와 대화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뽀르뚜까의 열차사고로 끝나게 된다. 제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망스러웠다. 제제는 오랫동안 앓았다. 그 이후 제제는 어린 꼬마에서 소년으로 성장했다. 제제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링기뉴도 어른나무로 성장했다.

Contents

-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난다
 - 철드는 아이
 - 어떤 라임오렌지나무
 - 가난에 찌든 손가락
 -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
 - 네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보겠어

※ 키워드 : 교감, 우정, 동심

-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 박쥐 ■ 정복 ■ 이런저런 이야기
 - 잊을 수 없는 두 차례의 매
 - 영동하고도 기분 좋은 부탁 ■ 사랑의 조각들
 - 망가라치바 ■ 늙어가는 나무들 ■ 마지막 고백

제비꽃



정채봉 지음 / 현대문학북스 / 2001 ▶ 813.8 정82ㅈ



평촌도서관 이 유 림

제비꽃은 자연과 동물들을 소재로 감수성을 자극하는 이야기 19편을 엮어놓은 정채봉의 동화집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을 대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책속에 녹아난다.

개울가에 살던 평범한 '돌'이 별 볼일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소동 속에 파묻히고 시궁창에 빠지는 '숨쉬는 돌'은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한다. 또한 팬지의 화분 한 편에 더부살이를 하는 작고 초라한 제비꽃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걸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음을 깨우치는 이야기도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

이렇게 각각의 동화는 강요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석 같은 단어, 예쁜 어휘들이 읽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하얀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색깔로 예쁜 수채화 그림을 완성하듯 풀어낸 동화의 몇 구절을 소개한다.

“무지개의 뿌리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죽순의 머리위에 비로소 푸른 하늘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비거나 구겨지지도 않은 저 하늘” - ‘솔, 바람, 달빛 든 저 대금’ 중 -

“마음 씨앗을 뿌려서 키워낸 말 나무에는 하늘이 열리고, 거짓 씨앗을 뿌려서 키워낸 소리 나무에는 지옥이 열리고” - ‘행복한 눈물’ 중 -

“달맞이 꽃이 노오랗게 입술을 여는 밤이었습니다.” - ‘별’ 중 -

마음의 여유가 없이 팍팍한 일상에 고단함을 느낄 때 정채봉의 동화를 접했으면 좋겠다. 가슴 트이는 여행 못지않은 편안함과 휴식, 그리고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Contents

※ 키워드 : 자연, 동화, 어머니

- 01. 숨쉬는 돌 ■ 02. 노을 ■ 03. 물에서 나온 새 ■ 04. 아버지의 방아 ■ 05. 돌아오는 길
- 06. 코스모스 ■ 07. 이상한 사진기 ■ 08. 먼동 속에서 ■ 09. 제비꽃 ■ 10. 천년학
- 11. 솔, 바람, 달빛 든 저 대금 ■ 12. 토끼, 우리들의 축복 ■ 13. 천년 노래 ■ 14. 행복한 눈물
- 15. 나무를 때리는 아저씨 ■ 16. 별이 된 가시나무 ■ 17. 별 ■ 18. 어린 새 ■ 19. 오세암

처음 받은 상장



이상교 지음 / 국민서관 / 2005 ▶ ISBN 978-89-516-0389-9



비산도서관

김수현

간척사업소장인 아버지의 일 때문에 서울에서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된 시우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바싹 마른 2학년 초등학생이다. 친구들은 시우를 '키다리 바보'라고 부른다. 초등학교 일학년을 마치도록 오른쪽 왼쪽 구분도 못하고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해 항상 예쁘고 공부 잘하는 언니와 비교당하기 십상이다. 네 남매 중 둘째인 시우를 남동생도 '누나'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하지만 시우가 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일기쓰기다.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속마음을 일기장에 한 편의 시로 적는다.

시우는 흥점이라는 친구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산으로 냇가로 또 갯벌로 신나게 놀려 다닌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바닷물이 차오르자 시우와 흥점이는 잠은 조개를 넣어놓은 망태기를 들고 서둘러 갯벌을 빠져나가지만 시우는 바닷물이 들어찬 물웅덩이 가까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흥점이는 자신의 망태기를 내려놓고 시우의 손을 잡아당겨 둑 위로 올라섰지만 망태기는 바닷물에 가듯가듯 잠기고 말았다. '망태기는 안 떠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돌아가신 흥점이의 아버지가 만드신 망태기를 자신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시우는 마음이 좋지 않다. 설상가상 흙투성이가 된 두 명이 흥점이 엄마와 마주치자 흥점이 엄마는 애꿎은 흥점이만 나무란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자고 한 거였어요.' 흥점이가 엉엉 울자 시우도 쫓아서 눈물을 흘린다.

산수시험은 빨간 동그라미가 세 개뿐인 15점을 맞는 시우지만 국어에는 자신이 있다. 글짓기 대회가 다가오자 시우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해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이 글짓기라면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시우는 <내 동생>과 <그네>라는 제목으로 짧은 글 두 가지를 써낸다.

아침 운동장 조회시간, 지루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시우는 곧 머릿속에 '생각의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때, '2학년 1반, 이시우!' 마이크에서 시우의 이름이 크게 불려 나오자 시우는 영문을 모른 채 구령대 앞으로 나가고 교장선생님은 크게 시우의 글짓기 우수상 상장을 읽는다. 남과 비교당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것, 못하는 것만 지적 받아온 시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 하는 것을 모두에게 인정받아 새하얀 상장을 펄럭이며 집으로 달려간다.

이 책은 항상 형제와 비교당하면서 가족에서의 위치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아이는 물론 책을 읽는 어른들 또한 자신이 처음 받았던 상장을 떠올리며 자신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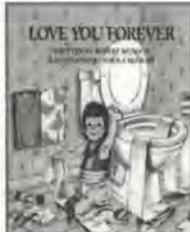
Contents

- 이사
- 고용나무
- 해바라기

※ 키워드 : 아이의 자존감, 행복

- 거울
- 고마워!
- 언니
- 그네

Love you forever



written by Robert Munsch / JYBooks / 1987 ▶ J843 M969I



호계도서관

김현진

「종이봉지 공주」로 유명한 로버트 먼치의 책으로, 1986년에 출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해 영어권 엄마들의 아이를 위한 필독서로 사랑받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책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보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사랑해야지 다짐하게 되고, 자신의 아이에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책이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의 CD나 테이프는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I'll love you forever
I'll like you for always
As long as I'm living
My baby you'll be.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갓난아이를 안고 엄마가 아기에게 불러주는 노래로 시작한다. 두 살이 되어 말썽을 부려도 밤이 되면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마법 같은 그 노래를 부른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자라서 십대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나도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다.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머니는 늙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어머니가 힘이 들어 노래를 잊지 못하면 이제 다 큰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면서 불렀던 주옥같은 노래를 불러 준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과 똑같이.

저자의 또 다른 책

- The Paper Bag Princess 종이봉지공주 / 1980
- Mud Puddle 진흙괴물 / 1979
- Give me back my dad! 우리 아빠 돌려줘 / 2011
- Stephanie's Ponytail 꼬지머리 소동 / 1996

※ 키워드 : 사랑, LOVE, 아기

바보 같은 내 심장



자비에 로랑 뿐띠 / 밝은미래 / 2013 ▶ ISBN 978-89-688-16



별말도서관

배성현

내 이름은 시산다. 아픈 심장을 가진 소녀예요. 아폴리네르 의사선생님은 내 심장에서 슛-슛- 하는 소리가 나는 게 내 심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내 심장을 낫게 하는 딱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수술 하는 거래요. 그러나 그 수술은 여기서는 할 수도 없고 또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했어요. 무려 100만Kelly이나 한대요.

우리 엄마는 달리기를 정말 좋아해요. 외할머니는 그러셨어요. 엄마는 외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을 굴렀다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같이 마을을 뛰어다니는 엄마를 보고 '스왈라'라고 불러요. 스왈라는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날짜가 많이 지난 신문기사를 들고 와서 나에게 읽어 달라고 했어요. 마라톤 대회에 관한 기사였어요. 나는 그때 엄마가 그저 달리기를 좋아해서 이걸 읽어 달라고 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엄마는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면 나오는 150만Kelly의 돈으로 내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마라톤 대회는 등록비가 무려 5000Kelly이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엽고 토실토실한 양을 팔아서 대회 등록비를 냈죠. 그런데 엄마가 사막을 달리다 전갈에 쏘이게 되었어요. 엄마는 의식이 한동안 없었고, 다리도 통통 부었어요. 나와 할머니는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 비밀주문을 밤새 외웠어요.

엄마는 의식을 찾자마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리로 다시 또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 당일이 되자 엄마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캄주니라는 도시로 떠났어요. 우리는 마을에 남아 카델로가 아저씨가 가져온 텔레비전을 보며 엄마를 응원했어요. 텔레비전 안테나가 모래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화면이 일그러져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나는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었고. 방송에서는 그것이 이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다리가 다 회복되지 않아서 인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 보였어요. 방송에서도 엄마가 부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갑자기 멍취 섰어요. 내 심장의 슛-슛- 하는 소리는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눈앞이 깜깜해지며 정신을 잃었죠.

내가 눈을 떴을 때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가 몇 등을 했을까……. 주위가 조용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내 심장에서 나는 슛-슛 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네요.

Author

※ 키워드 : 모성애, 열정, 의지

- 자비에 로랑 뿐띠 1956년 파리 출생. 1996년과 2009년에 <흑단 같은 클로르펠>과 <제레미, 오늘도 무사히>로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소르시에르 상을 받았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아우라 / 피크 필 지음

6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남미 문학 : 지구 반대편에서 순 소설

지난 4월 남미 문학의 거장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타계했다. 남미 지역에는 마르케스 뿐 아니라 노벨상 수상 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거미 여인의 키스」로 유명한 마누엘 푸익 등 매력적인 작품세계를 자랑하는 작가들이 적지 않다. 낯선 역사와 지리적으로 먼 거리 때문에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한 번 읽으면 금세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남미 문학을 소개해보자.

도서목록

-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 라우라 에스키벨
- 모렐의 발명 /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 연애소설 읽는 노인 / 루이스 세풀베다
- 아크라문서 / 파울로 코엘료
- 악마와 미스 프랭 / 파울로 코엘료
-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 / 루이스 세풀베다
-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렁하세~!!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오직 날려고 노력할 때만이 날 수 있는 거란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준 고양이>

“메타포라고!”

“그게 뭐죠?”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길은 내게 열려 있다.
그 길은 사는 길, 즉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모렐의 발명>

아우라



피크 필 지음 / 책이있는풍경 / 2012 ▶ 325.211 필.8980A



석수도서관 서성남

'아우라'란 나를 빛내고 상대를 끌어당기는 특별한 힘으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전 세계를 오가며 '내 안의 아우라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자 피크 필이 슬럼프에 빠진 이들을 위해 자신만의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능력만 있고 아우라가 없다면 모래 속에 묻힌 황금처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대로 능력은 평범한데 아우라가 무한하다면 늘 좋은 운이 뒤따르며 빛을 발할 것이다. 능력과 아우라가 모두 뛰어나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풍에 뒷 단 배처럼 순항할 것이다.

강렬한 아우라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쳐, 자신과 같은 열정, 적극성,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 그래서 아우라가 강렬할 때는 인간관계, 커리어, 가정생활 등 삶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발전하고 상승한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돈독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과 건강을 얻고 싶다면 자신이 아우라를 갖고 닦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우라를 키우는 3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 호감 가는 모습을 유지한다. 외모가 떨어진다면 재기와 유머 감각을 갖추고, 그마저 떨어진다면 늘 미소 띤 얼굴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라.
-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을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좋은 말만 하라. 말은 돌고 도는 법이다.
- 일할 때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되, 일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인정을 베풀어라. 사람됨에는 욕심을 부리되, 성과에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순간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 주어라.
-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진다.
- 자기반성은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반성하라.

Contents

- 1장 당신만 모르는 아우라
- 2장 내 삶을 바꾸는 아우라
- 3장 나만의 아우라 만들기

* 키워드 : 아우라, 자신감, 자기계발, 호감

- 4장 나를 키우는 아우라
- 5장 호감을 부르는 아우라
- 6장 사람을 모으는 아우라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지음 / 문학동네 / 2009 ▶ 808.9 세14문4



석수도서관

이 해 동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거장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대표작으로 독특한 구성, 넘치는 유머, 신랄한 풍자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린 소설이다.

외딴 아마존 밀림에서 폐루 군대의 병사들이 성욕에 굽주린 나머지 마을 여자들을 겁탈하여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고위층에서는 병사들의 성욕을 달랠 수 있는 ‘특별봉사대’ 창설을 고안해 낸다. 군 당국은 그 적임자로 훌륭한 복무 태도, 탁월한 임무 수행능력으로 상부의 사랑을 받는 모범 장교 ‘판탈레온 판토하’ 대위를 파견하기로 한다. 하지만 군 당국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를 군 장교들의 고급숙소가 아닌 일반 민간인처럼 살며 심지어 아내 포차와 어머니 레오노르 부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 한다. 처음에 판탈레온은 그 임무가 자신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결국, 그 임무를 맡기로 하고 이키토스로 향한다.

판탈레온이 수행하는 임무는 ‘수국초특(수비대와 국경 및 인근 초소를 위한 특별봉사대)’라고 불리며, 그것은 창녀들을 아마존 지역의 병영과 초소로 데려가 병사들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판탈레온은 그 특유의 성실함과 기질을 발휘하여 수국초특을 성공리에 이끌어 간다. 하지만 수국초특에 대한 소문이 지역주민에게까지 퍼지면서 판탈레온은 위기를 맞게 된다. 군대에만 매력적인 여자가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지역주민 7명이 수국초특을 급습하고 결국은 판탈레온의 애인이자 봉사대원인 ‘미스 브라질’을 살해하게 된다. 미스 브라질의 장례식에서 판탈레온은 봉사대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장교복을 입고 송덕문을 낭독하면서 그가 장교였다는 비밀과 봉사대의 성격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 사건 때문에 수국초특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군 상관들은 봉사대를 폐쇄한다. 그 과정에서 상관들은 판탈레온에게 심한 비판을 하며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면서, 티티카카 호수의 수비대로 파견한다.

이 소설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나 공문서, 편지, 라디오 방송, 신문기사 등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서사적 관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마음은 부패하면서도 겉으로는 청교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폐루 군부를 패러디한다.

Author

※키워드 : 수국초특, 특별봉사대, 판탈레온, 아마존

■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1936년 폐루 아레키파에서 태어났다. 1952년 레온시도 프라도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며 문학 경력을 쌓아갔다. 1963년 군사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도시와 개들」을 발표하며 주목 받는 작가로 떠올랐고, 1966년 발표한 「녹색의 집」으로 폐루 국가 소설상, 스페인 비평상, 로물로가예고스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지식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카테드랄 주점에서의 대화」, 「나는 출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 「켈트인의 꿈」, 「염소의 축제」 등이 있다.

달콤 쌈싸름한 초콜릿



라우라 에스키벨 지음 / 민음사 / 2004 ▶ 808.9 세14민108



석수도서관

박현정

멕시코의 소설가 라우라 에스키벨의 첫 번째 장편 소설 '달콤 쌈싸름한 초콜릿'은 22년 동안 이어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볼 수 있는 요리책처럼 독특하게 구성한 장편 소설로 멕시코 요리 특유의 냄새와 맛을 통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1910년 멕시코 시골의 엄격한 집안에서 세 딸 중 막내로 태어난 주인공 티타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티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페드로를 보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페드로는 청혼을 하려 집에 오지만, 어머니는 집안 전통을 이유로 티타와의 혼담을 거절하고, 대신 페드로에게 말딸 로사우라와 결혼할 것을 종용한다. 페드로는 오직 티타와 가까이 있기 위해 그녀의 언니인 로사우라와 결혼식을 올린다. 페드로의 진심을 알지 못한 티타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 케이크를 만들고, 눈물 섞인 케이크를 먹은 하객들은 티타가 느꼈던 걸작을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을 느껴 구토를 하고 결혼식은 엉망이 된다.

집안의 요리사가 된 티타는 오직 요리를 통해서만 자신의 억눌린 마음을 표현한다. 티타는 페드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아 '장미 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를 만들고, 이 요리를 먹은 둘째 언니 헤르트루디스는 놀러왔던 성적 욕망을 분출시키며 집을 나가 혁명 전사로 새 삶을 개척한다. 이후 티타는 조카 로베르토에게 음식을 먹이며 사랑을 쏟는다.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어머니는 페드로의 가족을 미국으로 떠나보내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조카 로베르토가 죽는다. 조카의 죽음으로 실성한 티타는 주치의인 존 브라운의 지극한 사랑으로 병을 치유한다. 그러나 주치의와 결혼을 결심할 무렵 어머니의 죽음을 맞는다. 이에 페드로의 가족이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고, 큰언니 로사우라가 세상을 떠나자 티타와 페드로는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에 페드로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티타는 '사람은 누구나 몸속에 성냥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을 생각하며 성냥을 하나씩 씹어 삼키기 시작한다. 페드로와의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들을 상상하자 티타에게 불이 붙고 둘은 그렇게 같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사라진다.

Author

※ 키워드 : 사랑, 요리, 가족

- 라우라 에스키벨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로, 첫 소설 「달콤 쌈싸름한 초콜릿 Como Agua Para Chocolate」은 그녀에게 전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는 전통적인 라틴 문학뿐 아니라 기존의 문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에스키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소설 「사랑의 법칙」(1995), 「분출된 욕망」(2001) 등이 있다.

모렐의 발명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지음 / 민음사 / 2008 ▶ 808 세14-165



만안도서관 김란아

1940년 라틴 아메리카 문학계가 전통소설, 즉 사실주의 소설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소설을 추구하던 분기점에 이전에는 없던 형식을 실험하는 젊은 소설가들이 나타났다. ‘환상문학’을 추구한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는 처음 등장했을 때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그늘에 가려 ‘보르헤 문학의 평생 동반자’ 정도로 알려지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카사레스가 죽은 후 그의 작품은 새로운 조명을 받으며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모렐의 발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그의 작품 특징으로 자리 잡는 환상성과 사랑의 감정과 같은 주제를 비롯하여, 빈틈 하나 없는 구조와 아이러니컬한 유머를 소설 형식으로 사용하여 형이상학적인 보르헤스와는 또 다른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모렐의 발명」은 사법 당국의 눈을 피해 도망친 ‘나’가 어떤 섬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며 시작한다. ‘나’는 매일 같은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몰래 지켜보기만 하던 주인공은 결국 비밀을 밝히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섬의 사람들이 모렐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상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스터리 소설, 공상과학 소설을 연상케 하는 이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반전을 준비한다.

비오이 카사레스는 191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류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11살 때 여자 사촌인 넬리다를 사랑하게 되면서 마담 집의 작품을 모방하여 첫 소설을 쓰며 문학에 재능을 보였다. 「미래를 향해 열일곱 발을 쏴라」로 등단하였으며 아내 실비나 오캄포가 삽화를 그린 「모렐의 발명」을 출판하였다. 후에 「모렐의 발명」은 아르헨티나 작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제1회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학상을 수상한다.

저자의 또 다른 소설

- 도주 계획 / 1945
- 돼지 전쟁 일기 / 1969
- 햇빛 아래서 잠자기 / 1973
- 라플라타 어느 사진사의 모험 / 1986

* 키워드 : 환상, 미스터리, 여인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루이스 세풀베다 지음 / 열린책들 / 2010 ▶ 808.9 29819월23



박달도서관

김유진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은 아마존의 밀림이 서서히 우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러 인간들의 모습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풀어 놓으며 시작된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아마존 밀림 엘 이딜리오는 고향을 등지고 새롭게 정착한 이주민들, 그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같은 읍장, 일확천금을 노리고 발을 들여놓은 노다지꾼들, 마치 전투라도 치를 듯 중무장을 한 채 나타나 닉치는 대로 동물들을 쏘아 죽이는 밀렵꾼들과 백인들이 찾아 드는 곳이다. 그곳에는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라는 노인이 살고 있다.

그는 아마존의 원주민인 수아르 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통해 밀림에서 생존해 나가는 법을 배운다. 또한 그는 그곳의 원주민들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한 지혜로운 인물이다. 나날이 황폐해지는 아마존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던 노인은 이제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글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자신의 보금자리인 오두막에서 1년에 두 번씩 치과 의사가 가져다주는 연애 소설을 읽고 또 읽으며 무료하고 적막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발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한가롭기만 한 마을이 두려움으로 술렁거리고, 그로 인해 세상사를 멀리한 채 연애 소설을 읽던 노인의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밀렵꾼인 백인에게 새끼들과 수놈을 잃은 암살쾡이가 그 보복으로 인간 사냥에 나선 것이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기와 함께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싸움으로 진행되고, 마침내 그들의 처절한 혈투는 노인의 연애 소설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사랑 뒤의 해피 엔드가 아닌, 이미 예고된 암시나 전조처럼 사뭇 비장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Author

※키워드 : 남미문학, 루이스 세풀베다, 아마존

■ 루이스 세풀베다 1949년 칠레에서 태어났다.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당시의 많은 칠레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로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노체트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했다. 수년 동안 그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며 여러 일을 했고, 1980년 독일로 이주했다. 1989년 그는 살해당한 환경 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여러 문학상을 횟으며 세풀베다를 일약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아크라 문서



파울로 코엘료 지음 / 문학동네 / 2013 ▶ 879 쪽 640원



평촌도서관

황신혜

1974년, 영국의 고고학자 윌터 월킨슨은 이집트에서 고대 문서를 발견한다. 아랍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인 이 '아크라 문서'에는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콥트인 현자와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파울로 코엘료는 광장에 모인 예루살렘 군중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한다. 전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일상적인 질문들에 대해 현자가 들려주는 답변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이다.

패배란 무엇이고 패배자란 어떤 사람인가? 자연의 대순환 속에는 승리나 패배와 같은 개념은 없으며 오직 변화가 있다. 역경의 시기도, 영광의 순간도 다 지나가며 힘든 시절이 지나면 좋은 시절이 오며 이 순환은 계속된다. 패배자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답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싸움에 저본 것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세상에 쓸모없는 삶은 없다. 자신이 늘 바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집중하라.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운이 좋은 것일까? 성공은 자신의 일을 남들과 비교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다보면 주어지는 결과이다.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불현 듯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기적이 우리 삶의 길을 바꾸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구한다.

현자는 전쟁 직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삶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다.

두드리는 자에게 묻은 열릴 것이다, 청하는 자는 답을 구할 것이다, 위로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Author

※키워드 : 십자군전쟁, 지혜, 진리

■ 파울로 코엘료 브라질의 소설가로 외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신비주의 작가이며 극작가, 연극연출가, 저널리스트,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하였다. 대표작은 세계 20여 개 국어로 번역된 「연금술사」를 비롯하여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등이 있다.

악마와 미스 프랭



파울로 코엘료 지음 / 문학동네 / 2003 ▶ 879 코64악



평촌도서관

진보미

베스코스는 남미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다. 마을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을에 이방인이 찾아온다. 이 소설은 낯선 이방인이 베스코스 마을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다.

낯선 이방인은 호텔 바 종업원인 샹탈프랭에게 잠시만 자신을 따라와 달라고 부탁한다. 이방인이 샹탈프랭을 데리고 간 곳은 숲속이다. 그는 숲속에서 샹탈에게 엄청난 양의 금괴를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이다. 그리고 이방인은 샹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마을사람들에게 모든 금괴를 줄 테니 누구든지 '살인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어겨달라는 것이다. 기한은 일주일로 희생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을 놓 쓰는 노인이든, 불치병에 걸린 환자든, 집밖에 안 되는 정신박약자든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죽은 채 발견된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금괴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날 이후 샹탈프랭은 선과 악을 대면하고 끝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놓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

끝없는 갈등 끝에 마을사람들은 희생자를 찾기 위해 광장으로 모였다.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르기로 한 것이다. 희생자 또한 결정이 되었다. 그녀는 '베르타'이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치매기까지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 악을 선택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실행에 옮겨 베르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그녀를 총살하기 위해 숲속으로 옮겼다. 그러나 읍장이 사격을 명령하는 순간 샹탈이 살인을 막았다. 읍장은 사격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마을사람들은 샹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좋은 핑곗거리를 찾고 있던 차에 샹탈이 살인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다시 선을 선택하였다.

이 소설은 선이 악을 이겨낸 것처럼 끝났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끝없이 선과 악이 대립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 소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선과 악은 모든 것이 통제의 문제, 그리고 선택의 문제일 뿐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고…….

Author

※ 키워드 : 악마, 미스프랭, 금괴

- 파울로 코엘료 브라질 출신의 작가이이며 작가 이외에도 연극연출가, 극작가, 저널리스트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연금술사」를 저술함으로써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으며 대표작으로는 「연금술사」를 포함해 「브리다」, 「아크라문서」, 「11분」 등이 있다.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 민음사 / 2008 ▶ 859 마297예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청년 시절 고향 마을에서 실제로 목격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여, 작가의 섬세함으로 비밀스러운 살인 사건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다. 작가 스스로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한 소설로, 1981년 발표되어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지에서 100만 부 이상 출간되어 중남미 출판계에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산띠아고 나사르에게 순결을 빼앗긴 앙헬라 비까리오. 그녀의 쌍둥이 오빠들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산띠아고 나사르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비까리오 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인 장소와 시간, 동기까지 공공연히 알리지만 누구도 산띠아고 나사르에게는 그 사실을 말해 주지 않는다. 명예와 복수, 폭력과 무관심, 거짓 증언과 오해로 얹히고 살킨 비극적 사건으로 바닷가 작은 마을은 슬픔에 훠싸인다. 소설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후 화자가 산띠아고 나사르의 어머니를 만나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하나하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에서 두 가지 사항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나는 앙헬라 비까리오의 처녀성을 앗아 간 사람이 정말 산띠아고 나사르인지 하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산띠아고 나사르를 살해하겠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도 살인이 제지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다. 위에서 언급한 의문점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하는 상대에 대한 복수심과 그 복수심을 표출하는 ‘정당한 폭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명예를 훼손한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폭력은 정당한가? 소설 속에서 어떤 이는 명예란 자체 없이, 주저 없이 복원되어야 하기에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위는 정당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살인 현장을 목격하면서 선뜻 제지하지 못한 것도 명예에 대한 이러한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작가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불사하는 모습을 구경꾼처럼 서술하면서, 명예와 죽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우스워져도 상관없겠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Author

※ 키워드 : 명예, 복수, 정당한 폭력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 순수문학을 하는 작가로서 마르케스 보다 더 인기 있는, 혹은 책이 많이 팔린 작가는 드물다.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와 함께 ‘마술적 리얼리즘’의 대가로 손꼽힌다. 지은 책으로 「백년의 고독」, 「콜레라 시대의 사랑」, 「남치일기」, 「내 슬픈 처녀들의 추억」 등이 있다. 1999년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2014년 4월 17일 향년 87세로 타계했다.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루이스 세풀베다 지음 / 바다출판사 / 2003 ▶ 아892.2 세46-7



비산도서관

박지현

오염된 바닷물 때문에 온몸에 기름찌꺼기를 뒤집어쓰고 숨구멍이 막혀 죽게 된 갈매기가 우연히 만난 고양이에게 자신이 낳게 될 알을 부탁한다. 알을 잘 돌봐서 부화할 수 있게 만들고, 새끼가 태어나면 나는 법을 가르쳐달라면서……. 고양이는 고양이들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갈매기가 죽고 혼자남아 낯설고 힘든 상황에 부딪힌 고양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알을 부화시키고 태어난 아기갈매기 아포르뚜나다(‘행운아’라는 뜻으로 고양이들이 이름을 붙여 주었다.)와 함께 온갖 난관을 극복해간다.

저자는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작가로, 이 작품 역시 이러한 내용을 문학적으로 담고 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빚어지는 폐해에 대해 이야기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라고 작가 스스로 밝히듯이, 주인공인 고양이 소르바스와 갈매기 켄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동화는 동물들이 목격한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한다. 바닷물의 기름덩어리를 온 몸에 뒤집어쓴 갈매기는 죽어 가면서 인간의 해양오염 실태를 폭로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소설은 갈매기와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혐난한 과정에서 낯선 존재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 도우는 과정을 통해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하나의 존재로 화합해가는 여정을 그려내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쉬운 문체로 쓰여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주며, 동물 주인공들의 진지한 윤리 의식과 세계관, 환경에 대한 성숙한 태도, 세계와 삶을 긍정하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해주고,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Author

※ 키워드 : 환경, 화합, 자연

■ 루이스 세풀베다 칠레에서 태어나 라틴 문화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작가로서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1998년에 미국의 「퍼블리셔스 위클리」지를 비롯한 11개국의 권위 있는 잡지에서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에 선정되었다. 작품으로는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어느 감상적인 살인자의 일기」, 「세상 끝으로의 항해」 등이 있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지음 / 민음사 / 2004 ▶ 808 세14▫104



호계도서관 이혜준

직업이 없는 17세 소년인 마리오 히메네스. 아버지는 그를 자신처럼 어부가 되라고 하지만 마리오는 그 일이 하기 싫어 다른 일을 찾아보던 중에 우연히 우편배달부를 구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된다. 우편배달부가 하는 일은 단 한 사람을 위한 편지만 전달하면 되는 일이었고, 마리오는 그 일을 하면서 수신자 네루다와 친해지게 된다. 네루다는 유명한 시인이었고, 그래서 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마리오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술집에 갔고, 베아트리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마리오는 이 여인에게 사랑 고백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네루다를 생각하게 되었고 네루다가 시를 그녀에게 써준다면 사랑 고백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네루다에게 말했고 결국 네루다의 지원으로 베아트리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마리오는 베아트리스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의 어머니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때도 네루다의 도움으로 결혼승낙까지 받게 된다.

한편 네루다는 공산당 대통령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다른 대통령 후보인 아옌덴을 단일 후보로 추대하고 사퇴한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은 프랑스 대사직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곳에서 네루다는 자신이 살았던, 마리오와 함께 지내던 곳인 이슬라 네그라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네루다는 마리오에게 소니 녹음기와 편지한통을 보내면서 마리오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나 하는데 바로 이슬라 네그라의 소리를 녹음기에 담아서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에 마리오는 바람소리, 종 울리는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벌집 소리, 파도가 물러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아기 탄생을 알리는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보낸다.

후에 네루다는 건강을 잃어 다시 이슬라 네그라로 돌아오고 네루다는 마리오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Author

※키워드 : 우정, 사랑, 시, 메타포

■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1940년 칠레의 안토파가스타에서 태어났다. 칠레 대학교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다. 이후 칠레로 돌아와 칠레 대학교에서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첫 단편집 「열정」(1967)을 발표하였다. 기존 라틴 아메리카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삶의 활력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5년에 발표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는 스카르메타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예능력 : 예능에서 발견한 오늘을 즐기는 마음의 힘 / 하지현 지음

7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여행, 그들처럼 떠나라 : 여행에세이

직접 떠나는 여행이 가장 좋긴 하지만, 책으로 떠나는 여행 역시 매력적이다. 여행에세이를 통해 작가만의 여행지, 이야기와 꿈, 감성을 엿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접할 수 있다. 여행에세이를 소개하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어보자

도서목록

- 나침반 여행 / 양재혁
-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 홍인혜
- 그럼에도 여행 / 노경원
- 오늘이 너무 익숙해서 / 서제유
- 크로아티아 랩소디 / 최연진
- 대한민국 국도1번 걷기여행 / 신미식, 이민
- 이해욱 할아버지의 지구별 여행기 / 이해욱
- On the Road :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 박준
- 카우치서핑 : 세상 모든 불빛이 나의 집이다 / 김광섭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칠컬하세숲~!!



꽃은 향기만으로 벌과
새와 나비를 춤추게 하고,
사람은 인정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대한민국 국도1번 걷기여행>



"내 안에서 잠자던
여행 유전자가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

<이해욱 할아버지의 지구별 여행기>

"살다보면 어느 순간 누구에
게나 여행이 필요한 시간이 온다.
단 며칠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라.
망설일 이유는 없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배낭을 싸면 모든 일은 자연스
럽게 흘러간다. 길은 내게 열려
있다."
<On the Road>

예능력 : 예능에서 발견한 오늘을 즐기는 마음의 힘



하지현 지음 / 민음사 / 2013 ▶ 325.04 하78◦



평촌도서관 조윤숙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는 예능프로그램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예능력』은 정신과 전문의의 눈으로 본 예능프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의 심리 구조를 밝혀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한다.

1부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존감을 지키려면 '장근석'의 허세라도 좋으며, '강호동'의 콤플렉스도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면 나밖에 못하는 고유한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야 인생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자신을 단단히 지켜 나갈 수 있다.

2부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힘

'타인' 코너에서 류담과 노우진이 사회자와 수제자 역할을 잘해 주지 않았더라면, 달인 김병만도 돋보이지 않고 류담과 노우진도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내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타인을 잘 받쳐주면 나도 빛난다.

3부 삶을 놀이로 만드는 힘

'런닝맨'은 보기에 따라 살벌한 서바이벌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며 다음 주에 새로운 기회가 또 다시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인생에 여백을 둘 때 보다 창의적이고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4부 삶을 감동으로 채우는 힘

토크쇼의 주인공이 진정성 있는 눈물로 자신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듯이,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타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인생의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

5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힘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의 미션'에 집중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치 있는 일로 오늘에 집중하며 남과 뚜렷이 다른 독창적인 나로 살아갈 때 더욱 즐거운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예능이 주는 힘을 이해하고 즐기면 이 빡빡한 삶에서 잊어버려가던 놀이의 힘, 잉여와 재충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1부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힘
- 2부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힘
- 3부 삶을 놀이로 만드는 힘

※ 키워드 : 무한도전, 1박2일, 런닝맨

- 4부 삶을 감동으로 채우는 힘
- 5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힘

나침반 여행(COMPASS TRAVEL)



양재역 지음 / BG북갤러리 / 2010 ▶ 816.6 양73나



석수도서관

김민자

이 책은 건축공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 어느 날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다짐을 하고 출찍 비행기를 올라탄 저자의 여행기다.

3가지 다짐은

1. 여행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도 절대 내 자유를 양보하지 않을 것
2. 발길 닿는 곳 따라 여행하되 떠남보다는 순간순간의 정착에 더 큰 의미를 둘 것
3.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 행복에 대하여 물어볼 것……. 이다.

호주를 시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가나, 말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여행하면서 정원사, 건축가, 제빵사 등 15가지 일을 체험하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인연과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책으로 건축학도였던 저자의 경험을 살린 사진과 그림을 담아내 또 다른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처음의 다짐처럼 여행을 하면서 땀으로 그들의 삶과 소통한 후에 미련 없이 다음 나라로 떠나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대상 모두에게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순간순간 정착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체험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과정을 통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봐! 낚싯대를 하나를 더 사지 그래? 그러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레스토랑에 더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집에 낚싯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난 하루에 30랜드 버는
것으로 족해. 더는 필요하지 않아…….”

이봐, 친구! 그보다는 저 바다를 봐! 아름답지 않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느 항구에서 만난 흑인 낚시꾼과 저자의 대화이다.

저자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찾았을지, 어떤 인생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Contents

- 호주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가나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 키워드 : 여행, 자유로움, 행복

■ 유럽

-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홍인혜 지음 / 달 / 2011 ▶ 814.7 홍6819지



석수도서관 김은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회사는 ‘나’라는 말을 그 곳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직장인이라면, 또는 직장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내가 사라지고 오로지 회사를 위한 내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의 휴가가 아니라 장장 8개월에 걸쳐 런던의 여행자이자 생활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좋아서’ 선택한 런던생활의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전기를 유난히 아끼던 악덕 흔스테이 주인에게 걸려 한 달도 채 못살고 이사를 가고, 광고에 속아 최악의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8개월 내내 써야 했다. 궂은 날씨, 무심한 사람들, 통하지 않는 언어,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 첫 런던 생활은 나를 자괴감에 빠트리기에 충분했다. ‘괜히 왔다.’라는 생각에 몸부림치던 나를 구해준 것은 친구 노난. 그가 혼자 살고, 혼자 노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떠난 후 런던에서의 나의 삶은 달라졌다. 혼자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노천카페에서 책을 읽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깨닫게 된 것! 시간에 쫓겨 관광지를 찾지 않아도 되고 어제 간 갤러리를 오늘도 갈 수 있으며 날씨가 흐리면 예정했던 코스를 과감히 미룰 수 있는 여유. 장기여행자의 매력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다.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장기여행자의 매력은 많다. 그 나라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한 나라를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견문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롯한 나만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과 남의 눈치를 보던 나에서 벗어나 대담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준다는 것.

그리고 런던에서의 순간순간들을 글 속에, 그림 속에, 마음속에 담고 돌아온 나는 다시 한 번 결심한다. 이번엔 서울에서의 장기여행을 시작하겠다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권태롭고 번민하는 나로 돌아갈 수 있지만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은 언제나 떠날 수 있으니까.

Contents

- 촘촘한 준비의 계절
- 우울한 적응의 계절

※ 키워드 : 런던생활자, 유럽여행, 장기여행

- 사는 맛 삼삼한 정착의 계절
- 깊어가는 성찰의 계절

그럼에도 여행



노경원 지음 / 시드페이퍼 / 2014 ▶ 818 노14-7



만안도서관 장영진

네이버 파워 공부 블로거로 유명한 저자(소유흑향)의 좌충우돌 청춘여행기이다. 저자는 가난과 역경을 딛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여행’ 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루 두 끼를 삼각 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우며 대학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녀는 여행 통장을 손에서 놓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 공과금과 하숙비, 교통비, 책값 등 넉넉지 못한 생활비에서도 여행이 없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6년을 걸쳐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하며, 12개국을 여행하면서 그 곳의 풍경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수만큼이나 특별한 삶들을 배운다. 그 소중한 시간이 모여 자신을, 그리고 인생을 바꿔나간다. 꿈 앞에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망설이는 청춘에게 그럼에도 떠나볼 것을 권한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낯설고 어리숙한 이방인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의 그 설렘, 여행은 그래서 더 결손해야 하고, 그래서 더 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처음처럼 익숙하지 않아야 하고, 당황스러워야 하며, 놀라워야 한다.”

그럼에도 여행을 하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여행 명언들이 나온다. 여행의 중요성을 짧고 짚게 이야기 하며 좀 더 심도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한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용기가 나지 않아도 왜 여행을 가는가에 대해서 그녀의 경험과 삶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면서 제목처럼 그럼에도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잘 담겨있다.

Contents

- 돈이 궁해도
 - 현실과 이상 사이의 무게중심잡기
- 시간이 없어도 - 여행의 딜레마

※ 키워드 : 여행, 꿈, 용기

- 용기가 부족해도
 - 가끔은 바다 위를,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
- 그럼에도 여행 - 연필과 엽서와 자석

오늘이 너무 익숙해서



서제유 지음 / 미디어월 / 2013 ▶ 816.7 서74오



박달도서관 조향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쉴 틈 없이 일하던 그녀는 어느새 프랑스, 체코, 인도, 혹은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의 거리에 서 있다. 무작정 떠난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보는 거리를 하염없이 거닐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도시를 밤새도록 달리기도 한다. 이국의 공간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완벽한 이방인이 되는 자유를 느끼면서.

이 책은 저자가 여행을 통해 느낀 단상을 ‘떠남, 자아, 사랑, 대화, 여정’이라는 다섯 가지 테마로 묶어 소개한다.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글과 빛바랜 듯 그리움이 물어나는 사진이 그녀의 여행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잘나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앞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그녀에게 여행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억지로라도 떠나지 않으면 자아에 짓눌리고 욕망에 치여 질식할 것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과로와 불만뿐인 현실에 익숙해지고, 그럴수록 용기가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두려웠다. 하지만 수도 없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녀가 느낀 것은 ‘어딜 가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결국은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언제나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은 방랑자가 아닌 여행자가 된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다녀올게.’라는 말로 여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다르게 보는 법도 알게 되었다.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타인의 삶에서는 조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자아를 덜어낸 자리에 여행지의 풍경과 그곳의 사람들을 담았다.

이 책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여행책자와 달리 사진만 있는 페이지도 있고, 한 두 줄의 짧은 구절만 있는 페이지도 있다. 그러한 여백이 작가의 여행을 공감하게 하고,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Contents

- scene #1. 떠남, 일상을 닮은 길
- scene #2. 자아, 나를 꿈꾸다
- scene #3. 사랑, 너와 내가 흐른다

※ 키워드 : 떠남, 자아, 사랑, 대화, 여정

- scene #4. 대화, 타인에 눈뜨다
- scene #5. 여정, 삶은 계속 된다

크로아티아 랩소디



최연진 지음 / 모요사 / 2014 ▶ 982.994202 최6419=



평촌도서관

배 소 영

영국의 계관시인 존 바이런 경은 두브로브니크를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칭송했으며,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지상의 진정한 천국”이라는 찬사를 남겼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유럽인들에게서 첫손 꼽히는 관광명소인 두브로브니크로 여행을 갔던 작가는 크로아티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접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직접 찍은 사진과 여행경험을 가지고 크로아티아의 역사와 주요도시를 두브로브니크와 함께 소개하는 책을 출간하였기에 기행문임과 동시에 여행안내서이기도 하다.

첫 장에서는 여행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크로아티아의 역사 및 배경지식들을 전달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여행을 위한 항공, 숙소, 환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부터는 본격적인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견해 등을 같이 적어주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 장부터는 두브로브니크의 주요 역사적 명소 및 교회, 광장 등에 대해 사진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첨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두브로브니크에 온전하게 보존되어있는 중세 성벽 걷기 투어 및 골목길 걷기에 대하여 역사 및 투어요령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는 두브로브니크를 가장 선호하며 추천하여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왕 크로아티아를 가게 될 경우 들을 수도 있는 곳들 -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스플리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수도인 자그레브는 주로 역사적인 장소, 건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숲으로 16개의 호수와 함께 자연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스플리트는 제2의 로마로 불리는 도시로, 284년 로마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 후에 말년을 보내며 거대한 궁전과 원형경기장까지 건설했었던 곳이라 한다.

각 장의 마지막에 Tip 페이지를 배치하여 앞에서 설명하였던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주어 전체를 정독하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여행자에게 도움이 될듯하다.

Contents

- Route 1. 왜 두브로브니크인가
- Route 2. 서울에서 자그레브로
- Route 3. 크로아티아의 관문 자그레브

* 키워드 : 여행,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Route 4. 아드리아 해의 진주 두브로브니크
- Route 5. 두브로브니크의 이웃들
- Route 6. 서울에서 만난 크로아티아의 태권소녀

대한민국 국도 1번 걷기여행



신미식, 이민 지음 / 블 / 2010 > 981.102 신28=



평촌도서관 강석림

이 책은 10권의 책을 펴낸 여행 사진작가 '신미식'과 평범한 직장인이자 고단했던 삶의 주인공 '이민'이 펴낸 에세이 포토집이다.

함께 의기투합하여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450km에 달하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대한민국 국도1번을 걸어서 한 달간 여행한 기록이다. 여행사진 작가인 신미식은 카메라를 들고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을 꾸준히 블로그에 올리며 유명해진 사진작가이다. 현재 20여권의 책과 10여회의 사진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행과 사진에 미치다 [<http://blog.naver.com/sapawind>]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작가 이민은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다 돌연 사업을 시작하여 망한 후 <시사저널>에서 기자를 하다 오랜 벗인 신미식을 따라 국도1번을 걷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을 했다. 국도 1번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아픔과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동시에 우리나라의 실크로드 역할을 했던 장소로 목포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길이다.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기도 파주에 이르는 길로 희미해져가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40대 직장인인 남자가 자식과 아내가 있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뒤로 하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보통의 결심으로는 쉽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던 작가 이민 또한 여행의 초반에는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대해 회고한다.

다른 여행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가볍게 모든 것에 대해 잊고자 떠난 여행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는 본인의 삶과 여행에서 겪는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풀어나간다. 여행 중에 짧은 인연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주치는 정겨운 시골길에서 조차도 그들의 쉽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여행길에 고단했던 작가들을 위로하는 것은 가는 길, 마을 마을마다 사소한 인사 한 마디 나누는 시골 할머니,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버스기사이다. 블로그를 통해 잠시 여행에 동참하는 여행 동지들과도 여행하며 그들의 이야기와 여행하는 곳곳마다 겪는 사소하고 푸근한 이야기들로 진한 감동을 준다.

저자 신미식의 또 다른 책

※ 키워드 : 국내여행, 국도 1번, 우정, 사진, 에세이

- I Love New York / 2013 <사진집>
- 사진가는 길에서 사랑을 배운다 / 2013 <시/에세이>
- 단비부대 희망을 그리다 / 2012 <정치/사회>

이해욱 할아버지의 지구별 여행기



이해욱 지음 / 예림당 / 2013 ▶ 아980.24 0193-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난 내 안에서 잠자던 여행 유전자가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
내 생각에도 여행에 대한 내 열정은 남달랐으니까.’

이 책의 작가 이해욱 할아버지는 국제연합(UN)이 인정한 전 세계 독립국가 196개국 중 193개국을 답사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여행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한국 기록원에서 인증 받았으며, 이 책은 ‘칠순 청년’이라 불리는 작가가 그동안 다녔던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서 특별히 인상 깊었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을 이야기로 담았다.

이해욱 할아버지는 여행은 낯선 것들과의 만남이며, 그 안에서 이뤄지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통해 예전과는 다른 눈과 마음으로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지혜를 갖게 된다고 말하며 책을 읽는 아이들이 여행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전의식을 전한다.

1971년 직장업무와 관련된 출장지이자 첫 여행지로 선택된 일본에서 시작된 그의 여행은 미술의 나라 유럽,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 바다 한가운데에 수많은 섬나라로 이루어진 남태평양,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한 오세아니아,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를 거쳐, 2010년 중남미 가이아나를 끝으로 기나긴 장정의 일단락을 맺는다.

이해욱 할아버지는 지구촌 각지를 여행하는 동안 이국적인 풍경에 감탄하였고, 처음 접하는 현지인의 풍습이나 문화 등을 체험하면서 삶에 대한 다양한 대처능력을 배웠으며, 여행당시의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삶의 활력을 떠올린다고 전한다.

또한 어느 곳을 여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여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여행지에서도 틈틈이 공부하였으며, 사진과 동영상으로 여행지에서의 감명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해욱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공부와 독서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배우게 해주는 여행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게 되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으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전한다.

Contents

- 출장이 맺어 준 여행과의 인연
- 배낭 메고 유럽으로
- 지구 반대편, 중남미

※ 키워드 : 이해욱, 여행, 문화다큐

- 남태평양 섬나라 여행
- 틈나는 대로 다녔던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
- 미지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

On the Road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박준 지음 / 넥서스 / 2006 ▶ 816.6 박7619온



호계도서관 김보근

저자는 처음 방콕의 여행자 거리인 '카오산 로드'를 갔다가 다양한 국적의 배낭여행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여행자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카오산 로드의 매력에 빠져 10년 동안 매년 찾게 되었고 그 곳에서 만난 배낭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EBS <열린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한 장기배낭여행자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On the Road」이다.

「On the Road」는 저자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여행하고 있는 장기배낭여행자들과의 인터뷰를 모은 것이다. 십대부터 오십대까지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다양한 여행자들의 흥미진진한 여행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또한 사진으로 담은 카오산 로드의 다양한 풍경들과 여행자들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행을 하게 된 동기는 저마다 다양하다. 4년을 준비하여 나란히 회사를 관두고 세계여행을 떠난 부부,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듣다가 짐을 쌌다는 30대 여성, 태국 시골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여고생,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난 독일인 여성 등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행 동기도 목적도 경로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즐기고 배우고 있다.

카오산 로드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끝나는 곳으로 여행자들은 주문처럼 일단 카오산 로드로 가면 된다고 말한다. 여행을 처음 나선 사람도, 몇 년씩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행에 필요한 게 있다면 카오산으로 가면 된다고 말할 만큼 여행자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이다.

「On the Road」는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솔직하고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일상을 벗어날 꿈을 꾸게 만든다. 하지만 저자는 여행에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나아가 욕심을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여행이라고 말한다. 「On the Road」는 독자로 하여금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혹은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사람에게도 여행을 실행시킬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책이다.

Contents

- 저자의 글
- I. 오, 카오산 로드!

* 키워드 : 여행, 방콕, 카오산, 길, 꿈

- II. 카오산 로드에서 만난 사람들
- III. 에필로그

카우치서핑 : 세상 모든 불빛이 나의 집이다



김광섭 지음 / 세상의모든길들 / 2013 ▶ 980.24 김15=



별말도서관

김 윤 하

자전거를 타고 카우치서핑을 통해 숙박하며 유럽을 횡단한 저자의 여행기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카우치서핑이란 무엇인지 소개해주는 책이다.

2007년 9월부터 자전거를 타고 세계일주를 시작한 저자는 동남아시아를 여행한 후에 호주로 갔다가 터키로 건너간다. 그 후 터키에서부터 불가리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카우치서핑으로 6개월간 숙박하며 여행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유럽을 횡단하면서 그가 카우치서핑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저자의 첫 카우치서핑 호스트(집주인)는 이스탄불에 사는 야오마였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첫 남자 게스트인 저자를 부담스러워했으나 저자의 필살기 비빔밥과 친구의 생일파티를 통해 마음을 열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카우치서핑이 하룻밤 공짜로 잠잘 곳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깊은 소통이 가능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외에도 유쾌한 폴란드인 카밀라와 그녀의 7명 미녀 친구들, 차라리 이방인이기에 속에 담아둔 아픔을 이야기 할 수 있었던 불가리아의 싱글맘 사르넬라, 한국의 <고래사냥>을 부를 줄 아는 러시아인 나타샤와 뼈에로가 직업인 니콜라이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세르비아의 전통주 라이카를 마시고 기절하고, 생일날 클럽 최고 미녀와의 만남을 거절하기도 하고, 카우피서핑 정기모임에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천 종류의 맥주가 있다는 벨기에의 지역 라디오방송에 나가 여행담을 자랑하기도 하는 등 특별한 경험도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각박해져만 가는 요즘 세상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집에 가거나 타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여행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카우치서핑 이란?

※ 키워드 : 카우치서핑, 배낭여행, 자전거여행

여행자가 잠잘 수 있는 「소파(couch)」를 「찾아다니는 것(surfing)」을 뜻하는 말. 현지인은 여행자들을 위해 자신의 카우치를 제공하고 여행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카우치에 머무르는 일종의 인터넷 여행자 커뮤니티다.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생이 여행을 가기 전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그 지역의 대학생 1500여 명에게 숙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가 약 50명의 학생에게 답장을 받으면서 기획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숙소의 교류와 동시에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안양시민들이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감성의 끝에 서라 / 강신장, 황인원 지음

8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2014년 출판시장의 키워드, '미디어셀러'

2014년 상반기 베스트셀러의 키워드는 '미디어셀러'였다. TV나 영화, 광고 등 미디어에 노출돼 인기를 얻은 책이 출판시장을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했던 책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영화 '겨울왕국' 관련 책들 역시 큰 인기를 누렸다. 이에 2014년 미디어셀러를 소개하며 상반기를 정리해보자.

도서목록

- 꾸뻬 씨의 행복 여행 / 프랑수아 를로르
- 인생수업 / 범륜
- 마지막 휴양지 / 존 패트릭 루이스
- 1cm+ / 김은주
-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 이중섭
-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 정여울
-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 케이트 디카밀로
- me Before you / 조조 모예스
- 여덟 단어 / 박웅현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꾸뻬 씨의 행복 여행>

"마음을 열어.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널 위해 올 거라고.
하지만 먼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신기한 여행>

세상에 불가능이라 불리는
수많은 것들은 단지 불가능하
리라 믿는 고정관념이다.

<1cm+>

감성의 끝에 서라



강신장, 황인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14 ▶ 181.53 강5819감



석수도서관

유 익 환

감성을 자극하라. 상상력을 발휘하라. 새로움을 창조하라.

위의 3가지 키워드는 감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메시지다.

감성은 이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칭한다. 이 책은 경영자와 시인의 생각이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물이다. 이들은 시인의 상상력을 활용한 창조 경영을 주창하며 시와 경영을 접목하고자 ‘문학 경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시인은 감성의 끝에 서있다. 즉, 이 책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권한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며, 감성의 눈, 관찰의 눈이 떠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시인의 눈을 갖기 위해서 융합하는 법, 역발상하는 법 등 감성의 끝에 설 수 있는 비법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은 통찰의 힘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처럼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깊이 있는 관찰 속에서 바로 통찰의 힘이 생겨난다. 시인은 인생의 중요한 통찰을 발견한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3중 장애인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대학교의 총장이 된다면 ‘당신의 눈을 잘 쓰는 법’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곤 했다.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볼 수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인생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감성이 중요한 이유다.

시인의 감성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사물을 느끼고 싶은가? 이 책은 시인처럼 사물의 마음을 읽으려고 연습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경영으로 연결, 융합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감성, 창조, 경영

- 1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사물의 마음 보기 : 새로움을 보는 법 1 - 4
- 2부 사물의 마음을 보는 시인들의 4가지 창조법 : 감성의 끝에 서기 1 - 4
- 3부 시인들의 창조법 활용하기 : 사물의 마음을 보는 연습 1 - 4

꾸뻬 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르로르 지음 / 오래된미래 / 2004 ▶ 863 ■ 295구



석수도서관 류지희

이 책은 “달빛프린스”라는 책 소개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보영 씨가 추천한 미디어셀러이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실화소설이다.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도시 '파리'에서, 꾸뻬 씨는 의사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꾸뻬 씨는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마음의 병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떤 치료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기 위해 마침내 꾸뻬 씨는 진료실 문을 닫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꾸뻬 씨의 행복 여행”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한 2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1.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2.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3.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4.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5.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6.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7.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8.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9.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10.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11.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12.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선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13.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14.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15.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16. 행복은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17.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다.
18. 태양과 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19.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21.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이다.
22.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더 배려할 줄 안다.
23.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요즘 우리에게 “행복”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Contents

※ 키워드 : 행복

■ 정신과 의사

■ 여행

■ 행복

인생수업



법륜 지음 / 한겨례출판 / 2013 ▶ 199.1 법296인



석수도서관 신아영

이 책은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가지고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살아갈 방향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준다.

저자는 ‘왜 사느냐’라는 질문으로 삶에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깨어야 넓어진 시야로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현대인에게 만연하고 있는 암, 치매 등의 병과 죽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준다. 더불어 사별의 아픔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슬퍼하기보다는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미련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이별이라고 말한다.

“떠난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남은 자식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저자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한다. 봄에 피는 꽃은 아무리 예뻐도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끼워 오래 보관하듯 우리의 인생도 나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나이 들면 서글프지 않다는 것이다.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 가는 나’를 차분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살이의 방법을 이 책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1장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 2장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 3장 사흘 슬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키워드 : 인생훈, 인생, 행복한 삶

- 4장 아픈 인연의 매듭을 풀다
- 5장 인생 후반전,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는 법
- 6장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마지막 휴양지



존 패트릭 루이스 지음,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림 / 비룡소 / 2003

▶ 유843 루68



만안도서관

최미송

화가인 '나'는 어느 날 자신의 상상력이 사라져 버린 것을 자각하고 괴로워한다. '나는 화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고민 끝에 화가는 잊어버린 자신의 상상력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다. 화가의 작은 빨간 자동차는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 달리더니 어딘지 아무도 몰라 마을에 이른다. 그 마을의 한구석에서 자동차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독특한 호텔 앞에 멈춰 선다.

이상한 호텔이었다. 호텔 입구에서 만난 주근깨 소년은 이곳을 가리켜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휴양지'라고 말한다. 프런트 직원은 앵무새였고 호텔의 다른 손님들로는 주근깨 소년을 비롯해 외다리 선장, 병약한 소녀와 그녀의 간호사, 온몸이 짱빛인 사나이, 키 큰 방랑자, 형사, 추락한 비행기의 비행사, 나무 위에서만 생활하는 남자, 시인, 그리고 풍차 기사가 있었다. 호텔의 손님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 해매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호텔에서 각자의 답을 찾아 갔다. 키 큰 방랑자는 오래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인어공주가 바로 간호사와 함께 온 병약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다리 선장은 마침내 보물지도를 찾았다. 형사는 범인을 잡고, 비행사는 새 비행기와 함께 떠났다. 아직 화가만 자신의 상상력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 도착하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호텔을 떠나는 날, 화가는 마지막 휴양지의 손님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떠올리며 깨달음을 얻는다. 이곳의 손님들은 대부분 문학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화가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것을. 상상력은 멀리 도망가 있지 않았음을!

빨간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화가는 길가에서 그를 부르는 소년을 만난다. 호텔에서 만났던 주근깨 소년, '허클베리 핀'이었다. 소년과 화가는 '기적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떠나기로 의기투합한다.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기 위해, 모험을 계속하기 위해.

Author 로베르토 인노첸티

※ 키워드 : 상상력, 마음, 영감

『마지막 휴양지』의 그림작가 로베르토 인노첸티(1940~)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제철소에서 자랐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나 독학으로 그림을 익혀 현재 세계적인 삽화가가 되었다. 『피노키오의 모험』, 『크리스마스 캐럴』, 『호두까기 인형』 등 다수의 고전의 삽화를 그렸으며, 그 외에도 『에리카 이야기』, 『그 집 이야기』, 『빨간 모자』 등의 작품이 있다. 블로냐 라가치 명예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등을 수상했다.

1cm+



김은주 지음 / 헤밍버드 / 2013 ▶ 818 김67o



박달도서관

김종혁

우리 삶에 숨겨진 1cm를 찾아라!

이 책에서는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평범한 순간이나,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여, 그 마음속으로 1cm 들어가 보고, 1cm 만큼의 여유를 권하거나, 사람과의 거리를 1cm 좁히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 편의 짧막한 글과 한컷의 그림을 통해 펼쳐진다. 또한 책을 단순히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1cm만큼 생각의 시선을 옮겨 보기도 하고 (BREAKING), 남녀 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1cm의 차이를 발견하며(LOVING), 사람의 마음속으로 1cm 들어가 보기도 하고(FINDING),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1cm 좁히도록 (GETTING CLOSER), 또 1cm의 작은 꿈이라도 꾸도록(DREAMING)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학자는 틀렸다. 하나와 둘의 차이는 어쩌면
단순히 1의 차이보다 훨씬 큰 것인지 모른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위로 받는 건
지금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눈 웃음 때문일지 모릅니다.

‘꿈’과 ‘이루다’를 잇는 가장 알맞은 말은 ‘을’이 아닌 행동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1cm를 찾아가는 과정,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참신한 발상이 반짝이는 글이 감성과 위트를 버무린 그림을 만나 더욱 특별해진다.

1cm라는 의미는 결코 미약하지 않다. 쉽게 생각하기 쉬운,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작은 관심과 사고의 전환으로 새로운 것을 느끼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1. BREAKING
- 2. LOVING
- 3. FINDING

※ 키워드 : 1cm, 에세이, 인간의 조건

- 4. RELAXING
- 5. GETTING
- 6. DREAMING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지음 / 다빈치 / 2011 ▶ 653.11 017601



평촌도서관 김태영

이중섭은 그 대표작인 '흰 소(1954)'로 유명한 근대화가이다. 대당하고 단순한 그림체로 후세에 와서 각광받는 반면, 그의 삶은 여느 불운한 예술가처럼 가난과 지병으로 고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림 그릴 종이가 없어, 피우던 담배갑을 이용해 그린 은지화(銀紙畫)는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결혼 전 띄운 그림엽서가 그의 대표작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근래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는 매개로 다뤄져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부 나의 소중한 특등으로 귀여운 남덕

1부에는 이중섭이 혼해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아내 이남덕 씨와 주고받은 편지와 그림이 소개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든 내용과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화, 행복한 가족을 그린 그의 그림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발가락 군'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말년을 아는 독자들에게는 쓸쓸함으로 다가온다.

2부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고리

'아고리'는 이중섭의 아내가 이중섭을 부르는 애칭으로 턱(일본어로 아고, あご)이 긴 이 씨라는 뜻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2부는 이중섭의 아내가 이중섭에게 보내는 답장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3부 나의 영리하고 착한 아들 태현, 태성

3부에는 이중섭이 아들들에게 보낸 짧막한 편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중섭의 주된 주제는 주로 가족이나 아이였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는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랬던 그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라 본다. 이 챕터의 마지막에 그려진 '길 떠나는 가족이 그려진 편지'에서도 아빠가 황소를 이끌고 가족들과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다.

4부 이중섭의 삶과 사랑 그리고 예술

4부에는 이중섭을 옆에서 지켜본 지인인 故이경성 미술평론가와 故구상 시인이 전하는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글을 실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전쟁과 가난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예술에 대한 열정과 고뇌를 가지고 뜨겁게 살다간 한 예술가의 삶과 사랑을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Contents

- 1부 나의 소중한 특등으로 귀여운 남덕
- 2부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고리

※ 키워드 : 이중섭, 근대예술, 결혼의 여신

- 3부 나의 영리하고 착한 아들 태현, 태성
- 4부 이중섭의 삶과 사랑 그리고 예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정여울 지음 / 홍익출판사 / 2014 ▶ 982.02 정64-



평촌도서관

양민월

이 책은 국내의 한 항공사가 33만 여행자와 함께 선정한 유럽의 베스트 여행지 100곳을, 10개의 테마로 나누어 각 장소의 매력을 소개하며 그 곳에서의 저자의 체험과 감상을 들려준다. 각 여행지의 아름다운 사진과 유명한 인용구도 곁들여져 책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첫 번째 주제인 ‘사랑을 부르는 유럽’에서는 사랑의 도피 장소로 어울리는 이탈리아의 카프리섬과 프랑스 소설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깃들어 있는 터키 이스탄불의 피에르 로티 언덕 등을 소개하고, 두 번째 ‘직접 느끼고 싶은 유럽’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스페인의 가우디 투어, 로맨틱한 밤 풍경을 연출하는 폴란드의 포즈난 풍등 축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크로아티아의 해산물요리, 스위스의 풍경, 융프라우요흐에서 맛보는 컵라면 등이 뽑힌 ‘먹고 싶은 유럽’이며,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오픈카 투어, 알프스를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인 알프스 산악열차, 헝가리 부다페스트 트램 등은 ‘달리고 싶은 유럽’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이 멈춘 유럽’에서는 환상적인 야경으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체코의 프라하성, 과거에 로마제국이 얼마나 번영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로마노 등을 만날 수 있고,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이란 주제로 소개된 이탈리아의 해변마을 친퀘테레, 체코의 중세마을 체스키 크룸로프, 불가리아의 장수마을 스몰랸 등이 마음을 끌어당긴다.

‘갖고 싶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정성으로 만든 피렌체의 맞춤 구두,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폴란드의 전통 도자기 등을, ‘그들을 만나러 가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로미오와 줄리엣, 폴란드 쇼팽 박물관의 쇼팽 등을 소개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에서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 다이빙 등을, 마지막으로 ‘유럽 속 숨겨진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인 헝가리 스테판 불꽃 축제와 슬로베니아 최고의 관광지인 포스토이나 동굴 등을 알려주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유럽의 말랑말랑한 경계, 낯선 맛, 낙원의 풍경

사랑을 부르는 유럽

직접 느끼고 싶은 유럽

먹고 싶은 유럽

달리고 싶은 유럽

시간이 멈춘 유럽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갖고 싶은 유럽

그들을 만나러 가는 유럽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유럽 속 숨겨진 유럽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케이트 디카밀로 지음 / 비룡소 / 2009 ▶ 아808.9 비295▶ 53



어린이도서관

홍민희

이 책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할 줄은 모르던 차가운 도자기 토끼인형 에드워드 툴레인이 마음을 열고 뜨거운 사랑을 찾게 되기까지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다. 에드워드가 여행을 통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된다는 감동의 이야기이며,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소개되어 인기를 끌게 된 책이기도 하다.

애빌린의 할머니 펠리그리나는 프랑스의 장인에게 직접 주문, 제작한 도자기 토끼인형을 손녀 애빌린 툴레인에게 일곱 번째 생일에 선물로 주었는데, 그 인형이 바로 에드워드 툴레인이다. 에드워드는 도자기로 되어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멋진 옷에 가죽신발, 그리고 회중시계까지 가지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애빌린과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애빌린 가족들과 바다를 여행하다가 갑판에서 남자아이들의 장난으로 회중시계는 물론이고 옷까지 벗겨져 몸만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닷속에 빠진 에드워드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 나오게 되었고, 어부의 부인에 의해 수잔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어부와 부인 넬리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를 아기처럼 대하는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어부의 딸이 에드워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쓰레기더미 속에 있던 에드워드는 루시라는 개에 의해 세상에 나와 오랫동안 부랑자 불과 루시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곳 저곳을 여행하며 7년의 시간이 지난 뒤 에드워드는 뛰어난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뜻하지 않게, 루시에게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헤어져, 채소밭의 까마귀를 쫓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허수아비가 되어 희망도 없이 슬퍼하던 에드워드는 밭일 하던 남자아이 브라이스에 의해 그의 동생 사라 루스를 만나게 되었다. 지난하고 아픈 사라 루스는 에드워드를 아기처럼 사랑해주었고 에드워드도 도자기로 된 몸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픈 사라 루스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에드워드는 사라 루스 옆을 지키며 살았다. 사라 루스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은 브라이스와 에드워드는 멤피스에서 거리 공연을 하며 지내다, 음식 값을 내지 못해 식당 주인에 의해 던져지게 되어 도자기 머리가 부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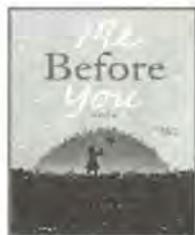
머리가 스물 한 조각으로 부서져버린 에드워드는 브라이스에 의해 인형 수선공에게 가게 되었고 인형 수선공은 부서진 얼굴을 고쳐주는 대신 에드워드의 새 주인이 되었다. 인형 수선공은 에드워드를 고치고 멋진 옷을 다시 입혀 인형가게 선반에 진열해 두었다. 선반에 놓인 에드워드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다. 옆자리의 인형이 바뀔 때에도 에드워드는 그대로였다. 어느 날 옆자리에 나이 많은 인형이 오게 되었고 그 인형은 “마음을 열어.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널 위해 올 거라고. 하지만 먼저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어떤 아이의 인형이 되어 떠나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에드워드는 선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나이 많은 인형의 말을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섯 살 쯤 된 여자아이가 와서 에드워드를 부드럽게 안았다. 에드워드는 따스한 감정을 느꼈고, 아이와 에드워드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며, 목에 걸고 있던 에드워드의 회중시계를 풀며 외쳤다. “에드워드?” 그 부인은 바로 애빌린이었다.

Author 케이트 디카밀로

※ 키워드 : 사랑, 에드워드, 토끼, 도자기, 인형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가.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으로 우수한 아동 문학에 수여하는 보스톤 글로브-흔 도서상을 받는 등 문학성을 여러 차례 검증 받고 있다.

미 비포 유 (me Before you)



조조 모예스 지음 / 살림 / 2013 ▶ 843.6 모64미



비산도서관

이 병 희

이 책은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로맨스다. 루이자 클라크라는 여성과 월 트레이너라는 남자가 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 월 트레이너가 처한 상황이 밝지만은 않아서다. 그는 런던에서 잘 나가던 M&A 전문가였으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된다. 한때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다.

월은 자살에 성공하지 못했다. 깨어난 그는 부모님에게 말한다. 6개월 뒤에는 확실한 방법을 써서 죽겠다고.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에서 삶을 끝내겠다는 월을 부모님은 설득하지 못했다. 대신, 6개월 동안이라도 자살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간병인을 구하기로 한다.

루이자 클라크가 바로 그 간병인. 특기도 없고 꿈도 없는 그녀는 6년 동안 일했던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월의 간병인으로 취직한다. 보수도 좋고,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다만, 한 가지 루이자를 괴롭히는 건 월의 독설과 까다로운 취향이었다. 더 살고 싶은 욕구도 없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굴 필요가 없지. 사지마비가 된 뒤 월의 심사는 뒤틀릴대로 뒤틀려 있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루이자는 계속 출근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당한 만큼은 아니지만 루이자는 월을 향해 쏟아낸다. 사회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사고 뒤에는 돌봐야 할 환자였던 그에게 거침없이 공격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루이자가 처음이었다. 이 순간부터 남자는 여성에게 관심이 생긴다.

둘의 애정 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둘 사이가 좋아졌다 싶으면, 루이자의 실수로 월이 토라지는 식으로 밀당이 반복된다. 그러던 중, 루이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전까지는 월이 거동이 불편한지만 알았지, 그가 안락사를 결심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월이 인생을 스스로의 의지로 끝내기로 했다는 것을 안 뒤로 루이자는 간병인 노릇을 계속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죽으려 하는 자와 살리려 하는 자 사이의 긴장이 팽팽하게 이어진다.

Author 조조 모예스

※ 키워드 : 사랑, 우정, 삶

조조 모예스는 런던에 있는 로열 콜로웨이 대학에서 공부했고, 시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배움. 홍콩의 영자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1년, 영국 「인디펜던트」에서 10여년간 일함.

여덟 단어



박웅현 지음 / 북하우스 / 2013 ▶ 818 박66◦



별말도서관 배성현

“뭐, 다들 사정이야 있겠지.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그건 정말 모르는 거잖아”

“어? 여기 이 책에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 밑줄 그어져 있던데요?”

“아 그래?”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 낼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고 오답으로 만들죠.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 드라마 『응급남녀』 중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자존, 본질, 고전, 견(보다),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라는 여덟 개의 단어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자존 -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지마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본질 - 진정성의 힘. 포장은 벗겨지기 마련이다. 결국, 본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고전 - 시간이라는 시련을 이겨낸 고전의 힘은 모든 사람, 즉 인간이라는 종이 느끼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다.

견 - 무심히 보지 않는 것.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것.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같은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 선택했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삶은 매 순간의 합이다.

권위 - 동의 되지 않은 권위와 불합리한 권위에 굴복하지 말자.

소통 -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자신의 생각을 디자인 하여야 한다.

인생 - 인생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흘러가라. 그저,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아라.

여덟 가지 화두를 통해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끝나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한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Author 박웅현

※ 키워드 : 삶, 인문학, 과정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지금은 TBWA KOREA에서 ECD로 일하고 있다. 칸 국제광고제, 아시아퍼시픽광고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대표적인 카피 또는 캠페인으로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진심이 짓는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책은 도끼다』, 『인문학으로 광고하다(공저)』 등이 있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스마트안양人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공자처럼 출근하고 장자처럼 퇴근하라 / 샤오뤼무 지음

9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인문학에 한걸음 다가가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에서도 채용에 있어 인문학적 소양을 반영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독서'란 무엇일까? 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렇지만 인문학 독서를 아무 책이나 읽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흥미 위주의 독서가 아닌 양서(良書)를 통한 인격수양 및 사고력 확장이 인문학 독서의 목적인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바쁠수록 생각하라 / 이호건
-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 신동기
- 인간이 그리는 무늬 / 최진석
- 엔지니어의 인문학 수업 / 새뮤얼 C. 플러먼
-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I / 주현성
- 인문학에 빠져라 / 최진기
- 철학이 필요한 시간 / 강신주
- 유쾌한 420자 인문학 / 최준형
- 1분 인문학 소소소 / 윤석미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인문학은 삶의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않을 방도는 없습니다. 단,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일분 인문학 소소소>

“인문학은 사랑이다.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이다.”

<유쾌한 420자 인문학>

공자처럼 출근하고 장자처럼 퇴근하라



샤오루무 지음 / 한스미디어 / 2014 ▶ 325.04 사65-7



평촌도서관

최순애

일과 삶,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인생의 지혜

공자처럼 출근하라 - 일을 이루는 지혜를 길러라.

'불념구악' (不念舊惡)이란 도량이 커서 자기를 해코지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다. '원시용희' (怨是用希)란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넓은 도량으로 남들의 반대와 배척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마저 포용해 버린다면 당신의 적수는 크게 당황하게 된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열 받은 머리를 식혀주기도 하고, 나에게 본때를 보여준다고 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찮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갚으려 하는 것은 겸허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을 보여줄 때이고, 각박한 말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은 것이므로 이런 말로 원망을 품게 만든다면 결국에는 스스로를 베고 마는 법이다. 직장은 인간관계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므로 협력이 즐거운 것이 되고자 한다면 도량을 키워야 한다.

장자처럼 퇴근하라 - 걸림 없는 삶을 마음껏 누려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인간의 마음은 우뚝 솟은 산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흐르는 물처럼 요동쳐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 북적여도 정신을 훌트리지 말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외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성공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고 실패해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거리낌 없이 헤쳐나가면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평온한 '심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심재는 맑고 시원한 바람처럼 자신의 근심을 씻어줄 뿐 아니라 밝은 햇살처럼 주위 사람들까지도 환하게 만든다.

만일 살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런저런 음모와 술수를 꾸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간교한 마음을 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Contents

- 상편 공자처럼 출근하라
- 제1장 덕으로 세상에 우뚝서고 정으로 출세하라
- 제5장 중용의 길
- 제8장 일을 이루는 지혜

※키워드 : 공자, 장자, 지혜, 처세술, 리더쉽, 초심

- 하편 장자처럼 퇴근하라
- 제1장 마음을 비우면 품격이 절로 높아진다
- 제3장 자연의 순리대로 절제된 삶을 살아라
- 제9장 초심으로 돌아가라

바쁠수록 생각하라



이호건 지음/ 아템포 / 2014 ▶ 325.211 0195바



석수도서관

허지회

프랑스 소설가인 폴 부르제는 이런 우리의 ‘정신없이’ 혹은 ‘생각 없이’ 바쁜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을 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처럼 살아가면 안 될까? 왜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흐름에, 혹은 논리에 내 존재를 온전히 맡겨버린다는 의미다. 이는 곧 나의 삶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삶만을 살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기업 교육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생각하는’ 삶을 위해 철학과 인문학 공부에 심취해 있는 저자 이호건 박사(경영학)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생각을 발견해야만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의 미래’ 인 셈이다. 죽자는 삶이 너무 바쁘고 힘겨워서 도무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지’ 와 ‘무사고’ 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대안은 새로운 지적 성찰에 있다.

우리가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돈(자본)’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발견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의 미래는 현재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지고, 그러한 행동과 선택으로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곧 나의 미래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생각’이다. 그것도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했던 인문대가(人文大家)들, 특히 철학자들의 ‘깊은 생각’을 모아 담았다. 그들의 깊은 생각을 빌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갈 방법을 찾고자 했다. 결국 나답게 산다는 것,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지배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생각에 깊이를 더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철학, 인문학, 자기계발, 자기관리

-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자신에 대한 배려에 우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자신에 대한 배려가 도덕적으로 우선하는 것이다.

→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1926~1984)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신동기 지음 / 티핑포인트 / 2012 ▶ 001.3 신256인



석수도서관

유 솔 지

“인문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인문학은 삶의 고비마다 만나게 되는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을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에 의해 발전하고, 사람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문학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강연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인문학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과, 기업의 사원, 과장이나 연구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강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곳에서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문학의 심오한 내용과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틀과 방향성을 먼저 파악할 것을 권유한다. 일단, 인문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인문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나에게 필요한 인문학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자세한 것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인문학으로 스펙하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문학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요즘 스펙이라고 하면 학점 관리나 영어 공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문학은 사회 및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하나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다.

Contents

- 1장 인문학의 이모저모
- 2장 애피소드
- 3장 가볍게 즐기는 사색의 시간

※키워드 : 인문, 인문학, 스펙, 지식

- 4장 행복한 쾌락주의자
- 5장 한국의 인문학 모습
- 6장 인문학,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지음 / 소나무 / 2013 ▶ 001.3 죄 78190



만안도서관 김란아

인문학의 흥수 시대라 불릴 만큼 수년째 인문학이 유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문학의 숲 속을 산책하는 순서로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어체로 쓰인 책이다. 인문학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출발도서로 만나면 좋은 책이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이란, 인간의 무늬를 말하며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학문이다. 즉, 사람을 관찰하고 통찰함으로써 얻어지는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우리는 왜 인문학을 배워야하는가? 자신의 욕망을 통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왜 자신의 욕망을 통찰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왜 인문적 통찰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자신을 지배하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 거기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원초적인 능력 욕망에서 나오며 그 원초적 능력이 덕(德)이다.

작가는 인문학이란 ‘자신에게 집중하며 우리가 아닌 나로 돌아가는 것’ 이라 강조한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자신만의 무늬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가 아닌 ‘나’로 살기 위한 인문학.

오직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

목차

- 저기, 사람이 내게 걸어 들어오네
- 인문적 통찰을 통한 독립적 주체되기
- 인간이 그리는 무늬와 마주 서기

※ 키워드 : 인문의 숲, 욕망, 나

- 명사에서 벗어나 동사로 존재하라
- 욕망이며, 입을 열어라
- 욕망으로 새기는 인간의 무늬

엔지니어의 인문학 수업

새뮤얼 C. 플러먼 지음 / 유유 / 2014 ▶ 001.3 새36엔



박달도서관 유민정



“엔지니어는 바쁘고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말하는 저자 새뮤얼 플러먼은 엔지니어의 이 불만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이런 불만은 전문가로서 엔지니어의 성격에 있는 어떤 결함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 결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함은 엔지니어가 직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느라 ‘균형 잡힌’ 인간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엔지니어가 결핍과 불만을 느끼는 것은 폭넓은 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한마디로 세련된 교양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장담하는 교양 교육의 혜택은 여러 가지다.

첫째, 지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상상력을 넓힌다.

둘째, 리더십과 성공적인 경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넷째, 공학 직종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째,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게 한다.

이 책에서 교양을 가르치는 교육이란 서양 중세대학의 일곱 분과를 말한다. 문법, 논리, 수사(문학과 철학),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의 엔지니어가 되고자 한다면 흔히 인문학이라 불리는 역사, 문학, 철학, 미술,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엔지니어에게 낯설고 먼 분야로 인식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저자 특유의 유쾌함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공학자의 눈으로 보는 인문학의 참신함을 담아냈다.

Contents

- 교양 있는 엔지니어
- 역사로 가는 다리 : 기술의 역사
- 역사의 세계
- 문학으로 가는 다리 : 픽션의 주인공으로 그려진 공학자
- 문학의 세계
- 철학으로 가는 다리
- 철학의 세계
- 미술로 가는 다리 : 효용과 아름다움
- 미술의 세계
- 음악으로 가는 다리 : 환경으로 기능하는 소리
- 음악의 세계

※키워드 : 인문학, 공학, 엔지니어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1



주현성 지음 / 더좋은책 / 2012 ▶ 001.3주9419지



평촌도서관

이유림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짧은 시간 내에 섭렵하기 힘들뿐더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인문학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도서이다. 인문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 회화, 신화, 역사, 철학, 글로벌 이슈 등 6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핵심적인 지식을 전달해줌으로써 독자가 인문학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리학 편에서는 우리사회 심리학 및 사회 문화와 예술 또는 인간을 보는 인식에 영향을 준 프로이트부터 현대 심리학의 대세라 할 수 있는 인지심리학까지 순서대로 다루었으며, 다양한 심리학의 관찰 실험법과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심리학책까지 살펴보았다.

회화 편에서는 기존의 회화기법을 탈피해 색에 집중하고 색채의 표현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던 인상파부터 다루기 시작했으며, 이를 유파 간의 인과관계를 엮어가며 현대미술까지 기술하였다.

신화 편에서는 현대사회 첫 번째 교양이 되어버린 그리스 신화를 다루었다. 신화의 주요 주인공인 올림포스 12신과 테세우스 등 전쟁 영웅들만을 골자로 다룸으로써 그들의 계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역사 편에서는 서양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서양 문화의 원류가 되는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중세에 걸쳐 세계 대전과 냉전시대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 세계사이다.

철학은 현대 이전의 철학과 현대의 철학으로 나누어 소개했으며 현대 이전은 최초의 철학자 타LES로부터 서양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니체의 사상까지 알아보았고, 현대 이후는 변증법과 유물론 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마르크스부터 라캉, 바르트, 푸코 등 후기 구조주의자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로벌 이슈는 현대사회의 쟁점인 세계화, 자유무역, 환경, 종교 등 현대인의 관심사를 소개하며 현대사회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인 상식을 제공하며 인문학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던 독자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체계를 잡아줄 기초 교양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Contents

- 01. 인문학
- 02. 심리학
- 03. 회화
- 04. 신화
- 05. 역사
- 06. 철학
- 07. 글로벌 이슈

※키워드 : 인문학, 교양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 / 스마트북스 / 2012 ▶ 001.3 최 78 0



평촌도서관 진보미

장 브다리야르는 소비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기호가치’라고 말한다. 승용차는 이제 더 이상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경차·벤츠 승용차 등 소유자의 부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인다는 것이다. 현대에서 소비는 단순히 물건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재현되는 기호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애덤스미스는 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이기주의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그 이기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제빵업자가 맛있는 빵을 구워내고 정육점 주인이 신선한 고기를 파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제빵업자와 정육점 주인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들의 이기심 덕분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식탁은 풍요로워진다.

장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로 제자백가 중 도가사상의 대표자이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들에 버려달라고 말했다. 좋은 땅에 묻어드리겠다는 제자의 말에 그는 “들에 버리면 하늘과 땅이 내 관이고, 해와 달과 별이 내 관 속에 들어있는 장식품이 아니겠는가?”로 답변한다. 이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오감의 근원이 상대적인 것을 깨닫는다면 차별함이 주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인문으로 들어가는 첫 징검다리’라고 소개하고 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인문학에 대해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입문서라 생각하고 읽어보자. 인문학에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어 줄 것이다.

- 1장 현대사회 철학을 만나다.
- 3장 역사, 정치철학을 권하다
- 5장 현대사상의 기초를 훑다
- 7장 동서양 고전에 빠지다

- 2장 현대사회 문화를 보다
- 4장 과학철학과 조우하다
- 6장 근대사상을 열다

Author 최진기

※키워드 : 인문학, 현대사회, 철학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을 다녔다. 현 이투스 강사로 사회탐구 영역 점유율 1위인 인기강사이다. 2010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을 방송하고 있다. 서양철학, 현대사상, 서양예술사, 경제사 등 폭넓은 인문지식을 제공하는 그의 강좌는 명쾌하고 재미있어서 어려운 인문지식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인문학 강의는 오마이스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지음 / 사계절 / 2011 ▶ 104 강58*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대중강연과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문학자 강신주의 베스트셀러 도서이다. 저자가 몇 년간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면서 실제 현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철학적 어드바이스를 터득하여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였다. 각자 인생의 고민과 불안에 대한 답을 인문학을 통해 구하는 방식으로 동서양 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형이상학적 철학적 사유들을 사회 문제와 접목시키어 우리의 고민과 철학을 '나누고' 있다.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는 '나', 두 번째는 '나와 너의 사이'에 관련된 논의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사유하고 행동하기 위한 고민들이 담겨 있다. 마지막 주제는 '우리를 위한 철학'이다.

이 책에는 3가지 큰 주제를 니체, 스피노자, 원효, 데리다 등 48명의 동서양 철학자들의 인문 고전을 통해 그들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이 현실적인 삶의 고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용은 각기 다른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들의 사유에 다가가는데, 이때 자신의 현재 모습이 '낯설게'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낯설게 하기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 어느새 지금까지의 삶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거짓된 철학보다는 페르소나를 벗고 맨얼굴로 자신과 세계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인문 정신이 중요하다. 거짓된 인문학은 진통제를 주는 것에 만족하지만, 참다운 인문학적 정신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한다. 나가르주나, 이지, 마르크스, 틀뢰즈 등 솔직한 인문정신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을 견디어 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을 책 속의 상황들에 대입시켜 보면서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오직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과 조우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낯설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 생각의 발생(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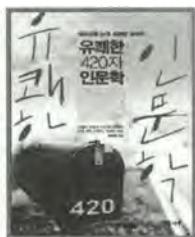
Contents

- 나의 욕망은 나의 것인가/ 라캉, 에크리
-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 칸트, 실천이성비판
- 설득의 기술 한비자
- 웃음이 가진 혁명성 베르그송, 웃음
- 새로움이란 강박증 리오타르
- 주체로 사는것의 어려움 바디우

※키워드: 철학, 인문학, 카운슬러

유쾌한 420자 인문학

최준영 / 이룸나무 / 2011 ▶ 001.3 죄76d



비산도서관 김수현

이 책을 쓴 최준영 교수는 ‘노숙인 인문학자’, ‘거리의 인문학자’, ‘거지 교수’와 같은 별명이 따라붙는 인문학 실천가이다. 작가는 ‘얼숲’이라 칭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특유의 촌철살인과 번뜩이는 촉각으로 풀어낸 420자의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가 쓴 글은 학자로서 써내려간 어려운 인문학이 아니었다. 페이스북 유저들은 교수가 던진 ‘420자의 생각’을 읽고 서로 반대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는 덧글을 남기며 인문학적 소통을 나눈다.

이 책은 이렇게 그가 매일 쓴 420자의 칼럼 중 엄선한 100개정도의 칼럼을 페이스북 유저들의 댓글과 함께 엮어 소통, 관계 그리고 관용 등의 세 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Part1. 소통 그리고 인문학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우리 삶도 ‘스마트’ 해졌을까? 워낙 슬로우 어댑터인 나도 작년 말 갤럭시 탭을 구입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느새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다.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컴퓨터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된 상품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곧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스마트’ 해졌는지 의문이다. TV가 그랬듯이 스마트폰 역시 소통을 위한 수단이지만 현실은 외려 역기능을 우려한다. 스마트폰 시대의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문명의 이기는 문명을 살찌우기도 하지만 더러 문명을 좀먹기도 한다.

Part2. 관계… 너와 나의 인문학 / Part3. 관용, 더불어 사는 인문학

‘인문학을 다룬다고 하는 책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답은 책의 서문에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인문학을 文文·사史·철哲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면 책 읽기와 글쓰기, 소통의 경험담을 담은 이 책은 분명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어렵지 않다. 긴 활자를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어버린 당신이라면 우선 420자의 인문학으로 ‘인문학 책읽기’의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Author 최준영

※키워드: 소통, 인문학, 칼럼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실천인문학센터 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사랑의 인문학’을 전해주는 메신저 노릇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짧다. 여러 자치 단체,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대학, 기업 등에서 초청 1순위로 꼽는 대중 강연가이다.

1분 인문학 소소소

윤석미 지음 / 포북 / 2013 ▶ 001.3 윤541일



호계도서관

김현진

30년 경력의 방송작가인 저자는 가장 방대한 학문인 인문학을 쉬운 문장,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으로 접근한다.

참…

숙제가 많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내주는 숙제들… 사는 일은 그 숙제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는 사람마다 달라서 옆 사람 것을 베낄 수가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런 인생의 숙제들을 불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답처럼 느껴졌던 생각들을 150개의 명언과 그와 관련한 역사인물의 일화나 사례를 인용해 小(작을:소) 少(적을:소) 笑(웃을:소)로 보여준다.

小(작을:소) 마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외롭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마음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찬찬히, 사려 깊게 들어주시죠. 지금 당신의 마음이 하고 있는 그 말들을.

少(적을:소) 가진 게 너무 적다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욕심이지만 덜 가진 우리에게 희망이란 사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다 당신 것인데 끌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笑(웃을: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기의 명인들도 다들 그렇게 웃으며 견뎠습니다. 오늘을 웃어가며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으시죠. 네, 그렇게 말입니다.

작은(小 작을:소)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적은(少 적을:소)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웃으면서(笑 웃을:소) 살아가는 인문학적 삶의 방식을 배워보자.

글 속 명언 뽑기

*키워드 : 인문학, 인생

- 모든 해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쓰러지지 않을 방도는 없습니다. 단,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안양人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5가지 사랑의 언어 / 게리 채프먼 지음

10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수리 역사의 인문학적 고찰”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는 역사는 당시 정치적 입지에서 역사가의 개인적 사고가 개입되어 잘못된 사실이 후대에 내려오거나, 그 당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많다. 역사적 사건을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두어 새롭게 해석되거나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된 내용의 도서를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서울은 깊다 / 전우용
- 우리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 홍인희
-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 고미숙
- 조선의 킹메이커 / 박기현
-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 이덕일
- 왕조의 마지막 풍경 / 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
-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 이덕일
- 두 개의 한국 현대사 / 임형태
- 근대를 말하다 / 이덕일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사서를 보니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금나라 국호도 또한 김씨의 성을 취한 것이다.”

<우리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침묵했다고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침묵과 방조가 유신체제를 연장시킨 것은 분명하다.”

<두 개의 한국현대사>

“나라가 망했을 때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역사는 선각자로 기억한다.”

<근대를 말하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개리 채프먼 지음 / 생명의 말씀사 / 2013 ▶ 234.9 제897=



비산도서관 김미영

이 책은 1992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줄곧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40여개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며 부부, 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책으로 사랑하지만 언어가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가 쌓여 심한 경우는 결별에 이르는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는 원인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랑의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원활하면서도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돋는 책이다.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40여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돋고 있다.

저자는 많은 부부들의 실례를 들어가며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접촉, 봉사가 바로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로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달라서, 이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의 언어가 틀린 부부들의 실례를 봄으로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으며 비단 부부, 연인들뿐만이 아닌 자신의 주위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속적인 사랑의언어로 결혼생활을 이끌어 간다면 행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원활하면서도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돋는 책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책으로 손색이 없다.

Contents

- 결혼후 사랑은 사라진다
- 5가지 사랑의 언어
- 사랑의 언어

※키워드: 사랑, 소통, 봉사, 선물

- 사랑은 선택이다
- 사랑이 변화 시킨다
- 미운 사람 사랑하기

서울은 깊다



전 우 용 지음 / 돌베개 / 2008 ▶ 911.6 전66서



석수도서관 김은아

서울! 6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온 수도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숨 쉬고 생활하는 공간인 서울. 이 책은 서울이라는 공간 곳곳에 담긴 역사와 그 곳으로부터 유래한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면서 서울사(史)가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첫 장 「신시, 서울」을 통해 「서울」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기존 서울을 다룬 책들에서 언급했던 「새로 만든 을」, 「새로 만든 성」 정도의 의미가 역사학자를 만나 조선 초 서울의 틀을 구상한 정도전과 이방원의 경복궁 계획부터 두 사람의 정치적 갈등까지 서울이라는 명칭과 이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으로 확대되어 「유아독존의 수도」, 「정도전의 서울, 이방원의 서울」 등에서 풀어진다.

이어지는 「동물, 동개」, 「등 따습고 배부른 삶」, 「땅거지」 등의 장에서는 서울을 다룬 역사적 기록을 보며 당시의 역사와 생태 환경적 변화, 또 그로 인한 풍속의 변화 등을 추적한다.

「무뢰배」, 「촌뜨기」, 「압구정과 석파정」 등의 장에서는 단어와 어법을 통해 조선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계층사회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한다. 조선 후기 상업 사회의 발전과 관직과 부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사람들, 그로 인해 새로 생기거나 의미가 변한 단어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또한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종로, 전차」, 「시계탑」, 「제중원」 등을 통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생겨나고 사라져간 교통, 통신 수단의 변화와 독특한 삶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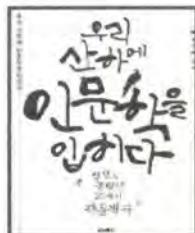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서울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 누가 이 많은 이야기를 궁금해 했을까? 작가는 서문에서 ‘인문학이 빠진 역사와 문화의 시대’에 대해 경고 한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역사 문화 요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는 현실, 역사의 상품화가 곧 역사의 대중화가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역사와 인류학, 공간 비평과 문화 비평을 가로지르는 도시 「서울」에 대한 인문학적인 보고서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서울, 도시역사, 도시인문학

- 1. 촘촘한 준비의 계절
- 2. 우울한 적응의 계절
- 3. 사는 맛 삼삼한 정착의 계절
- 4. 깊어가는 성찰의 계절

우리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홍인희 지음 / 교보문고 / 2011 ▶ 911.4 홍6819우



석수도서관

신아영

저자는 우리산하의 아름다운 자연속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며 그 속에 녹아 내린 감동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10여 년간 강원도에 살면서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그 곳에는 웃고 울고 위로하며 살아온 역사와 문화의 이야기가 우리산하의 척추인 태백산맥의 줄기마다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강원도는 진한의 태기왕을 시작으로 신라 마의태자, 태봉궁예대왕, 공려 공양왕들 각 왕조의 마지막 제왕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현장이었고 조선개국이 암시되는 등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같이 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까지 이곳의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 가히 우리왕조 역사의 명멸을 줄곧 지켜봐온 소리없는 목격자였다.” (161쪽)

구한말 일제 통감 이토히로부미는 고종을 협박하여 양위를 종용하던 중 ‘신라 경순왕도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지 않았나’ 라며 국가를 양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인 양 희롱하였다. 이후에도 이광수의 소설 ‘마의태자’를 비롯해 가곡, 영화 대중가요까지 신라 왕족의 나약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기록과 분위기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대로 이어져 마의태자는 ‘삼베옷 입고 금강산에 들어가 풀뿌리나 뜯어 먹고 살다 죽은 왕자’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마의태자는 오래전부터 강원도에 들어와 있었고, 인제군에서 ‘신라소국’을 세워 왕으로 옹립된 뒤 상당기간 동안 고려에 항전했다. 이후 북으로 진출해 만주 일대에서 여진을 통합했고 이 후예들이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우게 된다.

“사서를 보니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세를 이어왔고 금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금나라 국호도 또한 김씨의 성을 취한 것이다” - <※흥정만주원류고>
※흥정만주원류고(欽定滿洲源流考) : 중국 청나라 때의 만주 풍속 지리지

이 책은 우리 산하에 숨겨진 역사, 문화, 신화를 밝혀내어 현대적 의미와 접목해 나간다. 각 지역의 사진과 관련 그림을 삽입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낄 수 있는 인문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Contents

- 햇볕에 바래고 달빛에 물들어
- 기쁜 맛이더니 슬픈 맛이더니

※키워드 : 산하, 강원도, 인문학, 관동별곡

- 암하노불이 울뚝밸을 부리면
- 산천유곡에 남겨진 지존의 발자취
- 그곳에 어머니의 고향이 있었네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고미숙 지음 / 북드라망 / 2013 ▶ 991.1 고38=



만안도서관

장영진

현대인에게 너무도 익숙한 다산(정약용)과 연암(박지원)은 25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공통적으로 정조를 모셨다. 조선후기 배출된 많은 인재들과 교류함으로써 다양한 만남의 경우가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둘은 교류가 없었다. 저자는 정조임금과 그 시대의 특수성을 교차하며 두 인물을 제시한다.

다산은 올락한 남인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를 통해 벼슬에 오르고 이로써 세상에 스스로를 각인시키고자 정조의 신뢰 속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지만, 1800년 천주교 관련하여 긴 유배생활을 하고, 이를 통해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많은 저서를 남긴다.

반면 연암은 당시 권력의 핵심인 노론 집안 자손으로, 일찍이 영조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과거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내면적 의지를 중요시하였다. 생계를 위해 겨우 지위가 낮은 벼슬을 지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하일기를 비롯, 호질, 양전전과 같이 힘든 필력을 통해 세상보기와 시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준다.

왕과 천주교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이 있었던 다산은 긴 유배생활 이후 귀향하여 마치 세상을 탈속한 듯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연암 또한 잠시 지낸 벼슬살이를 끝내 놓은 이후 삶을 조용히 보내게 된다.

“유머와 패러독스를 통해 의미를 다양하게 분사하는 것이 연암의 전략이라면, 다산은 주석과 인용을 통해 백과사전서식에 종합에 주력한다. 연암이 타고난 이야기꾼 이었다면, 다산은 시각적 도표, 요즘으로 치면 프리젠테이션의 명수였다. 눈치챘겠지만, 전자는 물의 속성이고, 후자의 불의 속성이다. (261쪽)

표준형과 자유방임형, 학술적과 문학적, 반듯함과 호방함 등..

저자는 20세기를 이끌었던 다산학은 우리의 배경으로 물러나고, 21세기의 우리에겐 연암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암에게서의 진리의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연암의 지혜와 다산의 열정을 터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암과 다산에게서 배울 점이라 한다.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남발되고 있는 여러 책들과 미디어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의미와 형식을 확인코자 한다면,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역사, 인문학, 다산, 연암

- 1장 물과 불 - 파동과 입자
- 2장 기묘한 '트리아드' - 연암과 다산, 그리고 정조
- 3장 문체반정 - 18세기 지성사의 '압축파일'
- 4장 "열하일기"vs"목민심서"
- 5장 진검승부 - 패러독스 vs 파토스
- 6장 두 개의 별, 두 개의 지도

조선의 킹메이커



박기현 지음 / 역사의 아침 / 2008 ▶ 911.05 박18조



박달도서관 김유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솔로몬의 말이 있듯이 때론 지나간 역사와 인물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금과옥조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조선의 킹 메이커로서 조선의 왕들을 보좌해온 정도전, 하륜, 황희, 신숙주, 조광조, 유성룡, 최명길, 체제공 8명의 참모들의 삶과 철학 등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신권정치로 정의되는 정도전은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뛰어난 능력으로 군주 이성계와 함께 혁명을 이루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런 탁월함과 열정의 참모형 정도전과는 달리 과감한 정책의지와 결단력, 위엄을 갖춘 강한 군주 아래서 참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준 하륜의 참모상은 군주를 결코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군주의 의지를 잘 살펴 보좌하는 '부창부수의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자 세종 아래서 열정 넘치는 개혁군주의 완급을 잘 조절하는 '수용의 리더십' 황희, 세조의 문화적이고 외교적인 왕재를 발견해 이를 성취하도록 도운 신숙주, 준비 안된 중종을 군주로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군주의 역량을 길러준 조광조, 전국토가 유린되던 임진왜란 초기, 투정이 심하고 겁도 많은 선조가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설득했던 유성룡의 '관용의 리더십'으로 처참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다.

최명길 역시 명분보다 실리를 위해 악역을 자처했으며 '똑심의 리더십'으로 청나라와의 교섭을 성공시켜 나라와 백성을 구해냈다. 마지막으로 체제공은 정조의 든든한 보디가드가되어 군주를 위해 영의정 자리마저 내던진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보여준 참모이다.

이처럼 이들이 섰던 군주들은 성격이 불같이 급하거나 혹은 섬세하고 예민하거나 나약하고 의심이 많았다. 너무도 다른 성격과 품행, 서로 다른 정치철학과 사상을 가진 군주를 최선을 다해 섰던 참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륜, 처세의 철학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1장 정도전, 군주를 업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 2장 하륜, 스스로 군주를 선택해 모시다
- 2장 황희, 꼼꼼한 군주의 실무형 참모가 되다
- 4장 신숙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다
- 5장 조광조, 역량이 부족한 중종을 군주로 키우다
- 6장 유성룡, 초유의 전란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다
- 7장 최명길, 실리 추구로 절체절명의 조선을 구하다
- 8장 체제공, 군주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다

※키워드 : 조선의 킹메이커, 참모, 처세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이덕일 지음 / 역사의아침 / 2011 ▶ 911.058 01241사



평촌도서관

황신혜

『한중록』은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본 혜경궁 흥씨의 기록인 까닭에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한 서린 여인의 진솔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사도세자의 죽음은 영조의 이상 성격과 사도세자의 정신병 충돌 때문이라 하지만 실록의 기록은 달랐다. 『영조실록』에는 사도세자가 정신병과는 거리가 먼 성군의 자질을 지닌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이 두 기록의 진실을 밝히고자 사도세자와 관련된 현존하는 모든 기록을 찾아 삼종의 혈맥,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 갈등, 영조의 탕평책과 그 한계 등 시대적 상황과 정치 지형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다.

영조는 효장세자가 죽은 후 조선 천지에 삼종의 혈맥이 오로지 자신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7년이나 지난 후에 아들을 얻는다. 왕자는 출생 당일 원자로 정해지고, 만 2세에 노론, 소론 당파를 막론하고 축복 속에서 세자로 책봉되었다. 어릴 때 세자는 성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영조실록에도 어린 시절 세자의 영특함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많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한 군주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론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도 노론이었으며, 혜경궁 흥씨를 중심으로 한 외척도 노론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세자는 소론 인사들과 뜻이 잘 맞는 반면 집권당인 노론과는 다른 역사관,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 집권층인 노론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결국 노론은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고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퍼트려 영조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를 세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 사도세자는 영조 38년(1762년), 한여름 뒤후 속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무려 8일 동안 갇혀 있다가 생을 마감하고 만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이 책은 조선왕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패자의 자리에서 사도세자 이선의 본모습과 죽음의 진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결이다. 현세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다. 현세의 권력으로 과거를 뒤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자체가 역사에 대한 오만이었다. 과거는 과거 자체로서 살아 숨 쉬는 생물이다. 과거가 현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현세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Contents

- 1부 삼종의 혈맥
- 2부 눈물의 임금
- 3부 슬픈 서막
- 4부 임금과 대리 임금

※키워드 : 사도세자, 영조, 탕평책, 한중록

- 5부 정적
- 6부 사도세자의 반격
- 7부 비극
- 8부 미완의 꿈

왕조의 마지막 풍경



사람으로 읽는 한국사 기획위원회 펴냄 / 동녘 / 2008 ▶ 911 사2920



평촌도서관

배 소 영

역사란 이긴 사람의 관점에서 주로 써지는 것이어서 각각의 왕조가 멸망한 후 써진 역사는 대부분 멸망한 왕조의 마지막 왕을 비겁자, 무능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왕 1명의 잘못만으로 왕조가 멸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일곱 왕조의 마지막 왕을 등장시켜 왕조의 마지막 여러 풍경들, 분노와 탐욕과 투항 세력 간의 갈등,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굴욕 속에서 질긴 생명을 이어간 마지막 왕들의 개인사를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풀어나갔다. 순서는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부터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우거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을 취하였다.

오백년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창덕궁에서의 삶, 친일파도 눈물 흘린 순종의 국장일 풍경 등을 보여주며 순종의 국가가 망한 것에 대한 책임 여부 및 정말 순종이 무능력한 왕이었는가를 추적하고 있으며,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에 맞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을 했으나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여는데 성공하고 공양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삼척에서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는다. 당시 공양왕과 그의 지지 세력은 고려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정치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조선왕조에 철저히 숙청당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천년왕국 신라는 종말을 맞지만 경순왕과 더불어 고려에 귀부한 신라 귀족들은 고려 지배층의 한축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발해 15대 왕위에 오른 대인선은 강력하게 밀려드는 거란의 침공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발해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다. 근래 학자들은 발해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내·외부적 요인 외에도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나 기후까지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으로 연개소문이 쿠데타 후에 세워 왕이 된 인물인데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골육상쟁으로 인해 당의 개입을 부르게 되고 결국 고구려는 멸망되고 말았다. 그러나 폐위 후에 보장왕은 말갈족과 공모해 반당항쟁과 복국운동을 도모하는 등 고구려 유민들을 위해 노력을 했던 왕이었다. 그 외에 백제가 멸망한 후 만들어진 삼천궁녀와 낙화암 전설에 의해 부정적으로 그려진 의자왕의 실제 모습 및 우리나라 첫 왕조인 고조선의 마지막 왕과 그 시대의 역사를 서술해놓았다.

Contents

- 조선왕조 500년의 문이 닫히다 - 순조
- 쓰러져가는 고려왕조의 끝을 불잡고 - 공양왕
- 혼이 되어서도 경주도 돌아가지 못하다 - 경순왕
- 해동성국의 영광을 뒤로하다 - 대인선

※ 키워드 : 한국왕조, 마지막 왕, 한국사

- 영웅의 시대,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다 - 보장왕
- 저문 백마강에 오명을 씻고 - 의자왕
- 첫 왕조의 마지막 왕 - 우거왕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이덕일 지음 / 역사의아침/ 2009 ▶ 청구기호 911 이241한



어린이도서관 김지혜

'한국 주류 사학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출발점에 다시 설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저자 '이덕일'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역사지식이 중화사관과 일제 황국사관, 식민사관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 쓰인 것이라 말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존에 배워온 역사관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한다.

그가 왜곡된 역사의 쟁점으로 말하는 첫 번째는 '고조선'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시하는 고조선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 고대사의 시작은 위만조선이며, 청동기시대에야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서술은 단군조선을 부인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삼국사기'이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일제 식민학자 쓰다 소우키치의 주장에 따라 삼국사기 초기기록은 모두 가짜라 부인해버리고 삼국지, 동이열전의 내용을 국사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와 후한서의 삼국시대 내용을 참고하면 현재 국사교과서에 적힌 역사적 사실보다 더 오래된 역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및 주류 사학계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 번째 쟁점은 '노론사관'에 의한 조선 후기사 왜곡이다. 노론은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진정한 임금인 명나라황제에 반하는 것이라 하며 자신들의 쿠테타를 정당화하고 사대주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후에 이들의 일부는 일제에 가담하여 조선사편수회에 왜곡된 역사를 서술했고 해방 이후 사학계의 주류가 됨으로써 한국사 서술은 일제식민사관과 조선 후기 노론사관으로 얼룩졌다는 것이다.

네 번째 쟁점은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장'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다. 국사교과서는 애국계몽운동이나 실력양성운동 등의 위주로 서술됐으며, 식민시대에 일제의 도움으로 근대문명이 발전한 것처럼 서술해놓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방 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친일세력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사회주도세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상황이 학계에도 적용되었다고 말한다.

저자 이덕일은 한국사는 역사가들에 의해 창조된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상이 역사의 실제모습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출발점에 다시 선다.'는 것은 '일제 식민사관이 만든 고조선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Author 이덕일

197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시작으로 한국사의 핵심 쟁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냄으로써 역사대중화를 이뤄냈으며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조선왕 독살사건』,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고구려는 천자의 제국이었다』 등이 있다.

두 개의 한국 현대사



임영태 지음/ 생각의길 / 2014 ▶ 911.07 임64=



비산도서관 박지현

이 책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국사 교과서 사건'으로 시작한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포함하는 현대사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런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현대사를 왜곡하려 하고 있을까?

- 오늘의 우리를 만든 역사 읽기 - 『두 개의 한국 현대사』.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파동'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들을 골라 모두 열다섯 개의 이야기로 정리한다. 광복절 논쟁, 백범 김구 암살 사건, 김수임 간첩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의 사건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현대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멀거나 가깝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현대사는 일어난 사건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룬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무엇을 기점으로 현대사를 보는 관점과 태도가 이토록 다르게 될까? 그런 논쟁의 쟁점에 선 한국사의 사건들을 들여다본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칭 '역사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두 개의 시각이 충돌한 결과이다. 한쪽은 이런 역사전쟁을 좌와 우의 대립, 즉 이념의 대결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좌우 이념갈등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이며 '역사에 대한 진실과 왜곡의 격돌'이다. 이 책은 '상식의 역사'에 대해 풀어낸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혁명과 진보의 주축이 되어야 할 젊은 지성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저자는 '침묵했다고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침묵과 방조가 유신체제를 연장시킨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한다.

Author 임영태

※키워드 : 한국사, 역사, 한국현대사

저자 임영태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유신 끝 무렵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화 및 인권 운동에 인연이 달아 여러 활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한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사)현대사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과거사 정리 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총괄했다. 저서로는 『산골 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 50년사 1,2』 등이 있다.

근대를 말하다



이덕일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 / 911.0601241근



호계도서관 이혜준

근대는 왠지 낯설고 불편하다.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대와 중세보다도 더 멀게만 느껴진다. 나라를 빼앗긴 채 온갖 핍박과 오욕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고종 때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식민지 체제에 들어가면서 강제로 근대에 편입된 게 우리의 역사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를 만든 씨앗이 근대의 역사 속에 있다.

조선은 강제로 근대에 편입되었다. 일본은 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조선은 진통만 겪고 실패했다. 조선은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먹잇감으로 전락했으며, 고종의 무능, 인조반정 아래 집권당이었던 노론의 매국이 결합해 결국 망하고 말았다.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새워지지 못하고 민주공화제의 씩이 트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1905년 외교권 박탈로 대한제국이 종말로 치달았다. 모든 주요 직책은 매국 친일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매국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항일투쟁에 목숨을 걸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대부들도 있었으며, 망국 때 광복을 준비한 선각자들도 있었다. 일본 내에서는 천황제와 군국주의에 반대해 싸웠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못지 않은 죽독한 탄압을 받았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공포정치를 기초로 삼고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을 탄압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세워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하고, 사학의 설립 운영에 엄격하게 제한을 가해 교육도 장악했다. 또한 허가 없이 회사를 세우면 징역을 주고, 이로 민족자본에 족쇄를 채웠다. 매체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일 선봉에 있던 <대한매일신보>도 일본의 농간에 친일 매체로 둔갑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에 민중은 3.1운동으로 비수를 꽂아주었다. 한국인이 원해서 병합했다는 일제의 선전은 사기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시민·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전개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일제의 총검에 맨몸으로 맞섰다. 3.1운동은 망국으로 위축되었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사건이었다.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각지에서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Contents

※키워드 : 근대사,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 Part 1. 망국의 몇 가지 풍경
- Part 2. 절망을 넘어서
- Part 3. 식민통치 구조

- Part 4. 운동의 시대
- Part 5. 대한민국 임시정부
- Part 6. 만주의 삼부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안양人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다시, 봄 / 장영희 지음

11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고통과 열정, 예술가의 삶"

빈센트 반 고흐는 가난과 외로움, 정신질환으로 힘겨운 일생을 살았지만, 주옥같은 많은 명작을 남겼다. 후대에 그의 작품들은 뛰어난 예술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에서도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며 살았던 예술가의 삶을 다룬 책을 소개해 보자.

도서목록

-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 / 실비아 플라스
- 그림으로 삶을 완성한 화가 / 박영택
- 행운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 베토벤의 생애 / 로맹 롤랑
- 화가 VS 화가 / 허나영
- 프라다 칼로 / 안드레아 커텐만
-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가우디 / 김용대
- 박수근 평전 시대공감 / 최 열
- 반고흐, 마지막 70일 / 바우커르 반 데르베인 · 페터르 크나프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꽃 피는 봄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진대, 너무 늦게, 이제야 그걸 깨닫습니다.”

<다시, 봄>

“내가 남자라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 텐데. 여자라고 해서, 이토록 울다 얼어붙고, 얼어붙었다 다시 울며 몸서리만 치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

“달빛요정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조차도 달빛요정의 극적인 파멸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중략) 하지만 난 현실을 노래할 뿐이다.”

<행운아>

다시, 봄



장영희 지음 / 샘터 / 2014 ▶ 814.7 장646다



석수도서관 서성남

-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

칼 월슨 베이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려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 듯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없나요.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그 팽팽한 피부와 나긋나긋한 몸이, 그 끝없는 희망이, 그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아픈 고뇌조차도 가슴 저리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녕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늙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돌릴 수 없는 청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내 계절을 받아들임은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은 아름답습니다.

해야 할 수 많은 ‘좋은 일’ 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일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일에 내 나머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책은 1월에서 12월까지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영미시와 장영희의 글이 함께 어우려져 있으며 화가 김정선의 그림이 함께 소개된 책입니다. 이해인 수녀의 말씀처럼 이 책은 장영희와 김정선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함께 보내는 봄 편지, 희망과 위로의 러브레터입니다.

Author 장영희

※키워드 : 영미시, 희망, 위로

서강대 영미문학 전공 교수이자 번역가, 칼럼니스트, 중·고교 영어 교과서 집필자로 활동을 했다. 문학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생일』 『축복』의 인기로 ‘문학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들을 독자에게 전하던 그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출간을 하루 앞둔 2009년 5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



실비아 플라스 지음 / 문예출판사 / 2004 ▶ 846 편292일



설수도서관 박하영

좋은 집안, 명문대 장학생, 아름다운 외모,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낸 작가로서의 자질, 이미 충분해 보였던 그녀가 가진 화제성은 시인 테드 휴즈와의 결혼으로 극대화 된다. 하지만 완벽한 로맨스로 보인 미남 계관시인과 천재 여류시인의 사랑은 파국을 맞고, 실비아 플라스는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곤두박질친 로맨스는 처절한 비극으로 변하고 마침내 실비아 플라스는 신화가 되었다.

1963년 그 날 이후, 실비아 플라스의 삶과 작품은 책과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며 사람들 사이에 머물렀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이 끓어오르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그녀는 자연인 실비아가 아닌 억압받은 여성성의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비극의 대명사, 억압에 저항하는 천재 여류시인, 비극적 삶이 그녀의 시를 빛내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실비아 플라스라는 이름 앞에 비극과 시만 남았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1986년

실비아의 자살 이후 아내를 죽음으로 몇 비정한 남자로 손가락질 받아온 테드 휴즈는 그녀의 일기를 모아 ‘실비아 플라스의 일기’를 펴냈다. 스무 살부터 사망 9개월 전까지 이어지는 일기에는 사소한 일상과 섬세한 감정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다. 미래가 불안한 작가 지망생은 성공한 예술가가 되고, 소녀는 여인이 된다.

때로는 천진하고 때로는 신랄하다. 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문학에 대한 깊은 열정과 치열한 고민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과 절망이 씨실 날실처럼 엮여 천재 시인이자 인간 실비아가 바로 곁에서 살아 숨 쉬는 듯 오롯이 느껴진다. 일기를 넘어서 자서전 또는 소설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덕분에 이 책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서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Contents

*키워드 : 테드 휴즈, 일기, 여류시인

그림으로 삶을 완성한 화가 이중섭



박영택 글/ 다섯수레 / 2012 / 1990.8.62다



석수도서관 김성아

이중섭은 1916년에 태어나 1956년 41세의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으로 한국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이중섭은 그 당시 고통과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중섭이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에서 가장 큰 소 시장인 암적시장을 비롯해 다섯 개의 소 시장이 들어서 있어서 소 거래가 무척 활발했다. 이중섭은 일찍부터 소를 좋아했으며 오산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소 그리기에 몰두했다. 이중섭에게 소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는 매개로 서의 존재로 나타났다. 한 걸음 나아가 소를 조국과 동일시하여 우리 민족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 이중섭이 일제 강점기에 그린 소는 일본에 짓밟힌 국토와 나라를 잊고 시름에 잠긴 조선 민족을 상징한다. 1·4 후퇴 때 가족과 헤어져 삼팔선 이남으로 내려온 뒤에 그린 소는 절망에 몸부림치며 분노하는 소이다. 조국이 두 동강난 뒤에는 소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으르렁대는 모습을 그렸다.

휴전협정이 선포될 당시 그는 통영에서 지냈다. 이중섭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으며 오늘날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상당수의 작품을 통영에서 완성하였다. 통영에서 그린 대표작으로는 <달과 까마귀>, <황소>, <봉황>이 있고, 풍경화도 여러 점 남겼다. 미술 도구도 변변치 않고, 그림을 전시할 만한 상황도 못 되었지만 이중섭은 쉼 없이 그렸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그림에 몰두했다.

이중섭이 태어난 평원군 가까이에 있는 평양은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관서지방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다. 또한 풍광이 아름답고, 문화적 전통이 매우 강한 곳이었다. 그는 전통문화에 서양 미술을 접목해 자신만의 고유한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이 근대기의 화가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이다.

이 책은 이중섭의 생애를 사실에 근거하여 재현하고 그의 작품세계를 쉽게 정리하여 이중섭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Contents

*키워드 : 그림, 이중섭, 은지화

- 화려한 꽃상여
- 일본 여성과 사랑에 빠지다
- 가족을 일본으로 보내다
- 외로운 아이
- 프랑스유학을 포기하고...
- 어렵게 가족을 만나다
- 소에 미친 어린 시절
- 신혼 생활과 광복
- 가족을 그리워한 그림들
- 벽화 제작을 꿈꾸다
- 첫아들의 죽음과 군동화의 등장
- 대부분의 대표작이 완성된...
- 임용련 선생님을 만나다
- 이미지가 지닌 주술성
- 개인전을 열다
- 전통미술에 관심을 갖다
- 원산을 떠나 피난 생활이...
- 남덕이 미워, 남덕이 미워
- '동방의 루오' 라 불린 일본유학... ■ 제주도 피난 시절과 서귀포...
- 진정한 화가 이중섭

행운아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 북하우스 / 2003 ▶ 818 달488행



만안도서관

최미송

달빛요정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조차도 달빛요정의 극적인 파멸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중략) 하지만 난 현실을 노래할 뿐이다.

- 『행운아』, 188쪽 -

실제로 그는 '극적인 파멸'을 맞았다. 나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37살 음악가는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인디 뮤지션이었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하 '달빛요정'), 이진원의 죽음이었다.

『행운아』는 달빛요정이 쓴 에세이이자 미완의 유고집이다. 그가 쓴 짧은 글들, <절룩거리네>, <스끼다시 내 인생> 등 그의 노래들의 제작 비화, 일기, 타인이 쓴 평론으로 이루어졌다.

자조적·자학적인 노랫말이나 안타까운 마지막 때문에 사람들은 달빛요정의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막연한 짐작을 제목에서부터 반박한다. 물론 책에는 그가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다. 가난하고 비루한 삶. 뮤지션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버렸다는 회한.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끌어안았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렷한 발음으로 노래했다.

'참 많이 불러봤어 그리움 기다림 원망의 노래들 (중략)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 불어보자 피하지 않겠다 덤벼라 세상아'(<나의 노래>)

그의 노랫말처럼 『행운아』는 삶과 음악에 대한 달빛요정의 열정, 애정, 그리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

달빛요정의 죽음 후 동료 뮤지션 100여 팀은 그를 위한 추모 공연을 위해 모였다. 2년 뒤에는 그의 유작 앨범이 발매됐다. 또한 달빛요정의 요절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과 더불어 한국 사회가 젊은 예술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uthor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1973~2010)

* 키워드 : 청춘, 음악, 뮤지션

야구와 음악 잡지에 빠져 살던 소년은 고등학생 때 첫 기타를 선물 받으며 본격적으로 음악과 사귄다. 그의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락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포크 뮤지션으로 널리 알려진다.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절룩거리네>는 노랫말에 담긴 지독한 좌절의 정서가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얻는다. 그의 노래는 구질거리는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타는 강속구 그 어떤 변화구도 날 막을 순 없어'(<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처럼 희망과 감격을 끊임없이 외쳤다.

베토벤의 생애



로맹 르랑 지음 / 문예출판사 / 2005 ▶ 670.99 원 336쪽



박달도서관 김종혁

프랑스 작가 로망 르랑은 ‘영웅 3부작’이라 불리는 세 명의 위인전을 집필하는데 ‘베토벤의 생애’는 이 중 그가 첫 번째로 집필한 책이다. 이 작품은 대하소설 ‘장 크리스토프’로 이어지며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주게 된다.

베토벤은 1770년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터너 가수였고, 어머니는 어떤 남자 종과 결혼하였다가 과부의 몸이 되어 재가했다. 베토벤은 유년시절부터 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11세에 극장 오케스트라 단원, 13세에는 오르가ニ스트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유년시절을 보낸다.

1792년 베토벤은 당시 독일의 음악 수도였던 빈에 정주하며 작곡을 하며, 피아니스트로서 공연도 하며 음악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그에게 불행이 닥쳐온다. 1796년 그의 나이 26세에 콧병이 시작되고 청각은 점점 무디어만 갔다. 게다가 장 질환까지 겹쳐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자신의 장애를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그의 슬픔은 그 시기 작곡한 <비창주명곡>, <피아노를 위한 제3소나타> 등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난다.

베토벤은 1806년 테레제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게 된다. 이 때 쓰여진 <제4교향곡>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평온하였던 시절임을 느낄 수 있다. 얼마 후 약혼은 파기되고 말았지만 둘 다 결코 그들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베토벤은 1816년 이렇게 말하였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과 같이 벅차게 뛴다.”라고...

베토벤에게 찾아온 고통은 청력 상실만이 아니었다. 폐렴, 극심한 신경통, 활달, 결막염 등 온갖 질병이 삶에 대한 그의 용기를 시험하였고, 창작을 방해하였다. 1826년 11월 그는 늑막염성 감기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고, 1827년 57세의 나이로 세상과 등지게 된다.

勒郎은 베토벤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하였다. “어떤 정복이, 어떤 전투가, 어떤 태양이 초인적 노력과 이 승리, 일찍이 ‘정신’이 싸워 얻은 가장 찬란한 이 승리의 영광에 필적할 수 있으리오! 불행하고, 가난하고, 불구이고, 고독한 사람, 마치 고뇌로써 빚어진 것 같은 사람, 세상에서 기쁨을 거절당한 사람, 그 사이 스스로 환희를 창조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는 자기의 불행으로 ‘환희’를 만들어 낸다.”

Contents

- 베토벤의 생애
-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 베토벤의 편지

※ 키워드 : 베토벤, 클래식, 로맹 르郎

- 베토벤의 사상단편
- 베토벤에 대한 감사
- 베토벤의 수기

화가 VS 화가



하나영 지음 / 은행나무 / 2010 ▶ 609.9 원 192쪽



평촌도서관

강석림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않고 위대한 예술가가 된 이들이 있을까? 뜨거운 담금질 이후에 단단해지는 쇠처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예술가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화가가 마주친 현실적인 문제와 예술적 고민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는 예술가들이 다른 화가들과의 조우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예술적 경지를 성장시켜 나아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1. 친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예술성을 키워나간 예술가들, 2. 좋은 라이벌이 되어 서로를 자극하고 경쟁한 예술가들, 3. 예술을 매개로 만나 작품처럼 불같은 사랑을 한 연인의 관계였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파트 1에서는 친밀한 동료관계였던 우리에게 익숙한 ‘인상파’의 화가 마네와 모네의 만남, 우리나라 대표 예술가 중 하나인 비디오 아트 창시자 백남준과 독일의 기이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요셉보이스의 우정의 이야기 등이 있다.

파트 2에서는 서로를 라이벌로 여겼던 세기의 예술가로서 동시대에 살면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명승부가 펼쳐질 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강렬한 그림을 그렸던 고갱이 자신의 동료화가로써 함께 하길 바랬지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귀를 잘라버린 광기어린 불운의 천재화가 고흐의 이야기 등이 있다.

또한 파트 3에서는 천재적인 조각가 로뎅과 20살 이상 차이가 나던 그의 충실한 조수이자 애인이었던 까미유 끌로델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와 멕시코의 벽화운동을 이끌었던 혁명가 디에고 리베라와 교통사고와 2번의 유산을 겪고 ‘난 그저 살아 있기 위해 그림을 그려야하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한 프리다 칼로의 사랑이야기를 소개한다.

예술세계이라는 것이 혼자만의 영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술가들의 만남을 통해 각각의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예술가들을 만남으로써 서로의 작품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키워드 : 미술, 화가, 경쟁, 우정

- 친구, 변치않는 우정의 예술 동업자들
- 라이벌, 치열한 경쟁자의 이름
- 연인, 영혼을 태우는 사랑의 포로들

프리다 칼로



안드레아 케텐만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05 ▶ 650.99 베이스 19



평촌도서관 김태영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54)는 멕시코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18세때 겪었던 사고와 유명 예술가이자 호색한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작가로 유명하다. 또한 멕시코의 유명 여배우인 셀마 헤이액이 그녀의 전기 영화의 주연을 맡아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바 있다.

"목발의 프리다" – 반항적인 소녀

첫 번째 챕터에서는 프리다의 가족관계와 유년시절을 다루고 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진기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미술적인 영향 등을 짧막하게 소개한다.

연약한 비둘기와 살찐 개구리

연약한 비둘기와 살찐 개구리란 제목은 프리다와 그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뜻하는 말이다. 이 장에서는 프리다가 화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8세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프리다는 척추 등을 심하게 다치게 되었고 입원과정에서 고통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 21살 연상인 디에고 리베라와의 결혼과 공산당 입당 등을 통해 그녀는 라틴아메리칸으로서의 이념적 정체성과 그녀만의 화풍이 확립되게 된다.

'그링골란디아'의 멕시코 화가

그링골란디아는 스페인어로 미국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다. 결혼이후 프리다는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향수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유산, 자신의 여동생과 남편인 디에고의 바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었다.

절망과 성공

프리다는 그 이후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의 작품전시회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1940년에 그린 '짧은 머리의 자화상'에서는 그녀가 긴 머리를 자르고 남성복을 입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혼 이후 자신의 여성성을 거부하고 남성에 대한 독립을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다. 그 이후 다시 전 남편인 디에고와 재결합하게 되지만 그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결혼이었다.

"이 외출이 행복할 수 있기를...."

1940년대 말부터 그녀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수차례의 척추수술을 받고 진통제 없이는 작품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그녀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일기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을 남긴다. "이 외출이 행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유산, 남편의 불륜 등을 예술혼으로 승화하면서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연대기. 이 책을 통해 그녀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함께 공감하고 우리의 자아를 찾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싶다.

Contents

※ 키워드 :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예술, 초현실주의, 여성작가

- 1부 "목발의 프리다" – 반항적인 소녀
- 2부 연약한 비둘기와 살찐 개구리
- 3부 '그링골란디아'의 멕시코 화가
- 4부 절망과 성공
- 5부 "이 외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 가우디



김용대 지음 / 미진사 / 2012 ▶ 610.927 김65~



별말도서관

김윤하

이 책은 시대를 앞서 갔으며, 세계 건축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뛰어난 건축가 가우디가 어떤 삶을 통해서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가우디의 정식 이름은 안토니 플라시드 기엠 가우디 이 코르넷(Antoni Plàcid Guillem Gaudí i Cornet)으로 1852년에 카탈루냐 시골지방에서 대대로 대장간을 하는 가정에서 출생했으며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 형성된 가우디의 불같이 급한 성격과 고집은 그의 평생을 두고도 고치지 못한 유일한 핸디캡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일관된 철학으로 자신의 생각을 건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 부모님은 그와 그의 형을 바르셀로나로 유학을 보냈다. 건축학교에 진학해 학업과 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그에게 졸업장을 주던 교장은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미치광이에게 주는 것인지 실은 나도 잘 모르겠소” 라며 가우디를 평했다.

가우디의 평생의 조력자인 구엘 백작은 섬유산업을 토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혁신’을 바라지 않던 배타적인 예술계에서 가우디를 구원해 주었던 유일한 선지자였으며 가우디에게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였다.

가우디는 1883년 자신의 최초의 건축 작품인 까사 비센스를 시작으로, 독신자를 위한 여름 별장인 엘 까쁘리쵸, 바르셀로나 시내에 건축한 최초의 건축물인 구엘 궁전, 학생들의 신앙심과 수업을 위한 황상적인 실내공간을 가진 성떼레사 수녀원, 도심 외곽에 고급 주택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자 했던 구엘 공원, 모네의 연꽃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까사 밧요 등 많은 독창적인 건축물을 완성했다.

말년에 성가족 성당의 작업실에서 생활하며 성당 작업에 전념하던 가우디는 1926년 전차에 치어 행렬병자로 취급받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떠돌다가 74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현재 그의 유해는 성가족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스페인 혹은 바르셀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된 가우디가 평생을 바쳐서 완성하고자 했던 성가족 성당은 현재도 기부금으로 조금씩 건축 중이다.

성가족 성당(Sagrada Família)

※키워드 : 가우디, 건축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어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 성당이다. 1882년 프란시스코 P. 비야르가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계획했으나, 1883년 당시 31세였던 젊은 건축가 가우디가 인수받아 1926년 사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반평생을 마친 미완의 작품이다. 3개의 파사드(주출입구 정면)에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했다. 가우디가 생전에 완성한 것은 지하 성당(Crypt)과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파사드 뿐이다.

박수근 평전 시대공감



최 열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011 ▶ 650.99 박56*



어린이도서관

홍민희

‘착한’그림을 그리며 ‘진짜’를 꿈꾸었던 화가 박수근

이 책은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출판된 박수근 평전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그 이후의 시대를 지낸 박수근의 작품세계와 생애를 진솔하게 그려낸다.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던 소년 박수근은 “나는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출렁히 말하고 싶다”는 프랑스 화가 밀레를 동경하며 독학으로 화가의 꿈을 키워나간다.

박수근은 수채화 <봄이 오다>로 제11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시작으로 몇 차례 낙선과 집안 사정으로 실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일하는 여인>, <봄>, <농가의 여인>, <여일> 등 일상의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차례로 입선을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화가 박수근은 그의 아내를 만나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봇과 파레트밖에 없습니다. (중략) 나는 출렁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출렁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청혼을 한다. 부인 김복순을 그린 <맷돌질하는 여인>은 독학의 길을 걸은 박수근으로서는 여섯 번째 입선 경력을 쌓게 해준 그림으로 평양 미술계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다. 이때부터 박수근은 미석(美石)이란 아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과 만남 후 박수근은 미군에서 초상화 그리는 일을 하여 창신동에서 집을 사서 정착할 수 있었고 늘 입선만 하던 공모전에서 생애 처음으로 박수근의 <집>이 특선에 올랐다. 그때가 박수근 40살이었다.

이후 그의 그림을 좋아했던 외국인 후원자들의 노력과, 한쪽 눈의 실명과 공모전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작품활동을 계속한 박수근은 1965년 51세의 나이로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멀어…”라는 말을 남기고 생애를 마친다.

박수근이 도달한 고귀한 예술 형식은 독학의 길을 걸어온 화가, 배울 길 없어 미숙한 기술로 출발해 끝없이 연습을 되풀이한 박수근만의 양식이며, 그 시대 미술이 이룩한 최고의 조형이자 한 시대를 가늠할 수 있을 고귀한 양식 바로 미석 양식 그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며,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가장 즐겨 그린다.” - 박수근 -

박수근 연보

- 1914 : 박수근 탄생
- 1927 : 양구공립보통학교 졸업, 미술독학 결심
- 1932 : 11회 조선미술전람회 <봄이 오다> 입선
- 1935 : 어머니 사망, 최초의 개인전
- 1936~43 : <일하는 여인>, <봄>, <농가의 여인>, <여일>, <맷돌질하는 여인>, <모자>, <실을 뽑는 여인> 입선
- 1940 : 결혼, 아호 미석(美石) 사용
- 1946 : 금성여자중학교 미술교사 재직

※ 키워드 : 박수근, 화가, 평전

- 1949 : 이중섭과 만남
- 1951 : 1.4 후퇴 때 부두노동자로 연명
- 1952 : 혜화동에서 작품 판매 시작
- 1953 : 미8군 PX에 취업 초상화 제작, 판매
- 1955 : <노상> 국회문교분과위원장상 수상
- 1957 : 홍콩에서 <한국현대화가>지에 소개
- 1962 : 오산 주한미군 도서관에서 박수근작품전 개최
- 1963 : 원쪽눈 백내장으로 실명
- 1965 : 박수근 운명

반고흐 마지막 70일

바우터르 반 데르 베인 · 페터르 크나프 지음 / 지식의 숲 / 2011

▶ 653.269 베6819반



호계도서관 김보근

빈센트 반고흐의 작품세계를 나눌 때는 크게 네덜란드 시기와 프랑스 시기로 구분된다. 각각의 시기는 특정 장소에 의해 더욱 세부적으로 나뉜다. 반고흐의 작품세계는 그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어났다.

반고흐의 마지막 장소라 할 수 있는 오베르 쉬르 와즈에서 그는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여 그의 마지막 시기 또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반고흐는 오베르에서 머무른 70일 동안 80여 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다.

「반고흐, 마지막 70일」에서는 오베르에서 머무는 동안 반고흐가 지인들과 주고 받은 편지와 그곳에서 그린 작품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그림에는 반고흐가 오베르에서 보낸 날들에 대한 묘사가 덧붙여져 고흐가 어떤 열정으로 작품 활동에 임했는지는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반고흐의 인간적인 면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고흐의 작품을 보면 이전에 쓰지 않은 직사각형 캔버스를 썼다는 것과 한층 색의 사용을 다운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반고흐를 가난뱅이, 미치광이, 우울증 환자로 살아생전에 한 작품 밖에 팔지 못한 불운의 화가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 수록된 편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고흐에 대한 상당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지주인 동생 테오의 신뢰와 지원 하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작품 활동을 하였고, 당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 역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고흐는 '오베르는 진정으로, 심각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오베르에서 생의 마지막 열정을 작품 활동에 쏟아 부었다. 「반고흐, 마지막 70일」을 통해 영혼을 울리는 화가, 반고흐의 오베르에서의 마지막 70일을 들여다보자.

Contents

※키워드 : 빈센트 반고흐, 테오, 요안나, 오베르

- 1부 오베르 쉬르 와즈에서의 빈센트 반고흐 _ 반고흐의 훈적을 찾아서
- 2부 오베르 쉬르 와즈에서 빈센트 반고흐가 그린 유화 작품과 습작 _ 전 작품 수록
- 3부 반고흐 유작 계승자 요안나 봉허 _ 기록 에세이



안양시 사서들이 전하는 Healing 도서요약



안양人

안양의 시민으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 회의를 하면 답을 내라 / 정경수 지음



12월의 "힐링도서요약" 주제

"시간스토리 떠나는 여행"

'시간' 소재로 한 소설만큼 흥미로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상상을 한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미래를 불안해 하는 인간의 특성이 이와 같은 상상을 오랜 세월 동안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처럼 '시간' 혹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소설을 소개해보자.

도서목록

- 시간을 달리는 소녀 / 츠츠이 야스타카
- 시간여행자의 아내 / 오드리 니페네거
- 시간여행자의 사랑 / 리처드 매드슨
- 꾸뻬씨의 시간여행 / 프랑수아 르로르
- 시간 밖으로 달리다 / 마거릿 피터슨 해릭스
-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 기욤 뮤소
- 다시한번 리플레이 / 켄 그림우드
- 궁극의 아이 / 장용민
- 시간 가게 / 이나영



책과의 소통으로 마음을 힐링하세요~!!

“더 이상 다음번은 없다. 오직 이번이 있을 뿐이다. 방향과 결과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유한한 시간이 있을 뿐. 단 한순간도 낭비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현재가 곧 영원이며, 그것이 전부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꾸뻬씨의 시간여행>

“어떤 인생이든 잊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서도 않되겠죠. 우리 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회의를 하면 답을 내라



정경수 지음 / 미래와경영 / 2014 ▶ 325.26정14



평촌도서관 조윤숙

어떤 회의가 답을 내는 회의일까? 이 책은 실무자들이 회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시작으로 회의, 비즈니스 미팅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회의 방법이나 스킬이 아닌 회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총 여섯 파트로 구성되었다.

PART1 답을 내는 회의는 무엇이 다른가

회의에서 답을 내려면 '공감'하는 회의, '자존감'을 높이는 회의, '반대 의견'을 말하는 회의로 바꿔어야 한다. 상사의 지적과 판단은 회의실에서 부하직원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의는 상하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PART2 회의의 효율이 높아야 답이 나온다

회의는 질문으로 완성된다. 회의에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설명을 요하는 열린 질문을 하면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PART3 회의실에서 대립해야 답이 나온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수를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리더는 회의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T4 제대로 준비해야 답이 나온다

참석자들이 의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회의준비다. 회의의 80%는 준비에 달려있고 나머지 20%는 회의실에서 완성된다. 의제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서 문서를 준비하는 사람은 참석자들마다 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ART5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답이 나온다

독단적인 경영자는 듣지 않는다. 상사는 가르치는 대화보다 배우는 대화로 바꾸고 부하직원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

PART6 회의, 목표가 없으면 결론도 없다

회의를 끝내려면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회의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목표로 정한 일들을 실천할 때 비로소 목표는 달성된다.

Contents

- PART1 답을 내는 회의는 무엇이 다른가
- PART2 회의의 효율이 높아야 답이 나온다
- PART3 회의실에서 대립해야 답이 나온다

※ 키워드 : 회의, 비즈니스 미팅, 업무능력

- PART4 제대로 준비해야 답이 나온다
- PART5 의견을 끝까지 들어야 답이 나온다
- PART6 회의, 목표가 없으면 결론도 없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츠츠이 야스타카 지음 / 북스토리 / 2007 ▶ 833.6 츠85시



석수도서관 류지희

가즈코와 가즈오 그리고 고로는 친한 친구들이다. 어느날 가즈코는 고로, 가즈오와 함께 방과 후 과학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가즈오와 고로가 밖에 나간 사이 가즈코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실험실에 들어간다.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보게되고 실험실로 들어간 가즈코는 달콤한 라벤더 향기를 맡고 의식을 잃는다. 돌아온 고로와 가즈오는 쓰러져있는 가즈코를 보고 양호실로 데리고 간다.

그 후 그녀에겐 시간을 뛰어넘는 타임리프 능력이 생기게 된다. 가즈코는 지진과 화재가 일어날 거라 예언하기도 하고, 폭주하는 대형 트럭에 치일 뻔한 친구를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가즈코는 그런 희한한 능력이 생긴 것이 이상하고 싫기만 하다. 그녀는 불안감에 친구 가즈오, 고로와 함께 후쿠시마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고 타임리프 능력을 사용해 토요일 실험실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실험실로 돌아간 가즈코는 그곳에서 가즈오를 만나게 된다. 그 곳에서의 가즈오는 평소에 알던 가즈오와는 달랐다. 가즈오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였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즈오라는 아이에 대한 추억을 만들고 과거로와 지금의 가즈오로 살았던 것이다. 가즈오는 타임리프로 지금으로 왔고, 다시 미래로 돌아갈 에너지가 없어 과학실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실험을 했던 것이다. 실험실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졌고 가즈오는 미래로 돌아갔다. 바로 그때 가즈코가 실험실 문을 연 것이다. 그래서 가즈코는 에너지를 얻어 타임리프 능력이 생긴 것이다. 가즈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즈코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가즈오는 가즈코에게 좋아한다고 고백 한다. 또한 지금까지 가즈오에 관한 기억은 모두 지워질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즈오의 말에 가즈코는 가슴이 짹 메었다. 가즈오는 꼭 만나러 오겠다고, 미래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희미하게 멀어지는 가즈오의 목소리만 들렸고, 가즈코의 의식은 점점 열어져갔다.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된 가즈코와 미래에서 온 가즈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책이다.

Contents

※키워드 : 타임리프, 시간여행, 미래

■ 타임리프

■ 미래

시간 여행자의 아내



오드리 니페네거 지음 / 미토스북스 / 2006 / 843니894시



석수도서관 오세은

이 책은 유전적인 이유로 시간일탈 장애를 겪고 있는 헨리와 그의 연인 클레어의 이야기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시간여행을 하게 될지 모르는 남자 헨리와 그의 시간 여행으로 인하여 그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된 여인 클레어.

이 둘의 첫 만남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만남은, 마치 외비우스의 띠 같다. 헨리에게 있어, 또 클레어에게 있어 첫 만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자라는 동안 각기 다른 나이로 자신을 찾아오는 이 기묘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실제' 시간대를 살고 있는 '실제의' 헨리를 만나게 될 때까지 미래에서 종종 자신을 찾아오는 헨리를 기다린다. 그렇게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운명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간 여행자의 아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이다. 헨리의 치명적인 장애를 넘어서 헨리와 클레어의 연인으로서의 운명적 사랑, 그리고 결혼이란 과정을 거쳐 가족을 이루는 사랑까지. 시간과 기다림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킨 「시간 여행자의 아내」는 훌어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추어 나가며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에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소설이 가져다주는 의미 이외에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철학과 의학 등 모든 것에서 보여지는 시각들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의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통찰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Author

※키워드 : 시간여행자, 사랑, 기다림

■ 저자 '오드리 니페네거'는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 학사 학위를, 1991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컬럼비아 칼리지 부설 '책과 종이 예술을 위한 시카고 센터'에서 글쓰기와 활판 인쇄, 고급 장정의 책 제작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시간 여행자의 사랑



리처드 매드슨 지음 / 노블마인 / 2008 ▶ 843매27^



만안도서관 김란아

1971년, 서른여섯의 TV작가인 리처드 콜리어, 뇌종양으로 죽음을 목전에 둔, 삶의 방향을 상실한 한 남자가 있다. 콜리어는 차분히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형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낙달 혹은 여섯달 남짓 남겨진 시간동안 여행을 하면서 책을 써보기로 한다. 동전을 던져 어디고 발 달는 곳으로 떠나려던 그는 우연히 머문 코로나도 호텔 역사실에서 한 여인의 사진을 보게 된다. 우아한 얼굴의 엘리스 매케나라는 사랑스런 이름을 가진 여인. 콜리어는 그렇게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75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1896년의 여자와 1971년의 남자. 그는 많은 책과 자료를 통해 배우었던 그녀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와 자신이 언젠가 만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녀와 시간을 초월하여 만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다. 75년이라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콜리어와 매케나의 특별한 사랑 속으로의 환상적인 여행은 그렇게 시작된다.

『시간여행자의 사랑』은 작가 리처드 매드슨이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최고라고 뽑는 작품이다. 리처드 매드슨은 가족과 캠핑 여행을 가다가 잠시 들른 도시의 극장에서 우연히 한 여배우의 사진을 보고 흘린 듯이 사랑에 빠졌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짧지만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썼다. 리처드 매드슨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여 코로나도 호텔에 머무는 동안 제 1부를 썼으며, 실제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주인공의 이름과 직업 등을 설정했다.

비록 출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시간여행자의 사랑』은 라흐마니노프와 존 베리의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사랑은 은하수』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었다. 리처드 콜리어 역은 영화 <슈퍼맨>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가 맡았으며, 엘리스 매케나 역은 TV 시리즈 <닥터 퀸 (Dr. Quinn, Medicine Woman)>으로 유명한 제인 세이모어가 맡았다. 영화 대본은 리처드 매드슨 본인이 직접 작업했으나, 책과 영화의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영화에서는 여러 세부 사항이 더해지고 바뀌었으며 책에 없는 결말도 첨가되었다. 영화와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시간 여행자의 사랑>을 즐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Text

※키워드 : 여배우, 시한부, 작가, 시간 여행

“오늘 밤, 계속 시간 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빌어먹을 점프수트 차림으로 부주의하게 과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1896년에 이런 옷을 입은 나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내일이다. 내일이 거사일이다. 내일이 분명 그날이라고 내기해도 좋다. 내기할 필요도 없다. 이건 도박이 아니니까. 내일, 나는 엘리스에게 간다.”

꾸뻬씨의 시간여행



프랑수아 르로르 지음 / 열림원 / 2013 ▶ 863 틀295꾸



박달도서관 유민정

“당신은 흘러가는 시간에 자유로운가?”

『꾸뻬씨의 시간여행』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고민은 하나, ‘흘러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새로움이 영원히 샘솟는” 시대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것을 쫓느라 애쓰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하며 떠돌아 다니지만, 인생의 충만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에 꾸뻬는 여행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흘러가는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기록한다.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꾸뻬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꿈을 꾼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늦추지도 못하며 끝을 향해 달려만 가는 경험을 한 꾸뻬는 꿈과 시간의 의미를 찾아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꾸뻬는 시간을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젊은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네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어린 꾸뻬, 관습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는 엘레오노르...

이들을 통해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하이데거, 니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철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의 말을 통해 시간과 삶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충만했던 삶이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걸세. 왜냐하면 자신의 생애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운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말일세. 살다보면 자신의 삶을 실수로도 채우게 되는 법이지.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 잘 채우는 거지. 아니, 중요한 건 어떤 순간들을 충만하게 사는 거라고도 말 할 수 있겠지.」 – p.227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 프랑수아 르로르는 말한다. “사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노력에 달려 있다’고 물어가는 것도 문제다. 늘 행복해야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행복해야 하는 게 의무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게으르기 때문이며,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다. 정신과 치료라는 것은 그런 이들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Contents

- 시간은 나에게만 불리하게 흐른다
- 마음속의 느린 시계
- 인생의 모든 순간은 행복이다

※키워드 : 젊음, 시간, 삶, 행복

- 충만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즐겨라

시간 밖으로 달리다



마거릿 피터슨 해딕스 지음 / 보물창고 / 2011 ▶ 843 해28▶



평촌도서관 이 유 림

시간 밖으로 달리다.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보았을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에 일거수일투족을 관광객들이 보고 있다면? 현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법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개되는 판타지 같은 소설이다.

주인공 제시는 1840년의 클리프턴에서 대장장이 아빠와 사람들을 치료하는 엄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엄마에게 지금은 1840년이 아닌 1996년이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된 제시는 일명 「역사보호구역」이라 불리는 클리프턴에서 아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미래 아닌 미래로의 탈출을 시도한다.

클리프턴 밖으로 나온 제시는 모든 것이 두렵고 신기하기만 하다. 전등, 공중전화, 라디오 등등.. 하지만 이런 현실도 잠시.. 클리프턴에 현대 의약품 및 기타 지원이 모두 끊겨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야 하는 제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13살의 나이에 난생 처음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며 결국 형제자매, 친구들을 질병에서 구해내게 된다.

판타지에서도 많이 접해봤을 시간 이동 기법 소설이지만, 19세기와 20세기의 삶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만은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시대를 재조명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주인공인 제시가 10대 어린 소녀로 청소년이 겪을 법한 혼란과 갈등을 소재로 삼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Contents

- 마일즈클리프턴
- 1840년, 1996년
- 역사보호구역

※키워드 : 시간, 공간, 마일즈클리프턴

- 제시
- 디프테리아
- 시간여행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기욤 위소 지음 / 밝은세상 / 2008 ▶ 863 원 55다



평촌도서관

양민월

2006년. 60세의 엘리엇은 독신에 스무 살의 딸을 키우고 있는 유능한 소아전문 외과의사이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의료 구호활동을 하던 중 절박한 상황에서 한 노인의 아이를 치료해 주고 노인에게 감사의 선물로 의문의 알약 10알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다.

1976년. 30세의 엘리엇은 플로리다에서 연인인 일리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묘한 남자와 만나게 된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흡사한 60대의 그 남자는 자신이 30년 후의 미래에서 온 엘리엇이라는 말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진다.

2006년의 엘리엇은 알약을 먹고 잠든 후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난 신비로운 경험을 그저 뒤숭숭했던 꿈으로 치부해 버리려 하지만, 꿈 속에서 흘렸던 코피 자국이 남은 옷과 종이 낱킨을 발견하고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40년 지기 친구인 매트를 만나 캄보디아에서의 일과 알약을 먹고 꾸었던 꿈에 대해 얘기하지만 매트는 엘리엇이 무리하게 일해서 그런 현상을 겪은 것이라 안심시킨다.

알약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60세의 엘리엇은 다시 약을 먹고 잠이 들어 과거의 자신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여전히 미래에서 왔다는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젊은 엘리엇을 설득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그의 아픈 가족사를 들춰내고, 자신이 과거로 온 이유는 사랑하는 연인 일리나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30세의 엘리엇은 미래에서 왔다는 노인이 두고 간 라이터의 지문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여행자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휴가를 얻어 일리나를 만나러 플로리다에 간 그는 그 곳에서 미래의 엘리엇과 세 번째 만나게 되고 이제는 묘한 친밀감을 느낀다. 60세의 엘리엇은 죽기 전에 일리나를 다시 보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게 되자, 더 이상 과거로 오지 않겠다고 젊은 엘리엇에게 말한다.

일리나를 다시 보고 싶어 했던 이유를 묻는 과거의 엘리엇에게 현재의 엘리엇은 일리나는 30년 전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그녀를 죽게 만든 사람은 바로 엘리엇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다. 이후 운명을 바꿔 일리나의 죽음을 막기 위한 과거와 현재 두 엘리엇의 이야기가 긴박하게 이어진다.

Author

※키워드 : 꿈, 시간여행, 라이터

기욤 위소는 1974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태어났다. 2001년 프랑스 문단의 호평 속에 첫 소설 『스키다 마링크』를 출간했으며, 네 번째 소설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세계 22개 나라에서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에 랭크되며 역시 기욤 위소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다시 한 번 리플레이

肯 그림우드 지음 / 노블마인 / 2009 ▶ 843.6 그2983다



어린이도서관 양현미

여기, 수차례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한 남자가 있다. 권태로운 결혼 생활과 숨막히는 직장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던 43살의 뉴욕 라디오 방송국 뉴스 디렉터 제프 윈스턴은 1988년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삶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1963년 5월, 18살의 대학 신입생이 되어 깨어난다.

스蒂븐 킹의 『미저리』를 제치고 1988년 세계판타지상(World Fantasy Award)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만약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 시간을 되돌려 인생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봄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시간여행 소설이다.

제프는 1988년 가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1963년에 대학 1학년생이 되어 깨어난다. 월드 시리즈 우승팀과 켄터키 더비 우승마, 월스트리트 유망 투자 종목을 이미 잘 알고 있던 그는 단시일 내에 부와 권력, 사랑을 얻고 이전 삶에서는 없던 소중한 아이까지 갖게 된다. 그러나 마흔세 살이 되자 또다시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열여덟 살로 돌아가 버린다. 물질적 성공, 낭만적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냈음에도 결국 무(無)로 돌아가 빈손으로 무력하게 다시 출로 내던져지는 제프. 이후 죽음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5년을 주기로 그의 삶은 ‘구간 반복재생’ 되고, 매번 삶이 재생될 때마다 제프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제프는 삶이 반복될 때마다,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식을 얻기도 하며, 퇴폐와 향락에 빠져 지내보기도 한다.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누린다. 그 이후에 과연 무엇이 남는가? 무의미에 대한 회한뿐이다. 아무리 삶을 반복하고 죽지 않는다 해도,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肯 그림우드는 이 책을 통해 무척이나 동양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제프의 삶은 윤회와 닮아있다. 자신이 지닌 운명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벗어나, 영원과 무한의 틈새에 버려진 주인공의 삶은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Author

肯 그림우드는 1944년 미국 앨라배마 주 도단에서 태어났다. 로스앤젤레스 KFWB 뉴스 980 라디오의 조간 편집자로 일할 때 몇 편의 소설들을 집필했고 『리플레이』로 성공을 거두면서 1988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다시 한 번 리플레이』는 1988년 세계판타지상 수상, 아서 C. 클라크 상 노미네이트, 현대 판타지 최고 소설 100선(1988), 데이비드 프링글(David Pringle)의 최고의 SF 작품 소개(1995) 목록에 올랐다.

궁극의 아이



장용민 지음 / 엘릭시르 / 2013 ▶ 813.7 장65-7



비산도서관 김수현

먼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과연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9.11테러로 아내를 잃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FBI요원 사이먼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된다.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날짜는 십년 전 오늘, 10년 전 자살한 한국인 신가야가 죽기 전에 보낸 편지를 받은 것이다. 편지에는 앞으로 닷새 동안 벌어질 연쇄 살인의 예언과 함께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앤리스의 기억 속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일곱 살 이후를 모두 기억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앤리스와 그녀의 딸 미셸 앞에 FBI요원 사이먼이 나타난다. 앤리스와 신가야의 닷새간의 사랑은 신가야의 자살로 끝나 버리고, 앤리스는 과거라는 철창 속에서 갇혀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육중한 몸이 되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자신과 신가야의 딸인 미셸과 함께 살고 있다.

십년 전 온 편지 내용은 현재의 사건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치시키며 편지의 예언대로 세계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들이 하나 둘 살해된다. 용의자는 놀랍게도 십년 전 권총으로 자살한 신가야로 지목되고, 앤리스의 기억을 통해 사이먼은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 조직 ‘악마 개구리’의 실체와 그들이 소유하던 ‘궁극의 아이’가 가진 힘에 대해 알아간다.

10년 전 앤리스의 눈앞에서 죽음을 선택한 신가야가 어떻게 10년 후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지, 또 신가야와 같은 궁극의 능력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사이먼과 앤리스는 그들 각자의 사연과 추억, 이유를 가지고 밝혀내게 된다.

Author

장용민(1969 ~)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국영화아카데미를 수료했다. 원래 영화감독이 되고 싶었던 그는 졸업 후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때 쓴 작품이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이다. 현재 시인 이상의 대표적인 난해시 〈건축무한육면각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1999년 영화화되었고, 더불어 소설로도 발표되어 한국형 팩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특한 소재와 놀랄 만큼 뛰어난 상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키워드 : 예언, 미스터리, 추리

시간 가게



이나영 글, 윤정주 그림/ 문학동네 / 2013 ▶ 아 808.9 보297=53



별말도서관

배성현

‘자신에게 하루에 10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대신 소중한 기억을 잊게 된다면?’

윤아는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열심히 공부만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다. 어느 날 윤아는 영어 학원을 가다 이상한 전단지를 보게 된다.

‘시간이 부족한 분께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가게’ 장난 같은 전단지를 버리고 다시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윤아의 앞에 전단지에서 본 것과 똑같은 건물이 나타난다. 시간 가게가 정말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에 가게로 들어간 윤아는 그곳의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기억을 하나 잊게 되는 대신 하루에 10분간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손목시계를 얻게 된다.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학원에 늦게 된 윤아는 지각을 면하기 위하여 절친인 다현이와의 기억을 대가로 처음으로 시간을 멈추어 본다. 정말로 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 한 윤아는 마치 비밀 친구를 얻은 것처럼 설레인다. 윤아는 그 이후부터 중간고사, 수학경시대회, 영어인증 시험에서 참고서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베끼기 위해 시간을 멈추곤 한다. 윤아는 반칙을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지만 시험을 잘 봐야한다는 압박감과 엄마의 기대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날, 국어시간에 ‘행복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된 윤아는 가족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윤아가 가장 좋아하는 외할머니와의 기억도, 절친인 다현이와의 기억도,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정말 행복했던 추억도 잊게 된다. 고작 십분 때문에 소중한 아버지와의 추억을 잊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윤아는 더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시계가게 찾아간다. 윤아는 가게에서 주인 할아버지의 권유로 이번에는 자신의 시간을 팔고 기억을 사는 시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10분을 팔고 얻게 되는 기억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을 윤아는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기억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윤아. 그제서야 자기자신이 원하는 삶, 자기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윤아는 다시 시간가게를 찾아가게 된다.

Author

※키워드 : 시간, 기억, 자신

저자 이나영은 오랫동안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쓴 책을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읽을 생각을 하니 무척 설렌다고 합니다. 『시간 가게』로 제13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 백

특별기획

2013 ~ 2014

특별기획이란?

매월 시민들의 주요관심사를 파악하여 특별기획으로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 도서에 관한 소개를 제공하여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도서 선정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발굴권수 : 11주제, 총 15권

여 백

2013년 특별기획 목록

월

주 제

1월 ■ 우리집 복을 부르는 풍수이야기

2월 ■ 반려동물, 소유가 아닌 가족입니다

3월 ■ 예방접종, 바로알려드려요

4월 ■ 우리집 텃밭 가꾸기

5월 ■ 함께 만들어 가는 FC 안양

6월 ■ 주말이 기다려지는 안전한 산행

7월 ■ 살림에 보탬이 되는 여름 휴가 TIP

8월 ■ 패션과 나눔의 소통

9월 ■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10월 ■ 네이버에 내가 찾는 정보가 없다면

11월 ■ 당신의 개인정보, 안전한가요?

12월 ■ 얼굴 안에 있는 나의 운명, 관상

2014년 특별기획 목록

월	주 제
1월	■ 살림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노하우
2월	■ 겨울철, 집에서 지킬수 있는 건강수칙
3월	■ 전체복사 안돼요!!! 도서관과 저작권
4월	■ 도서관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4월
5월	■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6월	■ 책과의 즐거운 만남 도서전
7월	■ 문화가 있는 날
8월	■ 워커클릭 대한민국 번아웃
9월	■ 특별함이 있는 이색도서관
10월	■ 2014 가을맞이 대축제
11월	■ 안양 문학을 말하다
12월	■ 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능기부

우리집 복을 부르는 풍수 이야기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기운이 나온다. 불안하고 균형이 깨어져 있을 때는 나쁜 기운이 분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곳은 밝게, 너무 밝은 곳은 그 빛을 감소시켜 주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 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를 순환시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기의 관문이 되는 현관

1. 전신거울은 화분이나 그림으로 절반정도 가린다.
2. 밝은 톤의 정물화나 깔끔한 풍경화는 가장의 출세와 성공을 부추긴다.
3. 신발 정리는 기본이다. 항상 신발장 안에 수납하자.
4. 현관이 좁다면 종이나 풍경을 달아둔다
5. 현관 매트는 밝고 따뜻한 색을, 실내 슬리퍼는 부드러운 청색 계열을 선택한다.
6. 우산 등 잡다한 소품을 늘어놓지 않는다.

주방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책임지는

1. 주방가구는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2. 식탁은 가능한 한 벽에 붙여두지 않는 것이 좋다.
3. 조명이 밝도록 가장 신경 쓴다.
4. 바닥이 따뜻해야 건강해진다. 컬러 테라피를 활용하여 주방 싱크대나 식탁 밑에 연한 녹색이나 황토색 매트를 깔아놓는다.
5. 그릇은 반드시 수납장 안에 정리한다.
6. 조리도구는 싱크대 문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 다만, 동일 디자인의 세트라면 보이는 곳에 통일감 있게 걸어두면 좋다.
7. 양념통은 흙의 기운을 갖는 하얀 도자기 제품을 선택한다.
8. 유리컵은 도자기류와 섞어 수납하지 않으며, 찬장 안의 유리컵은 엎어둔다.



건강과 생명을 다스리는 욕실

1. 침실용 화장실은 문을 닫아두고, 출입문 옆에 난을 놓거나 정면에 붉은 계열의 꽃 그림을 놓아 나쁜 기운을 차단한다.
2. 조명은 밝은 것으로.
3. 소품은 붉은색 계열이 좋다. 붉은색 꽃 화분을 활용해 보자.
4. 욕조·샤워기 등 욕실기구는 녹색이나 하늘색 계열이 좋다.
5. 흰색 수건이 건강을 부른다.
6. 샴푸와 세제 등 소모품들은 한군데 정리하여 수납하고, 선반은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지 말자.

· 거실 금전운과 건강을 책임지는

1. 소파는 현관을 등지고 대각선을 이룬다.
2. 패브릭 소파가 화목을 부른다. 베이지나 연한 갈색이 좋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자.
3. 거실 테이블에 꽃을 장식한다. 테이블 소재는 유리보다 나무가 좋다.
4. 덩치 큰 가전제품(TV, 에어컨)은 창가 모서리를 이용해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TV 위 빈 벽면에는 장식품을 걸지 않는다.
5. 키 큰 스탠드는 가장의 사회활동, 건강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6. 가족사진을 두면 행복이 배가된다.
7. 거실 창가를 꾸며 좋은 기를 받아들인다.



부부의 예정운을 높여 주는 안방

1.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정면에 보이면 안 된다. 또한, 침대 옆이 벽에 붙지 않아야 하며 헤드는 벽에 붙인다.
2. 침대 옆 스탠드가 애정운을 높인다.
3. 침실에는 너무 많은 장식품이나 액세서리는 피한다.
4. 노란색이나 연녹색 컬러가 금전운을 높인다.
5. 행거나 옷걸이는 흉한 기운을 끌어들이며, 외출복은 옷장 안에 수납한다.
6. 가구 위에 짐을 올려놓지 않는다.

· 아이방 성격은 물론 성적까지 좋아지는 공간

1. 현관 좌측 방은 성격이 급하거나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에게 적합하다.
2. 침대는 출입문을 바라보게 배치하며, 침대 앞에 싱그러운 숲 그림을 걸어두면 좋다.
3. 책상 배치는 방문의 대각선 벽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밝은 벽지와 커튼이 좋다.
5. 가구는 원목 소재의 밝은 컬러가 좋다.
6. 책장이나 책꽂이 등은 한군데에 일렬로 늘어놓아 산만하지 않게 한다.



Key point!

- 인테리어 색상은 좌석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 청소는 거울리 하지 않는다
- 필요 없는 것은 리간트 처리한다.
- 천연소재를 늘리면 황기도 상승한다.
- 천연과 천식을 줄여주는 깨끗이 청소한다.
- 꽃과 수풀은 윤기상승의 구세주
- 조명은 밝게

* 좌석 : 현관의 반대쪽 벽을 하나의 면으로 가정했을 때 그 면의 중심 방위

반려동물, 속유가 아닌 가족입니다.

동물 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2013년 01월 0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지역

전국실시

등록대상

3개월령 이상의 개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오지·벽지는 제외)

※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 동물등록제 실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양이는 대상이 아닌가요?

가정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실효성을 검토하여 고양이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등록절차

- 관할시청·구청 대행 지정 동물병원을 확인
 - 반려견과 함께 해당병원으로 방문
 -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 전자칩 등을 시술, 대행 병원에서 신청서를 관할 시청·구청으로 제출
 - 관할 기관에서 동물등록증 교부(동물병원 방문수령, 우편수령)
- ※ 대행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 확인 가능



• 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수수료 2만원
-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



전자칩세트 및 주입기 사진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수수료 1만5천원
- 무선식별장치에 등록번호 기재
- 분실우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예시)

3. 등록인식표 부착

- 수수료 1만원
- 가지고 있는 이름표에 인식표부착
- 분실우려, 무선식별 불가능
- 인식표에 등록번호 및 견주관련 정보 기재

◎ 수수료 감면 대상

1.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2. 50%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 등록 시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2013. 7월부터 반려견 미등록 적발시

- 1차 위반 시->경고
- 2차 위반 시->20만원의 과태료
- 3차 위반 시->40만원의 과태료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동물에 대한 예의: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그들을 위하여
칸 카제즈 지음
책읽는수요일(2011)

동물권리선언: 우리가 동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마크 베코프 지음
미래의 창(2012)



예방접종, 바로 알려드려요



예방접종 알아보기

국가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핵 (BCG, 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Td, Tdap) 플리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플리오 (DTaP-IPV) 총액/유형성이하선염/풍진 (MM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고위험군 대상) 신증후군출혈열(고위험군 대상) <p>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핵 (BCG, 경피용) 일본뇌염 (액트화상백신) B형 혜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A형 간염 페럼구균 (단백결합, 다당질)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수막구균 (단백결합) 대상포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기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간염명	백신종류 및분량	횟수	초생~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14세 만16세 만11세 만12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결핵	BCG (피내용)	1	1회										
B형간염	HepB	3	1차	2회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Tdap	5 1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플리오	IPV	4			1회	2회	3회				4회		
총액 유전성미하선염 풍진	MMR	2						1회			2회		
수두	Var	1						1회					
일본뇌염	JEV (사백신)	5						1~3회			4회		5회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

지원백신 : 10종



지원비용 : 주민등록상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 전액지원

지정의료기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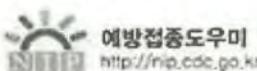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예방접종 도우미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마켓 및 애플스토어에서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사이버홍보관
<http://nip.cdc.go.kr/kidsnip>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표준절차 안내



아기수첩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아기수첩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담당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다음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 받습니다.

SMS 문자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내역 및 다음 접종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보호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아기수첩(예방접종기록 확인용)을 지참하셔서 지정의료 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예방접종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방접종 주의사항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아이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 집에서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옵니다.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옵니다.
-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아이는 데리고 방문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 합니다.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삼갑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 아이는 반드시 똑바로 눕혀서 재웁니다.

이상반응 신고 순정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보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체계 구성 및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공장 편의 서비스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www.minwon.go.kr)”사이트를 통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

예방접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은 그동안 자녀가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다음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예방접종관리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방접종 사이버 홍보관

예방접종을 왜 받아야하는지, 예방주사가 무섭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재미를 느끼게 해줄 사이버 홍보관 (www.nip.cdc.go.kr/nip/kidsnip)이 있습니다.



3. 씨 뿌리기

- ① 잎채소와 같은 작물은 대개 줄 뿌리기하는데 촘촘히 심어서 나중에 속아준다. 촘촘히 심으면 씩이 틀 때 서로 경쟁하여 잘 자란다.
- ② 콩과 같이 큰 씨앗은 살짝 흙을 파고 세 알씩 점뿌리기 한다.
- ③ 흙은 씨앗 크기의 2~3배로 덮어준다. 잎채소 씨앗들은 워낙 작고 상추는 씩이 틀 때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덮는 등 마는 등 하게 흙을 덮어줘도 된다.



모종 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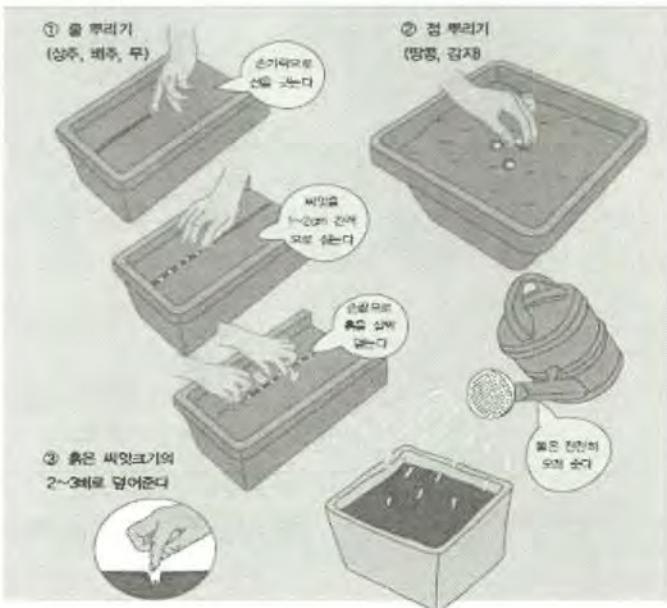
겉도는 모양이라면 아무리 물을 줘도 그 틈새로 금방 빠져 버린다. 그런 경우 상자 통째로 큰 물통에 잠깐 담갔다가 꺼내주면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유기농 채소기르기)
텃밭백과**
박원만 지음 /
2007 / 들판
(525.4 유22텃)

씨 뿌리기



4. 모종 심기

- ① 모종은 '포트'라는 까만 비닐컵에 담겨 있는데 그 컵만큼 크기로 구덩이를 판다.
- ② 물은 구덩이에 가득 붓는다.
- ③ 흙이 떨어지지 않게 포트에 담긴 흙을 그대로 옮겨 심고 모종이 흔들리지 않게 손바닥으로 눌러준다.

5. 물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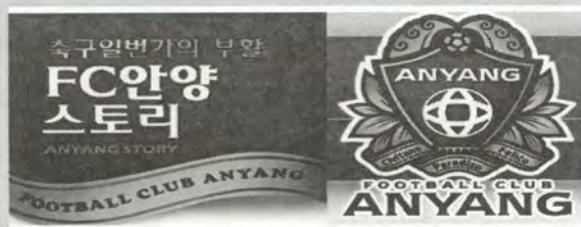
- ① 물 주기는 여러 번 말고 한 번 줄 때 듬뿍 준다. 뜨거운 낮에 물을 주면 열을 뺏겨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침에 물주는 게 좋다.
- ② 언제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를 때 텃밭 상자를 들어서 물이 없었을 때의 텃밭상자의 무게와 비교하면서 물이 얼마나 막랐는지를 가늠한다.
- ③ 너무 말라 흙과 상자 사이가 틈이 벌어져 있어

걸도는 모양이라면 아무리 물을 줘도 그 틈새로 금방 빠져 버린다. 그런 경우 상자 통째로 큰 물통에

※ 자료출처 : 서울그린트러스트(www.sgt.or.kr)



**(도시농부올빼미의)
텃밭 가이드**
유다경 지음 /
2010 / 시골밥상
(523.77 박6619텃)



함께 만들어 나가는 FC 안양

■ FC 안양 스토리

- ◆ 명 칭 : 안양시민프로축구단
(Football Club Anyang)
- ◆ 창 단 : 2013년 2월 2일
- ◆ 리 그 : K리그 챌린지
- ◆ 감 독 : 이우형
- ◆ 연고지 : 경기도 안양시
- ◆ 홈구장 : 안양종합운동장(17,095석)
- ◆ 구단주 : 최대호(안양시장)
- ◆ 서포터즈 : A.S.U. 레드

- 안양을 연고로 한 LG치타스가 2004.2.2 서울로 연고 이전으로 축구팀 사라짐
- 2012. 8. 축구단 창단여론 수렴 실무 절차 논의
- 2012.9.11 창단 신청서 프로연맹에 제출
- 2012.10.10 안양시 의회에서 프로구단 창단 결정
- 2012.10.23.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창립이사회 개최 12명의 이사진 선임
- 2013. 2. 2 FC안양 창단식 개최

■ FC 안양의 상징

역사적 요소	축구적 요소
석수동 마애종	
만안교	축구공 축구단을 상징
문화적 요소	유니폼
안양시 시민구단	안양시 상징
안양시 대표 꽃	안양시의 상징 포도의 색상 보라색(Violet)

엠블렘 소개

에스페란토어

Civitano 시민
Paradizo 낙원
Felico 행복

안양(安養)은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청정한 극락정토의 세계”의 의미를 지님
‘축구를 통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곳이 낙원’이라는 의미를 전달

등번호 12번은 안양시민의 번호로
영구결번

안양시 상징

현재 1,2부
리그 팀 중
유일한 색

안양종합운동장

■ FC 안양 경기일정

일자	시간	홈	원정	장소
3~4월 5경기 일정은 생략				
5.5(일)	16:00	상주	안양	상주시민
5.13(월)	19:00	광주	안양	광주월드컵
5.18(토)	16:00	안양	경찰축구단	안양종합
5.25(토)	16:00	안양	충주	안양종합
6.2(일)	19:00	고양	안양	고양종합
6.6(목)	16:00	안양	상주	안양종합
6.10(월)	20:00	안양	부천	안양종합
6.16(일)	19:00	수원FC	안양	수원종합
6.30(일)	19:00	안양	경찰축구단	안양종합
7.7(일)	19:00	안양	고양	안양종합
7.14(일)	19:30	상주	안양	상주시민
8.3(토)	19:00	안양	수원FC	안양종합
8.11(일)	19:00	안양	광주	안양종합
8.18(일)	19:00	부천	안양	부천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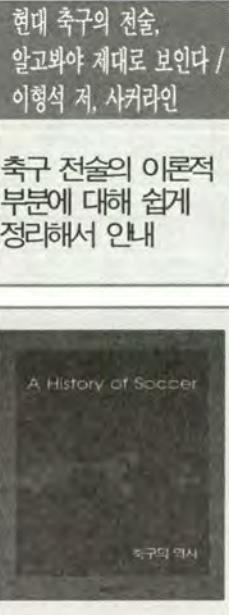
일자	시간	홈	원정	장소
8.25(일)	19:00	충주	안양	충주종합
9.1(일)	16:00	안양	상주	안양종합
9.9(월)	20:00	안양	경찰축구단	안양종합
9.15(일)	16:00	광주	안양	광주월드컵
9.21(토)	16:00	안양	부천	안양종합
9.29(일)	16:00	고양	안양	고양종합
10.6(일)	16:00	안양	충주	안양종합
10.12(토)	16:00	수원FC	안양	수원종합
10.20(일)	16:00	안양	상주	안양종합
10.27(일)	16:00	안양	충주	안양종합
11.3(일)	14:00	광주	안양	광주월드컵
11.9(토)	16:00	안양	수원FC	안양종합
11.17(일)	14:00	부천	안양	부천종합
11.24(일)	14:00	안양	고양	안양종합
11.30(토)	14:00	안양	경찰축구단	안양종합

* 경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경기전 홈페이지 확인 필요

■ FC 안양 주목할 선수

	전 국가대표 남궁도 (등번호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지션 : FW 나이 : 32세 신장 : 186cm 경력고/성남일화 		네셔널리그 득점왕 김영남 (등번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지션 : FW 나이 : 28세 신장 : 174cm 초당대/KB국민은행 		신 유방주 가솔현 (등번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지션 : DF 나이 : 23세 신장 : 192cm 신한고/고려대
--	--	--	---	---	---

■ FC 안양 경기 전에 읽어볼 책

	나는 축구선수다 / 톰 와트 저, 청림 꿈과 열정을 가진 세계 각국 축구 스타 40인의 성장 이야기		현대 축구의 전술,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 이형석 저, 사커라인 축구 전술의 이론적 부분에 대해 쉽게 정리해서 안내	
축구용어 바르게 알기 / 김준영 저, 대한미디어 전 세계에서 쓰이는 축구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기이드북		축구의 역사 / 빌 머레이 저, 일신사 1872년 영국의 챌린지컵에서 시작된 축구의 모든 것		대한민국은 K리그다 / 김현희 저, 이른아침 열정 스토리 가득한 K리그 역사의 정밀 보고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안전한 산행”



산행 요령

- ① **아침 일찍 시작해야**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야 해지기 한 두 시간 전 까지는 반드시 마친다.(하루 8시간 이내)
- ② **보폭은 작게** : 평지를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 (20~25분/km)로 보폭을 작게 하여야 쉬 피로하지 않다.
- ③ **지그재그로** :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지그재그로 걷는 것이 무리를 주지 않으며 부상과 사고를 방지한다.
- ④ **체력에 맞는 페이스로** : 오버페이스는 금물이며, 산행시작한 후 30분 정도에서 첫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 ⑤ **수분 섭취는 충분하게** : 산행 중 수분 부족은 위험하므로 물, 스포츠 음료, 과일 등을 조금씩 천천히 섭취하도록 한다.
- ⑥ **금지구간 준수** : 산행 금지 구간은 반드시 지키며, 항상 지도를 준비하고 보는 습관을 갖는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오던 길로 되돌아 간다.

계절별 산행 요령

- ① **여름 산행** : 비가 오면 계곡은 생각보다 빨리 물이 불어 고립되기 쉬우므로 장마철 계곡 산행은 피한다. 폭우를 만났을 때는 보통 비가 그치고 3~4시간이면 평상 수위로 돌아오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한다. 또한 폭우 시 기온이 급히 떨어지므로 보온을 위한 예비 옷가지를 준비한다. 낙뢰 시는 가장 작은 나무 밑이나 능선 상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것이 좋다. 자세는 몸을 낮게 숙이되, 땅에 엎드리는 것은 위험하다.
- ② **겨울 산행** : 눈길산행은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염두에 두고 오후 4시까진 하산토록 하며, 길을 잃었을 땐 사람이나 동물의 발자국을 찾아 따라가면 큰길과 만날 수 있다. 만약 그것도 불안하다면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고 구조를 요청한다. 빙판, 빙벽을 대비한 아이젠과 발토시, 이른 일몰을 대비한 랜턴 등 장비를 갖춘다. 또한 겨울철 단독산행은 피하고, 최소 3명이상이 좋으며 그 중 경험 많은 리더가 있어야 안전하다



등산에 필요한 차림과 장비

등산을 하기에 앞서 준비할 기본적인 준비물을 소개한다. 최대한 간편한 차림으로 집 또한 가볍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 | | |
|----------|-------|
| - 등산화 | - 스틱 |
| - 등산 티셔츠 | - 점퍼 |
| - 등산 바지 | - 장갑 |
| - 배낭 | - 쿨토시 |
| - 손수건 | |
| - 모자 | |



등산에 필요한 간식거리

등산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운동이므로, 너무 지치기 전 요리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쟁기면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음식을 소개한다.

- 물
- 과일이나 채소(오이, 건조 과일 등)
- 비스킷
- 에너지바
- 초콜릿

안양시 일원 산행코스 – 도심 가운데 우뚝 솟은 작은 금강산 『관악산·삼성산』



도심 가운데에서 장엄한 풍광을 사랑하며 우뚝 솟은 관악산과 삼성산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으며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경기5악의 하나로 꼽혀오는 ‘경기의 소금강’이다.

기이한 모양을 뿐내는 바위들과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폭포와 샘이 곳곳에 있으며, 벚꽃, 철쭉, 단풍, 백설이 계절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그 중에는 충신들이 옛 왕조를 생각하며 망국의 한을 달랬던 연주대와 그림 같은 서해일 물을 감상할 수 있는 망해암, 남녀 성기의 모습을 닮은 삼막사 남녀근석, 자하 신위, 추사 김정희, 우암 송시열 등 많은 문인들이 시를 짓고 암각문을 남긴 자하동·천계곡 등이 대표적이며, 연주암, 자왕암, 불성사, 관음사, 염불암 등 산사와 과천·시흥·향교 등 많이 볼거리가 있다. ... 참조: <경기도 170산에 도전하자>



관악산&삼성산

등산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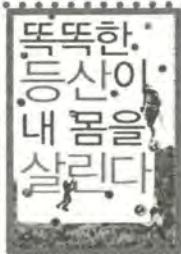


함께 보면 좋은 책



여자를 위한 친절한 등산책

여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예쁜 등산로와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의 비법을 담은 책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

운동생리학이 실험과 데이터로 입증한 등산 건강 바이블



등산 교실

등산장비 사용법에서 고산 적응법까지, 등산인들이 궁금해 하는 등산의 모든 것!



알아두면 좋은 등산 Tip북서의 해를 맞아 준비된 행사와 프로그램에



등산화 선택

- 5~10mm 정도 큰 것을 선택하되 뒷꿈치를 들었을 때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등산화가 꺽여야 하며 발등을 누르지 않아야 한다. 초보자는 미끄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창을 선택한다.



양말 선택

다른 부분보다 발바닥 부분이 두꺼운 것을 선택하며, 긴 바지에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 좋고 짧은 바지에는 무릎 밑까지 오는 것이 좋다.



배낭 꾸리기

가볍고 부피가 큰 것을 아래쪽에 무거운 것을 위쪽에 넣어 무게 중심이 위로 가게 한다. 침낭이나 옷은 밑에, 도시락이나 물통은 위에 놓는다. 특히 물통은 항상 꺼내기 쉽게 한다.



간식 챙기기

갈증을 유발하는 것은 삼가고, 수분과 영분을 보충하여 주며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을 챙긴다. 말린 무화과, 초콜릿, 오이 방울토마토, 사과, 귤, 바나나 등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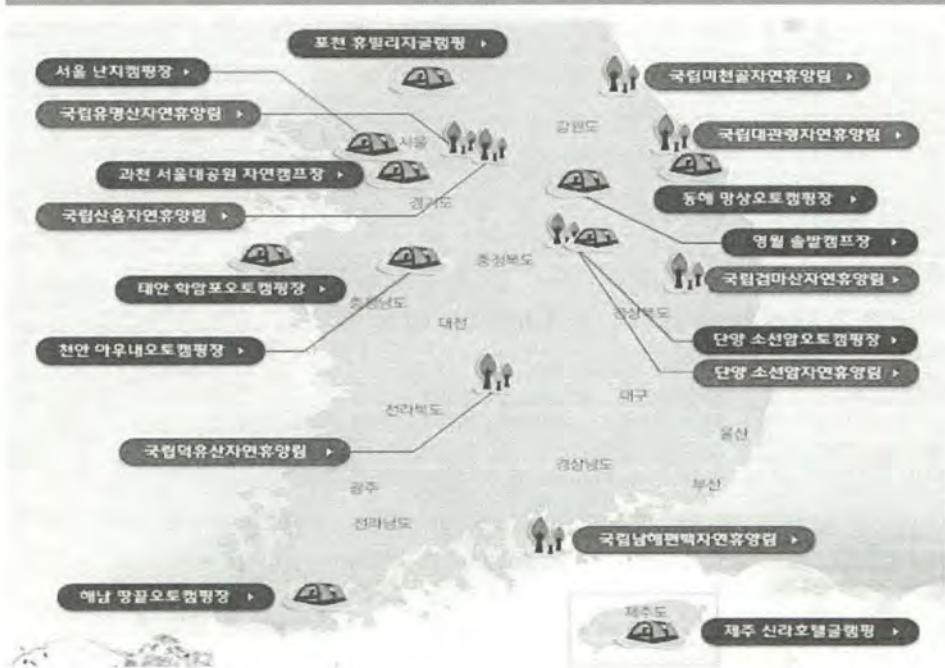
살림에 보탬이 되는

여름휴가 ★TIP★

여행 전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소 알아보기

- '굿스테이' : 한국관광공사가 인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한 펜션, 민박 등의 숙박업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
- '베니키아' :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최초 실시하는 관광호텔 체인 브랜드

부지천천 실속파를 위한 국내 휴양점 & 캠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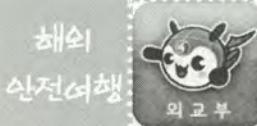
여행자보험 선택 시 꼼꼼하게 파져본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일어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대물 배상한도가 50만원이라도 한 품목 당 최대 20~3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현지에서 도난을 당했을 경우, 경찰서 신고 후 반드시 Police Report를 받아야 이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물품의 구입 영수증이나 면세점에서 확인증을 받아두면 보상받기 수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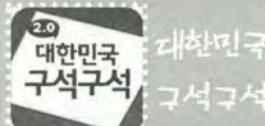
▶ 보험 관련 분쟁 상담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민원상담센터 1332,

보험범죄 신고센터 02)1588-3311

여행에 숨은 스마트폰 App!



해외여행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 재외 국민보호, SNS 간급 통화, 위치 찾기 등



전국 관광 정보 제공



여행용 한국어/영어 양방향 자동통역 앱. 일어 통번역도 지원



전 세계 주요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최저 요금을 조회 및 예약



전 세계 지역별 호텔, 항공권, 식당, 관광정보 안내



항공 마일리지 & 호텔 포인트 쌓기

- **항공 마일리지** : 해당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단순히 여행뿐만 아니라 호텔, 렌터카, 레스토랑의 이용 등에 의한 마일리지 혜택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 단, 마일리지 적립은 카드를 만든 시점 이후에만 가능하다.
- **호텔 포인트** : 대부분의 호텔 포인트는 항공 마일리지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투숙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호텔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도 있고, 각 호텔과 제휴를 맺은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로는 무료 투숙, 항공 마일리지 적립, 쇼핑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 인터컨티넨탈 호텔, 힐튼 호텔, 하얏트 호텔, 스타우트 호텔, 샹그리라 호텔 등이 있다.

저렴하게 항공권 및 숙박 예약하기

- 검색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자

- ①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 'Expedia.com'
- ② 세계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 'Sky Scanner'
- ③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고 싶다면? 'Hotels.com'
- ④ 저렴한 호스텔에서 묵고자 한다면? 'HostelBooker.com'

시제 여행에도 '페어플레이' 가 필수하다!

♥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

(**공정여행** : 여행자와 여행대상국의 국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 '착한여행'이라고도 함)

01 지구를 돌보는 여행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용품 쓰지 않기, 물을 낭비하지 않기

02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직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여행사를 선택하기

03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아동 성매매, 성매매 골프관광 등을 거부하기

0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가이드, 교통시설 이용하기

05 슬리적으론 소비하는 여행 과도한 쇼핑 하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지나치게 깍지 않기

06 친구가 되는 여행 현지 인사말을 배우고 노래와 춤 배우기, 작은 선물 준비하기

07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생활 방식,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

08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여행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여행

09 기부하는 여행 적선이 아니라 나눔을 준비하자.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10 행동하는 여행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

패션과 나눔의 소통

크리스마스 카드 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붙여져 오랫동안 사랑과 따뜻함의 증표로 여겨져 온 크리스마스 셀. 그러나 신세대가 선택한 셀은 따로 있다. 티셔츠 한 장, 신발 한 켤레 하나로 마음 속 깊은 곳 따스함을 표현한다. 구입된 품목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패션·뷰티 브랜드 아이템이 많아졌기 때문. 패션을 뽐내는 동시에 좋은 일도 하는 ‘패션 기부’는 이제 신세대 문화의 한 스타일이 됐다.



패션 기부의 중심, 레드 캠페인



RED는 Revolution(혁명)-Evolution(진화)-Devotion(헌신)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인기 팝 그룹 U2의 리드싱어인 ‘보노’가 주축이 되어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 회사는 인기리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레드 캠페인에 참가했다는 표시로 빨간색 제품을 추가로 제작하고 소비자들이 이 빨간색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기금으로 후원한다. 현재 애플, 모토로라, 갭, 엠포리오 아르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컨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웃돕고 멋내고.. 기부팔찌

선행하면서 멋도 낼 수 있는 기부팔찌가 인기다. 예쁜 디자인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윤리적인 소비라는 점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기부 형태로 자리잡았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팔찌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다. 면으로 된 끈에 구슬과 유니세프 로고가 달려있고, 수익금은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 교육, 위생, 에이즈 퇴치 등의 사업에 쓰인다.

▶ <http://www.unicef.or.kr/shop>



B FRIEND 나눔마켓

<http://befriendmarket.com>



One friend makes life easier to live
친구와 함께 삶을 살기更容易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나눔 마켓.

팔찌, 천환경 비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수익금은 '결식 아동 지원 사업'이라는 타이틀의 결식아동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쌀 지원사업 나누미(*)'를 통해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 방학 기간 동안 쌀과 부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비커넥트' 캠페인은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남아프리카, 캄보디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결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캠페인이다.

Unicef 후원 쇼핑

<http://www.unicef.or.kr/shop>

모자 1개를 구입하면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15명에게 고단백 분말 영양식 한 끼를 제공할 수 있고, 티셔츠 1장을 구입하면 콜레라·설사병으로 인한 탈수증에 걸린 어린이에게 구강수분 보충액을 제공할 수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그 외 카드, 퍼즐 장난감 등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수익금 역시 긴급구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고단백 영양식과 홍역예방백신을 제공한다.



Face Watch

www.1facewatch.com



시계를 사면 기부가 된다!

흰색 시계 1개로 16명의 어린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분홍색 시계 14개로 1명의 여성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은색 시계 1개로 8명의 암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계로 작은 기부를 실천해보자.



읽어볼 만한 책



탐스 스토리 /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 세종서적

신발 할 컬레가 팔릴 때마다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 컬레씩 기부한다는 일대일 기부 개념을 도입한 탐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자.

존경받는
부자들



존경받는 부자들 / 이미숙 저 / 김영사

미국과 한국의 기부와 나눔문화를 비교, 미국 자선사업의 원조들에서 최근의 조지 소ロ스, 빌 게이츠, 테드 터너 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미국의 자산가들의 생각과 활동을 조망했다.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어린시절에 대한 향 키덜트

키덜트란??

키덜트는 kid와 adult의 합성어로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갖가지 향수들을 잊지 못하고 그 경험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하는 성인들을 지칭하며, 최근 성인 소비자들 중 어린이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장난감이나 인형, 캐릭터 소품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키덜트 트렌드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을 어린시절에 대한 회상이나 유머를 통해 해소하는 심리적 테라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이와 같은 취미생활

장난감 자판기 “뽑기”를 아시나요?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꼭 있던 장난감 자판기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어떤 상품을 얻게 될지 설레는 마음은 소니앤젤, 랜덤 레고 등을 통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캐릭터에 대한 관심

어릴 적 좋아하던 미키마우스나 키티 등 캐릭터 상품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즐겨 찾는 상품이다.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피규어 수업시간에 몰래 보던 만화책의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만화캐릭터를 주제로한 다양한 상품과 만화책 수집은 매니아들에게 필수이다.

문구점 불량식품의 기억

불량식품은 학교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던 기억을 아련하게 떠오르게 한다. 이 추억의 식품은 여전히 인터넷 등 여러 가지 경로로 구매할 수 있다.



매니아의 책장



장르문학은 이야기에 대한 몰입과 감동을 추구한다. 옛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며 즐겨왔던 것처럼 오랫동안 대중이 즐겨온 이야기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는 휴식처의 역할이기도하다.

또한 장르문학은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예측 가능 한 줄거리로 다른 분야와의 접목이 쉽다. 대표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연극으로 만들어진 반지의 제왕이나 셜록홈즈가 있다.

SF(Science Fiction)=공상과학 소설

과학을 소재로 추리, 미래에 대한 상상, 사건 등 다양한 형태로 쓰여진 소설이다.

쥘 베른의 “해저 이만리”를 시작으로 웰스의 “타임머신” “투명인간” “우주전쟁” 등이 SF소설의 고전으로 불린다.

그밖에 “파운데이션” “은하영웅전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판타지소설

상상력을 동원해 현실과 다른 무엇을 만들어내는 소설이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시리즈가 대표적이며, 한국 판타지소설은 이영도 “드래곤 라자”를 필두로 “가즈나이트”, “SKT” 등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그 외 일본 판타지소설로 “델피니아 전기” 등이 있다.



무협(武俠)소설

武俠을 주요소재로 다룬 소설이다. 武는 무예, 무술을 가리키며, 俠은 정의 도덕 등의 가치를 뜻하기 때문에 주로 권선징악의 형태를 띤 경우가 많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김용의 영웅문 시리즈, 와룡생의 “군협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무협소설도 많이 나와서 전동초의 “묵향”, 검류흔의 “비뢰도” 등이 유명하다.



추리소설

탐정이나 형사 등이 미스테리한 범죄나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대표적으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시리즈 애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 등이 있다. 그 외에 에도가와 란포, 엘러리 퀸, 에드거 앤런 포 등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들이 있다.



네이버에 내가 찾는 정보가 없다면?

검색

전문적이고 신뢰성있는 생활정보 및 학술정보제공 사이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문화포털
www.culture.go.kr

www.culture.go.kr

문화포털은 문화 소식, 공연전시 정보, 예술지식자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족하고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문화정보 사이트입니다. 주요 서비스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 실시간 문화소식과 전국의 주요 공연전시 정보 제공, 콘텐츠 DB제공, 문화정보에 관한 큐레이터, 테마문화추천 서비스제공, 커뮤니티, 문화홍보서비스, 사회공헌 캠페인과 공연예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추후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유물정보를 연계하여 국가문화유산정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
문화체육/예술/관광 관련정보

티부처/지자체/
민간의 문화/체육/관광 관련정보

민간 기획사 및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전시 정보



정보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앱, Open API 등)

문화체험 및 활용 콘텐츠 공유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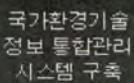
e-KONETIC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www.konetic.or.kr

국가환경정보센터 KONETIC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산업기술정보 포탈사이트입니다.

주요서비스는 전문DB정보 서비스제공, 환경소식 및 시장동향, 환경상식 및 용어 해설, 환경법령, 환경실무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기술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창상
및 환경산업
육성지원



지식공유 정보화
사회 선도



환경기술자의
효율성 제고

학술정보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 NATIONAL DIGITAL LIBRARY

www.dlibrary.go.kr

국내 주요 도서관을 연계하여 원문통합검색이 가능한 국가전자도서관입니다.



www.riss.kr

모바일서비스
<http://m.riss.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학위논문, 학술지, 국내 학술지논문, 공개강의, 해외학술지논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kiss.kstudy.com>



학술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로 학술지, 단행본, 논문, 신문 아카이브 등 1,566,048건의 서지정보를 제공 하며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dbpia.co.kr



전자저널, 논문, 전자책, 웹DB, 참고자료 등 150만건의 학술논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대출회원인 경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sarang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사이트로 육아정보, 보육서비스, 상담실을 운영하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신청,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포탈사이트입니다.

구인, 구직,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모든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정보검색과 학술정보의 활용/최순희/에듀컨텐츠



* 양육솔루션 1,2 / 미셀 보바/물푸레



당신의 개인정보, 안전한가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 또는 제품 구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기업은 고객관리와 마케팅을 위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 개인정보침해를 당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사항이나 권익상담 가능-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정보보호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명예훼손 등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국번없이 118번의 '개인정보노출대응상황실'의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사이트- 개인정보유출진단 인스포랜(www.infoscan.co.kr)- 명의도용방지 SIREN24(www.siren24.com), 사이트체커(www.sitecheck.co.kr)- 한국모바일인증 라이선스비즈(www.kmcert.com)-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엔프로텍트(avs.nprotect.com)	

■ 금융관련 피해라구요?? ><

<p>금융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활 속 '개인정보 피해방지 8계명' 꼭 실천!!회원가입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꼼꼼 살피기비밀번호 영문과 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 설정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안전성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i-PIN) 회원가입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할 경우 이를 즉각 차단하고, 그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인터넷에 올리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 개인정보 파일 저장되지 않도록 함.금융거래시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저장PC방 등 공용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하지 않기
---	---

■ 스마트폰 안전지킴이서비스 'T가드'

◆ SK텔레콤 T가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각종 악성코드와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새로 나온 어플!
SKT 이용자면 누구나 T스토어에서 무료 다운 가능하다.



◆ T가드의 특징 중 하나는 어플 하나로 다양한 보안 묶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것!

이로써 한번의 다운로드로 SMS를 통해 불법 소액결제를 발생시키는 스미싱을 방지해주는 T백신, 휴대폰 분실 시 원격 잠금 및 정보 삭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T파인더,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T트러스트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 보안사고 소식 등도 빠른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전달하여 또 다른 타입의 스미싱 방지도 돋고 있으며, 이를 트위터 등 자신만의 네트워크로 공유해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게 해주는 공유기능 또한 함께 함께하고 있다.

◆ 설마 내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운에 보다 스마트하게 대비해야겠죠??



■ 아는 것이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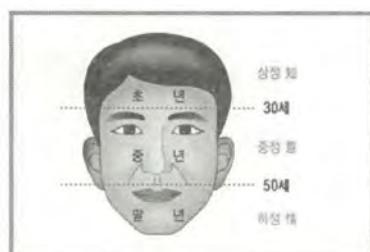


얼굴 안에 있는 나의 운명, 관상

관상은 무엇인가요?

관상이란? 관상은 “생김새를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운명이나 길흉을 판단하는 인상학의 한 분야이다.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은 성격면에서도 일부분이 비슷한 경우가 있다. 이것을 통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 학문이다. 최근에는 얼굴도 마음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운세도 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관상(혹은 인상)은 타고난 얼굴에 자기 자신이 채색을 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재미로 보는 관상



상 정 (上停)	머리카락이 자란 부위부터 눈썹까지	15~30세	부모와의 운세, 두뇌능력
중 정 (中停)	눈썹 아래부터 코끝까지	31~50세	자신감, 대범함, 잠재력, 재산 유무
하 정 (下停)	코끝부터 턱끝까지	51세~	주택운, 가정운, 부하운

귀	귓구멍이 넓고 두껍고 색이 붉고 모양이 뚜렷한 귀. 14세 이전의 운세 판단	금전운, 지적 능력 판단
이마	볼록한 이마는 감성과 지성이 균형잡힌 인상	직업운과 결혼운 판단
눈썹	결이 고르고 성긴 곳이 없으며 끊어지거나 듬성듬성하지 않은 눈썹	가족운, 이성관계 판단
눈	흑백이 분명하며 눈에 빛이 있고 깊이가 있는 눈	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광대뼈	어느정도 튀어나와 있어야 세상살이에 좋음	권력, 신용, 생명력, 저항력
코	살집이 좋고 적당한 길이, 굴곡이 없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코	성격, 금전운, 활력 판단
인증	일직선으로 쭉 뻗은 인증	건강상태, 지식운 판단
입	크고 야무지며 살집이 있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입	건강, 사업운, 자손, 남편운
턱	살집이 풍부하고 둥글게 보이는 턱	성격, 자식· 부모 운 판단

예능에서
종종하는
MC들의
인상학적
공통점



- 제비초리가 있고, 이마와 잘 연결된 긴 코가 있다.
- 귀 연골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
- 코끝 부분이 콧망울보다 내려와 있다.
- 감성적인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 입이 앞쪽으로 돌출된 구조이다.
- 잘 발달된 광대뼈가 있다.

김연아
선수의
인상학적
특징



- 등근 이마와 잔털로 감성이 풍부하여 예·체능에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다.
- 두툼한 눈두덩이는 정이 많고, 강력한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다.
- 눈매가 길고 어미의 끝이 올라가 도전정신이 강하다.
- 콧대가 반듯하고 콧망울과 콧구멍이 둑글어 재물운이 좋은 복코이다.
- 갈매기 입술이라 화술이 뛰어나고 끊임없이 분명하며 허언하지 않는다.
- 동그란 귓바퀴는 조직에 잘 순응하며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

관상으로 보는 성격

아량 있는 얼굴

1. 인당 미간이 도톰하고 넓으면 마음이 풍족하다.
2. 인중 폭이 넓으면 도량이 크다.
3. 뺨이 풍부하면 온순하다.
4. 귀갓이 두터우면 그릇이 크다.
5. 눈 아래 관골 위 부위가 넓고 풍부하면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다.

협조적인 얼굴

1. 눈썹 사이가 떨어질수록 온화하다.
2. 눈이 수평일수록 온전하다.
3. 코끝이 둑글면 싸움을 싫어하는 원만형이다.
4. 직선보다는 등근 눈썹이 화합적이다.

낭만주의적인 얼굴

1. 가는 눈썹은 섬세하다.
2. 큰 눈은 낭만주의자다.
3. M자 이마는 꿈·이상향을 갖는다.
4. 뾰족한 턱은 이상가형이다.
5. 쑥 들어가고 끝이 갈라진 턱은 미래에 대한 꿈이 크다.
6. 일자 눈썹은 목적을 향한 정열가이다.

강직한 얼굴

1. 옆으로 넓은 얼굴의 형상
2. 일직선의 크고 꽉다문 입의 형상
3. 쑥 들어간 눈은 호화로움을 싫어하고 소박한 상이다.
4. 넓고 네모진 턱은 사교성이 부족하다.
5. 인중이 윗입술에서 뾰족하게 내려가면 성실하다.
6. 이마 밑이 쑥 나오면 노력형이다.

관상에 대해 알려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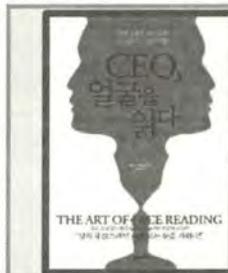
관상 / 이정화 저

관상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는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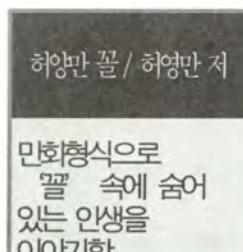


얼굴 경영학
/ 마의천 지음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소개



CEO, 얼굴을 읽다 /
아사노 하치로 저



만화형식으로
꼴 속에 숨어
있는 인생을
이야기함



얼굴경영& 1~4 /
원왕디지털대학교얼굴경영연구소
저

유명인들의 얼굴의
공통점 및 특징을
이야기함



일본 유명 심리학자가
45년간 연구한 얼굴의
심리학



살림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노하우

■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평소에 모아두면 재활용하기 좋은 소품



우유팩

좁은 공간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서랍이나 냉장고 등 물건을 수납해야 하는 공간에 넣어두면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액체로 된 음식물을 담아 냉동고에 보관하는 용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페트병

자잘한 물건을 수납하기 좋다. 페트병 윗부분을 자른 후 자른 부분을 테이핑하고 걸면에 천으로 두르는 등 약간의 꾸밈을 더하면 간단하게 연필꽂이나 믹스 커피 수납통 또는 화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플라스틱 통

상품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용기들 중에 튼튼하고 모양이 예쁜 것이 많다. 입구가 넓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리폼해서 수납함으로 이용하고, 입구가 좁은 용기는 잡곡을 담아두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다.



자투리 천과 단추

자투리 천과 단추는 활용도가 대단히 높다. 천과 단추 자체로도 간단한 섬유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재활용품을 리폼하는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리병

화병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 깨끗이 씻어 바짝 말린 후 가루 재료나 양념을 담기에도 활용도가 높은 용기다. 과일주를 담그거나 장아찌 등 저장 식품을 보관할 때도 좋다.



나무&종이 박스

와인 상자나 종이 박스는 큰 수납함 역할을 할 수 있다. 페인트칠을 하거나 시트지를 붙여 수납함을 만든 다음 책을 담아두거나 현관 앞에 두고 우산 꽂이로 활용한다. 공구함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작은 박스는 자잘한 소품을 보관할 때 사용하면 좋다.

■ 알뜰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식재료 재활용의 세계

다재다능한 쌀뜨물, 이렇게 활용하세요.



쌀뜨물은 각종 냄새를 없애거나 기름기를 빼주어 주방 청소에 유용하다. 반찬 용기나 도마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애는 데 쌀뜨물만 한 것이 없는데, 30~40분 정도 담갔다가 수세미로 문질러 헹구면 냄새가 싹 가신다. 또 쌀뜨물에 들어 있는 미세한 전분 입자가 때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흡착, 제거해주는 성질이 있어 기름기를 제거할 때도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분의 영양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쌀뜨물로 먼지나 유분으로 뿌옇게 얼룩진 유리창이나 거울을 닦으면 깨끗해지고 반짝반짝 광택도 난다.

빨래 삶을 때 사용하면 흰옷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표백제 역할을 하고, 우엉이나 죽순, 토란 특유의 아린 맛을 없애는 데도 탁월하며, 찌개 국물로 활용하면 찌개의 감칠맛을 더욱 살릴 수 있다.

냉장고 속 남은식품, 이렇게 활용하면 좋아요.



1 식빵 → 냉장고 속 탈취제

퀴퀴한 냄새가 나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넣어두면 냄새를 제거해준다. 종이 상자에 식빵을 가지런히 세워 담은 다음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면 냉장고 속 잡냄새를 흡수해 탈취제 역할을 한다.

2 바나나 → 천연 보습 팩

바나나 한 송이를 기간 내에 다 먹지 못하고 남았을 때 팩으로 만들어 얼굴에 바르면 천연 보습 팩이 된다. 으깬 바나나에 달걀노른자와 꿀 한두 방울, 밀가루를 섞어 걸쭉한 농도로 만들어 바르면 된다.

3 사과 껌질 → 그을린 냄비 세척

수세미로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까맣게 탄 냄비를 세척할 때 사과 껌질이 효과적이다. 냄비에 사과 껌질과 물을 넣고 팔팔 끓이면 탄 얼룩이 지워질 뿐만 아니라 냄비가 반짝반짝 깨끗하게 씻긴다.

4 김빠진 콜라 → 세면대 물때 청소

오래돼 김이 다 빠진 콜라는 싱크대와 세면대의 물때를 청소하는 데 요긴하다. 때가 낀 부분에 부어주면서 서서히 때를 불려 묵은 때를 없애준다. 콜라로 축축하게 적신 천으로 싱크대 흡집 난 부분을 닦은 후 깨끗한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주면 흡집이 가려지고 광택도 생긴다.

■ 재활용하기전, 친환경 생활수칙

- ▣ 동네 재활용 센터를 애용하세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온전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냥 버리지 말고 동네 재활용품 센터에 가져가자.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은 어느 정도 값을 쳐주기도 한다.
- ▣ 새 책을 사기보다는 현책을 이용하세요 무조건 새 책을 사서 읽기보다는 집 근처 헌책방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면, 새 책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덜 노출될 수 있고,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나무 수를 줄이는 데도 동참할 수 있다.
- ▣ 정확한 분리수거로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세요 종류별 분리수거는 기본. 용기와 뚜껑의 재질이 다를 경우 각각 분리해서 배출한다. 젖은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 말려서 내놓으면 좋다.
- ▣ 날짜 지난 신문은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과일이나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고자 할 때 비닐 랩보다는 신문지로 싸서 보관한다. 또 기름기 많은 접시나 프라이팬을 세척할 때 먼저 신문지로 닦은 후 설거지하면 세제와 물을 절약할 수 있다.
- ▣ 지구를 생각하는 날을 알아두고 하루라도 실천해보세요 매년 4월 4일은 종이 안 쓰는 날, 4월 22일은 지구의 날, 5월 31일은 바다의 날,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이런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두었다가 작은 것이라도 지구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보자.

도서



겨울철,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수칙

겨울철, 집에서 현명하게 건강 쟁기세요!!

살을 에는 듯한 동장군의 매서운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에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때, 난방을 가동할수록 건조해지는 실내 공기와 주위로 인해 줄어든 활동량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도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

추워도 자주

환기 해 주 세 요 .

둘 .

집 안을 물로 채우 세 요 .

셋 .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을 취해 주 세 요 .

넷 .

개인위생에

신경 써 주 세 요 .

날씨가 추워 움직이기 싫더라도
아침에는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로 건강 지키기!

추운날씨에 실내 난방 온도를 팍팍 올려놓으신 건 아니시죠? 안전한 실내 난방 적정 온도는 18 ~ 20°C로,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정도 창문을 열어 적절히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 중 수증기 부족과 난방으로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적정한 실내 습도 유지 및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피부와 눈이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하니 환기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겠죠?

겨울철 집안은 물, 수분으로 채우기!

난방으로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건조한 실내 공기에 대한 습도 조절과 공기 순환이 꼭 필요합니다.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식물을 키우는 방법도 습도 조절과 산소량에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 행운목, 인도고무나무 등 천연 식물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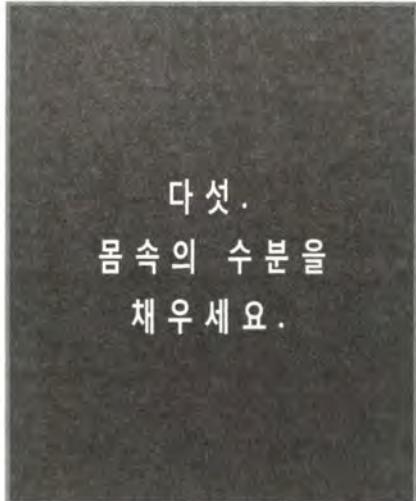
◇ 실내습도 유지요령 TIP!

젖은 빨래(수건) 널기, 물 떠놓기, 물 젖은 속 담아놓기,
화분이나 수경식물 기르기, 토피어리나 어항 이용하기 등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자주 먹고 비타민제도 꼭 쟁겨 드세요. 너무 많은 비타민제도 안 좋지만 적당한건 몸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쉽게 쌓이는 몸이 되죠. 하루에 7~8시간은 꼭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도 음식을 먹은 후에는 3분 이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글로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물로 최대한 입안을 여러 번 행궈 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만 잘 씻어도 모든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간단한 방법 아시죠?



겨울철 피부건조와 변비의 원인. 수분부족

겨울철에는 수분의 배출이 적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활동량도 적어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부는 물론 장까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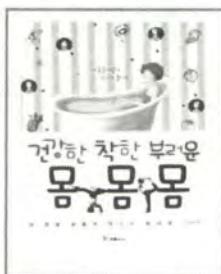
체내에 흡수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체는 피부의 수분부터 보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피부염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고, 변비가 생기거나 악화되며, 소화 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하루 물 권장량인 1.5L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 피부의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20분 정도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10계명

1. 실내외 적정온도를 18 – 20°C로 유지한다.
2. 1주일에 2~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3.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다.
4.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5. 외출 후에는 손발은 물론 양치질도 깨끗이 한다.
6.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채소를 되도록 많이 먹는다.
7.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8. 가습기나 젖은 빨래를 이용해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한다.
9. 땀을 흘린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한다.
10.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 관련도서



건강한 몸 착한 몸 부러운 몸

이진희 저



(가족의 몸을 살리는)

30일 건강습관

KBS생로병사의비밀제작팀 저



손을 씻자

프레데릭 살드만 저



우리가족 건강주치의

이대근 저

전체복사 안돼요!!! 도서관과 저작권

저작권 & 저작권법이란?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의 창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법

도서관에서의 복제 요건은?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셋째, 일부분만을 복제하여야 한다. (최대1/3)

넷째,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여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아니어야 한다. (스캐닝 안 됨.)

보상금 제도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로 출력,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보상금 제도라 한다.

구분	출력	전송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도서관에서는 왜 최근 영화를 상영 안하나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을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 **발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저작물을** 상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소장중인 DVD를 복사해도 되나요?



안된다! DVD, CD 등 디지털 자료의 디지털 복제는 안 된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침해 행위

순번	저작권 침해행위	지속되는 저작권법	적용 죄
1	복사가게에 위탁하여 책을 복사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인용 시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제138조	출처명시 위반
3	저작자 불특 자료를 공개 게재	제30조	자료공개
4	저작자 출판물을 재타이핑 한 후, 인터넷에 게시	제13조	무단게재
5	사진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한 행위	제20조	사전허락 불이행 배포권 침해
6	음악파일의 주소 혹은 소스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링크할 수 있도록 옮긴 경우	제81조	전송권 침해
7	책의 사진 및 표를 스캔하여 그대로 사용한 경우 혹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제137조 제13조	권리침해 부정발행 동일성 유지권 침해
8	콘서트 영상을 직접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경우	제136조 제137조	권리침해 부정발행
9	인터넷에서 허락 없이 복사, 자기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린 경우	제136조	권리침해
10	저작권침해 방지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 타인과 공유한 경우 외국방송사에서 제작한 TV 드라마를 복제 후, 인터넷에서 공유한 경우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 및 삭제
11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여 여러 사람이 제본한 경우	제63조	출판권 양도·제한
12	좋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후 웹사이트, 미니 흡피, 까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제4조 제10조	무단복제 복제권침해 저작권권리침해
13	비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 등을 올리는 행위	제64조	복제권침해 불법행위
14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	제64조	복제권침해 불법행위
15	저작물을 다른 웹사이트, 까페, 미니흡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제64조	전송권침해 불법

* 참고자료 : 홍재현, 도서관과 저작권법, 조은글터, 2011

유양근, 대학도서관 이용자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9 No. 1, [2008], pp. 355-37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저작권 관련 도서



도서관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4월

도서관 주간(4.12~18)

도서관 주간(Library Week) 도서관의 설립 및 도서관 이용자의 증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서관 봉사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KLA)가 1964년 설정한 주간을 말하며, 시기는 매년 동일하게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이다. 1967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번 건너뛴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실시되어 2014년 제50회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전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왔다.

[2014년 제50회 도서관주간]

- ♥ 공식주제 『 도서관!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레는 동행 』
- ♥ 공식포어 1 『 만지작꼼지樂 함께 즐겨요! 도서관 』
- ♥ 공식포어 2 『 365일 당신의 꿈을 향해 도서관이 함께 달립니다. 』



[도서관주간 포스터]



[안양시 도서관의 『2014년도 도서관 주간』 주요 행사]

	평촌	과년도 잡지 나눔 행사(4/14~15)	책갈피 만들기(4/15~16)	매직 북 공연(4/16)
동 안 구	호계	동서양 철학자 책 만들기(4/12)	읽기력의 비밀 특강(4/18)	인형극 (4/18)
	비산	행운을 부르는 파워스피치(4/16)	찾아가는 음악회(4/17)	행복한 가정경제, 신나는 직장생활(4/18)
	어린이	줄인형극(빨간모자)(4/12)	부모와 함께하는 드로잉놀이(4/15)	과년도 잡지 나눔 행사(4/17~18)
만 안 구	석수	'지도에 없는 마을' 최양선 작가와의 대화(4/13)	유쾌한 인문학강의: 세종에게 자녀 독서 교육에 대해 묻다(4/18)	과년도 잡지 나눔 행사(4/16~17)
	만안	'조기자와 함께 하는 시사만만' 특강(4/12)	그림책 서울 원화 전시(4/12~18)	엄마의 그림책 이야기(4/14)
	박달	맛 있는 케이크 만들기(4/12)	멀티동화 상영(4/16)	우수교양도서 전시회(4/1~30)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23)

April 23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World Book & Copyright Day) 1995년 제28회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책이 지식의 전달과 보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해·관용·대화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정하였다. 국제출판인협회(IPA)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안한 「책의 날」에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저작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명칭이 결정되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다.

왜 4월 23일인가? 이 날은 1926년 출판의 중심지였던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한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인 동시에 1616년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서거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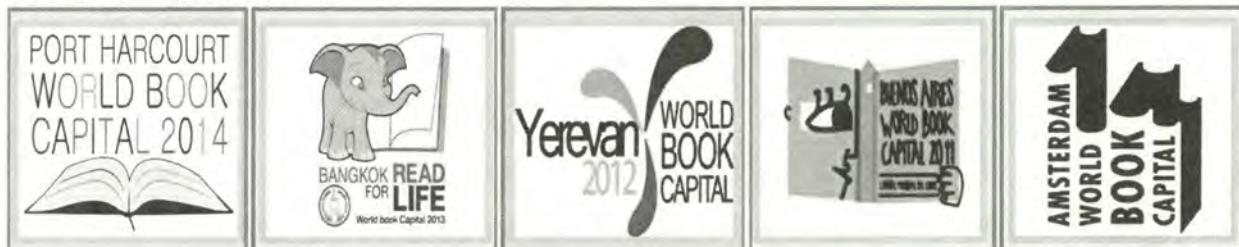
무얼 하나? 전 세계 80개국에서 출판사, 서점, 도서관, 학교, 문화기구, 작가협회 등을 중심으로 도서, 출판, 독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매년 4.23부터 다음해 4.22까지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를 정해 올림픽처럼 다양한 책 관련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유네스코, 한국도서관협회 사이트

[세계 책의 수도]

연도	도시	국가	연도	도시	국가	연도	도시	국가
2001	마드리드	스페인	2006	토리노	이탈리아	2011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2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2007	보고타	콜롬비아	2012	예레반	아르메니아
2003	뉴델리	인도	2008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3	방콕	태국
2004	蒽트워프	벨기에	2009	베이루트	레바논	2014	포트하코트	나이지리아
2005	몬트리올	캐나다	2010	류블라나	슬로베니아	2015	인천	대한민국

[세계 책의 수도 로고]



★ 세계 어린이 책의 날(4월 2일)

세계 어린이 책의 날(ICBD: International Children's Book Day)은 책읽기를 사랑하고 어린이 도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967년부터 유명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생일(1805. 4. 2)인 4월 2일을 국제 아동도서협의회(IBBY)가 지정하였다.

※ 참고사이트 : IBBY



도서관 관련
어린이책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 아카기 간코(달리)
도서관에 간 여우 / 로렌즈 파울리(이퍼블릭)

도서관 아이 / 채인선(한울림어린이)
도서관 생쥐 / 다니엘 커크(푸른날개)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역사 속 첫 귀화 외국인 가야의 허 황후

한국사에 기록된 최초의 첫 귀화 외국인인 가야의 허 황후가 국모가 된지 2천여 년이 흘렀다. 최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140만이 넘을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국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을 만나거나 친구가 되는 일이 어색하지 않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어 배우고 즐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 역사 속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들과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으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역사 속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들



허황옥 (許黃玉, 미상~188, 이명 보주태후)

한국사에 기록된 최초의 첫 귀화 외국인은 삼국시대 초기 가야의 김수로 왕의 왕후가 된 아유타국(인도 고대국가)의 허황옥(許黃玉)이다. 부부가 합심해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한반도에 차 문화, 불교문화를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얀 얀스 웰테브레(Jan J. Weltevree 1595~미상, 한국명 박연)

네덜란드 출신으로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표류되었다. 그 후 조선여자와 결혼해 귀화 하였고 웰테브레이라는 이름도 박연으로 바꾸었다. 인조 때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중국의 홍이포를 제작, 조종법을 연구하고 하멜 일행의 표류 시 통역과 풍속을 지도하였다.



어니스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 한국명 배설)

구한말의 언론인으로 <데일리메일>의 특파원이었다. 그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항일 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196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받았다.



호머 헬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1886년에 내한해 육영공원의 교사로 영어를 가르쳤다. 을사조약 후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후 일본을 규탄하면서 헤이그밀사 파견을 고종에게 건의, 한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메리 스크랜튼(Mary Flectcher Scranton, 1832~1909)

1885년 여성해외선교회의 파송으로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같이 한국에 와서 다음해 여성근대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한국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 설립을 주도하고 여성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에 매진하다 1909년 1월 서울 자택에서 별세,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에 안장되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국악인, 해이만 (앨런 헤이먼)
미국군으로 6·25전쟁 참전했던 그는 당시 태평소 소리에 매료되어 국악을 사랑하게 되었다.
1995년 귀화이후 대학에서 국악을 가르치며 2010년 서애악부(1504) 등을 포함한 희귀고서를 기증하였다. 올해 3월 83세로 타개하였다.



가야금 전도사, 조세린
알래스카가 고향인 미국인 조세린 (배제대 교수)은 일본과 중국에서 현악기를 배웠고 한국으로 와 가야금의 매력에 빠졌다. '가야금의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한국인들이 가야금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 말한다.



한옥지킴이, 피터 발도로뮤
왕립아시아학회 이사인 피터 발도로뮤는 1968년 미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고 한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1974년 한옥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한국문화보호기금의 명예이사로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파란 눈의 판소리꾼, 라이언 캐시디
캐나다 출신인 라이언 캐시디는 '판소리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2년 전 판소리경연대회에서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을 홀륭하게 불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5년 전 한국에 온 그는 판소리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면 한국의 정(情), 흥(興), 한(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뿌리부터 한국인, 인요한
인요한(John Linton)의 고향은 전라도 전주이다. 선교사였던 외증조할아버지가 한국에 머물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그는 현재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의료소외계층의 복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 어린이 의료지원을 위해 사회봉사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속 한국 담은 후지모토 다쿠미
1970년 아버지와 처음 한국에 온 후지모토 다쿠미는 낯설지만 따뜻한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 후 40여 년 동안 한국을 50여 차례 방문하여 전국곳곳을 사진에 담았다. 2011년 그는 평생 찍은 4만 6천여 점의 사진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에 관한 도서



파란 눈의 한국흔
헐버트 / 김동진 지음

누구보다 한국을
시름한 선교사
헐버트의 삶을
이야기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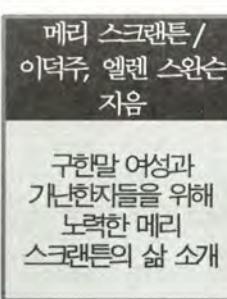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인요한 지음

국제진료센터 소장
인요한의 한국 사랑을
담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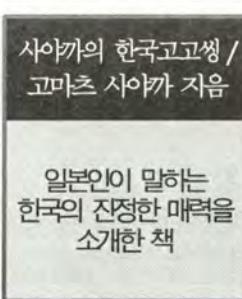


마틴씨
한국이 좋아요?
그렇게도 좋아요?
/ 마틴 메이어 지음



메리 스크랜튼/
이덕주, 엘렌 스완슨
지음

구현말 여성과
기난한자들을 위해
노력한 메리
스크랜튼의 삶 소개



일본인이 말하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소개한 책



여러 나라를 거쳐
한국에 살게 된 저자의
한국사랑 이야기

책과의 즐거운 만남 도서전

2014 서울 국제도서전 (6.18~6.22)

서울 국제도서전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서 전시전이다. 1954년 서울도서전으로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국제도서전이 되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제 규모로 확대된 이후, 1996년 '세계로 가는 길, 책 속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도서전은 국제출판협회(IPA)로부터 공식으로 인정받아 세계 28개 국제도서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한국 출판의 세계화, 출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정착, 국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목표 아래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로 해마다 한국종합전시장(COEX)에서 열린다.

도서전시회 이외에도 각종 강연회, 저자와의 대화, 작가 사인회 등의 부대행사가 해마다 기획된다.

※ 참고자료 : 두산백과

[2014 서울 국제도서전]

● **기간** 2014.6.18(수) ~ 6.22(일) (5일간)

● **장소** 서울 코엑스

● **표어**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꿈꾸는 미래』



[서울 국제도서전 포스터]



[2014 서울 국제도서전 주요 프로그램]

저자와의 대화	인문학 아카데미	북멘토 프로그램
6.18(수) 조정래 정글만리1	6.18(수) 강창래 책의 정신	6.19(목) 정은숙 편집자
6.19(목) 김종광 왕자 이우	6.18(수) 진중권 미학오디세이1	6.20(금) 조선희 사진작가
6.20(금)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6.19(목) 김경집 인문학은 밥이다	6.21(토) 이상희 그림책작가
6.20(금) 성석제 이 인간이 정말	6.21(토) 박영택 애도하는 미술	※ 프로그램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 국제도서전> 홈페이지 참고
6.21(토) 신경림 사진관집 이충	6.22(일) 김영수 완역 사기 본기2	

런던도서전 London Book Fair



런던도서전(London Book Fair)

매년 4월경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 도서전시회. 1971년 런던의 한 호텔 지하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된 런던 도서전은 2014년 제43회를 맞이했으며 전 세계 2만 5천여 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시회이다. 일반 독자들에게 개방해 도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다른 도서전들과 달리 런던 도서전은 출판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런던도서전 주요 행사]

- 마켓포커스(Market Focus) : 한 국가 또는 문화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
- 오늘의 작가(Author of the Day) : 전시회 기간 동안 하루에 한 작가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프로그램
- 테크 센트럴(Tech Central) : 출판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 참고사이트 : 네이버 지식백과

[2014 런던도서전 마켓포커스 : 한국]

기간 : 2014. 4. 8 ~ 4. 10 (현지기준)

장소 : 영국 런던 얼스 코트

런던도서전 참여 한국 작가 10인(소설가 황석영, 이문열, 이승우, 김인숙, 신경숙, 김영하, 한강, 시인 김혜순, 아동문학 작가 황선미, 웹툰 작가 윤태호)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영국과 해외 독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볼로냐아동도서전 Bologna Children's Book Fair



볼로냐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전시회. 196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도서전에서는 볼로냐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과 볼로냐 뉴미디어상(Bologna New Media Prize)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출품작 중 작품성이 우수한 책에 주어지는 볼로냐 라가치상은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누어 각각 유아(0~5세), 아동(6~9세), 어린이(10~16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2000년부터는 '어린이에게 예술세계를'이라는 모토 아래 제정한 '새로운 예술상(New Art Award)'과 문학성이 풍부한 제3세계 아동문학작품에 주는 '새로운 지평상(New Horizons Award)'의 두 가지가 라가치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1997년부터 시행된 볼로냐 뉴미디어상은 어린이용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책과 멀티미디어의 건강한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 참고자료 : 두산백과

서울국제도서전
「저자와의 대화」
관련 도서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이란?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 1,300여 곳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주요 혜택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주요 영화관 할인
저녁 6~8시 관람료 할인 (8천원 → 5천원)

■ 공연 ■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할인

■ 문화재 ■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관람

■ 스포츠 ■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부모가
동반 입장할 경우 관람료 50% 할인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할인 및 무료

■ 기타문화공간 ■

거리공연, 프리마켓, 재능기부, 작은 운동회 등
참가

지난 주요행사

2월 26일	3월 26일	4월 30일	5월 28일	6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나는 역사 콘서트》 연극과 영상, 문화와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낭독 콘서트. 무료관람 / 국립현대미술관	《한지공예》 박물관의 밤, 흥과 멋을 만나다는 주제로 하는 한지공예 체험. 야간운영 / 국립민속박물관	《오르세미술관전》 근대 파리의 사람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미술전시회. 야간개장 및 관람료 할인 / 국립중앙박물관	《세월호 추모공연》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는 추모 음악회 개최 / 안양 평촌아트홀	《이야기가 있는 도서관 음악회》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즐기는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음악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런 곳에서 즐길 수 있어요

시설명	참여내역	홈페이지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시니어(만55세) 동반 시 관람료 할인	www.ayac.or.kr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기획전 무료관람, 9시까지 야간개장	www.mmca.go.kr
한국카메라박물관	입장료 50% 할인	www.kcpm.or.kr
덕소자연사박물관	입장료 50%, 체험료 10% 할인	www.duksomuseum.com
부천 로보파크	입장료 50% 할인	www.robopark.org
국립서울과학관	입장료 무료	www.ssm.go.k
테마동물원 ZOOZOO	입장료 할인	www.themezoozoo.or.kr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입장료 무료	www.sonagi.go.kr
포천 국립수목원	입장료 무료	www.kna.go.kr

※ 자세한 지역별 문화시설과 최신 할인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www.culture.go.kr/wday를 참고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200% 즐기는 방법

하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한다. 매달 기관에 따라 행사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검색은 필수!

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후 쟁겨가기!

셋. 재능기부, 프리마켓 등 직접 참여를 통해 나만의 문화가 있는 날 만들기!

문화생활은					
	영훈의 미술관 /알랭 드 보통	뮤지컬 A to Z /한소영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신동현	아빠가 알려주는 문화유적 안내판 /구완희	프로야구 스카우팅 리포트 /유효상 외
이런 책과 함께					
	우리 도자기 /김기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 /이한상	체험 나들이 /서진석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조던 매터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책 /김영숙

워커홀릭 대한민국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이란?

Burnout

번아웃 증후군은 현대 사회의 탈진증후군이나 연소증후군을 뜻하는 신조어로 어떤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이 실현되지 않을 때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쌓였을 때 나타난다. 수면장애, 우울증, 인지능력저하 등의 질병 유발 그리고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워커홀릭 대한민국

워커홀릭
대한민국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2013년 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 일평균 10시간 30분 매일 야근, 특근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때는 퇴근길(30%), 아침에 눈뜰 때(25.5%)
잠자기 전(16.1%), 아침 출근길(14.7%)
야근과 회식을 할 때, 회의시간 등으로 나타남

테스트 5단계

테스트
5단계

- 1단계 아침에 눈 뜰 때 자신이 근사하다는 마음이 드는가?
- 2단계 기억력이 옛날같지 않고 깜박깜박하는가?
- 3단계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요즘엔 짜증나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가?
- 4단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가?
- 5단계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은 무미건조하고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 이 단계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예방 및 극복법

예방 및
극복법

1. 나만의 직장생활 즐거움 찾기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라도 회사를 가야하는 즐거운 이유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친하게 지내는 동료와 매주 같은 날 점심을 먹는다거나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두고 돌보는 것이다.

2. 과도한 업무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과도한 업무목표의 설정은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길어지게 해 본인의 한계를 벗어 나게 한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잡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한 후 나에게 살맛나는 휴식을 주는 것이다.

3. 회사 내 동료 또는 멘토를 두어 대화하기

"일이 힘든 것은 버틸 수 있어도 사람이 힘든 것은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있다. 일이 힘들 때 주변의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고민해 줄 동료 혹은 고민 상담을 해 줄 멘토를 만들어 보자. 대화를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번아웃 증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운동 등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하기

집에 누워만 있지 말고 독서, 사진, 영화모임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은 시간에 쫓겨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은 우리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번아웃' 을 '스트레스 아웃' 으로 만들어주는 도서



(문요한의) 마음청진기
/ 문요한 지음

마음의 허기와 풀리지 않는 인생문제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책



(행복의 중심) 휴식
/ 울리히 슈나벨 지음

지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응원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시켜줄 휴식이 필요하다

윤대현의 마음성공
/ 윤대현 지음

열심히 일할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당신을 위한 심리학을 담은 책



보어아웃 /
필리페 로틀린 지음

스트레스와 지루함으로 직장에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보고서



특별함이 있는 이색 도서관

예술 자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은 예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예술창작과 연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예술기록보존 전문기관으로 1979년 이래로 우리 예술 현장의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있다.

▶ 서초동본원

서초동 본원은 음악, 미술기록·자료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도 한국예술 기록·자료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문헌정보실, 영상자료실, 영상감상실, 기증자료실 및 보존 자료실을 운영하여 다매체의 예술콘텐츠를 예술인과 관련 애호가들에게 제공함.

▶ 대학로분원

대학로 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가의 집”에 자리하여 예술인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돋고 수집자료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연극과 무용장르에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knaa.or.kr/>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실



영상자료실은 영화연구자 및 영화애호가들이 영화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멀티미디어 전문도서관이다. 한국 내에 출시된 모든 영화 관련 DVD(Blu-ray, VHS 포함) 23,500여 점, 도서 6,600여 권과 논문 2,500여 점, 시나리오 9,800여 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고전영화 1,800여 편 및 독립영화 1,800여 편의 자체 VOD와 시나리오의 원문 16,900여 건 열람 및 출력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또한 영화를 보는 것 뿐 아니라 영화를 들을 수 있는 OST 감상석도 마련되어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즐거운 공간을 갖추었다.

▶ 홈페이지 : <http://library.koreafilm.or.kr/>

만화도서관



한국만화도서관은 2009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현재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하면서 한국만화박물관과 함께 '복합 만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박물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만화도서관은 일반열람실, 아동열람실, 영상열람실 그리고 친구, 연인, 가족끼리 함께 만화를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픈라이브 러리 '꿈바라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도서관은 자료열람서비스 외에 만화를 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은 하지 않는다. 국내 만화책 전수를 수집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재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재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화도서관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더불어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만화 체험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매년 8월 개최되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수많은 만화 애호가들과 가족 관람객들이 참여해 만화 축제를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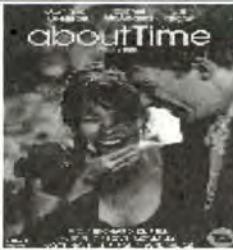
▶ 홈페이지 : <http://www.comicslib.org/>

식문화 전문도서관



농심 식문화전문도서관은 음식문화 관련도서 20,000여권을 보유한 전문도서관이다. 고전소설이나 고문헌 속에 기록된 전통 음식에 대한 자료에서부터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문화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아 각종 식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 : <http://library.agroheart.co.kr/>

이색도서관 소장 자료는?				
어바웃 타임 / 영상도서관	취 / 한국만화도서관	마음 사진을 찍다 / 예술자료원	과실주 과실초 / 식문화 전문도서관	



2014 가을맞이 대축제



가을의 진면목 “단풍축제”



▣ 구리 한강 코스모스 축제

- 시기 : 2014.10.3(금)~5(일)
- 장소 : 구리한강시민공원(구리시 토풍동 883-2)



▣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 시기 : 2014.10.11(토)~12(일)
- 장소 : 산정호수 및 명성산 일원
- 주최/주관 : 포천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조직위원회



▣ 순천만 갈대축제

- 시기 : 2014.10.17(금)~19(일)
- 장소 : 순천만정원, 순천만, 도심권 일원
- 주제 : 순천만 갈대愛, 순천맛을 느끼다!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 시기 : 2014.10.24(금)~11.2(일)
- 장소 : 익산 중앙체육공원
- 주제 : 꿈과 행복이 있는 익산국화축제



▣ 장성백양단풍축제

- 시기 : 2014.10.31(금)~11.2(일)
- 장소 : 국립공원 백양사 · 백양사 일원
- 주제 : 백암산 애기단풍의 오색향연



불거리 가득 “불꽃·문화축제”



▶ 진주남강유등축제

- 시기 : 2014.10.1(수)~12(일)
- 장소 : 진주남강 일원 · 진주성 내
- 진주에서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다.



▶ 수원 화성문화제

- 시기 : 2014.10.8(수)~12(일) / ※ 전야행사(10.07)
- 장소 : 연무대광장(창룡문), 화성행궁 광장, 수원화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고,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사상의 산물인 화성 축성의 의미를 기리는 전국 최대의 문화관광축제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거리축제”



▶ 횡성한우축제

- 시기 : 2014.10.1(수)~5(일)
- 장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섬강 둔치일원
-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고, 백성의 편안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오던 "횡성 태풍문화제" 의 명칭을 변경하여 2004년부터 새로운 목표와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축제이다



▶ 강릉 커피축제

- 시기 : 2014.10.2(목)~5(일)
- 장소 : 강릉실내종합체육관 외 강릉 일원
- 커피 도시로의 신나는 여행으로 올해에는 <제6회 강릉커피 축제>를 개최한다. 강릉을 커피도시로 만들기 위한 축제로 강릉에 자생적으로 발달한 커피명가들과 자연적인 조건의 조화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안양 문학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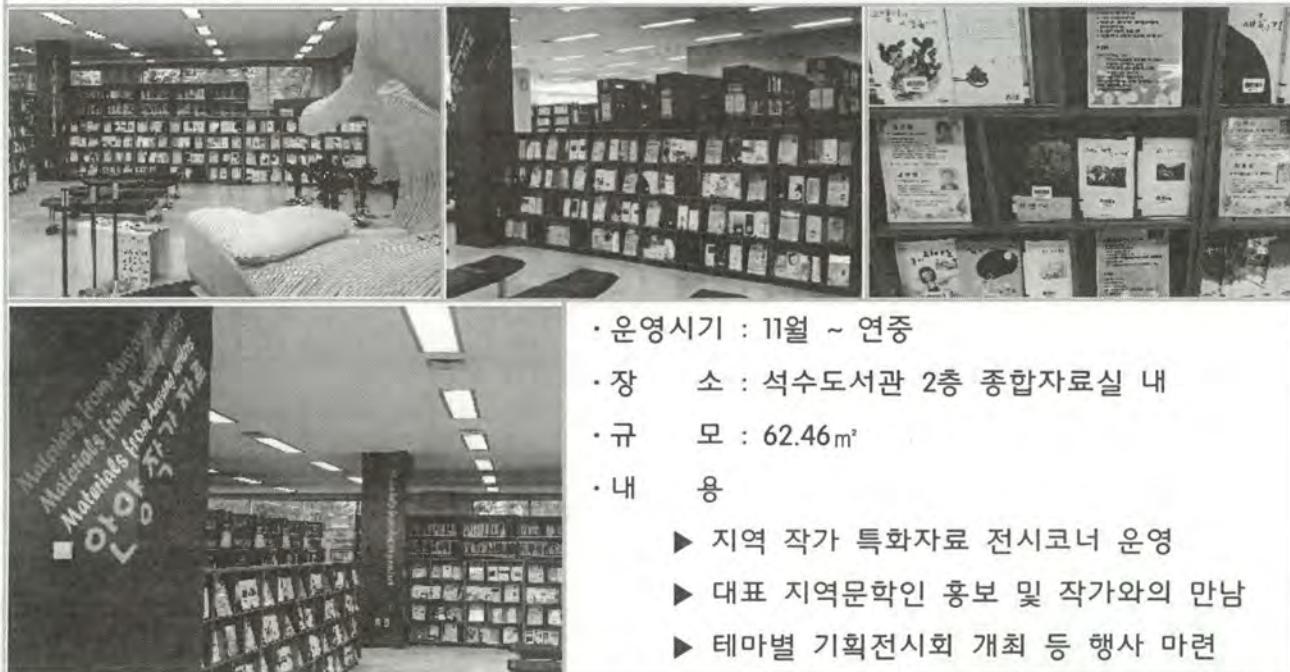
지역 문학의 산실, “안양 작가 특화자료실”

지역 문화 보존 및 소통의 장

안양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발간한 작가들을 다수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 동안 지역문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석수도서관에서는 “안양 작가특화 자료실”을 운영하여,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공간으로 우리 안양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보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고, 신진작가의 발굴기회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안양작가특화자료실 내부 전경



- 운영시기 : 11월 ~ 연중
- 장 소 : 석수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
- 규 모 : 62.46m²
- 내 용
 - ▶ 지역 작가 특화자료 전시코너 운영
 - ▶ 대표 지역문학인 홍보 및 작가와의 만남
 - ▶ 테마별 기획전시회 개최 등 행사 마련

지역 문화기반 활성화에 기여

현재 우리 안양을 대표하는 김대규, 정귀영, 배준석, 홍미숙 등 70여 명의 200여 권의 권의 작품이 전시 중, 열람이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의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이 추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 환경을 제공하는 문화의 장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안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학단체 및 동아리”

◇ 안양문인협회(한국문인협회안양지부)

- 1947년 '안양문학동인회'로 출발, '시와시론' 동인을 거쳐 1975년 협회 인준
- 1990년부터 매년 '안양문학' 발간 및 시화전, 시낭송대회 개최

◇ 글길문학동인회

- 1981년 근로문학상입상자 동인으로 출발
- 문학지인 '근로문학(1981)'을 시작으로 '글길문학'으로 40집, '글지' 235호 발행

◇ 문향(文香)동인회

- 1996년 동안구청 문학창작교실 주부모임에서 출발, 1997년 동인회 결성
- 첫 동인지 '지도에도 없는 섬은 찾아서'를 시작해 현재 16집 발간

◇ 안양여성문인회(화요문학회)

- 1978년 '안양여성 문우회'로 활동 시작하여 1991년 개칭
- 1982년부터 각종문예지, 대회를 통해 30명이 등단했고 동인지 '화요문학' 매년 발간

◇ 안양여성문학회

- 1993년 동안구 여성백일장 입상자로 시작해 1999년 '안양여성문학회' 결성
- 2007년 첫동인지 '안양시학' 발간. 작가와의 대화 및 제4회 안양공공프로젝트 참여

◇ 안양수필문학회

- 2003년 동안여성회관수업 참여자들이 결성
- 2004년 수필창간호 '마음의 내시경'을 시작으로 현재 8집까지 발간

◇ 토요수필문학회

- 2007년 평촌도서관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시작된 직장인 동아리
- 2008년 '토요수필' 창간호 시작으로 6집까지 발간. 문학답사와 수필사진전 등 행사 개최

◇ 문학산책문인회

- 1996년 문예지 '문학산책' 신인상수상 시인, 수필가로 구성
- 2004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아홉 번째 사화집 '이정표' 발간

◇ 문학이후

- 1996년 '문학산책'을 시작으로 35호까지, 2011년 문학이후로 변경 후 41호까지 발간
- 우리나라 최초 순수 여성 문예지

안양작가 특화자료실 소장자료

나는 가을 공부 중 이다 / 김대규	불 / 정귀영	역사의 길목에서 세월을 줍다 / 정동수	동찾아가세요 / 권오삼	접신 / 배준석	왕곁에 잠들지 못한 왕의 여인들 / 홍미숙

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능기부

재능기부란?

재능기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이다. 즉 개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가 새로운 기부문화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재능기부에 대해 알아보자.



슈바이처 프로젝트 - 의료, 보건, 건강과 관련된 분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스포츠마사지, 수지침, 이혈, 발마사지 등의 의료활동이나 의료활동을 위한 후원, 보건·의료활동 보조, 대체의학요법, 보건위생, 응급처치 등



오드리 햅번 프로젝트 - 문화 예술 관련 분야

예술가, 문화관련 프로그램 제공, 전시·관람 등 기회제공, 사진·영상, 디자인, 미용, 메이크업, 마술, 모델, 환경 캠페인 등



마더 테레사 프로젝트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 봉사 및 후원, 독거노인 어르신 돌봄, 그룹홈 쉼터 지원 등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 분야

결연, 상담, 멘토, 독서 학습지도, 법률 · 금융 · 세무 · 회계교육 기회 제공, 장학지원, 심리상담 등



헤라클래스 프로젝트 - 체육, 기능, 기술 관련 분야

체육활동 및 교육, 집수리봉사, 운전, 배송, 엔지니어링, 기술제공 및 자문 등

재능기부 실천사례

▶ 잡지 '빅이슈'

주거취약계층들에게 잡지를 판매할 권한을 주어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는 잡지로,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와 재능기부자들이 잡지를 제작해 주거취약계층을 도와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 삼성 재능나눔 프로젝트 'Gift for you'

삼성에서 진행하는 재능나눔 프로젝트로, 삼성의 임직원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직업 멘토링을 하거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 아름다운 가게

중고물품을 기부하고 손님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가게'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가게가 운영이 된다.



재능기부, 어디서 시작할까?

▶ 한국 자원봉사협의회 '재능을 나눕시다' 프로젝트 (<http://volunteerkorea.or.kr/>)

1992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능기부 프로젝트

▶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 (<http://www.acatdh.com/>)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준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조직을 갖춘 재능기부 비영리단체

재능기부 관련 도서



나눔 혁명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의 지속 가능한 삶에 관한 고찰을 담은 책



수많은 이들이 재능 기부를 한 태안 앞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국민이 스스로 주인으로서 책 임지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부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책



KOICA 단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봉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도서

이달의 추천도서란?

8개 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매월 어린이 및 일반 도서를 각각 4~5권씩 추천하여, 신간도서 및 관심 있는 도서의 간략사항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독서정보 발굴권수 : 일반도서 220권, 어린이도서 240권 총460권

여 백

1월의 추천도서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

문화

나희덕 외 역음 | 도서출판b | 2012

현역 시인 63인이 스스로 선정한 자신의 대표시 1편과, 그 시의 창작 과정 및 배경을 밝히는 신작 에세이 1편이 짹을 이루어 수록됐다. 신예부터 광재구, 도종환, 문정희 등 유명 시인까지, 다양한 경향과 시세계를 보여주는 시인들을 망라하고 있다. 당대 한국시의 흐름과 시인 특유의 감성과 개성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책.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문화

로버트 A. 하인라인 지음 | 황금가지 | 2009

SF 3대 거장으로 꼽히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대표작. 2075년 지구의 식민지로 전락한 달은 지구민들의 수탈과 총독부의 압제로 고통받는다. 달 거주민인 마누엘은 총독부에 대한 반란 계획에 휩쓸린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사색적인 문체 속에 담긴 자유와 인간 해방의 메시지는 히피즘을 비롯, 저항계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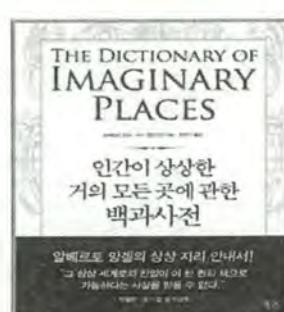


연애의 시대

사회과학

권보드래 지음 | 현실문화연구 | 2003

'연애'와 '연애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1920년대 조선의 풍속도를 들여다보는 책. 1920년대의 신문 및 잡지 기사, 연재소설, 삽화, 광고 등 풍부한 당대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유행과 문화를 살핀다. 막연히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로만 생각되었던 1920년대가 사실은 연애열을 비롯한 각종 열기로 들끓고 있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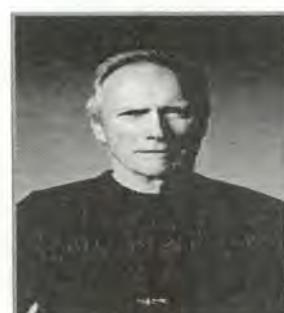


인간이 상상한 거의 모든 곳에 관한 백과사전

총류

알베르토 망겔, 자니 파달루피 지음 | 궁리 | 2013

문학을 비롯해 영화, 음악, 오페라 등 500여 작가들의 760여 개 작품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장소를 소개했다. 아틀란티스, 톨킨의 미들어스, 바스커빌 저택, 하루키의 세계의 끝 등 1300여 곳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단순한 지명사전을 넘어 그 장소들의 지리상 위치부터 지형, 생태, 역사, 사회, 제도, 풍습 등까지 망라하고 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 거장의 습격

예술

클린트 이스트우드 지음 | 마음산책 | 2013

단역 배우로 시작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배우로 서더니, 연출과 제작, 영화음악까지 영역을 넓히며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쌓아올린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가 자신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한 24편의 인터뷰를 모았다. 인생의 후반부에 다다른 거장 감독이 그만의 영화 철학을 어떻게 완성해왔는지 편안한 대화체로 들려준다.

1월의 추천 도서



논다는 것

이명석 지음 | 너머학교 | 2012

청소년

삼촌이 조카에게 건네는 듯한 친근한 말투로 '놀이'에 대해 고찰하는 책. 고대로부터 유구하게 내려져 오는 인류의 놀이 문화를 살펴보고, 놀이가 곧 인생과 세상의 축소판임을 알게 해준다. '열공'의 감옥에 갇힌 십대들과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진 어른들은 이 책을 읽으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말 안하기 게임

앤드류 클레먼츠 지음 | 비룡소 | 2010

아동

남자아이들의 대장인 데이브는 간디를 본받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여자아이 대장인 린지의 수다를 듣다못해 남학생 대 여학생의 침묵 대결을 제안한다. 이 대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당황해하고 교실마다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어린이문학 작가인 저자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이금이 글 · 이영림 그림 | 보물창고 | 2008

아동

갓 입학한 은채가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표제작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를 비롯하여 학급에서 돈이 사라지는 사건으로 인한 아이들의 불안을 그린 '주운 사람이 임자' 등,갓 입학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렸다.



에밀리

マイ클 베다드 글 · 바버라 쿠니 그림 | 비룡소 | 1998

유아

'이것은 시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일 뿐이란다. 시는 바로 너야.' 19세기 미국의 매사추세츠 암허스트에서 은둔했던 시인 에밀리 디킨슨과 한 소녀의 따뜻한 우정을 그렸다. 아름다운 문장과 서정적인 그림 속에, 아이가 삶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그리고 어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의 세계가 영롱하게 수놓아진다.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국제앰네스티 글 · 존 버닝햄 외 그림 | 사파리 | 2008

유아

세계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세계의 그림책 작가들과 공동으로 만든 책. 세계인권선언의 30개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듬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어냈다. 존 버닝햄, 피터 시스, 한국의 홍성담 등 각국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했다. 책에 실린 그림의 인세는 전액 국제앰네스티에 기부된다.

2월의 추천 도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월 보웬 지음 | 세종서적 | 2013

철학

높은 행복 지수를 확보하는 새로운 방법!

비교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 누리기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월 보웬의 두 번째 프로젝트 '매일 행복한 일상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 인생의 모래사장에 굽은 한 확률을 크게 하고 앞으로 열두 달 동안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 지음 | 해냄출판사 | 2011

사회과학

『도시의 승리』는 도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전 세계 도시의 흥망성쇠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전하는 책이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경제와 사회, 역사와 정책, 문화를 아우르는 방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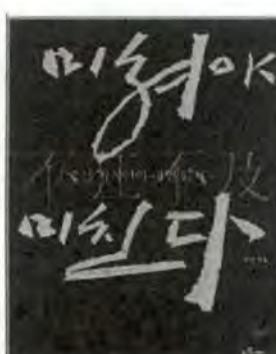
하루

박영택 지음 | 지식채널 | 2013

예술

그림이 들려주는 우리들의 '하루, 24시간'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보석 같은 작품들 중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 까지의 24시간을 다룬 그림 50편을 선별하여 그 하나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떠오르는 단상을 써내려간다. 그 단상은 결국 일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은 오늘,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내 삶과 나를 둘러싼 세계와 현실이 무엇인지 더듬어보게 한다.



미쳐야 미친다

정민 지음 | 푸른역사 | 2011

문학

조선시대 지식인의 내면을 사로잡았던 열정과 광기를 탐색한 글. 허균, 권필,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정약용, 김득신, 노긍, 김영 등의 조선시대 작은 영웅들을 복원하고 있다.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워 올린 노력가들, 삶이 곧 예술이 되고, 예술이 그 자체로 삶 이었던 예술가들,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세운 한 시대의 마니아들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있다.

2월의 추천도서



너는 어떤 씨앗이니?

유아

최숙희 지음 | 책읽는곰 | 2013

나는 어떤 꽃을 품은 씨앗일까?

보잘 것 없는 씨앗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의 씨앗 같은 꿈을 응원합니다. 꽃향기가 날 것 같은 예쁜 그림들이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맑게 정화 시킵니다.



두근두근 쪽!

유아

스테파니 블레이크 지음 | 한울림어린이 | 2013

『두근두근 쪽』은 슈퍼토끼 시몽의 진짜 우정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다. 시몽은 같은 반 친구 루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린다. 그런데 시몽이 좋아하는 루가 어려움에 처한다. 반 아이들이 모두 루를 피하지만 슈퍼토끼 시몽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어 친구를 도와준다.



그 집 이야기

아동

존 패트릭 루이스 지음 | 사계절 | 2013

시와 그림으로 그려낸 백 년의 역사 『그 집 이야기』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그림책 화가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그림과, 미국의 대표 어린이문학 작가 존 패트릭 루이스의 글이 어우러진 책이다. 이탈리아의 한 농가를 배경으로 지난 20세기 백 년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과 공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변해 왔는지를 그리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보다 재미있는 세계 100대 명화

아동

박현철 지음 | 삼성출판사 | 2011

시대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명화를 소개하는 『루브르 박물관보다 재미있는 세계 100대 명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 100점을 시대 순에 따라 그림과 함께 엮어 작품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예술적 감성과 폭넓은 지성을 기를 수 있다.

3월의 추천도서



다산의 독서전략

총 류

권영식 지음 | 글라이더 | 2012

이 책은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행적과 그의 독서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의학, 과학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다산의 삼박자 독서전략인 정독, 질서, 초서를 설명하며, 그 외 명사들의 효과적인 독서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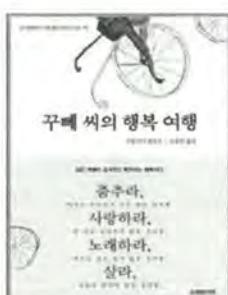


소박한 밤상

기술과학

헬렌 니어링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003

미국 내에서 유명한 자연주의자 헬렌 니어링이 남편 스콧 니어링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았다. 이 책에서는 그들의 채식 요리법을 소개한다. 평생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자급자족하며 운명에 기대지 않고 살아간 그들의 철학은 과소비와 탐식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진다.



꾸뻬씨의 행복여행

문학

프랑수아 르로르 지음 | 21세기북스 | 2004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쓴 자서전적 소설이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여행을 다니며 행복이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소설이다. 그 외 꾸뻬씨 시리즈로는 『꾸뻬씨의 시간여행』, 『꾸뻬씨의 우정여행』, 『꾸뻬씨의 인생여행』 등이 있다.



그림에 마음을 놓다

예술

이주은 지음 | 앤리스 | 2008

여러 명화그림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독이는 에세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 스스로 고백하는 듯한 담담한 필체로 그림을 소개하고 그림과 사람에 대한 따스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랑, 관계, 자아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그림을 소개한다.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역사

태원준 지음 | 북로그 컴퍼니 | 2013

엄마와의 여행을 블로그에 올리며 큰 인기를 얻어 출간된 책이다. 엄마의 환갑잔치로 모아둔 돈으로 문득 엄마에게 배낭여행을 제안하여 출찍 떠난 30대 아들과 60대 엄마의 세계여행기이다. 10개월 동안 중국에서 이집트를 여행한 여행기로 유럽여행기인 '엄마, 결국은 해피 엔딩이야'의 전편이다.

3월의 추천도서



안돼! 데이빗

데이빗 샐론 지음 | 지경사 | 1999

유아

1999년 칼데콧 명예 상 수상자 데이빗 샐론의 그림책이다. 유쾌하고 장난꾸러기인 데이빗이 집에서 한 번쯤 해봤을 혹은 해보고 싶었을 말썽으로 가득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그림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구름으로 만든 옷

マイ클 캐치풀 지음 | 키즈엠 | 2013

유아

욕심을 부리면 모두가 고통 받는다는 깨달음을 전하는 그림책이다. 구름으로 옷감을 짜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침의 황금빛 구름과 한낮의 하얀 구름, 그리고 저녁의 붉은 구름으로 아름다운 옥도리를 만드는 소년의 이야기이다. 구름이 비를 뿌린다는 것, 물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려주는 등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똥돼지

장수명 지음 | 마주보기 | 2012

유아

아름다운 섬 제주도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제주이야기」 제1권 『똥돼지』. 이 시리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지키고 살아온 우리 조상의 이야기뿐 아니라, 일만 팔천 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그림책이다. 이 책은 제주도 똹돼지 '복순이'를 만나게 해주고 있다. 화장실을 돼지우리와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구조가 특징인 '돗통시'에 대해 소개한다.



소녀소년 평등 탐구생활

양해경 지음 | 파란자전거 | 2013

아동

우리 사회를 둘러싼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주제를 선정하여 쉬우면서도 깊고 넓게 다루고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양성평등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나란 놈, 너란 녀석

김국태 등 지음 | 팜파스 | 2013

청소년

현재 교직에 있는 7명의 현직 교사들이 쓴 책으로 공부와 경쟁으로 그늘진 학교, 십대들이 꾸려가는 작은 사회 속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 친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여러 가지 학창시절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십대 후배들을 향한 저자들의 진심어린 조언이 담겨있다.

4월의 추천도서



프랑스 아이처럼

기술과학

파멜라 드러커멘 지음 | 북하이브 | 2013

자율을 강조하자니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이 들고, 일명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자니 의존성 높은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육아, 시름없는 육아를 한다는 프랑스의 풍경은 어떨까. 지혜롭고 능률적이며 창의적이기까지 한 프랑스식 육아의 세계에 흥뻑 빠져보자



더 빨강

청소년

김선희 지음 | 사계절 | 2013

제11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인간 본연의 고독, 사랑,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다룬 작품이다.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각적이고 담백한 문장 속에 담아냈다.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자연스러운 본능과 더불어 정직하게 투영했다는 점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문학

서천석 지음 | 김영사 | 2013

진료실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강연에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고 싶었다는 저자는 이제 책을 통해 이해하는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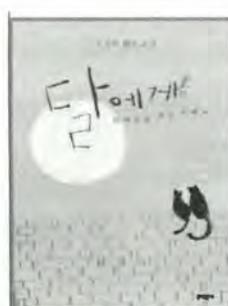


대통령의 글쓰기

사회과학

강원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4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8년간 두 대통령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말과 글'에 관한 최초의 책. 대우그룹 회장과 효성그룹 회장의 연설문도 작성했던 저자 강원국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분야 '거인'들의 연설문을 책임져 왔다. 연설문의 '달인'인 저자는 그간에 온몸으로 체득한 글쓰기 비법을 40가지로 정리했다.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문학

신경숙 지음 | 문학동네 | 2013

작가 신경숙이 들려주는 명랑하고 상큼한 유머, 환하게 웃다 코끝이 찡해지는 스물 여섯 개의 보석 같은 이야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 '달이 듣고 함빡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달이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야기'를 엮은 짧은 소설집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작가 신경숙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경쾌하고 명랑한 작품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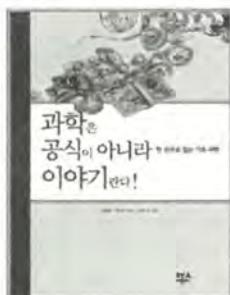
4월의 추천도서

**시간가게**

아동

이나영 지음 | 문학동네 어린이 | 2013

입시라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지금'의 삶을 유예시킨 이 시대의 초등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이들은 과연 이대로 행복한가?'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건네는 작품이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기초로 한 시기적절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품고 힘껏 뻗어나가는 서사의 독창성과 박진감이 돋보인다.

**과학은 공식이 아니라 이야기한다!**

아동

김성화, 권수진 지음 | 휴먼어린이 | 2013

어린이를 위한 한 권으로 읽는 기초 과학 입문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리 영역부터 화학, 지구과학, 생물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야 할 기초 과학 지식을 한 권에 담았다.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과 호기심이 과학이 되기 까지의 과정을 치밀하게 상상해서 그 흥미진진한 노력과 실패, 성공의 과정을 알려준다.

**새가 된 청소부**

유

아

아서 요링크스 지음 | 뜨인돌어린이 | 2013

가난한 청소부의 신비한 여행! 일하지 않고도 실컷 먹고 놀 수 있는 곳에서 청소부는 행복의 참 의미를 찾았을까? 그림책의 노벨상 '칼데콧 메달' 수상작으로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말을 향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한다.

**똥 도둑질**

아동

정란희 지음 | 휴먼어린이 | 2013

두 아이가 똥 도둑질 풍속에 담긴 조상의 지혜를 깨우치는 과정을 담아낸 그림책이다. 유쾌한 이야기와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어리숙한 두 아이의 좌충우돌 똥 도둑질 사건을 맛깔나게 표현했다. 커다란 똥 산을 훔쳐보기도 하고, 몰래 몰래 도둑질을 하는 두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 익살스럽게 그려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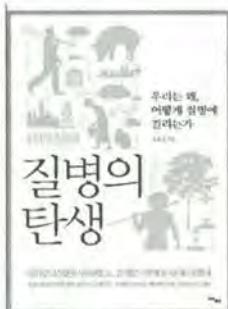
**더 놀고 자면 안돼요?**

유아

데버러 널랜드 지음 | 밝은 미래 | 2012

매일 밤 잠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그림책이다. 조곤조곤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부모는 잠자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는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5월의 추천 도서



질병의 탄생

홍윤철 지음 | 사이 | 2014

기술과학

질병의 출현과 예방에 대한 문명사적 고찰!

과거에 없던 질병이 생기고, 왜 그 질병들이 현대인을 괴롭히는지, 어떻게 폭발적으로 질병들이 증가했는지를 인류사적, 문화사적으로 살피고, 현재와 미래의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본 책이다. 질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저자는 전하며, 마지막 장에 질병 예방 전략 3가지를 수록하였다.



이야기 테라피

이시스 지음 | 이야기나무 | 2012

철학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24가지 힐링 스토리에 글로벌 아티스트 이장섭의 컬러테라피 작품을 더해 만든 힐링 가이드북이다. 경쟁의 압박에 시달려 지치고 숨이 막힐 때,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할 때,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 불안하고 외로울 때, 사랑받지 못해 서러울 때,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지혜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와 '해설' 그리고 '실천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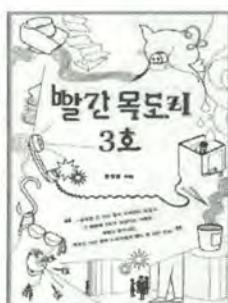


명작스캔들

장 프랑수와 세뇨 지음 | 이숲 | 2011

예술

서양미술을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풀어낸 교양인문서다. 고대 그리스 조각의 거장 프락시텔레스에서부터 희대의 위조범 판 메이헤른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서양 예술가 열세 명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그들의 명작을 소개한다. 저널리스트인 저자의 박진감 넘치는 문체는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미술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빨간 목도리 3호

한정영 지음 | 다른 | 2013

청소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이자 이웃인 남자에게 여전히 갈취를 당하는 서점 주인 K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극단의 고민을 하는 소년 빨간목도리 3호. 이들이 한 팀이 되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짜릿한 복수에 나선다.

학교 폭력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고, 폭력에 대한 치유가 진정으로 가능한지 깊이 고민하는 작품이다.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케이트 디카밀로 지음 | 비룡소 | 2014

문학

사랑을 받을 줄만 알고 할 줄은 몰랐던 차가운 도자기 토끼 인형 에드워드 툴레인의 놀랍도록 가슴 짜릿한 여행의 기록을 담은 작품이다. 사랑만 받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에드워드 툴레인이 여행의 과정을 통해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5월의 추천도서



줄임말 대소동

박혜숙 지음 | 키다리 | 2013

아동

줄임말로 인해 반에서 친구들에게 우쭐했던 나대기가 순식간에 외계인으로 놀림 받게 되는 사건을 그려낸 동화책이다.

줄임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줄임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고, 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원숭이가 없으면 초콜릿도 없다

멜리사 스튜어트, 앤런 영 지음 | 스콜라 | 2013

아동

초콜릿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들을 배워요!

카카오 나무에 구더기가 없다면, 도마뱀이 없다면, 원숭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동식물의 공생을 배우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티키 티키 템보

아를린 모젤 지음 | 꿈터 | 2013

아동

중국의 옛 민담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이야기이다. 티키 티키 템보-노 사 램보-차리바리 루치-핍 페리 펩보'라는 작은 산골 마을의 첫째 아들이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지고 만다. 우물에 빠진 형을 구하기 위해서, 동생 챙은 열심히 어머니와 사다리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는데 형의 이름이 길어서, 점점 형이 물속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인절미 시집가는 날

김아인 글, 그림 | 국민서관 | 2013

유아

『인절미 시집가는 날』은 충북 지방에서 전해지던 전래 동요를 4~7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덩실덩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다. 알록달록 비단옷 입고 팥고물, 콩고물로 화장한 어여쁜 인절미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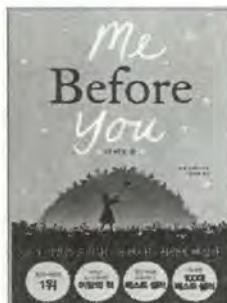
똥 목도리다!

최정현 글; 대성 그림 | 예원미디어 | 2013

유아

『똥 목도리다』는 나눔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게 하는 그림동화책이다. 추운 겨울날 욕심꾸러기 토끼가 눈 위에 떨어져 있는 똥 목도리를 줍게 되고 펭귄, 곰, 원숭이, 기린, 늑대, 사막여우 등 추위에 떨고 있는 동물들과 함께 목도리를 두르게 된다. 동물친구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서로의 체온 때문에 더욱 따뜻한 겨울을 맞게 된다.

6월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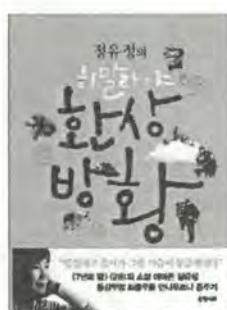


미 비포 유

조조 모예스 지음 | 살림 | 2013

문학

오만하리만큼 잘났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환자가 된 젊은 사업가, 월 트레이너. 과팍하리만큼 독특한 패션 감각을 지닌 엉뚱하고 순진한 여자, 루이자 클라크. 맞닿을 것 하나 없이 다른 둘, 그들은 어떻게 만나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



이말라야 환상방황

정유정 지음 | 은행나무 | 2014

문학

정유정식 '힐링' 방법으로 선택된 안나푸르나 환상종주는 네팔 히말라야 산맥 중부에 위치한 안나푸르나 영봉을 끼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도는 만만치 않은 트레킹 코스다.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다녀올 수 있는 트레킹 코스지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없이는 쉽게 도전할 수 없고 지대가 높아 고산병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녀는 주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환상종주에 도전하기로 한다.



그가 그립다

유시민 외 지음 | 생각의 길 | 2014

사회과학

안될 것을 알지만 그른 것에 대항하는 용기, 사리사욕이나 명성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가치를 수호하는 정의로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위해 불의를 참지 않겠다는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려 했던 사람, 노무현. 스물두 명의 작가들이 그를 향한 그리움을 책에 담았다. 노무현과 나름의 인연을 가진 작가들이 인간 노무현의 모습을 회고하고 그가 우리의 삶에 남긴 영향을 생각한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고재학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0

기술과학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은 유명하다. 외국에서도 '학원이 많은 곳은 한국인이 존재하는 곳'이란 소문이 돌 정도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의 고재학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을 교육법의 문제로 이야기한다. 치열한 경쟁 속,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해 무시되어 버린 교육의 기본을 말한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 까지, 교육의 모든 것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우리 아이 제주 여행

김성희 지음 | 시공사 | 2013

역사

아이와 함께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담은 '여행+자녀교육서'이다. 아이들과 국·내외 곳곳을 함께 다니며 여행의 교육적 효과를 몸소 체험한 저자는 두 달간 아이들과 함께 제주를 여행하며 검증한 정보만을 이 책에 담았다.

6월의 추천도서



아드님, 진지드세요

강민경 지음 | 좋은책어린이 | 2011

아동

가족이라는 친밀감 속에서 묻히기 쉽지만 꼭 배워야 하는 높임말 사용을 엄마와 할머니의 재미있는 작전과 범수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로 풀었다. 짜증 대장, 반말 대왕 범수의 변화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읽는 부모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며, 가족을 유쾌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이다.



잔소리 없는 날

안네마리 노르덴 지음 | 보물창고 | 2004

아동

푸셀은 '딱' 하루 동안 '잔소리 없는 날'을 허락받는다. 드디어 '잔소리 없는 날' 아침, 푸셀은 '자두잼을 일곱 숟가락 퍼 먹고, 버터빵 두 개를 더 먹고도 양치질을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안네마리 노르덴의 동화 「잔소리 없는 날」은 당돌한 꼬마 푸셀이 하루 동안 겪게 되는 아슬아슬하고 신나는 모험담이다.



지우개 따먹기 법칙

유순희 지음 | 푸른책들 | 2011

아동

작가는 열 가지 지우개 따먹기 법칙을 각각의 에피소드에 녹아내며 유쾌하게 그리고 있는데, 「지우개 따먹기 법칙」의 묘미는 바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때론 상대의 지우개를 따기도 하고 때론 내 지우개를 잊기도 하는 지우개 따먹기 놀이가 우리의 일상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데 있다.



짧은 귀 토키

다원시 지음 | 고래이야기 | 2006

유아

이 그림책에서 동동이는 결국 자신의 콤플렉스인 짧은 귀를 길게 만들지는 못한다. 대신 자신이 노력하는 와중에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 중 하나인 빵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키워간다. 이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동동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면 자신의 단점을 물리치고도 남의 장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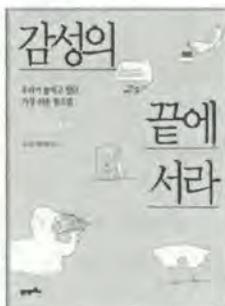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라면

이민경 지음 | 대교출판 | 2011

유아

우리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보자! 어른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세상은 어떨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책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하루 동안의 역할을 바꾸어 생활을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겪어보는 하루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더 애恸하게 한다.

7월의 추천도서



감성의 끝에 서라

강신장, 황인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14

철학

시인들은 어떻게 사고할까? 시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법 4가지를 소개한다. 4가지 사고방법을 활용하여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고 시를 쓰는 방법과 사례를 수록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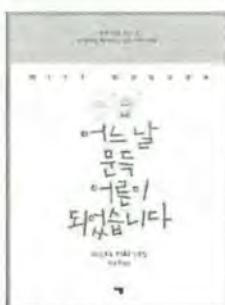


식탁의 영성

이찬수 등 지음 | 모시는사람들 | 2013

종교

이 책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의 식생활 속에서 인간 냄새가 사라진 현대 식생활을 비판하며 '먹음'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이다. 16인의 종교학자는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 등 종교적 측면에서의 식생활의 의미, 채식, 깨끗하고 아름다운 먹거리,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 등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스다 미리 지음 | 이봄 | 2014

문학

만화 '수짱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인 마스다 미리가 산문집을 출간했다. 수짱 시리즈에서도 다루듯 현대의 30,40대의 여성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과 결혼, 직장, 연애문제의 고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호모 이미고

우성주 지음 | 한언 | 2013

예술

이 책은 다양한 회화, 조소, 건축, 벽화 등의 예술작품 예시를 들어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미의식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미지의 탄생과 그 역사에 대한 고찰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 그리고 문화산업 및 문화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부자의 길, 이성계와 이방원

이덕일 지음 | 옥당 | 2014

역사

역사학자 이덕일이 조선의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사이의 부자지간 관계에서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책이다. 조선이 건국당시 정도전을 둘러싸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과 조선전기의 정치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지식을 알 수 있다.

7월의 추천 도서



장난을 배우고 싶은 고마이다

아동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 논장 | 2003

'삐삐 롱스타킹'으로 유명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만든 동화 '에밀' 시리즈 중 한 이야기이다. 장난꾸러기 에밀이 장난을 부리고 나면 갇혀있는 목공실에 들어가고 싶은 동생 '이다'가 오빠 에밀의 장난을 따라하려하는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이다. 에밀의 의도하지 않은 장난으로 인한 재미있는 상황이 즐거운 웃음을 유발한다.



난초를 담은 서화가 김정희

아동

안성희 지음 | 나무숲 | 2000

서예가이자 화가였던 추사 김정희의 일생과 작품을 어린이의 시선에 맞추어 소개한 책이다. 김정희의 곧은 성품이 담긴 그의 작품과 그의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김정희가 그린 한국화, 금석학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한국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이다.



독도와 역사분쟁 이야기

아동

신재일, 양대승 지음 | 가나출판사 | 2014

어린이들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독도와 역사분쟁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왜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고 왜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야하는지, 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정세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울트라 비밀 권법

유아

박보미 지음 | 한솔수북 | 2014

엄마의 잔소리를 이겨보려는 아들이 캠讼맨으로 변신하여 엄마에게 대항하는 귀여운 이야기이다. 티비 끄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양치하기 싫고, 늦게 자고 싶은 아들의 반항에 대응하여 엄마는 요술공주 핑크로 변신하여 아들에게 대응 한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삽화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



나무는 좋다

유아

마르크 시몽, 재니스 메이 우드리 지음 | 시공주니어 | 2007

1957년 이 작품으로 칼데콧상을 수상한 마르크 시몽의 책이다. 나무가 얼마나 이롭고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커다란 삽화와 함께 아이의 시선에 맞추어 간결한 문체로 아름다운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자연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월의 추천도서



소년이 온다

한강 지음 | 창비 | 2014

소설

한강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 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심풀하게 산다

도미니크 로로 저 | 바다출판사 | 2014

자기계발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빠져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 살기 시작한 프랑스 출신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가 삶의 핵심을 ‘심풀함’에서 찾고,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역설을 지적한 책이다. 외연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심풀한 삶’을 알려주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조언들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나는 참 늦복 터졌다

이은영, 김용택 편, 박덕성 지음 | 푸른숲 | 2014

에세이

‘성진강 시인’ 김용택과 아내 이은영 부부, 그리고 시인의 모친 박덕성 할머니가 함께 쓴 책으로, ‘보통의 노인’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로 이어지는 한 가족이 되찾은 행복 이야기는, 인간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준다.



2500년 인문고전에서 찾은 말공부

조윤제 저 | 흐름출판 | 2014

인문학

시공을 뛰어넘어 지혜의 정수로 남은 역사 속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말공부 뿐만 아니라 사람공부, 더 나아가 인생공부를 함께 시도한다. 동양고전 100여 권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문리가 트이는 경험을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면의 힘이 말의 힘이 되고, 내면의 충실함이 말의 충실함이 됩니다.”라고.



못난 한국 패션을 까다

심상보 글 | 포이즌 | 2014

예술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겸 디자이너인 저자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TIN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20년 간 한국 패션계에서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소재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감없이 토로하였다.

8월의 추천도서



도도 찍둑!

고아영 글 | 사계절 | 2014

유아

머리를 망친 여자아이의 일상을 다룬 그림책이기도 하면서 아빠와 딸의 따뜻한 관계가 그려진 그림책이다. 주인공 '도도'는 혼자 머리를 잘라 보겠다고 하다가 머리를 망치게 된다. 도도 아빠는 어쭙잖게 위로하지 않고, 아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준다. 공감을 얻은 아이의 기쁨을 훈훈하게 담은 그림책이다.



사과밭 수수께끼

마거릿 맥나마라 글 | 봄나무 | 2013

유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타라와 티핀 선생님 반 아이들이 특별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월 하든지 느리고 말수도 적지만, 그만큼 깊이 생각하는 타라의 모습을 통해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 따뜻하게 전한다.



만렙과 슈렉과 스마트폰

서지원 글 | 스펄북 | 2014

아동

2010년 이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간 스마트폰 문화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침범할지를 '은수'라는 소년의 일상을 통해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스마트폰과 바꾸지 말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보낸다.



똑똑한 수다쟁이 돌고래

김황 글 | 우리교육 | 2013

아동

자연의 비밀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다룸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 주는 돌고래 이야기이다. 실제로 돌고래와 더불어 살아 온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이 저자와 만나 돌고래의 정보를 알려준다.



공자아저씨네 빵가게

김선희 글 | 주니어 김영사 | 2014

아동

철학, 문학, 예술, 종교 등 인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어린이들의 이웃으로 나타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인문학적 지혜를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는 자기계발 동화로 이루어져 있다. 빵가게 주인으로 변신한 공자를 만나러 가보자.

9월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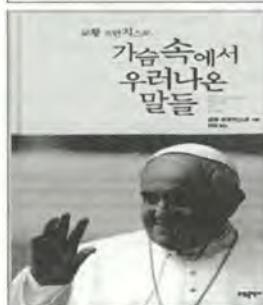


느리게 더 느리게 2

츠샤오촨 지음 | 다연 | 2014

철학

이 책은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를 담은 '느리게 더 느리게'의 속편이다. 베이징대학 출신 인재들의 일화와 그들의 인생철학을 소개함으로써 고난에 맞닥뜨린 삶에 지혜로운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내면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황 프란치스코,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말들

교황 프란치스코 지음 | 소담출판사 | 2014

종교

공식적인 관습에서 탈피하여 천주교신자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연설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교황직을 시작한 2013년 3월부터 넉 달 간 행한 연설과 설교에서 주제별로 뽑아낸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소담

탁현규 지음 | 디자인하우스 | 2014

예술

이 책은 일 년에 딱 두 번 문을 열어 일반인에게 소장된 그림을 공개하는 간송미술관의 작품들을 설명하는 책이다. 간송미술관의 연구원인 저자는 미술관에 소장한 그림 중 30개의 작품을 엄선하여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적인 7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친절하게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의 한국현대사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4

역사

정치인이자 문필인인 유시민이 겪은 1959년부터 2014년까지의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주관적인 시선으로서 기록한 책이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정선거,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전두환 정권, 1970년대 반독재투쟁, 1980년대 민주화 투쟁,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돌아본다.



야구장 습격사건

오쿠다 히데오 지음 | 동아일보사 | 2009

문화

이 책은 《공중그네》와 《남쪽으로 튀어!》로 유명한 일본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야구장 견문록이다. 일본 프로야구팀 주니치 드래곤스의 열혈팬으로서 야구에세이를 출간해온 오쿠다 히데오가 야구경기를 보기위해 일본각 지역과 해외까지 가서 겪는 이야기를 오쿠다 히데오 특유의 재치있는 문체로 그리고 있다.

9월의 추천도서



그림 속 그림찾기 그네

유아

이상교/ 안윤모 외 11명 지음 | 사계절 | 2001

'ㄱ'부터 'ㅎ'까지 각각의 달소리를 주제로 하는 동시와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림 속에서 각각의 달소리로 시작하는 사물을 찾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동화책이다. 12명의 화가가 그린 아기자기한 14점의 회화작품과 69편의 예쁜 동시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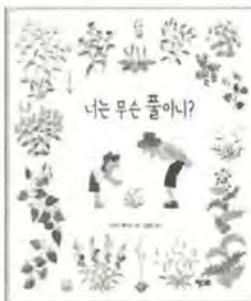


알몸으로 학교간 날

유아

타이 마르크 르탄 지음 | 아름다운 사람들 | 2009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피에르는 어느 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깜빡하고 알몸으로 학교를 가게 된다. 학교에 도착한 피에르가 하루 동안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차이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길러줄 수 있다.



너는 무슨 풀이니?

유아

나가오 레이코 지음 | 키다리 | 2014

무더운 여름날, 할아버지 댁에 놀러간 타로가 할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야생초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망초, 도깨비바늘, 강아지 풀 등 각 식물들의 중요한 생김새와 특징을 섬세한 자수로 표현한 그림이 아름다운 동화책이다.



이야기는 이야기

아동

임석재 지음 | 재미마주 | 2014

한국문학연구가였던 임석재 선생님이 1920년대부터 후반부터 70여년간 모은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소개한 책이다. 조상들의 생각과 생활풍속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책으로, 수록되어있는 21가지의 재미있는 전래동화들은 많은 동물들과 나무, 꽃들이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세계사로 배우는 법이야기

아동

유재원·신현배 지음 | 살림어린이 | 2014

이 책은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역사와 법이야기를 역사 속 실제 판결 사례 12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 변호사가 꿈인 별별이는 '유명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동화형식의 판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재판의 배경이 된 역사적 상황과 당시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다각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10월의 추천도서



왜 식량이 문제일까?

사회

캐슬린 게이 글 | 반니 | 2013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굶주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충격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이 책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식량문제에 관한 책임입니다. 세계 식량 속에 숨은 정치, 환경, 과학, 인권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10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

철학

키스 캠벨 글 | 갈매나무 | 2013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심리 치유서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 나르시시즘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심리학자 키스 캠벨이 나르시시즘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심리학자로서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 그리고 나쁜 연애에 빠지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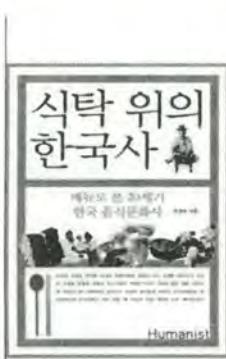


리스본행 야간열차

소설

파스칼 메르시어 글 | 들녘 | 2014

유럽 문학의 현대고전이 된 파스칼 메르시어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 이제껏 지켜왔던 정돈된 삶을 내팽개치고 리스본으로 가는 열차를 탄 라틴어 교사 그레고리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 나이는 어느 날, 고전문학을 가르치던 그레고리우스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여자를 구한다. 여자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그의 이마에 적어주고는, 붉은 코트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지는데...



식탁 위의 한국사

역사

주영하 글 | 휴머니스트 | 2013

『식탁 위의 한국사』는 우리가 100년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근대인부터 현대인의 식탁까지 메뉴를 통해 살펴본 20세기 한국의 음식문화사를 소개한 책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 알면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보인다. 생물학적 음식에는 물질이 담겨 있지만 문화적 음식에는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0월의 추천도서



고릴라 코딱지

유아

김진완 글 | 노란돼지 | 2014

코딱지 때문에 코가 막혀서 답답해하는 고릴라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시원한 웃음을 전달하는 그림책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코딱지를 없앨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달리는 나눔 가게

유아

미하엘 로어 글 | 일월서각 | 2013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에 대해 요셉네 가족의 환상적 이야기를 통해 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담백하게 그려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을 일깨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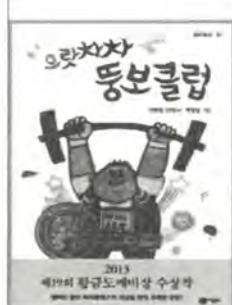


세상을 깨운 새로운 아침

아동

박수현 글 | 국민서관 | 2014

《인상, 해돋이》와 그 외 모네의 여러 대표작들, 모네에게 영향을 끼친 화가들의 작품까지 모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속에 담긴 모네의 일생을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 장애물과 걸림돌에도 자신의 소신을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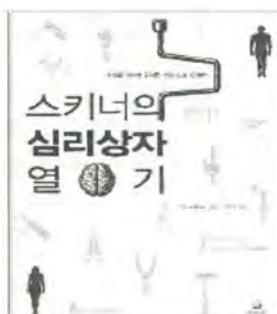
으랏차차 뚱보클럽

아동

전현정 글 | 비룡소 | 2013

'으랏차차 뚱보클럽'의 주인공은 보람초등학교 5학년, 키는 159cm, 몸무게는 무려 79kg, 별명 십인분, 힘도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열두 살 소년 '고은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은찬이의 세상을 향한 유쾌한 반란 속으로 아이들을 안내합니다.

11월의 추천도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로렌 슬레이터 지음 | 에코의 서재 | 2005

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저명한 스테디셀러 책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인간 심리와 본성에 관한 정신의학자들의 심리 실험을 소개한 책이다.

스키너의 보상과 처벌 실험, 스탠리 밀그램의 충격기계 등 실험을 통해 밝혀진 인간심리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곤도 마코토 지음 | 더난 출판사 | 2013

기술 과학

40년 이상 의사로 근무한 저자가 건강 상식에 대해 알려주고 의료산업의 병폐를 솔직하게 지적한 책이다.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말 것 등의 일반적인 건강상식과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그마한 감기에 걸려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줄 것이다.



꽃 피는 정원의 입체자수

이민혜 지음 | 팜파스 | 2014

예술

꽃과 잎이 가득한 정원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자수에 관한 책이다. 자수를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재료와 도구부터 기초기법과 입체기법까지 다루고 있는 책으로 아름다운 꽃을 주제로 여러 가지 도안이 수록되어 있어 자수를 하는데 길라잡이가 되어줄 책이다.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자음과 모음 | 2014

문학

일본 유명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이다. 11년 전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딸의 슬픔을 잊지 못해 이혼한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11년 후 그 부부의 아내인 사요코가 살해당하며 사건이 시작된다. 가족을 살해한 범인의 사형을 원하는 유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설이야기. 사형제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1913년 세기의 여름

플로리안 일리스 지음 | 문학동네 | 2013

역사

우리가 가르키는 '현재'라는 말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즈음으로, 19세기가 끝난 시점인 1913년으로 상정한다. 1913년 한 해 동안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책은 모더니즘을 꽂피웠던 각기각계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복원한다.

11월의 추천도서



가을을 만났어요

유 아

이미애 지음 한수임 그림 | 보림 | 2002

서정적인 갈색의 파스텔톤 그림이 주가 되어 한 아이가 이동함에 따라 보여지는 가을의 풍경을 비유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가을시골길에서 볼 수 있는 도깨비바늘, 억새 등 작은 풀꽃과 곤충들을 묘사한 모습이 무척 아름답고 재치 있게 느껴지는 그림책이다.



돼라 돼라 뽕뽀

유 아

유애로 지음 | 국민서관 | 2013

'돼라 돼라 뽕뽀!!' 하고 배꼽을 문지르면서 방귀를 뀌면 워든지 이루어지는 숲 속의 요정 뽕뽀이는 숲 속 동물 친구들이 자는 동안 귀, 뺨, 갈기 등을 맘대로 바꿔어 놀는다. 화가 난 동물 친구들은 뽕뽀이에게 어떻게 할까? 이 책은 국립청소년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다문화아이들을 위해 여러 언어 판으로 발행되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유 아

미셸린느 먼디 글, R.W.앨리 그림 | 비룡소 | 2003

어린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 아이의 시선에서 느끼는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감정에 직면하여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준다. 아기자기한 삽화와 함께 구성되어 있고 아이의 인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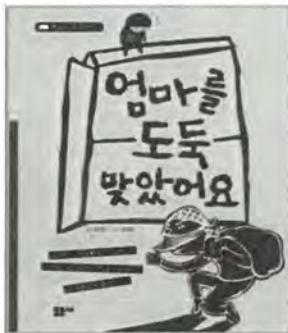


함께 만들어요 미디어

아동

프랑수아 드 기베르, 레미 사이야로 지음 | 대교출판 | 2008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흥수 속에서 살고 있는 21세기 아이들은 매일 수십, 수백 가지의 온갖 매체와 미디어를 접한다. 이 책은 아기자기하게 구성되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같은 미디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소개하고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준다.



엄마를 도둑 맞았어요

아동

최은영 글, 김창희 그림 | 문공사 | 2010

바쁜 엄마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주인공 민재는 엄마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고 아픈 민재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도둑아저씨가 엄마보다 자신을 더 챙겨준다고 느끼게 된다. 집에 도둑이 다녀간 후 엄마 얼굴 볼일이 많아지며 민재가 벌이는 행동에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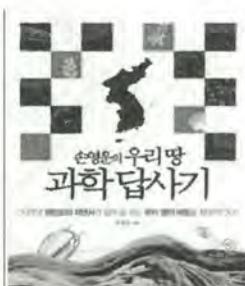
12월의 추천도서



뚱보, 내 인생

미카엘 올리비에 저 | 바람의 아이들 | 2013

삶과 인생 그리고 사랑의 핵심관계. 열여섯 살에 비만 2급 판정을 받은 벤자멘에게는 꿈도 있고,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지만 사랑도 꿈도 뚱뚱한 몸매 앞에서는 모두 달아나 버린다. 비만이 일으키는 건강과 사회적인 문제까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사춘기 아이들에게 내 몸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를 차분히 생각해보게 한다.



손영운의 우리 땅 과학답사기

손영운 | 살림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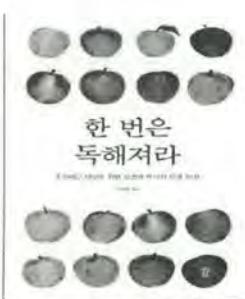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등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최고로 꼽히는 과학 답사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딱딱한 역사 설명 대신, 저자가 들려주는 그 지역의 전설과 설화, 지층에 담긴 자연사 이야기가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저 | 돌베개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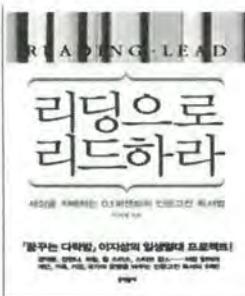
자원봉사는 하기 싫은 일을 얹지로 하는 걸까? '스펙'쌓기일까? 꼭 좋은 일을 한다고 티 내야 할까? 일본의 열혈 NGO 활동가 다나카 유가 자원봉사를 둘러싼 온갖 의심과 의문에 답한다. 이 책을 자원봉사가 세상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며,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번은 독해져라

김진애 저 | 다산북스 | 2014

도망가고 싶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너무 많은 일에 치밀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다양한 분야의 영역을 넘나들며 전방위 활동을 펼쳐온 김진애 박사가 일과 인생 사이에서 자신감을 잃고 혼들리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빠져보았을 괴로운 상황들을 10가지 문답으로 풀어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저 | 문학동네 | 2013

아인슈타인, 뉴턴, 처칠, 에디슨이 사고뭉치에서 위대한 천재로 탈바꿈한 비결은? 저자는 그 비밀이 모두 인문고전 독서에 있다고 말하며,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미래를 바꾸는 힘을 제시한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시각과 명쾌한 논리로 수천 년간 강대국과 지배계급만이 쉬쉬하며 이어온 성공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12월의 추천도서



사삭 사삭 땅 속으로 들어가 박

김순한 지음 | 대교출판 | 2014

개미, 지렁이, 땅강아지 등 흙이 있는 곳을 잘 살펴보면 땅 속 생물들이 땅 밖에 잠깐 나온 걸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보다 땅 속에는 훨씬 많은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그림책은 그러한 땅 속 생물들의 놀라운 세상으로 초대한다.



우리마을 주치의

정소영 글 | 사계절 | 2014

아픈 사람과 병을 고치는 사람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한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 만나 함께 건강한 삶과 마을을 가꾸어 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 애쓰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의사 선생님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이웃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끄는 마음과 의지를 활력 있게 표현하였다.



난 등딱지가 싫어!

요시자와 게이코 글 | 찰리북 | 2013

느림보라고 놀림 받아 속상했던 거북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 주는 그림책이다. 거북이가 정말정말 싫어했던 등딱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만의 등딱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다.



이영차! 땅에 집을 짓자꾸나

김미혜 글 | 대교출판 | 2014

우리 조상들이 터를 잡아 짓기 시작한 움집을 비롯해 초가집, 기와집, 굴피집, 너와집, 커틀집 등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집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전통 집을 구성하는 기단, 주춧돌, 기둥, 지붕, 바닥 등과 곳간, 화장실, 마당 등 집 이곳 저곳까지 우리나라 집의 모든 것을 담았다.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글 | 문학동네 | 2014

조선시대 천주교 탄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필사쟁이의 삶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이데올로기, 지식계층과 일반 백성들의 생활사 및 문제의식 등을 내밀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역사물의 교훈주의를 깨끗하게 뛰어넘어 본격적인 역사동화의 장을 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서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디지털콘텐츠

추천디지털콘텐츠란?

8개 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매월 어린이 및 일반 도서를 각각 5권씩 추천하여, 신간도서 및 관심 있는 도서의 간략 사항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독서정보 발굴권수 : 일반도서 220권, 어린이도서 240권 총460권

여 백

2014 추천 디지털 콘텐츠



어바웃 타임

VOD - 영화

리차드 커티스 감독 | 둠놀 글리슨, 레이첼 맥아담스 출연 | 15세 관람가 | 123분
팀(돔놀 글리슨)은 성인이 된 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태솔로 탈출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메리(레이첼 맥아담스)에게 첫 눈에 반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면,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용방법 : 석수도서관 3층 디지털자료실 내 PC (전코너)



그림

전자책 - 취미/미래

김병률 지음 | 달 | 2010

여행을 하면서 만난 끌림의 순간들에 당신을 초대한다.

200여 나라를 돌며 남긴 순간의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삶과 사람. 가슴에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추억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일상을 벗어나 삶 속으로 사람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방법

- ※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Ground Breakers

온라인 강좌학습 - 경영경제

스티브 잡스 외 5명 | AVA엔터테인먼트 제작 | 2014

애플의 스티브 잡스부터 나이키의 필립 나이트 까지 21세기를 대표하는 창조적 기업가 6인의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을 세계 최고의 경제 개척자로 이끈 원동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온라인강좌학습



조금은 빼딱한 세계사 - 유럽편

오디오북 - 역사/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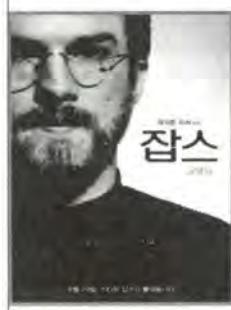
원종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제작 | 2013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과연 진리일까?’ 이 오디오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비판적으로 역사를 봐야한다는 저자의 생각을 오디오북으로 더욱 생생하게 들어보면 어떨까?

이용방법

- ※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 오디오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이달의 추천 디지털 콘텐츠(2014.04.)



잡스

VOD - 영화

조슈아 마이클 스�顿 감독 | 애쉬튼 커쳐, 조시 게드 출연 | 12세 관람가 | 122분
세상을 바꾼 천재 vs 대학 자퇴생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vs 불교신자
애플의 창립자 vs 연봉 1달러의 CEO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
아무도 몰랐던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용방법 : 석수도서관 3층 디지털자료실 내 PC (전코너)



공자 패러디 홍대지부

전자책 - 평화

명로진 지음 | 푸른지식 | 2014

이 책에는 상상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공자가 등장한다. 공자의 톡톡 튀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며 미소를 짓게 만들고, 반면 루저Loser라고 폭탄선언을 하기도 한다. 그동안 '공자 왈'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읊조림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을 통해 진짜 공자를 만나보라. '공자 왈'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들릴 것이다. 깊고 뜨겁고 자유로운 저자의 종횡무진 공자 탐색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용방법

- ※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몰입-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

온라인 강좌학습 - 경영강의

황농문 | 알엠피 | 2009

개인의 자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 몰입의 효과를 이해하고, 조직사회에서의 몰입형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온라인강좌학습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오디오북 - 노벨/에세이

우종영 지음 | 와 미디어 제작 | 2013

나무의사 우종영이 전하는 나무의 지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나무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종영은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은 우종영이 나무들이 담고 있는 탄생배경과 나무를 키우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 나무처럼 살고 싶은 마음 등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이용방법

- ※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 오디오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브룩클린 브라더스

VOD 앱화



라이언 오년 감독 | 라이언 오년, 마이클 웨스턴 출연 | 15세 관람가 | 96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운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알렉스(라이언 오년)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밴드마저 해체되는 위기를 겪게 된다. 그 순간 알렉스의 앞에 나타난 괴짜 기타리스트 짐(마이클 웨스턴). 둘은 우여곡절 끝에 밴드 배틀 경연대회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는데…….

이용방법 : 석수/만안/박달/벌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관) 내 PC

나의 제주는 당신의 도시보다 아름답다.

전자책 - 주민/여행

김윤정 지음, 김현주 사진 | 북웨이 | 2013

제주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두 자매의 제주도 여행기. 10년 동안 시시 때때로 제주도를 여행하며 알아낸 명소들을 안내한다. 산책하기 좋은 코스, 제주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 숨겨진 맛집까지, 제주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책

이용방법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실전 여행 영어

온라인 강좌학습 - 어학

시공미디어 | 시공미디어 제작 | 2014

영어권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이 필요할까?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과 함께 여행 전 준비사항부터 항공기 탑승, 호텔 체크인, 카페 또는 식당에서 주문하기 등 필수적인 여행회화와 병원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화까지 누구든지 쉽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온라인강좌학습

이건희 27 법칙

오디오북 - 경제/경영

김병완 지음 | 미다스북스 제작 | 2013

한국을 넘어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다. 25년 만에 300배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비결을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해 27가지 법칙으로 정리한 책을 들어보자.

이용방법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 오디언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하와이언 레시피

VOD 등록

사나다 아츠시 감독 | 오카다 마사키, 바이쇼 치에코 출연 | 12세 관람가 | 111분

소원을 이뤄준다는 '달무지개'를 보러 하와이의 북쪽 호노카아 마을에 왔다가 여자 친구와 이별을 한 주인공 레오는 1년 동안 작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된다. 과묵한 극장주인과 먹보 아줌마 부부, 괴짜 요리사 비아할머니, 여배우를 동경하는 고이치 할아버지와 평화롭게 지내며 벌어지는 이야기. 시원하고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색감의 영상이 아름다운 영화이다.

이용방법 : 평촌/어린이도서관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관) 내 PC



고마워, 우울증

전자책 - 가정/생활

미야지마 겐야 지음 | 비타북스 | 2014

7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작가인 정신과 의사 미야지마 겐야가 우울증을 벗어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악없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는 미야지마 겐야는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20가지의 습관을 알려주고 자신의 우울증 경험과 진단 속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의 예를 소개한다.

이용방법

*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세계미술여행

온라인 강좌학습- 역사문화

CTN | 동아씨씨닷컴 | 2007

프랑스의 인상주의화가 클로드 모네,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 색채의 마술사로 일컬어지는 앙리 마티스, 빈센트 반 고흐와 피카소 화가들의 생애를 간략하게 알려주고 대표적인 작품, 사용했던 기법을 소개한다. 또 오르세 미술관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소장중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한강의 당 25분으로 총 16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온라인강좌학습



싱크홀

온라인 강좌 - 문학

이재익 지음 | 황소북스 제작 | 2013

갑자기 땅이 깨지는 현상인 싱크홀을 주제로 쓴 재난소설이다. <두시탈출 컬투쇼> PD로 근무하는 작가 이재익이 쓴 작품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개장된 날 건물이 거짓말같이 땅 속으로 가라앉으며 아수라장이 된다. 살려는 자들과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족애와 사랑, 희생, 용서의 내용을 다룬다.

이용방법

*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오디언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조지 해리슨

VOD 영화

마틴 스콜세지 감독 | 조지 해리슨, 폴 맥카트니 출연 | 12세 관람가 | 208분

'비틀즈의 철학자', '조용한 비틀' 조지 해리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비틀즈의 일원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비틀즈 해체 후 삶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의 천재적인 예술성과 영적인 호기심, 동양문화와의 결합을 시도한 획기적인 도전까지 현재 음악가 조지 해리슨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VOD

이용방법 : 석수도서관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관) 내 PC



청춘 : 너를 위해 서라면 일요일엔 일을 하지 않겠어

전자책 - 어서이/산문

오영옥 지음 | 달 | 2013

세상에서 두 번째로 이기적이라면 억울했을 한 남자가, 행복은 일에 있는 거라며 일주일 내내 밤낮없이 일만 하던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널 위해 서라면 이번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겠어."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보여주는 여행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전자책, '청춘'

이용방법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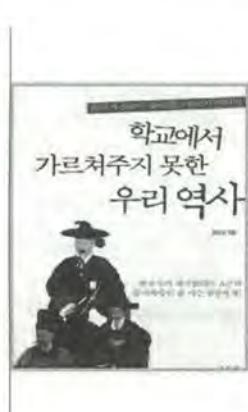
ITQ 한글 2010

온라인 강좌학습 - 컴퓨터

아이티고 제작 | 아이티고 | 2013

정보기술자격(ITQ: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중 한글 과목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로 시험 소개부터 시작하여 한글 활용 방법, 기출문제 풀이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온라인강좌학습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 역사

오디오북 - 역사/자료

원유상 지음 | 좋은날들 제작 | 2013

5천년 역사를 담기엔 한국사 수업시간은 너무나 짧다. 교과서는 더더욱 짧다! 이 오디오북은 그동안 학교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지 못했던 시시콜콜한 역사,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통해 잊었던 역사에 대한 흥미를 회복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 오디언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이달의 추천 디지털 콘텐츠(201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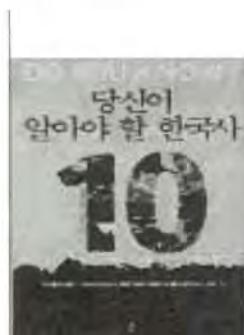
스틸 라이프(Still life)

VOD 영화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 | 에디 마산, 조앤 프로갓 출연 | 12세 관람가 | 93분

출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의 유물을 단서삼아 추도문을 작성하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 '존 메이'. 단조로운 그의 일상은 그의 이웃인 '빌리 스토크'가 죽은 채 발견되면서 변화를 맞게 된다. 마지막 의뢰인인 빌리의 인생을 뒤쫓으면서 존은 '인생의 풍부함'을 알게 되는데...

이용방법 : 석수도서관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관) 내 PC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

전자책 - 역사/미술

서경덕 지음 | 엔트리 | 2013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한국사 주요 이슈 10가지에 대해 풀어낸 책. 독도, 위안부, 동북공정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들이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역사적 문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다.

이용방법

※ 스마트폰&태블릿PC - 「안양시 전자도서관」 앱(App) 설치 - 로그인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전자책



다산 정약용 - 18세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다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강연 | NSI(국가경영전략연구원) | 2014

다산 정약용이 살아온 시대상부터 그의 일생, 그가 펼치려고 했던 정책과 그의 사상까지 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의. 조선의 역사와 다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재 우리 시대까지 성찰해볼 수 있다.

이용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메인화면 하단 인문학강의



노인과 바다

오디오북 - 역사/시대

헤밍웨이 지음 | 책읽는동네 제작 | 2012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세계적 스테디셀러인 그의 책을 배우 이보영이 읽어주는 오디오북이다. 멕시코 만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 산티아고와 바다가 벌이는 실랑이를 이보영의 차분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이다.

이용방법

※ 스마트폰&태블릿PC - 플레이/앱스토어 - 오디언도서관 다운로드 - 로그인

※ 일반PC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도서관 - 오디오북

2014년 도서 대출 베스트

도서대출베스트란?

일반 및 어린이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빈도가 높은 도서를 분기별로 각 10권씩 선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

독서정보 발굴권수 : 일반도서 40권, 어린이도서 40권 총 80권

여 백

도서대출베스트

일반

일반도서



식객 25 : 소금의 계절

허영만 지음
김영사 [2009]

일반 594.51 허64ㅅ 25



설국열차

장마르코 로세트 지음
세미콜론 [2013]

일반 863 로54설



원씽

게리 켈러 지음
비즈니스북스 [2013]

일반 325.04 켈294ㄷ



대상인 3

노영우 지음
마루 [2006]

일반 813.6 노64= 3



D-100, 그 후?

박미연 지음
청어람 [2007]

일반 813.6 박38디



정글만리 3

조정래 지음
해냄 [2013]

일반 813.6 조74정 3



내 몸의 바운스를 깨워라

옥주현 지음
중앙엠엔비 [2013]

일반 517.52 옥76ㄴ



클로저

마이클 코넬리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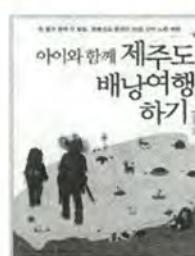
일반 843 코194클



적께 벌어도 짚는 여자의 습관

정은길 지음
다산북스 [2013]

일반 327.04 정67ㄷ



제주도 배낭여행하기

김정주 지음
플럼북스 [2012]

일반 981.199 김74ㅈ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한자도둑 5

유경원 글 ; 이태영 그림
서울문화사 [2010]

어린이 아 711.4 유14층 5



과학도둑 12

송도수 글 ; 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2]

어린이 아 408 송25층 12



테일즈런너 고고씽 7

스토리아팩트 글 ; 이정태 그림
주니어김영사 [2010]

어린이 아 813.8 스885= 7



내일은 발명왕 1

곰돌이 co. 글 ; 홍종현 그림
아이세움 [2011]

어린이 아 507.5 곰25층 1



[제로니모의]환상모험 15

제로니모 스틸턴 지음
사파리 [2012]

어린이 아 883 스888층 15

유아도서



교맹이 틀틀이와 공룡 알

토미 드 파올라 글 · 그림
비룡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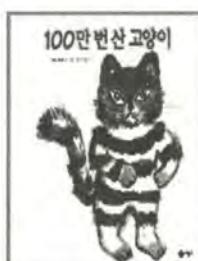
유아 유 808.9 비295층 162



배꼽 구멍

해씨기와 요시후미 글 · 그림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층 176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 글 · 그림
비룡소 [2012]

유아 유 808.9 비295층 83



구름빵 : 욕심 바구니

GIMC, DPS [공]글 · 그림
한솔수북 [2012]

유아 유 813.808 구29층 9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토미 드 파올라 글 · 그림
비룡소 [2012]

유아 유 808.9 비295층 100

도서대출베스트

일반도서



노란집

박완서 지음
열림원 [2013]

일반 813.6 박6519노



인생 수업

법륜 지음
휴 [2013]

일반 199.1 법2960이



잡담이 능력이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4]

일반 326.26 사68ㅈ



3배속 살림법

조윤경 지음
스타일북스 [2013]

일반 591 조66ㅅ



다윗과 골리앗

말콤 글래드웰 지음
21세기북스 [2014]

일반 325.04 글29ㄷ



일반도서

아크라문서

파올로 코엘료 지음
문학동네 [2013]

일반 879 코640아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정여울 지음
흥의 [2014]

일반 982.02 정64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쌤앤파커스 [2012]

일반 220.4 혜38ㄷ



이카루스 이야기

세스 고딘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2014]

일반 325.04 고28ㄷ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열린책들 [2014]

일반 863 베297ㅈ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한자도둑 5

유경원 글 ; 이태영 그림
서울문화사 [2010]

어린이 아 711.4 유14▶15



러시아에서 보물찾기

곰돌이 co. 글, 강경효 그림
아이세움 [2006]

어린이 아 909 세14▶9



(제로니모의)환상모험 15

제로니모 스틸턴 지음
사파리 [2012]

어린이 아 883 스888▶15



과학도둑 12

송도수 글 ; 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2]

어린이 아 408 송25▶12



테일즈런너 고고씽 7

스토리이팩트 글 ; 이정태 그림
주니어김영사 [2010]

어린이 아 813.8 스885▶7

유아도서



난 꼬마 토끼가 아니야!

그레고와르 솔로타레프 지음
비룡소 [2005]

유아 유 808.9 비295▶137



프란시스는 잼만 좋아해

러셀 호번 글 ; 틸리언 호번 그림
비룡소 [2009]

유아 유 808.9 비295▶65



배꼽 구멍

하세미와 요시후미 글 · 그림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176



막내 위니의 영망진장 휴가

밸리리 토마스 글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215



마법의 케이크

디디에 레비 글
비룡소 [2005]

유아 유 808.9 비295▶149

도서대출베스트

일반도서



탐정 갈릴레오

이가시노 게이고 지음
재인 [2008]

일반 833.6 히12탐



신과 함께

주호민 지음
애니북스 [2013]

일반 818 주95ㅅ



방황하는 칼날

이가시노 게이고 지음
바움 [2008]

일반 833.6 히12ㅂ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판돌이카페 슈퍼짠 지음
길벗 [2014]

일반 327.04 돈68ㄱ



1cm 첫 번째 이야기

김은주 지음
허밍버드 [2014]

일반 818 김670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욤 뮤소 지음
밝은 세상 [2007]

일반 863 위55사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지음
휴머니스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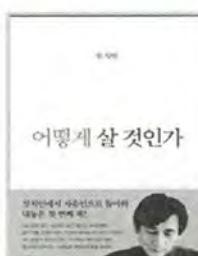
일반 911.05 박58ㅂ



엄마수업

법륜 지음
한겨레출판 [2011]

일반 598.1 법296ㅇ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아포리아 [2013]

일반 199.1 유58ㅇ



부자사전

허영만 지음
위즈덤하우스 [2005]

일반 327.8 허64ㅂ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수학도둑 24

송도수 글 ; 서정은 그림
서울문화사 [2011]

어린이 아 410.4 송25▶ 24



영어도둑 1

오래밖음 글 ; 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1]

어린이 아 740 오293▶ 1



환타지 영어소환 마법서 5

강철 글 ; 이태영 그림
Top space 칼라북스 [2008]

어린이 아 740 강83▶ 5



암호 수학

정재은 글 ; 김현민 그림
글송이 [2012]

어린이 아 410.8 미57▶ 3



과학도둑 12

송도수 글;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2]

어린이 아 408 송25▶ 12

유아도서



개구리 신부

안토니아바비 글;배지니아리 그림
한국톨스토이 [2013]

유아 유 808.9 쓰22▶ 49



펠레의 새 옷

엘사 베스코브 글 · 그림
비룡소 [2010]

유아 유 808.9 비295▶ 93



굴치덩이 거인

모리모토 준코 글 · 그림
한국톨스토이 [2013]

유아 유 808.9 쓰22▶ 61



로봇은 내 친구

장경원 지음 ;김정진 그림
한국톨스토이 [2013]

유아 유 031 재38▶ 32



멋대로 학교

미하엘엔데 글;플커프레드리히 그림
비룡소 [2010]

유아 유 808.9 비295▶ 139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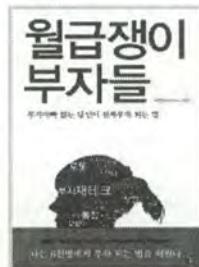
일반도서



어떤 하루

신준모 지음
프롬북스 [2014]

일반 814.7 신76○



월급쟁이 부자들

이명로 지음
스마트북스 [2014]

일반 327.04 01346월



닥치고 군대육아

김선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2014]

일반 598.1 김5419=



인생수업

법륜 지음
휴 [2013]

일반 199.1 법29601



노란집

박완서 지음
열림원 [2013]

일반 813.6 박6519노



덕혜옹주

권비영 지음
다산책방 [2009]

일반 813.6 권48덕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지음
창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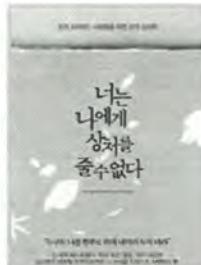
일반 813.6 신146엄



다윗과 골리앗

말콤 글래드웰 지음
21세기북스 [2014]

일반 325.04 글293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배르벨 바르데츠키 지음
웅진씽크빅 [2014]

일반 189.2 바297느



느리게 더 느리게

장사오형 지음
다연 [2014]

일반 189 장53느

도서대출베스트

어린이도서



수학도둑 28

송도수 글; 서정은 그림
서울문화사 [2012]

어린이 아 410.4 송25ㅅ 28



과학도둑 13

송도수 글; 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3]

어린이 아 408 송25ㄱ 13



영어도둑. 7

오래밝음 글; 양선모 그림
서울문화사 [2012]

어린이 아 740 김66ㄷ 7



(코믹)메이플스토리. 24

송도수 글; 서정은 그림
서울문화사 [2007]

어린이 아 813.8 송25메 24



내일은 실험왕 21

스토리 a: 홍종현 그림
아이세움 [2012]

어린이 아 407 공25ㄴ 21

유아도서



라푼젤

그림 형제 원작; 양지안 글
한국풀스토이 [2013]

유아 유 808.9 쓱22ㄷ 3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김향이 글 윤진현 그림
웅진다책 [2007]

유아 유 808.9 책192ㄷ 5



무시무시한 삼총사

하아원 오람 글
통큰세상 [2013]

유아 유 808.9 월27ㄷ



마녀 위니의 엉망진창 휴가

밸러리 토마스 글
비룡소 [2011]

유아 유 808.9 비295ㄷ 215



그림그리는어머니신사임당

서석영 글; 손지훈 그림
한국풀스토이 [2012]

유아 유 990.8 통877ㄷ 59

2013~2014 안양시립 도서관

독서정보 자료집 제9집

인쇄일 : 2015년 1월

발행일 : 2015년 1월

발행처 : **안양시립 석수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7번길

34호(석수동) ☎ 031-8045-6142

인쇄처 : 대동기획 ☎ 031-445-3902

제9집

안양시립도서관

독서 정보 자료집

2013~2014



석수 · 평촌 · 만안 · 호계 · 박달 · 비산 · 어린이 · 벌말도서관